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새벽, 힐은 퉁퉁 부은 손으로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깼다. 힐의 아침은 성에 사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한다.머리를 올려 묶고 성에 사는 종에게 지급되는 옷을 챙겨입었다. 덩치가 작은 힐에는 옷이 헐렁하다 못해 흘러내릴 지경이라 힐은 가죽질을 하다 남은 자투리 가죽과 실을 모아 얇은 끈으로 엮어 옷이 흐르지 않게 어깨와 허리, 허벅지 위를 몇 번 감아 꾹 묶었다.보기에는 멍청해 보이지만 성에서 가장 낮은 피가 흐르는 종이 좀 멍청해 보이는 게 뭐가 어떻다고. 어차피 높은 피들의 눈을 피해 성의 허드렛일을 맡아 하는지라 입기만 하면 상관없었다.“으. 추워.”힐은 조금도 바람을 막아내지 못하는 나무문을 삐걱 열고 복도로 나왔다. 힐이 사는 곳은 넓은 성 어느 구석에 박혀있는 첨탑 꼭대기.힐이 기억하는 가장 까마득한 순간에도 힐은 이곳에 있었다. 가죽 무두질을 하는 노인은 힐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했고 부엌 허드렛일을 하는 여자는 성 밖에서 갑자기 들어왔다고 했다.힐은 어느 쪽이건 상관없었지만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조금 쉴 수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다.계단을 내려가며 점점 숨이 가빠졌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던 입김도 덩달아 크게 보였다. 어둑한 복도와 계단을 하염없이 내려가면 보이는 검은 나무 문. 힐은 문 손잡이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당겨 문을 열었다.빡빡한 문이 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불씨가 어른거리는 아궁이 빛으로 오래된 부엌이 어렴풋이 보였다.힐은 재빨리 불쏘시개로 어른거리는 불씨를 크게 지피고 어젯밤 부엌 종들이 씻어 널어둔 그릇을 차곡차곡 정리해 그릇장에 넣었다. 힐이 더 어렸을 땐 그릇장 가장 높은 칸에 그릇을 잘 넣지 못해서 매일 혼이 나고 맞았지만, 그때보다 자란 후로는 그릇 정리로 혼이 나는 일은 없어졌다.“아, 안녕하세요.”“안녕.”힐이 그릇을 다 정리해 넣고 오븐으로 불씨를 옮겨 넣기까지 막 마쳤을 때 부엌 종 중 가장 젊은 여자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도 부엌 종들과 일찍부터 일하는 종들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다른 이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보다 일찍 허드렛일을 시작하는 힐보다는 아니지만.“노랑아 잠깐만.”여자는 힐을 노랑이라고 불렀다. 이곳 사람들은 상대방의 특징을 따와 아무렇게나 부르곤 했는데, 여자는 힐의 머리카락색을 따와서 노랑이라고 다정히 불러주곤 했다.여자는 힐의 어깨를 잡고 자신 쪽으로 휙 돌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밀었다. 투박한 빵 속에 잼이 약간 들어있는 잼 샌드위치였다.“엇. 어?”“뭘 멀뚱히 있어. 얼른 먹어버려. 너 단 걸 먹어본 지 언젠지도 모르겠지?”“흰 코 언니는요?”힐은 우물쭈물하며 빵을 받았다. 흰 코는 빵을 쥔 힐의 손을 힐의 입가로 끌어다 놓고 고개를 저었다.“그러면 안 돼. 일단 주면 먹어야 해. 자꾸 다른 사람 걱정이나 하니까 네 행동이 늦는 거야. 주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먹어.”흰 코는 짐짓 엄하게 말했지만, 힐은 그럼에도 먹지 않고 망설이다가 빵을 반으로 잘라 흰 코에게 건넸다. 느려터졌다, 일을 잘못한다고 모두 힐을 욕했지만 흰 코와 부엌일을 할 때만큼은 욕을 먹거나 맞지 않았다. 힐은 늘 흰 코가 좋았다. 흰 코는 힐의 하얗고 상처 가득한 손을 잠깐 보다가 입으로 빵을 덥석 받아먹었다.“누가 주면 바로 먹어치워. 이렇게.”“네.”힐은 키득키득 웃으며 빵을 먹었다. 안에 든 잼은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충분히 달아서 혀가 녹는 것 같았다. 힐과 흰 코는 몇 입 되지 않는 빵을 나눠 먹고 손과 입, 옷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부지런히 털었다.“이제 뭐하러 가?”흰 코는 부엌일만 전담하는 중이었지만 힐은 담당하는 일이 없어서 매일 하는 일이 달랐다. 성 여기저기로 불려다니며 온갖 허드렛일을 하고 다녀야 했다.“이제 바느질을 하러 가요. 아마 앞으로는 바느질만 하게 될 것 같아요.”힐은 입가를 한 번 더 손으로 훔쳐내며 말했다. 그저께 밤, 바느질하던 종 세 명이 파티 때 쓸 태피스트리를 꼼꼼히 만들지 못했다고 불려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종들은 그들이 불려가 죽었을 거라고 했다.손이 모자랐기 때문에 힐은 앞으로 바느질을 해야 할 거라고 어젯밤에 막 전해 들은 참이었다. 힐이 간략하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자 흰 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곱추 할멈도?”“네. 같이 불려 갔는데 아직 못 왔어요.”“할멈은 좀 봐주지. 높은 피들도 너무해. 할멈은 어차피 오래 못 살았을 텐데.”다정한 흰 코. 할멈을 좋아했구나. 힐은 멀뚱히 눈물을 손등으로 닦는 흰 코를 보다가 고개를 까닥이며 인사하고 부엌 밖으로 나섰다. 이제 바느질 방에 가야 한다.힐은 이 성에서만 자랐고 누군가가 힐의 곁에서 보살펴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상황을 살피는 눈치는 제법 있었지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어휘나 타인을 대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 그래서 종종 흰 코가 울 때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몰라 매번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버렸다.‘뱃속이 이상해.’힐은 명치 부분을 쓱쓱 문질렀다. 속이 이상하게 울렁이는 느낌이 들었다. 흰 코가 울 때마다 느끼는 메스꺼움. 눈도 빠질 것처럼 아팠다. 뜨거운 것 같기도 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도 힐은 자신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배가 아프다고 생각했다.잼이 너무 달았고, 자신같이 낮은 피가 감히 단것을 먹어 탈이 난 거라고.“안녕하세요.”힐은 넓은 성을 한참 걸어 바느질 방에 들어갔다. 바느질 방은 돌돌 말린 천과 색색의 실이 가득하고 높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환기하기엔 창이 좀 작았지만 해가 뜨고 달이 뜨면 햇빛, 달빛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다. 실과 천에서 나온 먼지 때문에 숨쉬기는 조금 어려웠다. 쿨럭거리는 소리가 가끔 힐의 귓등에 내려앉았다.“뭐여. 굼벵이잖아.”손이 곱은 노인이 수를 놓다가 고개를 들어 힐을 보고 혀를 끌끌 찼다. 사람이 셋이 죽어버렸는데 하필 느려터진 녀석이 올 건 뭐람. 이러다가 시간을 못 맞추면 우린 다 죽는 건데. 노인이 투덜대는 소리를 들었지만, 힐은 못들은 체 했다.‘말대답해봐야 밉게만 보일 뿐인걸.’그 때 노인의 등 뒤에 가려져 있던 중년 여자가 팔꿈치로 노인을 툭 치며 힐에게 알은 체 했다.“거 참. 꿍얼거려 뭐할 거요? 영감 헛소리 말고 저리 가요. 느림보! 넌 이리 와.”중년 여자는 바느질 방에서 도안을 짜는 일을 했다. 뺨에 곰보 자국이 있어 원래는 모두 곰보라고 불렀는데, 그녀가 짠 도안으로 옷을 만들면 옷이 안 예쁘다고 끌려가는 일이 없어서 이제는 다들 대장이라고 불렀다.대장은 힐을 천 더미 앞으로 데려가면서 귓가에 속닥였다. 영감은 바느질 방에서 가장 오래 산 종인데, 곱추 할멈이 끌려간 뒤부터 부쩍 한숨이 늘고 혼잣말이 많아졌다고. 영감이 하는 이야기를 맘에 담아두지 말라고.힐은 살포시 고개를 끄덕였다.‘영감은 크게 말하지 않으면 잘 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살 이야기하는구나.’힐은 대장이 조금 좋아졌다. 대장은 힐에게 커다란 가죽 한 장을 주고는 천을 가죽과 같은 크기로 전부 자르라고 했다. 둘둘 말린 천을 펼치는 일부터 해야 했는데 천은 얼핏 봐도 힐의 키보다 두 배는 큰 수납장에 빼곡히 쌓여있어서 힐은 서둘러 천을 수납장에서 빼냈다. 수납장에 자른 천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을 만들고 천을 자른 다음 쌓아두기를 반복할 작정이었다.힐이 수납장의 아래 세 칸을 모조리 빼내는 동안에도 영감은 끝없이 혼잣말했다. 힐은 듣지 않는 척하면서 영감의 말을 들었다.이런 말들은 잘 듣는 편이 좋다. 힐은 종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었다가 화를 피하는 데에 쓰곤 했다. 가령 서로 싸운 종들 틈에는 가지 않고, 성의 바깥에서 사람이 오는 곳은 피해 다니는 식으로.“입 좀 다물어요. 그러다가 바깥사람들이 오면 영감은 끌려가 죽소.”“허! 죽는 게 뭐 대수여. 나는 어차피 올겨울은 못 넘어. 이러나저러나 죽는데 높은 양반들이 듣는다고 뭐 달라져?”성의 겨울은 가혹하다. 차가운 돌벽은 뼛속까지 얼어붙게 하고 낡아빠진 문과 창문은 바람도 잘 막아주지 못한다. 겨울이 오면 어린애와 노인들이 무수히 죽어나갔다. 겨울이 되면 주에 한 번씩 바깥에서 사람들이 와 시체를 거둬갔다. 종들은 그 시체를 어디 묻어주는 게 아니라 마물들을 위한 연회에서 먹을 거라고 수군대곤 했다.“달라질걸요. 영감 혼자 죽는 거랑 다 죽는 거랑 어떻게 똑같담? 문은 닫고 떠들어요. 오늘 바깥에서 이리로 옷 주문서 들고 온다던데.”영감의 흥분한 목소리가 바깥까지 쩌렁쩌렁 울렸을까. 힐은 어깨를 움츠렸다. 바깥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가 들키면 그 자리에 있는 종들은 모두 죽는다고 했다.성은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서 어느 층에서든 크게 소리를 지르면 복도와 계단을 타고 성이 온통 웅웅 울린다. 가끔 종들이 죽어나갈 때 지르는 비명도 그랬다. 온 성을 웅웅. 힐은 그때마다 발끝부터 손끝까지 오싹해졌다.힐은 힐끔 문가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봤다. 발끝부터 어깨까지 힐끔대면서. 발가락 끝부터 발목까지 연분홍 천으로 칭칭 감고 속이 비치는 얇은 천을 여러 겹 덧대서 빗장뼈부터 허벅지 중간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 몸은 전부 보이게 한 옷을 입고 있었다.‘와, 흉터가 하나도 없잖아? 예쁘다.’힐은 몸에 흉이 지지 않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용기를 내서 얼굴도 재빨리 훔쳐봤는데 얼굴도 새하얀 게 꼭 높은 사람인 것 같아서 가슴이 덜컹거렸다.‘높은 사람은 보면 안 돼. 마주치면 안 돼.’머릿속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서 힐은 살금살금 움직여 천 더미 뒤로 슥 숨으려고 했다. 대장이 팔을 붙잡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지만.“거봐요. 영감. 밖에 다 들리나 보네. 그만 꿍얼거려요. 영감 덕에 나랑 이 어린 것까지 죽겠구만.”대장은 힐의 팔을 붙들고 살짝 등을 토닥거렸다.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굼벵이가 놀랐네. 너 종들 말고 사람 본 적 없구먼?”영감이 문가에 서 있던 여자를 끌어당겨 방 안으로 들이고 문을 살살 끌어당겨 닫았다. 끼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코웃음 섞인 쇳소리 같은 영감의 목소리에 힐은 고개만 끄덕였다.“바느질 방에는 종만 오는 게 아니야. 주문서를 가지고 바깥사람들도 오고 이 애처럼 무희들도 와.”대장은 손가락으로 여자를 콕 집어 가르키며 ‘무희’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다. 아마 힐이 처음 듣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겠지. 흰 코도 그랬다. 힐이 처음 듣는 단어를 말할 땐 유독 크게, 천천히 말했다. 고작 반나절 정도 같이 있었는데 대장에게서 흰 코를 발견할 때마다 힐은 대장이 점점 좋아졌다.“영감. 나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거 참… 말해보슈.”영감은 한참을 듬성듬성한 턱수염을 쓰다듬다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영감은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라서 늘 젊거나 어린 종들에게 사납게 굴었다. 힐은 영감이 꽤 고분고분하게 구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다가 무희가 종들보다 높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해했다.“내 옷에 수를 놔줘요. 여기 허리끈 아래에 손가락 두 마디만큼.”대장은 무희 손가락으로 집은 곳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렇게 조그만 거면 영감 혼자서 십 분이면 다 할 수 있을 테니 태피스트리를 다시 만드는 데에 지장 없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힐에게 어서 마저 천을 자르라고 말하고 등을 툭 밀었다. 힐은 다시 천을 자르기 위해 넓은 테이블 앞으로 움직였다.“그 정도라면야. 그려, 뭘 원하슈. 꽃? 새?”영감은 곱은 손가락을 펴고 접길 반복하면서 무희의 옷과 색실을 번갈아 살폈다. 수를 놓을 실을 찾는 듯이. 영감이 묻자, 무희는 환하게 웃었다.“이름이요. 내 이름을 놔줘요.”보라색 눈망울이 예쁘게 접혔다. 분홍색 입술이 그리는 곡선이 참 예뻤는데 영감과 대장의 표정은 대번에 희게 질렸다.“...나가! 나가요, 어서!”“잠깐, 만요! 대장 밀지 말아요!”대장이 대번에 달려들어 무희의 팔을 잡고 문밖으로 끄집어내고는 문을 닫았다. 무희는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렸는데, ‘문 열어요!’, ‘수를 놔달라니까!’라는 말만 하고 ‘이름’이라는 단어는 말하지 않았다. 대장과 영감도 ‘당장 가! 그런 건 못한다고!’라고만 말했다. 힐은 눈치껏 ‘이름’은 금기구나 하고 아무것도 못들은 체 천만 잘랐다.“미친년 같으니. 누굴 경을 치려고… 대장, 무희 단에 다녀와야겠어. 거기 계집들한테 그딴 소리 말라고 단단히 말하고 와.”영감이 대장에게 속삭이고 대장은 고개를 저었다.“됐소. 가봐야 소문만 나요. 조용히 구는 게 다 사는 길이야. 저 애가 또 오면 방에 못 들어오게 해요. 느림보 너도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바느질 방 앞에 있으면 없는 척하고.”“말 걸어도 대답하지 말아. 알아들었어?”힐은 이름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속으로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영감과 대장은 아직 해가 다 지기도 전인데 벌써 지쳐 보였다.셋은 입을 꾹 다물고 해가 다 저물 때까지 묵묵히 일했다. 영감은 아침부터 잡고 있던 수를 다 놓고 가죽끈 끝에 물을 발라 나무막대로 비비며 마감 작업을 했고, 대장은 힐이 잘라놓은 천 중 색이 푸른 것만 조금 추려내 이리저리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힐은 처음에 꺼내둔 천을 모두 자르고 넣은 뒤, 수납장에서 천을 새로 끄집어냈다.어느덧 해가 다 져서 달빛이 방 안에 비추자, 영감은 허리를 펴며 앓는 소리를 냈다.“어디, 보자.”영감이 힐에게 손짓해서 힐은 재빨리 테이블 앞에서 물러섰다. 힐은 계속 천을 이리저리 옮기고 자르느라 팔이 떨어질 듯 아팠다. 일은 매일 하는데도 힐의 작은 몸은 일에 익숙해지는 법도 없이 밤이 되면 어김없이 저리고 아팠다. 영감은 힐이 잘라서 쌓아둔 천과 잘라야 할 천을 손으로 쓱쓱 헤아리다가 혀를 쯧 차고 힐의 머리통을 내리쳤다.“느려터진 녀석! 아직 반도 못하면 어째.”힐은 머리가 휙 돌아가는 게 좀 아팠지만, 얌전히 있었다. 영감은 한참을 더 궁시렁 대고 힐의 머리를 툭툭 밀거나 때렸다. 힐은 그래도 얌전했다.다른 종들에 비해 한참 작은 힐은 손도 느려서 다른 종들이 하루면 할 일을 이틀에서 나흘까지 걸려야 다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주 혼나고 맞았는데 흰 코는 어린 종들은 원래 그렇다고 자라면 일도 빨라지고 혼나지도 않을 거라고 했다. 흰 코가 그렇게 말해준 후로 혼날 때면 힐은 ‘얼른 자라야지.’ 생각하곤 했다.“영감, 이제 애는 보내야 해요.”“알고 있어. 옛다. 받아가. 여기 끝을 다듬어 와라.”창문 밖에 걸린 달을 슥 보고 대장이 영감에게 말했다. 영감도 마침 구시렁대길 멈추고 자르기만 해둔 가죽끈을 한 움큼 쥐어 힐의 손에 쥐여준 참이었다.‘아! 곧 바깥사람들이 주문서를 주러 온다고 했지.’영감은 가죽끈 하나를 집고 자른 단면에만 물을 슬쩍 바른 다음, 나무토막의 매끄러운 면으로 단면을 쓱쓱 문지르는 것을 보여 주곤 힐에게도 한 번 해보라 시켰다. 힐도 가죽 마감 질은 몇 번 해봤던 터라 곧잘 따라 했다.‘자른 단면에만 물이 닿아야 해.’힐은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 가죽끈 가장자리에 조심조심 집중해서 바르고 나무토막으로 단면을 문질렀다. 힐이 잘 따라 하자 영감은 나무토막 몇 개와 물을 담을 수 있는 작은 나무 그릇을 함께 챙겨주었다.“내일 이리 올 때 다 해서 가지고 와.”힐의 품 가득 재료가 쌓였다. 대장이 초조한 듯 계속 창을 바라보면서 ‘영감, 빨리.’라고 낮게 재촉했다. 대장도 영감도 잔뜩 긴장한 낯으로 초조해 보였다.힐은 문을 열고 나와 가장 꼭대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걸음을 뗐다. 등 뒤에서 대장이 “뛰어가!”라고 말하는 소리가 따라붙었다. 힐은 품에 꼭 끌어안고 있는 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짧은 다리로 열심히 복도를 달리고 계단을 올랐다.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아침보다 심하게 입김이 나왔지만 한참을 쉬지 않고 뛰었더니 몸은 더웠다. 힐의 방은 종들도 오가지 않을 만큼 구석진 첨탑 꼭대기라서 조금도 인적이 없었다. 그 고요함에 힐은 안도했다.‘바깥사람들은 여기 안 올 거야.’힐은 그 고요함에 비로소 안도하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한 층만 더 계단을 오르면 힐의 방이라 조금 여유롭게 걸었다.“안녕?”계단을 걸어 올라가는데 바느질 방에서 쫓겨났던 무희가 힐의 방문 앞에 기대앉아 있다가 인사를 건넸다. 힐의 몸이 단박에 굳어버렸다. 무희는 천천히 일어나 밝게 웃었다. 창틈으로 새어드는 달빛이 무희의 보랏빛 눈동자에도 내려앉았다.힐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으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만 힐이 살아 움직이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다. 무희는 다시 한 번 빙긋 눈웃음 지었다. 달빛을 모두 부숴 눈가에 흩뿌린 듯 아름다웠다.“...”힐은 조용히 다시 움직여 무희를 지나쳐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문이 크게 삐걱대면서 열리자, 무희는 손을 뻗어 먼지투성이인 힐의 손을 꼭 붙잡았다. 서늘한 손은 힐이 생각한 것보다는 따뜻했다.“잠깐. 너 바느질 방에서 일하는 아이 맞지?”“...네.”힐은 잡힌 손을 빼내고 싶었지만 오랜 시간 타인을 거슬러 본 적 없는 힐은 얌전히 붙잡혀 있었다.“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내 옷에 수를 놓아줘.”“저는 수를 놓을 줄 몰라요.”“거짓말.”힐을 붙잡은 무희의 손이 풀렸다. 힐은 재빠르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잠금쇠가 없는 문이라서 혹시라도 무희가 열지 못하도록 손잡이를 꼭 잡았다.다행히도 무희는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똑똑 두드리고 그 나긋한 말투로 힐을 어르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힐에게는 그마저도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만.“종들은 다들 수를 놓을 줄 알잖아.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그럼 직접 놓으시면 되잖아요.”“나는 수를 놓을 줄 몰라.”‘낮은 피가 아닌가?’문득 든 생각에 힐은 숨을 들이켜고 긴장했다. 힐이 아는 세상에서 낮은 피들은 모두 일을 할 줄 안다. 머릿속에서는 바깥사람들을, 높은 피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경고음이 다시금 울렸다.“바깥 분이신가요?”사정없이 떨리는 목소리가 영 형편없이 흘러나왔다.“음. 맞는데, 아니야.”무희는 문가에 기대 서 있다가 다시 바닥에 풀썩 주저앉으며 할 말을 골랐다. 바느질 방에서 본 빗자루처럼 덥수룩한 아마 색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건 대장과 영감의 태도에서도 알 수 있었다.무희는 겉보기엔 흰 코보다 어렸지만, 대장이나 영감보다 이 세상에 대해 많이 알았다. 이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해지는 곳.무희는 같은 낮은 피라도 가장 아래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이 성의 종들보다 많은 곳을 갈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높은 이들이 말하는 의무나 권리 같은 것은 모르지만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구분했다.“나는 이 성 바깥에서 왔어. 그렇지만 네가 생각하는 높은 분은 아니야. 음, 높은 분들의 애완동물 같은 거야.”무희는 천천히 말을 고르며 이야기했다. 종들이 일하듯 무희들은 어릴 적부터 높은 피들을 모시기 위해 말을 배우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춘다는 것, 무희들은 가끔 이 성에 와서 허드렛일을 맡긴다는 것, 자신이 어디를 가봤고 이 성의 바깥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은 것들이었다.힐은 문에 기대앉아서 그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들었다. 힐은 바느질 방에서 영감과 대장이 격하게 반응했던 ‘이름’이 뭔지 물어보고 싶었다.‘하지만 그걸 내가 알아도 될까?’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가장 낮은 종들은 몰라야만 하는 게 많다. 종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에서도 아래에 있는 힐은 몰라야 하는 걸 알았을 때 더 많이 혼나고 맞았던 것을 떠올렸다.“너는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불러? 아까 대장은 느림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넌 느림보야?”“굼벵이나 느림보라고 불러요.”“나는 막대발이야. 춤출 때 발이 막대기 같아서. 더 어릴 때는 다른 게 있었는데 까먹어 버렸어.”막대발. 연분홍 천으로 둘러싸인 발이 다시금 생각나서 힐은 속으로만 그 발을 또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퍼뜩 정신이 들어 가죽끈을 주워들고 영감이 맡긴 일을 하기 시작했다. 얼른 다하지 않으면 내일 또 혼날 테니 어서 시작해야 했다. 다행히 양이 많지는 않아서 얼른 하면 조금 잘 수 있을 것 같아 기뻤다.“아, 달이 꼭대기에 있네. 아쉽지만 오늘은 가볼게. 내일 또 와도 돼?”한참 손을 부지런히 놀리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막대발이 창 밖으로 하늘을 보고 몸을 일으켰다. 추운 곳에 있다 보면 몸이 얼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힐이 입는 옷보다 한참은 더 얇은 옷으로 춥지도 않은 지 막대발의 행동은 자연스러웠다. 힐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막대발은,“또 올게.”라고 말하곤 발소리도 내지 않고 가버렸다. 막대발이 문가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문틈으로 새는 찬 바람과 말소리가 사라진 적막으로 힐은 막대발이 가버렸음을 알았다. 어쩐지 방 안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다 빠져버린 것 같아 힐은 잠깐 손을 멈추고 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일하고 곧 잠들었다.힐의 하루는 평소와 같이 일찍 시작했다. 어제 열심히 마감 질을 한 가죽끈과 마감재료들을 챙기고 곧장 바느질 방에 가서 자는 영감을 흔들어 깨웠다.“음, 그래. 어여 놓고 가. 올 때 대장하고 내가 먹을 걸 가져와. 우린 오늘 종일 여기 있어야 하니 하루 먹을 걸 달라고 혀고.”영감은 근처에서 몸을 웅크려 자는 대장을 발로 툭툭 건드려 깨우고 거대한 수틀 앞에 앉았다. 힐은 잠깐 그를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기 전에 후다닥 부엌으로 갔다.‘흰 코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아쉽게도 흰 코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른 구역에서 일하는 종끼리는 원래도 자주 보기 어려워서 힐은 금방 단념하고 음식물을 챙겨 바느질 방으로 향했다.종이 셋이나 빈 바느질 방은 아주 바빠서 힐은 혼나고 맞으면서도 계속 손을 놀리며 일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일을 하다 보니 금방 밤이 와서 힐은 또 손에 일감을 잔뜩 쥐고 첨탑 꼭대기 방으로 돌아왔다.“안녕?”어제와 똑같은 모양새로 막대발이 방문 앞에 있었다. 힐은 속이 울렁거렸다. 어젯밤에 막대발이 가버릴 때 사라진 따뜻한 공기가 다시 방안에 가득 차있을 것 같아서. 힐은 고개만 꾸벅 숙였다가 방으로 휙 들어갔다. 어제와는 다르게 막대발은 힐을 잡지 않고 방에 들어가도록 뒀다.‘배가 이상해.’힐은 가슴부터 배까지 손으로 쓰다듬다가 자꾸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목이 간질간질해서 목을 쓰다듬길 반복했다. 소리를 꽥 지르면 간지러운 게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어쩌면 올겨울에는 저도 죽으려나. 힐은 죽는 건 싫다고 생각하며 영감과 대장이 쥐여 준 가는 실을 세 가닥씩 꼬고, 세 가닥씩 꼰 것을 다시 다섯 가닥씩 모아 꼬는 일을 시작했다.“너는 종들 말고 만난 사람이 없지?”밖에서 막대발이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힐은 고개만 끄덕였다. 막대발은 힐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마치 본 것처럼 말을 이어갔다.“바깥엔 많은 사람이 있어. 낮은 피인데 종이 아닌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높은 피를 가진 귀한 분들도 계셔. 음,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도 있지. 동물도 있고 괴물도 있고 마물님도 계시고.”막대발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힐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나, 나이 든 종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도 있었다. 막대발은 자신 같은 무희들은 높은 피를 가진 귀한 분과 아름다운 마물님들을 위해 있다고 말했다.이 세상은 마주치기만 해도 사람들의 살이 썩어들고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징그러운 괴물이 가득한데 높은 피를 가진 귀한 분과 아름다운 마물님이 괴물을 죽여서 사람들을 지켜주시니, 낮은 피를 가진 이들은 고귀한 그분들을 편히 해드리려 일을 하고 즐겁게 해드리려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고.“무희들은 말이야, 음. 우리는 높은 분들이 우릴 골라주셔서 무희가 되는 거야.”“종들은요?”“글쎄? 종들은 종들이 알지 않을까? 나는 종들이 왜 종이 되는지 몰라.”힐은 막대발의 말을 듣다가 간혹 궁금한 것을 묻기도 했다. 어젯밤엔 두려웠지만, 오늘은 묻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아서. 막대발은 아는 것은 대답을 해주는 편이었지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하곤 했다.“우리는 단맛이 난대. 살을 핥아보면 말이야. 내 팔을 나도 핥아봤는데, 난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았어. 다른 무희 애 손도 핥아봤는데 그냥 짜더라. 으음, 그렇다고 높은 분들이 우릴 핥아보는 건 아니야. 그냥 단 냄새가 나면 무희로 골라주시는 거야.”막대발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키득거리다 다시 자기 팔을 핥아봤다. 여전히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아마 높은 분들은 혀가 다른지도 모른다. 힐도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손등에 혀를 살짝 가져다 댔다. 흙먼지 같은 맛이 났다.‘으. 난 이상한 맛이 나서 종인가 봐.’힐은 ‘퉤’ 뱉어내는 시늉을 몇 번 하고 일을 계속했다. 막대발은 무희들이 배우는 말에 대해 꽤 길게 이야기해줬다. 고운 말씨를 쓰는 법이나 높임말 같은 것들을. 그리고 달이 높이 뜰 때쯤 또 오겠다고 말하곤 돌아갔다. 힐은 오늘은 조금 더 오래, 찬 바람이 새어드는 문을 바라봤다.막대발이 힐을 찾아온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보름 동안 힐과 막대발은 매일 밤 만났다. 막대발은 혼자서도 말을 잘했고 힐은 잘 들었다. 듣다가 궁금하면 막대발에게 물었고 막대 발은 여전히 모르는 것은 제멋대로 대답하고 아는 것만 열심히 알려주었다.“있잖아, ‘이름’이 뭔지 알아?”힐은 대답하지 않았다. 궁금했지만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막대 발은 힐이 침묵하는 게 익숙한 듯 이름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이름은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야. 네가 느림보고 굼벵이인 것처럼, 내가 막대발인 것처럼.”힐은 가죽에 바느질 구멍을 뚫는 일을 하다가 손을 멈췄다. 막대 발은 힐이 일할 때 들리는 송곳 소리가 멎은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체 말을 이었다.“이건 내가 높은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낮은 피는 이름이 없대. 우릴 부르는 말이 있지만, 누구나 다르게 부르면 그건 이름이 아니라고 했어. 나를 부르는 이름은 딱 하나여야 한다고. 있지, 나는 이름이 가지고 싶어.”힐은 목이 타는 것 같았다. 더는 안돼. 더 알아도, 더 들어도 안된다고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그만 듣고 싶어.’막대발은 힐이 어떻게 생각하든 설명을 계속했다.“그런데 이름은 스스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래. 음, 뭐라고 하셨더라… 아! 높은 피만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 이름을 쟁취할 수 있으니 오로지 높은 피만 자신의 이름을 안 대.낮은 피는 내려주는 운명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 나는 운명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낮은 피들은 남이 이름을 줄 수 있단 걸 거야.”막대 발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왜 이름을 가지고 싶었는지를 이야기해줬다. 힐은 운명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막대 발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힐은 아주 까마득한 기억을 더듬었다.온통 컴컴한 곳. 지금 힐이 앉아서 일하고 있는 이곳이 그때는 지독하게 어두웠다. 힐은 그 어둠 속에서 눈을 깜박이고 몸을 꼼지락대면서 봤던 어두운 밤하늘을 기억했다. 달도 보이지 않았던 밤.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만큼 작았지만, 생각은 할 수 있었다.조그맣고 무력했던 그 때. 어두컴컴한 하늘을 보며 하염없이 반복했던 생각.‘나는 힐이야.’그 때를 떠올리자 힐은, ‘힐’이 뭔지 몰랐던 힐은 자신의 이름이 ‘힐’임을 알았다.‘아직 알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직은 더 기다려야 했는데.’힐의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때가 아니었다고, 너무 빨리 알아버렸다고 힐이 이해할 수 없는 비명을 질렀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힐은 가죽에 눈물이 닿지 않도록 재빨리 어깨에 얼굴을 비벼 눈물을 닦았다.힐이 눈물을 닦는 동안에도 막대발은 계속 이야기를 했다. 힐은 잠깐 이야기를 놓쳤지만 이내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 너도 알지? 곧 마물님들을 위한 연회가 열려. 난 그 연회에 나가야 해.”“연회요?”“파티말이야!”힐도 파티가 뭔지 안다. 흰 코에게 들은 적 있었고, 막대발의 긴 이야기 속에서도 몇 번이나 나왔다. 힐이 아는 파티는 괴물을 없애주시는 감사한 마물님들을 위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먹을 것을 잔뜩 마련해두는 것이다.“나는 이번에 마물님들을 위해 춤을 춰야 해.”막대발은 딱 한 번, 마물님을 위한 연회에 간 적이 있었다. 춤을 추러 간 것은 아니고 어느 높은 분이 하루를 즐길 무희를 필요로 할지 몰라 예비용으로 불려 갔다.그리고 그날 춤을 마친 무희들이 마물님들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봤다. 막대발은 눈을 꼭 감았다. 눈이 멀어 버릴 듯 아름다운 마물님들이 상냥한 웃는 낯으로 무희의 사지를 찢어 흐르는 피로 목을 축이고 살점을 씹었다.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죽어나간 여자들은 막대발과 함께 살던 사람들. 덜덜 떠는 막대발이 비명을 지르려고 하자, 어느 하인이 쏜살같이 막대발의 입을 틀어막고 파티장 밖으로 끌어내 주었다.‘멍청한 것. 이곳에서 비명을 질러 분위기를 망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죄 죽을 것도 모르고.’하인은 엄한 목소리로 막대발에게 무희들이 있는 성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막대발은 돌아가지 않고 버티고 서서 하인에게 물어보았다. 무희들은 원래 다 춤을 추고 나서 잡아먹히느냐고. 하인은 잠깐 망설이다가 비웃듯 말했다.아니. 저 무희들이 마물님들 맘에 들지 않아서 잡아먹힌 거야.그럼 마물님들 마음에 들면 안 죽나요? 그래. 대신 장난감이 되겠지.하인은 막대 발의 옷을 들춰 몸 이곳저곳을 살펴보다가 이내 실실 웃고 떠나버렸다. 무희들은 그러기 위해 생채기 하나 없이 길러지는 거지. 가지고 놀고 잡아먹으려고. 콧노래처럼 흥얼거리는 말소리가 막대발은 유난히 아팠다.막대발은 그날 이야기를 짧게 힐에도 들려주었다. 힐은 손을 천천히 움직여 일하면서 막대발의 이야기를 들었다.‘막대발은 죽는구나.’힐은 죽음이 뭔지 알고 있다. 종들은 파티 때 몇 명씩 불려 가서 파티장 바닥 돌과 창을 깨끗하게 닦았다. 힐은 워낙 작고 느려서 파티장으로 갈 종을 추릴 때 거론된 적 없었지만, 일을 잘하는 흰 코는 몇 번이나 거론된 적 있었다.그녀는 늘 그곳에 불려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파티장으로 간 종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못했으므로. 그게 힐이 알고 있는 죽음이다. 무서운 것,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가끔 죽은 이들을 이야기하다가 점점 까먹고 그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힐은 자기 죽음이 두려운 만큼 막대발의 죽음이 겁났다.막대발이 돌아갈 때마다 느끼는,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찬 바람이 힐의 머릿속에 눌어붙었다. 참을 수 없이 추워서 힐은 문을 열고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막대발을 쳐다봤다.“죽고 싶지 않아. 마물님의 장난감이 된다고 해도 살고 싶어.”아름다운 흰 얼굴, 맑은 눈 가득 고인 괴로운 눈물. 잔뜩 우는 낯. 힐은 흰 코가 울 때처럼 뱃속이 이상했다. 울렁거리고 눈이 빠질 것 같이 뜨거웠다. 힐의 살갗 속에 가시 같은 게 잔뜩 난 것처럼 온몸이 따끔거렸다. 우는 막대발 앞에서 힐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막대발은 힐을 덥석 안았다. 살이 닿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힐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막대발은 한참 힐을 끌어안고 울다가 시간이 늦었다며 서둘러 돌아갔다.힐은 처음으로 막대발이 뛰어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봤다. 힐이 달릴 때는 쿵쿵 발소리가 났는데 막대발이 달릴 땐 하나도 나지 않았다. 사뿐사뿐 뛰는 뒷모습 위로 긴 머리카락이 너울댔다. 따끈한 막대발의 품이 멀리 사라진다. 힐은 자신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다. 아무리 끌어안아도 몸을 감싼 막대발의 온기가 사라지자 겨울이 들이닥친 듯 추웠다.‘막대발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마물님들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막대발이 마물님들 마음에 쏙 들지? 힐은 방문 밖에 서서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지다가,‘생각하지 마! 시키는 대로만 해. 자꾸 생각하니까 행동이 굼뜬 거라고.’퍼뜩 흰 코의 잔소리가 떠올라 후다닥 방 안으로 돌아갔다. 힐은 종. 종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시키는대로 할 뿐. 힐은 영감과 대장이 안겨 준 일을 마무리하고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이부자리 안으로 쏙 들어갔다. 잔뜩 울어 눈이 피곤했다. 잠시 눈을 감고 있자니 금방 잠에 빠졌다.힐은 그날 밤 꿈을 꾸었다. 힐과 똑같은 여자아이와 마주 보고 앉아 있는 꿈.“나는 막대발이 죽는 게 싫어.”힐은 맞은 편에 앉은 아이의 눈을 빤히 보며 이야기했다. 막대발이 해줬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 지, 또 막대발이 흰 코만큼 좋다는 이야기를.“네가 싫으면 나도 싫어. 나는 너잖아.”아이는 힐의 말에 웃으면서 맞장구 쳐주었다. 힐은 자신도 저렇게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흰 코나 몇몇 종들은 잘 웃고 이야기도 잘했다. 자신은 흰 코나 막대발을 빼면 인사하는 게 고작인데.“왜 막대발은 이름을 갖고 싶을까?”“아까 막대발이 이야기해줬잖아. 안 들었어?”“으응. 까먹어버렸어.”“잘했어. 바보 같은 소리였다고. 멍청한 막대발.”아이는 따분하단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막대발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한 힐은 다른 주제를 입에 올렸다.“있잖아, 나는 이름이 있어.”아이는 지루하다는 듯 고개를 뒤로 기울이고 다리를 까딱거리다가 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힐과 코가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 타인이 그랬다면 겁이 나서 뒤로 물러났겠지만 아이는 별로 무섭지 않았다. 힐은 태연하게 말을 계속했다.“내 이름은 히, 읍!”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힐의 신을 틀어막았다.“쉿. 안돼. 아직 이야. 그건 입에 올리지 마. 이름이라는 말도 네 이름도 전부.”아이가 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둘밖에 없는 곳에서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겠다는 듯이.“노랑아. 너는 노랑이야. 이름 같은 건 잊어버려.”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막은 아이의 손을 떼어내며 물었다.“왜 잊어버려야 해?”“아직 너한텐 필요 없으니까.”“...그럼 막대발한테 주면 안 돼?”아이는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고 양손으로 힐의 양 뺨을 ‘챱!’ 소리가 나게 쥐고 사정없이 늘렸다.“바보. 안돼. 그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흥, 안 되겠다. 넌 쓸데없는 말을 할 것 같으니까 네가 다 클 때까지 이건 다 잊어버려. 더 크면 내가 직접 알려줄게.”“뭐를?”“그것도 몰라도 돼. 이제 가.”아이는 멍한 힐의 표정을 보면서 으, 나랑 똑같은 얼굴로 그런 표정 짓지 마. 라고 말하고 힐을 떠밀었다. 방금까지 단단하던 바닥이 쑥 꺼지면서 힐은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아이는 잠으로 떨어지는 힐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다가 머리를 쓸어올렸다.“미안하니까, 하나 알려 줄게. 이건 기억해도 돼. 막대발에게 물건을 만들어 줘. 몸에 지닐 수 있는 걸로. 막대발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아이는 힐과 있던 검은 공간 위로 어스름처럼 검은 밤이 빛나는 걸 잠깐 올려다봤다.“힐은 곧 느림보나 노랑이가 아니라 힐이 될 거야. 좀 더 자라 어른이 되면.“황량한 땅 위로 검은 물이 부글부글 끓었다. 숲의 나무들은 성한 데 하나 없이 바싹 말라 스산함만 더 했다. 밟는 곳은 온통 오물처럼 질척한 진흙뿐인 곳.“이 이상 나가는 건 어렵겠군. 돌아간다.”페일은 죽은 나무 숲 너머, 검붉은 안개가 스멀스멀 퍼지는 곳을 바라보며 주먹 쥔 손을 올려 손바닥을 앞으로 폈다가 뒤로 뒤집었다. 페일이 보낸 귀환 수신호가 알림 병들의 손을 타고 부대전체로 퍼졌다. 페일은 말을 몰아 앞으로 달렸다. 페일의 뒤로 부관 셋이 바짝 따라붙었다.“페일님! 소란 강 길을 따라가면 전에 보고받았던 소형 마물 서식처입니다. 그리로 갈까요?”“수는 얼마나 되지?”“한 달 전에 둘이었으니 지금쯤이면 네다섯은 될 겁니다.”페일은 쯧 혀를 찼다. 마물들은 번식이 빨라서 수가 적을 때 처리하지 않으면 금세 불어난다. 불어난 마물은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잡아먹고 물과 땅을 오염시켰다. 이 끈적거리는 땅과 탁한 강처럼.“머크, 부대와 함께 왕국으로 가라. 론, 실리는 나와 마물을 토벌한다.”페일은 빠르게 달리다가 속도를 늦췄다. 페일에게 보고하던 부관, 머크는 주먹을 가슴 앞으로 쥐어 고개를 끄덕이고는,“귀환 후 제가 왕께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까?”“붉은 안개에 대해만. 확산 속도가 빨라서 파보르프 성까지 석 달 안에 번질 것 같다고 전해.”페일은 턱으로 안개가 있던 곳을 슬쩍 고갯짓했다. 한 줌 바람도 불지 않는데도 검붉은 안개가 스멀스멀 움직였다. 살아있는 것처럼 꾸물거릴 때면 머리털이 쭈뼛 설만큼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페일은 공포는 본능이라고 생각했다. 공포는 죽음이 들이닥치면 울리는 본능의 경고음 같은 거라고. 페일은 저 안개가 처음 퍼지기 시작했을 때를 잠깐 떠올렸다. 그때는 색이 좀 더 엹어서 언뜻 보면 탁한 분홍색 같았다. 이렇게 끈적거리지도 않았고.‘그 실험을 막아야 했어.’안개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안개에 닿은 것들이 말라 비틀어졌었다. 국경지대의 숲이 말라가고 있었고, 숲 바로 앞에 있는 과수원도 피해를 봤다. 왕족의 과일을 기르는 과수원에서 과일이 나오지 않자, 왕은 안개를 없앨 방법을 찾으라고 명했다.페일도 연구를 위해 파견된 원정대에 호위로 있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때 국경지대는 언제 습격받을 지 알 수 없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귀한 마법사들은 지켜야 했으니까. 마법사들은 안갯속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며 실험을 했다. 처음엔 모종이 심긴 화분을 나중엔 성에서 데려온 종들을.페일은 종들이 안갯속에서 발광하다가 피를 쏟고 죽어가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종들의 죽음이야 아무래도 좋았지만 죽은 종이 세 자리 수를 넘어갈 때쯤, 고여있던 종들의 피가 모두 증발해 순식간에 붉은 안갯속에 흡수되었다. 안개는 순식간에 터져나가듯 영역을 확장했다.그 때 안개 근처에 있던 마법사들도 안갯속에 삼켜졌다. 소국은 순식간에 마법사 절반을 잃어야 했다.그 지경이 되기 전 작은 동물들을 안갯속에 밀어 넣을 때부터 안개 색이 조금씩 짙어졌기에 페일은 실험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왕은 애첩 루드밀라에게 푹 빠져서 페일의 말을 조금도 듣지 않았다. 왕은 루드밀라가 먹을 과일을 빨리 가져오란 소리나 했다.결국 안개 실험은 마법사 절반을 잃고 나서 강제로 중단되었다.“예. 그럼 무사히 다녀오시길.”머크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대 선두로 말을 몰고 갔다. 페일은 머크가 부대를 이끌고 출발하는 것을 잠깐 지켜보았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페일님 나흘 후에 연회가 있습니다.”“...연회 전까지 복귀하려면 서둘러야겠군. 가지.”페일이 먼저 고삐를 당겼다. 페일의 말이 화살처럼 앞으로 빠르게 나가자, 온과 실리도 재빨리 고삐를 당겨 페일과 속도를 맞췄다. 선두에서 소란 강으로 달리며 페일은 이를 악물었다. 지긋지긋한 연회가 또 열린다는 게 가뜩이나 좋지 않은 기분을 더 나쁘게 했다.연회가 열린다고 해서 모든 마물과 높은 피가 모이는 건 아니다. 연회는 그 속 뜻이야 어찌 되었건 소국의 인간을 비호하는 마물과 높은 피를 위한 것. 즐기고 싶은 이만 참석하면 되지만 페일은 가급적 모든 연회에 참석했다.연회가 열리면 꼭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강한 마물, 라휄 때문에. 페일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를 경계했다. 페일은 라휄이 소국에 자리 잡기 전, 그를 추종하는 마물들을 이끌고 몇 번 전장에 나타났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무언가를 찾는 듯 여러 전장에 끼어들어 어느 나라의 편에도 서지 않고 길을 막는 모든 것을 죽였다. 마물이건 인간이건 가리지 않고.라휄의 웃는 표정이 떠오르자 페일은 인상을 찌푸렸다. 페일은 라휄이 웃을 때마다 참을 수 없이 불쾌했다.“근래 연회에선 마물들이 무희를 품질 않네요.”실리가 페일의 근처로 바싹 붙어오며 말을 걸었다. 라휄에 대해 생각하며 거칠게 말을 몰았더니 생각보다 빠르게 소란 강 하류에 도착했다. 실리는 페일과 가장 오래 일한 부관으로, 실없는 소리를 자주 했다. 그놈들 무희들을 잡아먹기만 하니 원. 인신공양도 아니고. 실리는 구시렁댔다. 페일은 눈만 돌려 태평한 실리의 얼굴을 확인하고 실리의 말을 발로 걷어찼다.“일하는 중에 딴소리 하지마.”실리의 말은 잘 훈련된 군마라서 걷어차여도 놀라는 기색 없이 쭉 달렸다. 실리는 말이 걷어차인 부분 털에 오염된 진흙이 묻은 것을 보고 질색했다.“윽, 베이비 실리한테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닥치고, 달려. 네 시간 안에 서식처에 도착한다.”페일은 말 허벅지를 발로 차서 속도를 높였다. 인신공양, 그게 아니면 뭐란 말인가. 붉은 안개 덕에 타국에서 접근하지 못해 전쟁에 휩싸이진 않았으나 나라 곳곳에 마물이 들끓는다.마물 중 라휄처럼 이성이 있는 것들, 인간들이 죽일 수 없는 자는 연회를 벌려 먹이고 즐기게 했다. 이성이 없이 날뛰며 물과 땅을 오염시키는 것들은 이번처럼 군사들이 베어 죽였다.군사들은 토벌할 때마다 죽어나갔고, 소국에서는 죽은 만큼 새 군사를 충원할 수 없어 소국의 군대는 점점 약해졌다. 약해진 군대로 도저히 마물을 토벌할 수 없을 때면 더 많은 연회를 벌여 강한 마물들로 하여금 토벌을 도와달라 굽실거렸다.페일은 굴욕감을 속으로 삭히며 소란 강을 끼고 달리다가 강물이 굽이치는 곳 옆부터 검게 죽은 땅을 달려 소형 마물 서식처에 도착했다.“생각보다… 번식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웩, 진짜 징그럽네요.”송충이처럼 잔털이 몸 표면을 가득 덮고 있고 손 한 뼘 정도로 짧은 팔 수십 개가 달린 마물 여덟 마리가 서식처에 있었다. 큰놈이 둘, 작은놈이 여섯.페일과 론은 칼을 빼 들고 달려 마물들의 머리를 베었다. 두꺼운 바스타드 소드가 마물을 파고들며 검게 변했다. 마물이 가진 독성에 반응한 것이다. 질척한 촉감. 살아있는 동물의 살을 베는 느낌이 아니라 아주 밀도 높은 점토를 베는 것 같았다.페일은 큰 것 두 마리의 목을 먼저 노렸고, 그 사이에 론이 작은 것들을 처리했다. 마물은 베어 죽여도 한동안 움직여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계속 토막 냈다. 검게 변한 바스타드 소드의 가장자리가 천천 녹았다.“가자, 베이비 실리.”마물이 미동도 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던 실리가 베이비 실리에 매뒀던 가방을 열고 파란색 약병 몇 개와 투명한 액체가 가득 든 통 두 개를 꺼냈다. 실리는 검은 땅 위로 투명한 액체를 조금씩 부어 글자를 쓰고 페일과 론을 불렀다.“칼 꽂으세요, 두 분.”페일과 론이 실리가 가르킨 곳에 칼을 깊게 꽂아넣자, 실리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마물 독에 닿으면 어떤 명검이라도 녹아버린다. 다른 걸 구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토벌 때마다 칼을 새로 만든다면 나라에 남아나는 쇠붙이가 없을 테니 마물을 토벌하는 자리에는 꼭 실리처럼 마물독을 정화할 수 있는 마법사나 연금술사를 데리고 다녔다.실리는 몇 대전 왕가의 방계 혈통으로, 엷게나마 마법사를 피를 가졌다. 모자란 마법은 지금처럼 연금술로 만든 정화 약으로 메꿨다.실리가 길고 긴 주문을 다 외우고 바닥에 발을 크게 굴렀다. 투명한 액체로 쓴 글씨가 흰색으로 변하더니 곧 칼로 빨려 들어가며 마물 독을 정화했다.“윽, 이거 독이 엄청나게 독하네요. 마나가 쭉 빨렸어요.”“고생했다, 실리.”실리가 덜덜 떨리는 손끝을 주무르는 모습을 본 론이 실리의 등을 팔꿈치로 툭 치고 칼을 챙겨 갈무리했다. 실리는 파란색 약병을 마물의 시체와 검은 땅 이곳저곳에 던지고 발로 밟아 전부 깨뜨리고 베이비 실리에 올라탔다.파란색 약병은 실리가 연금술사들과 오랜 기간 연구해 만든 정화 약으로, 원래는 마물에게 던져 마물을 죽이기 위해 시작한 연구가 실패해서 뭐라도 건지겠다고 변형을 거듭해 마물 시체와 검은 땅을 정화하는 약이 되었다.‘뭐라도 건졌음 된 거지.’실리는 천천히 스미는 약을 바라보며 히죽 웃었다. 베이비 실리의 꼿꼿한 목을 끌어안고 상체를 푹 기댔다. 연회는 나흘 뒤. 페일은 그 지긋지긋한 곳에 가야만 한다. 그럼 페일의 부관인 실리도 가야 하니까 어딘가에 눕거나 앉아 쉴 수 없어서 베이비 실리에 기대 쉬는 것이다. 베이비 실리는 강한 말이라 실리가 제 목을 끌어안고 늘어져 있어도 잘 달릴 수 있었다.페일은 늘어진 실리를 봤다. 이번에는 석 달 가까이 나라를 둘러싼 붉은 안개 지역을 크게 돌며 마물을 토벌했다. 페일은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서 중간마다 수도로 돌아갔지만 페일의 부관들은 석 달을 쭉 토벌에 매달려 있었다. 실리는 다른 마법사들보다 훨씬 체력이 좋은 편이지만 대부분 시간을 연구와 관리, 행정에 쏟다 보니 장거리 여정에는 쉽게 지치곤 했다.‘역시 높은 피가 더 필요해.’군사들이 모두 높은 피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높은 피가 섞인 자들이었다. 마물의 독기를 근거리에서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자들. 페일처럼 마물을 씹어먹어도 멀쩡할 만큼 피가 짙은 이는 몇 없는 게 문제지만.귀족 중에서도 특수한 혈통을 지닌 자들, 마물보다 일그러진 핏줄을 가진 이들을 높은 피라고 불렀다. 마물을 죽이고 인간을 구원할 높고도 고귀한 피.“출발한다.”페일은 떠오르는 생각을 애써 눌렀다. 연회가 열리기 전까지 수도에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려고 애썼다. 연회와 마물을 생각하면 속이 끓었지만, 아직 페일은 분노해선 안 된다. 나라는 위태로웠고 더 강하고 많은 높은 피가 필요했다. 지금은 마물들의 도움 없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 참지만, 언젠가는 연회에 모이는 것들을 모두 쳐죽이리라.힐은 오늘도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지난밤 막대발과 나눈 대화가 흐릿할 만큼 푹 잠들었기 때문일까, 힐은 온종일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평소처럼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데 도무지 이어지지 않고 중간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었다.“굼벵이, 오늘은 좀 빠릿빠릿 혀? 클클.”영감은 쇳소리 가득한 목소리로 기쁘게 웃었다. 힐의 머리도 우악스레 쓰다듬어주었다. 대장도 힐이 기특하다면서 입에 삶은 감자 한 알을 물려주었다. 힐은 차가운 감자를 우물우물 씹어 삼키며 하늘을 쳐다봤다. 어느덧 노을이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힐은 퍼뜩 정신이 들었다.‘아! 흰 코가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게 이런 걸까?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이 빨라진다고 그랬는데.’처음으로 칭찬을 들었더니 흰 코가 보고 싶었다. 흰 코는 부엌일을 하기 전에 성 바깥에서 약초를 키우는 종이었다고 했다. 바깥에서 햇빛을 받으며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피부가 까만데, 유독 몸 곳곳에 손바닥 반 정도로 크고 흰 부분이 있었다.특히 코가 성안에서만 일한 종보다도 새하얘서 거뭇한 얼굴에 하얀 코가 엄청나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성안의 종들은 그녀를 흰 코라고 불렀다. 힐은 그 하얀 코가 오늘따라 무척 보고 싶었다.“이리 와봐.”대장이 손짓하자 힐은 빠릿빠릿하게 대장에게 다가갔다. 바닥에 널린 도안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대장은 무희가 입을 옷 도안을 보고 있었는데, 연회에 입을 옷은 장신구도 함께 만들어야 해서 꽤 손댈 것이 많다고 종종 푸념하곤 했다.“이거랑 색이 똑같은 천을 모아 와.”대장은 힐에게 연보랏빛, 군청 빛 천을 보여주었다. 천을 잘라 넣어둔 게 힐이었기 때문에 힐은 재빠르게 천을 찾아 한 아름 끌어안고 천을 몽땅 옮겼다. 고작 두 가지 색이지만 천을 쌓고 보니 힐의 배꼽 위까지 올라올 만큼 많았다.대장은 도안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푹 쉬었다. 손은 모자란 데 만들어야 할 게 너무 많았다. 대장은 힐에게 잘 따라 하라고 말하고는 천을 집어 들고, 구슬 단지와 실, 바늘을 가져와 자신 앞에 하나, 힐 앞에 하나씩 놓았다.대장은 실을 바늘귀에 꿰고, 바늘 위로 구슬을 세 개씩 끼운 후 천에 한 땀을 놓았다. 구슬을 너무 많이 끼우면 실이 구슬 무게를 못 견디고 아래로 점점 처진다. 그렇다고 하나씩 끼우면 구슬이 천에 너무 딱 붙어서 빛을 받는 부분이 적어져 덜 반짝인다.대장은 훌륭한 장인도 아니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바깥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뭐든 잘 기억해두었다가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 줄 알았다.“구슬 세 개를 꿰고 한 땀을 뜨는 거야. 이렇게 천을 반씩 두 번 접고, 천 끝이 덜렁대는 곳부터 시작해.”힐은 천이 힐의 한쪽 팔보다 길어서 접는 데는 꽤 애먹었지만 작은 바늘을 잡고 구슬을 꿰는 건 곧잘 따라 했다. 대장을 따라 하며 구슬을 꿰매다 보니 어느덧 사방이 컴컴한 밤이 되었다. 대장은 그사이에 구슬을 꿴 천으로 허리띠 세 개를 만들었고 힐도 하나를 완성했다.달이 뜬 하늘을 올려다보고서 대장은 힐에게 구슬 단지와 실, 바늘, 천을 안겨주며 내일까지 허리띠를 마저 만들어오라고 했다. 만들 무희 복은 다섯 벌, 이미 네 개를 만들어서 하나만 더 만들면 되지만 대장이 안겨준 재료는 허리띠를 세 개는 거뜬히 만들 양이었다.힐은 조금은 들뜬 발걸음으로 첨탑을 올랐다. 오늘도 막대발이 올까. 아냐, 막대발은 못 올 수도 있어. 막대발이 없으면 또 겨울처럼 몸이 추울까 봐 힐은 애써,‘막대발은 없을 거야, 막대발은 없어.’하고 스스로 다독였다. 이러면 진짜 막대발이 없어도 조금은 덜 추울 거야. 힐이 흰 코를 만나지 못해 추울 때도 가끔 써먹는 방법이었다. 힐은 빠르게 첨탑을 오르고 있었는데, 꼭대기에 다가갈수록 조금씩 걸음이 느려졌다. 막대발이 없을 거라고 되뇌었지만 사실은 막대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안녕?”힐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계속 걸었더니 어느덧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힐이 꼭대기로 걸어 올라오자, 달빛이 잘 드는 곳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던 막대발이 힐을 바라보며 예쁘게 웃었다. 힐은 막대발이 오늘도 와준 게 기뻤지만, 그녀가 오길 바라고 바라던 게 들킨 것 같아 방으로 후다닥 달려들어 갔다.막대발은 힐이 달리는 걸 멀뚱히 보다가, 평소에 꼭꼭 닫아두던 문이 조금 덜 닫힌 걸 보고 아하하 소리 내서 웃었다. 종 중에는 힐만큼 어린 애가 드물지만, 무희 중에는 힐 정도 또래 애들도 많았다.막대발은 세 번째로 나이가 많은 무희라 어린 무희들을 자주 돌봐주는데 힐 정도 또래의 무희들이 부끄러울 때 지금 힐처럼 행동하곤 했다. 막대발은 힐이 참 귀엽다고 생각했다.“그냥 밖에 나오면 안 돼? 아니면 나를 들여보내 줄래?”힐은 망설이다가 ‘안 돼.’ 하고 대답했다. 막대발은 푸푸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그래, 알았어. 그것보다 있잖아, 들어봐.”막대발은 손뼉을 살짝 마주치며 화사하게 웃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막대발과 힐은 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힐의 방보다 막대발이 앉아 있는 곳이 훨씬 더 밝아서 막대발은 힐이 잘 안 보였지만 힐은 조금 열어둔 문틈으로 막대발을 전부 볼 수 있었다.평소에는 문을 닫고 있어서 보지 못했던 막대발의 행동이 보이자 힐은 어쩐지 두근거렸다. 막대발은 말할 때 손도 같이 움직이고, 표정도 다채로웠다. 눈을 크게 뜨고, 턱을 들거나, 눈썹을 모으거나, 살짝 한쪽 입꼬리만 당기거나. 쉴 새 없이 표정이 변했다. 어깨를 으쓱이고 손을 허리춤에 올리기도 하며 움직일 때면 표정과 몸짓이 잘 어울렸다.힐은 막대발을 보다가 대장이 준 일을 시작했다.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으니까.막대발은 어제 울었던 일은 까맣게 없던 것처럼 굴었다. 그녀는 문이 꼭 닫혀있을 때부터 힐이 일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상대방을 살피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건 그녀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일하는 소리가 조금 느릿느릿 들려온다 싶으면 하는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주고, 소리가 빨라지면 다른 주제를 끄집어냈다.힐은 무희들이 배우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막대발은 이미 몇 번이나 했던 높임말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었다. ‘높임말이라는 건, 높은 분들이나 마물님 앞에서 쓰는 말씨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몇 가지 예시를 알려주기도 했다.가령, 물어보다는 여쭙다, 먹다는 먹어요가 아니라 드세요. 막대발은 발음이 또박또박하고 목소리가 예뻐서 막대발이 높임말을 하면 꼭 물소리처럼 들렸다.“종들은 뭘 배워?”“나는 잘 몰라.”힐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종들은 힐에게 일을 시키긴 했어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다. 대장은 꽤 자세히 일을 알려주는 편이지만 그걸 배운다고 해도 되는 걸까. 힐은 알 수가 없었다.“음, 그럼 오늘은 뭘 했어?”힐이 우물쭈물하는 기색을 읽고 막대발은 재빨리 주제를 바꿨다. 힐은 반쯤 구슬을 꿴 허리띠를 슬쩍 내려다보고 문틈으로 살짝 내밀어 보여줬다.“이거… 이번에 무희들이 입을 허리띠래. 이걸 만들었어.”‘허리띠는 ‘입다’가 아니라 '매다'야!’ 막대발은 갓 말을 배우는 어린 무희들에게 하듯 상냥히 힐의 말을 고쳐줬다. 끄트머리만 살짝 나온 허리띠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었지만 오색 구슬이 반짝이는 게 꽤 예뻤다. 막대발은 짝짝 손뼉을 치며 활짝 웃었다.“와! 그럼 이번 연회 때 네가 만든 허리띠를 매고 춤출 수 있겠네.”막대발이 손뼉을 치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할 때는 빨갛게 달아올랐던 뺨이 막대발의 말에 다시 핏기가 가셨다. 연회. 두 글자가 머리에 콕 박혔다.“나는 꼭 네가 만든 걸 메고 춤을 출래.”막대발은 자기가 어떤 춤을 추는지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빙글빙글 돌 때는 조금 어지럽지만, 굉장히 신이 난다고 말하며 꺄르르 웃었다.그때부터 힐은 막대발의 이야기가 잘 안 들렸다. 아침부터 계속 멍하던 게 이어지는 느낌. 막대발의 말이 머릿속에 들어와 산산이 조각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연회, 막대발. 힐은 뭔가 생각해낼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생각하려고 할수록 머리가 깜깜해지는 기분이었다.‘연회가 끝나면 막대발은 죽을 거야.’코끝이 찡했다. 물에 고개를 처박혔을 때처럼 따가운 것도 같았다. 죽으면 막대발은 이제 여기에 올 수 없다. 마물님의 장난감이 되면 올 수 있을까. 힐은 장난감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막대발이 다시 여기로 올 수 있다면 막대발이 장난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안녕, 또 올게.”막대발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갔다. 힐은 문을 조금 더 열고 막대발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어제처럼 사뿐사뿐 뛰어가는 막대발, 너울대는 긴 머리. 밝은 달빛이 막대발 뒤로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힐은 멍한 와중에서 손을 놀려 완성한 허리띠를 빤히 바라봤다. 이제 잘 수 있었는데도 힐은 잠이 오지 않았다. 대장이 더 챙겨준 재료를 빤히 보다가, 힐이 만든 허리띠를 꼭 하겠다고 말한 막대발의 웃는 낯이 떠올랐다. 반짝반짝 예쁜 막대발, 상냥하게 말하는 막대발. 달빛을 받으면 더 반짝이는 보랏빛 눈동자까지. 힐은 다시 바늘을 들었다.“막대발이 여기 다시 왔으면 좋겠다.”연회가 끝나고도 계속 계속. 힐이 흰 코만큼, 대장만큼 자랄 때까지.“아니야. 영감만큼 쭈그렁탱이가 될 때까지 왔으면 좋겠어.”‘나는 막대발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힐은 작게 중얼거렸다. 막대발은 허리끈 중에 뭐가 힐이 만든 건지 모를 테니 남는 재료로 허리끈을 하나 더 만들어 막대발에게 주기로 했다. 그럼 힐이 만든 걸 막대발이 가질 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예쁘게 만들면, 마물님 마음에 쏙 들게 잘 만들면 막대발이 살까.막대발이 오지 않았을 때가 이젠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도 이렇게 추웠나. 열어둔 문틈으로 들이치는 바람에 손이 자꾸 얼었지만, 힐은 막대발이 아직도 거기에서 조잘대는 것 같아 지쳐 잠들 때가 돼서야 문을 닫고 풀썩 쓰러지듯 누워 잠들었다.여느 날과 같이 힐은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흐르지 않도록 여기저기에 끈을 칭칭 동여맸다. 아주 일찍부터 밖이 소란스러워 힐의 손짓은 점점 빨라졌다. 힐의 방은 종들이 사는 성 아주 구석진 곳에 있어서, 평소 종들이 꽥꽥 내지르는 소음이 여기까지 울리는 일은 흔치 않았다. 아주 바쁜 날만 오늘처럼 바깥이 소란스러웠다.바쁜 날은 새벽까지 일한 종들이 다른 종들을 깨우느라 온 성에 큰소리가 가득했는데 힐은 오늘이 그런 날임을 알아차렸다. 힐은 어린 종이라, 누구도 바쁜 이유를 알려주거나 뭘 하라고 알려주지 않는다. 이유도, 바쁘다는 말로 상황이 닥쳐오기 전에는 해주지 않아서 어린 종들은 눈치껏 빠릿빠릿하게 굴어야 했다.알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흰 코가 늘 말하는 것처럼 힐은 궁금해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되도록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생각하지 않기는 잘되지 않아 자주 혼나고 얻어터지지만.힐은 이런 날은 서둘러야 한다는 걸 알만큼은 오래 살았다. 힐이 기억하기로는 이 성에서 여름을 열네 번 봤고 겨울을 열세 번 봤다. 이번 겨울까지 보면 힐은 열네 번째 겨울을 보는 거다. 힐을 계단과 복도를 마구 달렸다.“굼벵이 녀석, 왜 이제서 와아!”영감이 푸르죽죽한 얼굴로 고함을 쳤다. 대장은 영감이 치켜든 주먹을 보고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대장은 영감이 곧 죽겠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도 쿨럭거리는 일이 잦았지만, 영감은 이제 쿨럭일 때마다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다. 밤새 수를 놓던 영감이 기침하면서 옷감에 피가 튀었다.영감은 만들던 옷에 피를 튀겨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차에 도착한 힐에게 잔뜩 성을 내고 주먹질을 했다. 힐은 가끔 ‘욱, 억.’하는 소리를 내긴 했지만, 비명을 지르거나 울지 않고 얌전히 맞았다.영감은 죽어가고 있어서 명치나 목처럼 급소를 맞지 않으면 심하게 아프진 않았다. 게다가 금방 지쳐서 오랫동안 매질을 하지도 못했다. 힐에게는 다행인 일이었다. 대장은 나가떨어진 영감을 보고 ‘거 참, 아 그러게 왜 힘을 빼요, 머저리 같으니.’라고 중얼거렸다.대장은 영감이 이번 일이 끝날 때까지만 살겠다고 생각했다. 바느질 방에서 피 기침을 하는 종은 항상 있었고, 보통은 한 달 정도 피 섞인 기침을 하다가 어느 날 피를 콱 토하고 죽었다.젊은 종들이 한 달이면 죽었으니 영감은 일주일도 못살지 않을까.‘연회가 나흘 후니까…’대장은 무희 복을 다 만들고 나면 힐도 원래대로 다른 허드렛일을 하게 쫓아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종이 둘 남아있으면 다른 종을 많이 붙여주지 않는다. 같이 일하는 종이 적을수록 직접 할 일이 많아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을 못 지키게 되면 죽는다.영감은 곧 죽을 테니, 힐까지 쫓아내면 대장은 바느질 방에 혼자 남는다. 그럼 바깥사람들이 종을 많이 보내주겠지. 대장은 콧노래를 불렀다. 같이 일하는 종이 많아야 직접 해야 하는 일도 적고 오래 살 수 있다.“염병할 년, 또 못된 짓헐 눈깔이여.”영감은 대장을 향해 말했다. 대장은 그냥 웃었다. 대장과 영감은 같이 오래 일했다. 대장이 영감을 아는 만큼 영감도 대장을 안다. 영감은 대장 같은 종을 많이 봤다. 죽지 않으려고 다른 종을 바깥에서 뻗어오는 칼 부리 앞으로 밀어버리는 자들.영감은 작은 몸을 바삐 움직이며 천을 나르는 힐을 보았다. ‘저것도 오래 살긴 글러 먹었어.’멍청한 녀석. 대장 같은 부류에 이용당하고 금방 죽겠지.종 중에는 부려질 뿐인 삶, 서로를 짓밟으면서 까지 살아 무엇하겠느냐고 말하던 올곧은 사람도 있었지만 낮은 피는 올곧아 봐야 금방 죽어 나갈 뿐이다. 영감은 올곧은 종들이 죽을 때 입을 다물고, 눈을 가리고 손을 놀려 일을 했다. 살기 위해서. 영감은 헤벌쭉 웃었다. 색색거리는 숨이 거칠었다.영감은 아주 오래전, 어느 종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이대로 살아 고통스러울 거라면 나는 죽을래.’그 종은 바깥사람들에 끊임없이 반항하다가 결국 맞아서 죽었다. 그 시체가 토막 나 짐승 먹이가 되었더라는 이야기를 한참 후에 듣기도 했다.영감은 그 종이 죽기 전날, 지었던 후련한 표정을 봤다. 그때부터 영감은 죽을 날이 가까워져 오면 자신도 한 번쯤은 미련 없이 후련할 줄 알았다.크게 심호흡 한 번 하지 못할 만큼 먼지가 가득한 방, 최소한의 음식과 몸이 부서질 것 같은 노동으로 점철된 삶. 이 삶을 끝낼 때쯤엔 자신도 해방이나 자유를 말하며 평온하고 덤덤히 죽을 줄 알았는데.영감은 어린 힐이 부러웠다. 자신보다 어린 대장도 부러웠다. 지금만은 늙지 않은 모든 종이 부러워서 견딜 수 없었다. 영감은 살고 싶었다. 죽음은 겁이 나서. 이 지긋지긋한 수틀을 살아온 것보다 갑절은 더 잡아야 한대도, 기침할 때마다 가슴 속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끝없이 느낀다 해도, 더 살고 싶었다.“쿨럭.”영감은 잔뜩 곱은 손으로 입가를 훔쳤다. 거무죽죽하고 미지근한 피가 손에 잔뜩 묻어났다. 끈적한 촉감이 느껴졌다. 끔찍했다. 영감은 두려움을 억지로 눌러 참고 수틀 앞에 앉아 바늘을 잡았다.힐은 절뚝거리면서 계단을 올랐다. 오늘따라 영감에게 많이 맞았다. 영감은 일하다가도 기침을 하다가도 금방 손에 무언가를 쥐고 힐을 때렸다. 영감처럼 발작하듯 다른 종을 때리는 사람은 성 어디에나 있어서 그날 바느질 방을 오간 종들은 모두 제 할 일만 할 뿐, 누구도 영감을 말리지 않았다.가끔 대장만 일이나 마저 마치라며 영감을 타박했을 뿐이다. 예전엔 대장이 영감을 타박하면 영감이 대장을 때렸는데, 오늘은 한 번도 대장을 때리지 않았다.‘이제 영감은 아파. 대장을 때리면 대장이 영감을 때려죽일 거야.’종들 사이에서는 보통 나이가 많은 쪽이 때리는 쪽이지만 종종 그 서열 관계가 역전되기도 하다. 영감처럼 몸이 아프면 금방 서열이 밀려나서 때리는 자에서 맞는 자가 된다. 힐은 영감이 던진 나무망치에 맞아 부푼 발목을 질질 끌며 계단을 오르다가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손으로 주먹을 쥐고 풀길 몇 번 반복했다.‘나도 영감을 때리면 이길 수 있을까?’힐은 아직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었다. 힐은 누군가를 때리기엔 너무 작았고, 자신이 덤벼봐야 금방 맞아 죽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힐은 주먹을 빤히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주먹이 영감의 주먹보다 반절은 작아서 때렸다간 더 맞을 것 같았다. 영감이 아파서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뭘 던지지만, 않는다면 맞아도 크게 아프지 않았으니 그냥 견디기로 했다.맞는 게 싫었지만, 때리는 건 조금 더 싫었다.힐은 오늘은 일감을 받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팔꿈치가 퉁퉁 부어서 못 받은 거지만, 덕분에 일감도 받지 않고 노을이 새빨갛게 타오를 때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얼른 허리띠를 만들어야 해.’얼핏 들어보니 연회는 나흘이 남았다고 했다. 그 전에 막대발에게 허리띠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막대발이 죽으면 허리띠는 영영 줄 수 없을 테니.엉망이 된 몸으로 계단을 기듯 올라가는데 갑자기 누가 허리춤에 동여맨 끈을 세게 잡아당겼다.“윽.”힐이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았다. 잇새로 신음이 나왔지만, 다행히 소릴 내지르진 않았다. 아파도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소리를 지르고, 울고, 애원하거나 빌면 더 낮잡아 보일 뿐이니까.“노랑이!”고개를 돌려보니 흰 코가 웃고 있었다. 흰 코의 얼굴을 확인하자 힐도 방긋 웃을 수 있었다. 대체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를 흰 코의 까만 얼굴과 하얀 코가 몹시 반가웠다.“안녕하세요.”뺨도 부어서 입을 움직이면 얼굴 전체가 욱신댔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그래도 힐은 방싯 웃으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했다.“너 또 맞았구나?”흰 코는 힐의 뺨을 조심스레 쓸어주며, ‘느리게 굴지 말았어야지.’로 시작하는 잔소리를 한참 퍼부었다. 흰 코는 부엌일을 하느라 찬 물에 손이 자주 닿아서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는데, 그 차가운 손이 얼얼한 뺨에 닿자 통증이 조금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고마운 흰 코.’힐은 흰 코의 잔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장구쳐주듯이. 그러면서도 흰 코의 찬 손에 뺨을 비볐다. 흰 코는 잠자코 반대 손도 힐의 뺨에 올려주었다. 흰 코는 조금 굳은 표정으로 제 손바닥에 뺨을 비벼오는 힐을 보다가 계단 아래에서 ‘흰 코!’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갔다.“노랑아 내일 아주 일찍 부엌으로 와! 해가 뜨기 전에 와야 해!”힐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쉬운 표정으로 흰 코가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흰 코의 찬 손이 뺨에 닿는 게 기분 좋았었는데. 그래도 내일은 흰 코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나서 힐은 씩씩하게 방으로 돌아갔다.‘아.’검은 나무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안은 노을이 가득했다. 힐은 해가 뜨기 전부터 달이 뜰 때까지 일해서 이 시간에 방에 들어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이렇게 방 안이 밝은 걸 본 적이 있었나?’힐이 혼자 지내기 알맞은 작은 방에는 힐이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 두 개와 옷을 널어 말릴 수 있는 나무 건조대, 침대처럼 사용하는 짚더미와 그 위를 덮어둔 모포와 담요, 그리고 힐이 조금씩 모은 나뭇가지, 자투리 천과 가죽 같은 재료가 담긴 바구니 몇 개가 있었다. 바느질 방에서 일하고부터는 거의 매일 일감을 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바구니 안에는 자투리 천과 가죽, 짧게 잘린 실 같은 게 많았다.포근한 노을빛이 들어오니 늘 춥다고 여기던 방도 제법 아늑해 보였다. 힐은 모포와 담요 사이에 숨겨둔 허리띠를 꺼냈다. 누가 힐의 방을 뒤진 적은 없었지만, 종들 사이에 도난은 흔한 일이라 힐은 귀한 것이 있으면 습관처럼 숨겼다. 힐은 창가 아래에 주저앉아 허리띠를 이리저리 돌려봤다. 반짝반짝 빛이 났다.‘연회장이 밝았으면 좋겠다…’그럼 허리띠가 반짝이고, 허리띠를 한 막대발도 반짝일 텐데. 막대발은 어렴풋한 달빛 아래에서도 빛이 나니까, 더 밝은 곳에선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힐은 바늘을 쥐고 아직 구슬이 꿰매지지 않은 부분을 채우기 시작했다.“오래 살아, 막대발. 나를 보러 맨날 와 줬으면 좋겠지만 못 와도 돼. 오래오래 살아. 피 기침도 하지 말고.”구슬을 바늘에 끼우면서 힐은 중얼중얼했다.한참 손을 바삐 놀리던 힐은 마지막 한 땀을 꿰고 실을 묶어 마무리했다. 그리고 아직도 어두워지지 않은 창밖을 올려다보며 눈을 꾹 감았다. 바느질을 오래 하면 눈이 아팠다.“얼른 달이 떴으면 좋겠다. 그럼 막대발이 올 텐데.”눈두덩이에 손을 올려 꾹 누르려다가, 팔꿈치가 찌릿해서 힐은 몸을 일으켰다. 이제 허리띠를 완성했으니까 더는 팔을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퉁퉁 붓고 찌릿하게 아플 때 몸을 많이 움직이면 그 부분이 완전히 망가져서 다시 쓸 수 없게 되거나, 썩어들기도 하니까.힐은 바구니를 뒤져 팔꿈치를 감쌀 넓은 천을 찾았다. 다행히 꽤 긴 천이 남아 있었다. 힐은 천으로 팔꿈치를 둘둘 말아서 한쪽 끝은 입에 물고, 한쪽 끝은 손으로 잡아 쭉 당겼다. 아팠지만 꽉 고정하지 않으면 한동안 고생하게 된다.힐은 자주 맞아 이런 후처리는 익숙했기 때문에 능숙하게 팔을 고정할 수 있었다. 이걸 할 줄 몰랐을 땐 몇 주나 끙끙 앓아서 더 얻어맞았었는데. 힐은 예전을 잠깐 회상하고 조금 뿌듯했다. 그때보다 많이 자란 것 같았다.‘어른이 되고 싶어.’몸이 다 자라면 지금보다 일을 잘할 수 있을 테고, 힘이 세지면 다른 종들이 쉽게 힐을 건드리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힐은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 몸이 달 지경이었다.힐은 같은 또래보다 몸집이 작은 편이라 힐이 원하는 만큼 자라고 세지려면 훨씬 많이 먹고 잠도 푹 자야 했지만 힐은 그런 건 잘 몰랐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크고 세지겠거니 할 뿐.허리띠를 다 만들고도 달이 뜨지 않아서 힐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바구니에서 자투리 가죽을 골라냈다. 색이 연한 것, 조금 진한 것, 아주 진한 것을 한 가닥씩 길이가 비슷한 것들로 골라내서 한쪽 끝에 구멍을 내고 실을 넣어 꽉 묶었다. 그리고 세 가닥을 조심스레 땋았다.염색하지 않은 가죽은 색이 탁해서 그리 예쁘지 않았지만, 채도가 다른 가죽을 모아 땋았더니 꽤 보기 좋았다. 힐은 몇 번이나 자신의 손을 잡아준 막대발의 손을 떠올렸다. 굳은살도, 흉터도 없는 부드러운 손. 그리고 그 위에 있던 하얀 손목. 힐은 어림짐작으로 막대발의 손목에 맞을 가죽 팔찌를 만들었다.아까는 막대발이 오래 살기만 한다면 자신을 보러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손을 잡아주던 온기가 떠오르고 나니 역시 자신을 보러 와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었다.“자주 아니라도 되는데. 흰 코처럼 가끔만 봐도 괜찮아.”그래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힐은 땋은 가죽끈의 끝과 끝을 묶어 매듭짓고 매듭 위로 입을 맞췄다. 아주 예전에 힐이 지금 키의 절반만 한 꼬맹이일 때 힐에게 밥을 가져다줬던 종이 가르쳐 준 ‘소원 비는 방법’이다.문밖에서 작게 인기척이 났다. 힐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허리띠와 팔찌를 담요 속에 숨기고 문을 열었다. 검은 나무문에서 크게 삐걱 소리가 났다.“어?”문을 열자마자 놀란 표정을 한 막대발이 보였다. 막대발은 평소처럼 힐이 오길 기다릴 생각으로 검은 나무문 앞에 주저앉아 기지개를 켜다가 갑자기 문이 열려 깜짝 놀랐다. 막대발은 종들의 성에 마음껏 나다닐 수 있었지만, 종들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 그것도 이렇게 구석진 곳에 찾아오는 건 들켜서 좋을 게 없었다.그래서 늘 몰래 찾아오곤 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니 도망갈 생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가 힐이 빼꼼 머리를 내밀자 긴장이 풀려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느림보야! 왜 거기서 나오는 거야.”막대발이 앉은 채로 두 손을 힐에게 뻗었다. 안아서 일으켜달라는 듯이. 그런 몸짓을 처음 보는 힐은 후다닥 방 안으로 머리를 다시 집어넣었다.사랑스럽게 뻗은 팔이 무시당했는데도 막대발은 히히 웃었다. 막대발은 끈질기게 찾아오는 자신을 쫓아낸 적 없는 힐이 좋았다. 할 일이 많을 텐데도 손을 멈추고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도, 가끔 웅얼대며 제 물음에 대답하거나 뭔가를 물어보는 것도 좋았다.힐은 허리띠와 팔찌를 허겁지겁 찾아 손에 쥐고 방 밖으로 나왔다. 힐이 완전히 밖으로 나오자, 막대발은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다시 웃으면서 힐을 끌어안았다.바느질 방의 고약한 영감과 대장한테 자주 맞고 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심하게 맞은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속이 상했지만, 막대발은 종들의 삶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막대발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간섭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누가 두 손을 뻗어오면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이건 ‘포옹’이라고 해.”“포옹….”힐은 막대발이 자신의 몸을 감싸 안은 것처럼 막대발의 몸을 감싸 안았다. 한쪽 팔을 단단히 동여매서 동작이 좀 어설펐다. 힐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막대발은 좋은 냄새가 났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힐이 맡아 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냄새였다.‘음, 그러니까 잼 빵보다 좋은 냄새.’힐이 킁킁 냄새를 맡는 기척을 느낀 막대발이 꺄르르 웃으며 품에서 힐을 풀어주었다.“막대발, 이거 가져.”몸을 감싼 팔이 풀리자, 힐은 허리띠와 가죽 팔찌를 내밀었다. 바느질 방에서 만들어 보낼 무희 복 중에서 내가 만든 게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너는 내가 만든 허리띠를 하고 춤을 추고 싶다고 했잖아. 힐이 횡설수설했다.막대발은 힐이 내민 허리띠와 가죽 팔찌를 받았다.“고마워!”가죽 팔찌는 손목에 차고, 허리띠는 지금 입고 있는 하얀 색 원피스 위로 맸다. 아무런 무늬가 없는 흰 옷 위에 쉴 틈 없이 반짝이는 구슬 허리띠는 꽤 잘 어울렸다. 막대발은 힐에게 ‘나 예뻐 보여?’ 하고 물었고 힐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연보랏빛 천은 구슬로 빼곡히 덮여 있었지만, 힐이 사용한 구슬은 무색투명하거나 색이 들어간 반투명 구슬들이라, 천색과 구슬의 색이 섞이며 세상의 모든 보라색을 다 모아둔 것처럼 반짝거렸다. 막대발의 보라색 눈망울에 꼭 맞춘 것처럼 잘 어울렸다.“나도 선물을 줄게.”막대발은 희미하게 웃으며 힐과 몇 걸음 떨어졌다. 막대발은 팔을 쭉 위로 뻗고 사뿐사뿐 걸었다. 가죽 팔찌를 차고 있는 팔을 힐에게 뻗었다가 옆으로 원을 그리듯 밀어내며 한 바퀴 빙글 돌았다. 흰 원피스 치맛자락이 둥글게 펼쳐지며 허벅지 위로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막대발은 힐에게 받은 허리띠를 하고 춤을 췄다. 힐은 허리띠와 팔찌를 건네고 방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막대발에게 시선을 빼앗겨 그대로 멍하니 한참 동안 춤을 추는 그녀를 바라봤다. 아름다웠다.“어딜 다녀오는 거야?”막대발은 조용히 복도를 걷다가, 불퉁한 목소리를 듣고 소리가 난 쪽으로 몸을 돌렸다. 허리 끝까지 내려오는 연두색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무희가 냉랭한 녹색 눈을 치켜뜨고 막대발을 노려보고 있었다.“그냥, 조금 돌아다녔어.”무희 잎사귀는 막대발을 앞에 두고도 자꾸 복도 이곳저곳을 살폈다. 어린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막대발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잎사귀는 아직 어리고 파티나 연회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평소대로라면 이번처럼 큰 연회에 배정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하지만 이번 연회에 배정된 무희가 겁도 없이 왕성의 꽃을 꺾다가 들켜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무희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무희들까지 모조리 불려가 목이 잘려버려서 남은 무희가 몇 없었기 때문에 죽은 무희 대신 잎사귀가 이번 연회에 배정되었다.무희는 높은 분들을 위해 준비된 것. 까마득한 곳에 있는 그들은 무희들의 가무를 즐기고 무희들을 취한다. 그들의 즐거움이 무희의 기쁨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성에 차지 않을 때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잎사귀도 알고 있다.이미 파티에 다녀온 무희들은 높은 분들이 무희의 손톱, 발톱을 뽑아내서 터져 나오는 비명을 즐기거나 관절을 꺾어 다시 춤을 추지 못할 만큼 몸을 망가트리기도 한다고 했다.무희들은 항상 예쁘게 웃고 사근사근히 굴지만, 종들보다 사소한 이유로 쉽게, 더 잔인하게 죽는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수많은 죽음은 언제나 무희들 앞에서 태연하게 벌어졌지만 듣고 배운 것과 직접 본 것은 그 무게가 달랐고 연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잎사귀는 자신을 덮쳐오는 서늘한 무게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짓눌려서 꼭 죽어버릴 것만 같다고.막대발은 잎사귀의 속마음까지는 몰라도 잎사귀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었다.막대발은 작은 파티부터 차근차근 배정받으며 다른 무희가 죽거나 고통받을 때 자신을 이입하지 않는 법을 익혔고 높은 분들의 잔인함에도 제법 익숙했지만 급히 배정된 잎사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막대발은 적어도 그 앞에서 울고 비명을 지르지 않을 정도로는 익숙했다.잎사귀처럼 어린 무희들은 나갈 티파티나 연회가 정해지고 나면 죽음을 목전에 둔 양 자주 불안에 떨었고, 막대발은 그 불안을 덤덤히 받아주었다.죽는다는 게 그렇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땐 덤덤히 말할 수 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돌이켜보면 막대발도 연회에 나갈 무희로 결정되던 날, 대번에 종들이 일하는 성으로 달려가지 않았던가.막대발은 품 안에 숨겨둔 구슬 허리띠의 꺼끌거리는 감촉을 느끼며 잎사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잎사귀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도 막대발처럼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걸었다.“...아까 아이살레테님이 다녀가셨어.”“왜?”“어제 높은 분들께 바쳐진 애들이 다 죽었다고 하셨어. 다른 애들을 데리러 오신 거야.”“...”막대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잎사귀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아이살레테는 무희들에게 말이나, 높은 분께 귀염받는 법, 춤과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 중 하나로 무희들을 티파티나 연회로 배정하는 일을 했다.아이살레테는 늘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녔는데 딱딱한 표정과 짙은 화장, 유난히도 붉게 칠한 입술은 아름답기보다 기괴하고 두려웠다. 파티에 나가지 못할 만큼 어린 무희들은 아이살레테의 외모 때문에 그녀를 두려워했고 다 자란 무희들은 그녀가 자신을 잔인한 분들 앞으로 배정할까 봐 두려워했다.“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아이살레테님이 우릴 보러 오신다고 했어. 너랑 나랑… 실눈이랑, 까망이랑 겁쟁이랑 같이 기다리래.”잎사귀가 막대발의 두 손을 잡았다. 아이살레테가 연회에 배정된 무희를 전부 모은다는 건 연회 준비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무희들에게 연회 준비는 곧 더는 아무 곳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아이살레테는 연회 전 무희들이 도망가거나 두려움에 자살하지 않도록, 혹은 타인에 의해 상하는 곳이 없도록 연회 날까지 가둬둔다. 지금까지는 하루 전에 가뒀는데, 이번엔 유독 빨리 준비를 시작한다는 말에 막대발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 들었다.막대발은 잎사귀의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다. 기도할까. 잎사귀가 작게 말하자 막대발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선하신 구세주시여, 나로 하여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며, 많은 이를 기쁘게 하소서. 나는 내 살을 가르고 영혼을 태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어느 하인은 이게 무희를 위한 기도문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무희들이 배우는 기도문은 이것 하나뿐이라서, 그들은 괴롭고 두려울 때, 슬프거나 힘들 때, 지금처럼 공포를 잊고자 할 때나 삶을 염원 할 때조차도 이 기도문을 읊으며 기도했다.막대발은 눈을 살포시 떴다. 눈을 꼭 감고 있는 잎사귀가 보였다. 잎사귀의 약간 그을린 밀 빛 피부가 창백하게 질려서 볼품없게만 보였다. 막대발은 잎사귀를 이끌고 무희들이 쓰는 투왈렛룸 중 하나로 들어갔다.무희들이 쓰는 성은 종들의 성과는 다르게 첨탑이 없고 낮은 오층짜리 성이다. 멋스러운 창과 두툼한 카펫, 커튼, 그리고 푹신한 침대와 레이스로 짜인 캐노피가 있는 방도 있었고, 몇 개의 책걸상이 나란히 놓인 교육을 받는 방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투왈렛룸도 몇 개 있었다.무희들은 정해진 각자의 방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곳을 썼다. 막대발이 잎사귀를 데리고 들어간 투왈렛룸은 세면대가 갖춰진 곳으로 무희들의 성에서 세 번째로 큰 곳이었다.“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자.”막대발은 놋쇠 주전자에 물이 들었는지 뚜껑을 열어 확인하고 안에 든 물을 수건에 가득 뿌렸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닦는 것보다는 수건에 적시고 얼굴을 닦는 게 안색을 덜 상하게 하니까.잎사귀는 막대발이 제 얼굴을 수건으로 살살 문질러 닦을 동안 얌전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무희들은 서로를 치장하는 데 익숙했다. 무희라면 높은 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신을 꾸미고 서로를 꾸몄다. 예쁘지 않은 무희는 죽어 마땅하다 여기는 높은 분들 눈에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입술을 바를까?”“아냐, 연회에 들어가기 전에 바르자.”잎사귀가 약간 마른 자신의 입술을 만지며 묻자 막대발은 고개를 저었다. 무희들이 쓰는 입술연지는 독해서 한 번 쓰면 일주일 정도 지워지지 않지만, 입술이 짓무를 수도 있어서 색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덧바르지 못한다. 나흘 후 열리는 연회에서 가장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날 발라야 했다.막대발은 빗을 들고 잎사귀의 머리를 살살 빗었다. 허리 끝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은 늘 잘 관리해오던 터라, 헝클어졌어도 몇 번 빗으면 금세 찰랑거렸다. 막대발은 연두색 머리카락을 빗어 내리면서 첨탑 꼭대기 방의 어린 종을 생각했다.‘이렇게 빨리 불려갈 줄 알았으면 또 가겠다고 하지 말걸.’막대발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연회 전까지는 계속 볼 수 있을 줄 알고 바보같이 또 오겠단 말을 남긴 것을 후회했다. 차라리 아무 말도 말고 올 것을.막대발은 왼쪽 손목에 감긴 가죽 팔찌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었다. 막대발은 이름이 갖고 싶어서 바느질 방에 찾아갔었지만 갖게 된 것은 구슬 허리띠와 가죽끈을 엮어 만든 팔찌였다. 막대발은 잎사귀에게 ‘다른 애들도 이리로 데려와 줘.’라고 말하고 잎사귀를 밖으로 내보냈다.‘또 볼 수 있을까.’막대발은 투왈렛 밖으로 나가는 잎사귀의 뒷모습을 보며 힐을 생각했다. 그 높다란 첨탑의 찬 공기가 조금 그리웠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다.막대발은 자신이 그리움을 품기보다, 타인에게 그리움을 주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돌아가지 못할 수 있는 곳을 마음에 품어 괴로운 것도, 운이 좋아 돌아가게 되었을 때 자신을 잊은 이를 보고 슬픈 것도 싫어서.막대발은 이전보다 더 살고 싶었고, 이전만큼 죽는 게 무섭지 않았다. 바느질 방의 굼뜬 종, 느림보는 둔하고 순진해서 막대발이 죽어도 막대발을 계속 기다릴 것 같았으니까. 하염없이 기다리게 한 게 미안해서 또 간다고 한 것을 후회하다가도, 느림보가 자신을 평생 기다린다는 게 좋았다.‘꼭 다시 보러 가고 싶어.’어둑한 새벽, 힐은 눈을 뜨자마자 팔에 감아둔 천을 몽땅 풀었다. 붓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힐은 자주 맞아서인지, 어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다쳐도 꽁꽁 싸매놓으면 하루 이틀 내로 낫곤 했다. 뼈가 부러졌을 때도 다른 종은 몇 달을 끙끙 앓았는데 힐은 보름이면 싹 나았다.힐은 빠르게 준비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흰 코가 부엌으로 오라고 할 때는 늘 기분이 좋았지만, 어제 본 막대발의 춤 이야기를 해줄 생각을 하니 어쩐지 조급해졌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도착하려고 부지런히 달렸다.“흰 코 언니!”무거운 부엌문을 몸으로 힘차게 밀었다. 문이 열리고 나니 아무도 없는 텅 빈 부엌만 덩그러니 있었다. 흰 코가 미리 와 있을 줄 알고 잔뜩 들뜬 기분이 부엌 안을 맴도는 적막에 조금씩 사그라들었다.부엌은 조용했지만 방금까지 사람이 있었던 듯, 불이 크게 피워져 있었고, 끓인 스튜의 고소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잠깐 어디 간 건가?’힐이 고개를 갸웃대며 부엌을 쭉 둘러봤다. 스튜를 퍼낸 큰 냄비가 설거지통에 세 개나 들어 있었고, 바닥엔 당근 뿌리와 양파 껍질이 물에 젖은 채 나동그라져 있었다. 힐은 쓰레기를 담을 자루를 하나 꺼내 바닥에 널려있는 것들을 주섬주섬 담기 시작했다. 부엌 종은 아니지만, 허드렛일을 줄곧 담당해와서 자루를 찾는 것도, 바닥을 치우는 것도 자연스러웠다.언제나 오려는 지 부엌문에 귀를 기울이며 바닥을 전부 다 치워갈 무렵, 부엌 밖에서 여러 개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다른 종들을 불러온 걸까?’흰 코는 힐과 있을 때 다른 종을 만나는 걸 꺼렸다. 그래서 힐은 잠깐 머뭇대다가, 곧 문이 열리면 재빨리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흰 코와 잔뜩 이야기하고 싶지만 다른 종들과 있을 때는 힐과 대화해 주지 않는다. 흰 코는 그게 힐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문이 열리자, 두껍고 긴 튜닉을 입고 있는 남자 몇 명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힐은 뛰어나가려다가 한 남자의 손에 목덜미가 잡혀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젊은 여자 종이라고 하지 않았나?”키가 크고 머리카락도 콧수염도 하얗게 센 중년의 남자가 바닥에 나동그라진 힐 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힐의 턱을 신발 앞 코로 슬쩍 들어 올려 얼굴을 확인하고 물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남자가 그의 귓가에 뭐라고 조용히 대답하는 것 같았지만 갑작스레 벌어진 상황에 놀란 힐은 제 심장이 쿵쿵대는 소리 말곤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그 여자 종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 가스파드, 류트에게 다른 종으로 둘 더 데려가겠다고 전해.”“네, 이 종과 다른 하나는 어디에서 데려가시겠습니까?”“보이는 대로 한 놈 더 데려간다.”중년 남자는 긴 튜닉을 입은 남자가 힐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고 몸을 돌려 부엌 밖으로 나갔다. 힐은 끌려나가면서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힐이 상황을 알게 된 건 그들이 다른 종을 하나 더 붙잡아서 한참을 걸어 화려하기 짝이 없는 파티 홀로 집어 던졌을 때였다.힐과 함께 끌려온 남자 종은 그들이 힐과 그를 홀 안으로 밀자마자 고개를 바닥에 조아리고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덜덜 떨었다. 힐은 그 종이 하는 것처럼 고개를 바닥에 박고 얌전히 숨을 죽였다.“다시 올 때까지 전부 닦아둬라.”그들은 힐과 남자 종이 덜덜 떨든 말든 관심도 없다는 듯, 그 말만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남자 종은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야 고개를 들고 시뻘건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 힐은 그제야 그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울보…?”가축이 먹을 여물을 쑤는 종 울보다. 부엌과 가까운 곳에 여물을 쑤는 아궁이 방이 있어서 종종 일하다가 마주친 적이 있었다.“ 느림보야. 어서, 어서 바닥을 닦아야 해.”울보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닦을 것을 찾아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다. 그는 힐이 무언가 묻기도 전에 여기가 연회 장이라고 이 바닥을 빨리 깨끗하게 닦아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며 횡설수설했다.힐은 피가 식는 것 같았다.‘바깥사람들이었어.’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좋은 천으로 만든 흰 튜닉과 종 중 가장 수를 잘 놓는 영감이 놓은 것보다 촘촘히 놓인 수는 아주 고급스러웠고, 막대발보다 우아한 말씨를 썼다.힐은 울보가 뭐라고 중얼대건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바닥을 닦았다. 바깥사람들이 시킨 일은 무조건 해내야 한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지만 돌아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닦아야 했으니까. 힐은 바삐 손을 놀렸다.울보도 열심히 바닥을 닦았다. 피가 말라붙어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놀라서 뒤로 파드득 물러났다가도 다시 이를 악물고 바닥을 벅벅 닦았다. 가끔 손에 말라비틀어진 핏덩어리나 사람 살점 같은 게 잡히면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볼 안쪽 살을 꾹 깨물기도 했다.“이건, 이건 분명 걔가 오기로 했었던 건데.”울보는 눈물을 훔치며 ‘이건 정해진 사람이 하기로 했잖아’, ‘왜, 왜 나를’ 같은 소리를 가끔 했다. 힐은 울보의 말을 들으면서 차라리 다행인가 싶기도 했다. 연회장은 넓어서 힐이 혼자 닦아야 한다면 하루를 꼬박 써도 간당간당했겠지만, 울보랑 같이한다면 반나절도 안돼서 다 닦을 수 있을 것 같았다.울보는 자주 울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귀찮고 짜증 나게 했지만, 손이 재빠르고 일을 잘했다. 흰 코와 만나기로 했던 일, 바느질 방에 가야 하는 일이 떠올랐지만, 힐은 눈앞에 닥친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다.울보가 바닥에 널린 핏자국 같은 흔적을 보면서 ‘힉’하고 놀라며 눈물을 흩뿌려대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힐이 바닥 걸레 빤 물을 바깥에 버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해가 높게 올라갔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떴을 때는 살육의 흔적은 물론이고 울보가 흘린 눈물 자국마저 흔적도 없이 닦아낼 수 있었다.걸레와 양동이도 깨끗하게 씻어서 정리하고 조금 더 기다리자, 힐과 울보를 여기로 데려온 사람과는 다른 남자가 바닥을 검사하러 왔다. 그는 머리카락을 깔끔히 뒤로 넘기고, 흰 장갑을 끼고 와서 여기저기를 흰 장갑으로 쓸어보며 꼼꼼히 바닥을 살폈다.그가 바닥을 다 살피는 데에는 시간이 제법 걸렸다. 연회장이 넓기도 했고 그가 집착하듯 모든 곳을 확인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몇 번이나 인상을 써서 힐의 심장을 덜컹거리게 했지만, 이내 잘 닦인 바닥에 만족한 듯,“나가지.”라고 말하곤 힐보다 네 배는 더 커 보이는 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울보는 그때까지도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불안에 떨었지만 남자는 종들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고 종들의 성으로 데려다주었다.바깥은 낮이 한창이었다. 하늘은 파랗고 간간히 떠 있는 구름은 하얗고. 늦가을의 찬 공기도 햇살이 주는 따사로움을 방해하지 못했다. 영문도 모르고 낚아채 져서 왔을 때는 짐수레에 실려 반쯤 끌려왔기 때문에 주위를 볼 여유가 없었는데, 힐은 바깥이 생각보다 두렵지 않음에 얼떨떨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바닥에 깔린 돌 틈으로 빼꼼히 나온 초록 잎이 신기했고, 바닥에 뿌리를 박고 있는 나무도 성안에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것과는 너무 달라 보여서 신기했다.얼마 전까지는 바깥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생각만 해도 몸이 얼어붙었는데 지금은 바깥사람의 바로 뒤를 따라 걷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다.그들이 자신을 해할까봐 여전히 두려웠지만, 전에 느꼈던 공포와는 질적으로 달랐다.‘막대발이 바깥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그런가 봐.’힐은 그럴 듯하다고 생각했다. 막대발의 이야기에는 바깥의 높은 분들도 자주 나왔는데, 종들의 이야기에서처럼 누군가를 죽이거나 때리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단 것을 주고, 막대발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야기, 막대발이 춤을 추고 노래를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대부분이어서 자신의 공포가 많이 사라진 게 아닐까 짐작했다.연회장은 종들이 사는 성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힐이 남자를 따라 두시간이 조금 넘게 걷자 금방 다시 종들이 사는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힐이 바느질 방의 문을 열었을 때, 평소같이 가죽에서 나는 시큼 텁텁한 냄새와 먼지 냄새가 아니라 비릿한 썩은 내가 방 안에 가득했다. 힐은 이 냄새를 알고 있다. 여름에 죽은 종을 구석에 두면 나는 냄새다. 힐은 냄새를 맡자마자 영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방안을 둘러보았다.“느림보 왔구나.”눈 밑이 거뭇한 대장이 젖은 손을 닦으며 힐을 반겼다. 대장은 방 한쪽에 있는 큰 테이블 위에 무희 복을 펼쳐두고 그 위에 액세서리를 올려 시침 핀으로 고정하고 있었다. 바느질 종들은 옷보다 담요나 수건, 청소에 쓰는 헝겊 걸레 같은 것을 더 많이 만들지만 한 번씩 옷을 만들 때면 함께 만든 부속품이 빠지지 않게 옷에 시침 핀으로 고정해서 보내곤 했다.“오늘 새벽에 전부 끝냈다. 어휴, 사람도 적은 데 영감이 죽어가니 내가 할 게 너무 많았어.”힐은 대장의 시선을 따라 옷을 보다가 한쪽 구석에서 눈을 치뜨고 기대앉은 영감을 봤다. 영감이 숨을 쉴 때마다 쉭쉭 거리는 쇳소리가 났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나질 않아서 영감의 목 아래까지 덮인 담요가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면 힐은 영감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힐이 연회장 바닥을 닦느라 늦게 바느질 방에 왔는데도 대장은 한 마디 타박도 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만 이야기했다.‘누가 벌써 대장한테 이야기했나보다.’자신이 하던 일 도중에 어딘가로 불려갔다 돌아오면, 힐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종들은 힐이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힐은 자세한 건 몰라도 누가 힐이 어디로 갔는지 다른 종들에게 알려준다는 건 눈치로 알고 있었다.어린 종들은 모르지만, 종들의 성에 사는 낮은 피는 왕성의 시종과 하인들에게 관리받고 있다.명목상이긴 하지만 낮은 피를 가진 종들은 높은 분들에게 자신을 바쳐 헌신하는 자다. 귀히 여겨지지 않지만 높은 분들을 위한 준비된 것이라 여겨 누가 살고 죽었는지 정도는 기록했다.물론 그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진 않지만, 기록된 종들의 수와 실제 종들의 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들이 바깥으로 불려 나갈 때는 모두 기록을 한다.기록을 담당하는 하인 류트는 오늘처럼 바깥으로 나간 종을 기록하면서 담당하는 구역에도 미리 말을 전해주어서 힐이 짐수레에 실리던 그때 이미 바느질 방으로도 힐이 바깥으로 불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한참을 자신의 고생을 한탄하며 궁시렁 대던 대장은 힐이 영감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힐의 등을 조금 세게 토닥였다.“아직 숨은 붙어 있어. 너무 보지 말고 가까이 가지두 말아.”대장은 귀찮다는 표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영감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급히 해야 하는 일은 전부 끝났다. 대장은 영감이 죽어도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했다.힐은 원래도 영감 근처에 갈 생각이 없었지만, 대장의 말을 듣고 나선 한 발자국 더 떨어졌다. 죽어가는 종의 근처에 가는 건 위험하다. 자칫하다간 살이 닿아서 썩을 수도 있고 병이 옮기도 한다.“꾸물대지 말고 저걸 씻자.”대장은 힐의 등에 손을 대고 앞으로 쪽 밀었다. 대장이 턱 끝으로 가리킨 곳에선 수북이 쌓인 양털이 있었다. 대장은 힐이 양털을 씻기 위해 큰 나무통을 가지러 다녀오는 동안 시침 핀으로 액세서리를 고정한 무희 복 다섯 벌을 넓게 펼친 천으로 두 번 감싸 한 쪽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곧 하인이나 무희 중 하나가 이 옷을 가지러 올 것이다. 대장은 이 옷을 보내고 나면 힐도 바느질 방에서 내쫓을 생각이었지만, 오늘 아침에 바깥에서 하인이 잔뜩 가져온 양털을 보며 생각을 고쳤다.양털로 고운 뜨개실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여간 고된 게 아니라서 부리기 편한 힐을 조금 더 데리고 있기로 했다.“재를 여기에 풀어.”힐이 가져온 큰 나무통에 물을 채우며 대장이 손짓하자 힐은 재를 손으로 퍼서 물에 풀었다. 손이 가렵고 따끔거리며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힐은 덤덤히 옆에 있는 물통에 손을 담그고 최대한 문지르지 않으려 애쓰며 손을 헹궜다.잿물은 몸을 쉽게 상하게 하지만 나무 막대기로만 저어서는 재가 물에 잘 풀리지 않는다. 골고루 섞이지 않으면 양털이 잘 씻기지 않거나 상하는데, 양털이 상하는 것보다 직접 손을 담그고 잿물을 만드는 편이 더 나았다.양털을 잿물에 담그고 때가 빠지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대장과 힐은 열심히 몸을 움직였다. 힐은 나중에 양털을 말리기 위해 건조대를 잔뜩 꺼내고 건조대 위의 물건을 몽땅 치웠고, 대장은 자투리 천을 모아 종들이 쓸 앞치마를 만들고 틈틈이 잿물에 담긴 양털을 나무 막대로 눌러보며 살폈다.정신없이 움직이면서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일하는 소리만 가득한 곳에서 한 번씩 영감의 몸이 파득 거리며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힘겨운 숨소리만 가끔 들렸다.해가 서서히 저물었다. 양털은 그사이에 한 번 발로 꾹꾹 눌러 밟아 빨고 다시 잿물을 만들어 넣어두었다. 아마 한 번 더 밟아 빨고 나면 양털에 그득한 기름때는 다 지워질 것 같았다. 그때부터는 찬 물에 넣고 색이 깨끗해질 때까지 씻고 말리기를 반복해야 한다.대장은 힐에게 굳은 빵을 두 개 쥐여주었다. 힐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덥석 빵을 물었다. 빵은 굳어서 씹으면 바스러졌지만 그렇게 딱딱하진 않았다. 대장도 힐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빵을 먹었다. 대장의 빵은 한 개여서 힐은 자신이 받은 빵 중 하나가 누구의 것인지 깨달았다.영감. 영감의 몫이 힐에게 주어졌다. 힐이 그 사실을 깨닫기 무섭게 영감이 크게 비명을 지르듯 기침을 했다.“컥, 쿨럭!”영감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기침을 했고 기침을 할 때마다 피를 한 바가지씩 토했다. 대장은 그 모습을 보고도 태연해서 힐도 짐짓 태연한 척 앉아 있었지만 손안에 든 빵은 도무지 줄어들 질 않았다.“이만 돌아가 봐. 내일은 일찍 오고.”한참 피를 토하던 영감이 부르르 떨다가 축 늘어져 버리자 대장은 힐을 내보냈다.‘질긴 늙은이라서 그래도 내일까진 살아 있을 줄 알았는데.’대장은 먹던 빵을 몽땅 입에 털어 넣고 손을 털며 영감 앞에 섰다. 발로 툭툭 영감의 뺨을 쳐보다가 피가 묻은 신발 앞 코를 영감의 옷에 문질러 닦았다.대장은 영감의 시체를 두고 바느질 방 밖으로 나가서 가뿐한 걸음을 옮겨 1층으로 향했다. 종들의 성 1층에는 종들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하인 류트의 방이 있는데 영감이 죽었으니 그에게 말을 전하러 가야 했다.“느림보는 일이 너무 굼떠.”대장은 새 종들이 오기 전에 부려먹기 쉬운 힐을 더 데리고 있을 작정이었지만, 오늘 일하며 꼼꼼히 살펴보니 손이 영 느렸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영감이 죽었다고 말하며 힐도 내쫓아버리자니 뜨개실을 만드는 일은 너무 고되서 다른 종들을 배정받기 전에 혼자 하고 싶지 않았다.‘누구든 손 빠른 애로 셋만 오면 좋을 텐데. 느림보가 살아 있으니 셋까진 안 줄 테고.’대장은 고민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영감은 죽었고 힐은 바깥에 불려갔던 참이다.바깥에서 돌아온 것을 이미 류트가 알고 있을 테니 힐이 죽었다고는 못하겠지만 다녀오고 나서 일을 너무 못해 쫓아버렸다고 하면 류트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종들을 바느질 방으로 보내줄 것이다.‘다른 애들이 올 때까지만 느림보를 데리고 있다가 쫓아내면 되잖아! 다른 애들이 오기 전날 쫓아내면 아무도 모를 거야.’대장은 자신이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싱글벙글 웃으며 걸음을 재촉했다.힐은 방으로 돌아와서 품에 넣어온 빵 하나를 꼭꼭 씹어 다 먹어 치우고 하나는 자투리 천을 담아둔 바구니 안에다가 깨끗한 천으로 싸서 숨겼다. 빵을 만드는 것도 노동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 종들은 보통 익힌 감자나 당근 같은 것을 주로 먹었고 주에 두 번 정도는 스튜와 빵을 먹었다.막대발은 파티에 갈 때면 높은 분들이 맛있는 것을 먹게 해줄 때도 있다고 했지만, 평소에 뭘 먹는지는 말한 적 없었다. 힐은 막대발도 낮은 피니까 아마도 힐과 같은 것을 먹지 않을까 짐작했다.‘이 빵은 이따가 밤에 막대발이 오면 줄 거야.’빵 하나를 다 먹었어도 여전히 더 먹고 싶었지만, 힐은 꾹 참았다. 자꾸 빵을 숨긴 바구니로 눈이 가서 애써 다른 생각을 하기도 했다.“이렇게 양손을 뻗으면 포옹을 해주는 거야.”어제 막대발이 해준 포옹이 생각났다. 따뜻하고 말랑한 기분이 떠올라 코끝이 찡했다. 힐의 어휘는 막대발로 인해서 전보다는 조금 넓어졌다. 막대발이 알려준 말은 잔뜩 메마른 힐의 세상에 단비 같았다.흰 코가 힐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밝혀주는 태양 같은 사람이라면 막대발은 바싹 메마른 힐의 세상에서 비였다. 불쑥 힐을 찾아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웃어주고, 안아줬다. 힐은 막대발이 찾아올 때면 기뻤다.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힐의 세상은 막대발로 젖어 들어 메마른 곳마다 그녀의 흔적이 기쁨으로 남았다.막대발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자신도 막대발에게 무언가 주고 싶었다. 어제 허리끈과 가죽 팔찌를 받아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빵을 받고 춤을 춰줬으면 했다.힐은 이미 달이 뜰 무렵에 방에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막대발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대발은 달이 높이 걸리고 점점 지다가 사라질 때까지 오지 않았다. 힐은 한순간도 자지 않고 막대발을 기다렸다. 혹시 소리를 듣지 못한 걸까 싶어 문도 활짝 열어두었다.찬 공기가 너무 시렸지만, 힐은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렸다. 계단 앞까지 나가 앉아있기도 했지만 결국 해가 뜨기 시작했다. 막대발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힐은 천천히 몸을 움직여서 바느질 방으로 내려갔다.멍하니 움직여 양털을 씻고 말리고, 대장이 시키는 일을 묵묵히 했다. 대장은 묘하게 힐에게 관대하게 굴며 힐을 일찍 방으로 보내주었다. 힐은 매일 밤 욱신거리던 몸의 고통도 못 느낄 만큼 애타게 막대발이 오길 기다렸다.또 온다고 했던 막대발은 그날도, 그다음 날도, 연회를 하루 앞둔 날도 오지 않았다. 힐도 그녀가 언젠가 오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연회 이후에나 그럴 줄 알았다. 연회 전엔 매일매일 힐을 보러 올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해왔던 터라 힐은 괴로웠다. 그날 준 가죽 팔찌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허리띠가 안 예뻤나. 고민해 봐도 힐은 답을 알 수 없었다.막대발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세상 이야기도, 바깥사람 이야기도, 막대발 본인의 이야기도. 하지만 힐은 막대발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아무리 머릿속을 뒤져 막대발이 해준 이야기를 끄집어내도 힐이 막대발에게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없었다.힐은 늘 막대발의 말을 듣고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막대발에게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힐이 알고 싶어 했던 막대발의 이야기는 알 수가 없었다. 가령, 힐이 막대발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평소에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같은 것들.힐은 연회 날 동이 틀 때까지 뜬눈으로 지새웠다. 그리고 바구니에 숨겨둔 마른 빵을 꺼내 와구와구 씹어 삼켰다. 굳은 빵이 딱딱해서 이가 얼얼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빵을 다 먹어 치우고선 종들이 쓰는 욕탕에 가서 몸을 씻었다. 찬 물로 온몸을 씻어내니 하얀 힐의 피부가 창백하게 질려 더욱 하얘 보였다.몸을 씻고 바느질 방으로 향하는데, 바느질 방으로 가는 복도에 대장이 서성이며 힐을 기다리고 있었다.“안녕하세요.”힐이 대장을 보고 고개를 꾸벅 숙였다. 대장은 꽤 오래 복도에서 서성거리며 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살짝 열린 바느질 방문 틈으로 종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빠져나와 복도를 조금씩 울리고 있었다. 대장이 언제 오나 애타게 기다리던 다른 종들이 오늘 도착해서 일거리를 나누는 중이었다.류트는 대장이 원했던 것처럼 손이 재빠른 종이 넷이나 보내주었다.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많은 종을 보내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장은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자신이 부릴 이가 많아졌다는 게 중요한 거지. 대장이 콧노래 하며 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지푸라기 같은 아마 색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평소보다 짙은 색을 띠었고 늘 흐리멍덩하다고 생각했던 먹구름 같은 하늘색 섞인 잿빛 눈은 평소보다 멍청해 보였다.“너는 이제 바느질 방에 오지 마.”대장은 밝은 표정으로 다른 말은 더할 생각도 없었는지 그렇게 말하곤 몸을 휙 돌려 바느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힐은 한동안 대장이 떠난 자리에 멈춰 있었다. 바느질 방에서는 재잘대는 말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대장이 괄괄하게 내지르는 목소리도 같이.‘돌아가자.’힐은 몸을 돌렸다. 왔던 길을 되돌아 첨탑 꼭대기에 있는 자신의 방에 돌아가려 했다. 평소라면 허드렛일이라도 할 게 없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렸겠지만, 지금은 너무 지쳤다. 며칠째 잠 한숨 자지 않아 돌아가자마자 잠을 잘 생각이었다.한층, 두층 계단을 올랐다.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으려니 주변에서 종들이 바삐 뛰어다니는 소리, 화를 내는 목소리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같은 것들이 귓가를 윙윙 울렸다.힐이 어쩐지 더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뒤에서 큰 손이 힐의 어깨를 확 끌어당겼다.“느림보!”어깨를 잡아끄는 손길에 몸이 뒤로 휙 돌아갔다. 여기서 뭐 하냐고 묻는 울보의 표정이 힐을 보며 확 밝아졌다. 같이 바깥에 다녀온 후로 울보를 본 건 처음이었는데, 울보는 힐이 굉장히 반가운 듯 환하게 웃으며 아는 체를 했다.“어디 가고 있었어?”“방에 가요.”“네 방에? 왜?”종들이 이 시간에 방에 돌아갈 일은 없다. 울보는 힐이 자신을 제치고 방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힐의 앞을 막아섰다.그는 스물 여섯 살로 이 성에서만 십오 년을 살아서 성이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선 힐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다. 가끔 어린 종들이나 게으른 종들이 일하는 시간에 방에 돌아가 쉬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모진 매질을 당한다. 그는 힐이 매질을 당하지 않게, 돌아가 일하라고 종용할 생각으로 힐의 앞길을 막은 것이다.힐은 울보의 질문에 한참을 머뭇거렸지만, 자신보다 한참 크고 건강한 울보를 무시하고 가거나 대답을 피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대장이… 대장이 이제 오지 말라고 했어요.”울보는 인상을 썼다. 앞뒤를 모두 잘라 먹은 그 말만 듣고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았다. 바느질 방의 영감이 죽은 건 이미 많은 종의 입을 타고 소문이 퍼져서 알고 있었고 그곳에 남은 대장이 어떤 선택을 한 건지 불 보듯 뻔했으니까.‘이건 좋지 않은데.’담당하는 구역 없이 허드렛일을 하는 종들은 쉬면 안 된다. 그게 다른 종들에게 들켜 매질을 당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더 두려운 것은 쓸모없어진 종은 바깥으로 불려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다.대장은 분명 다른 종들이 많이 오길 바라면서 이 조그만 아이를 다른 구역에 보내주지도 않고 그냥 내쫓아버렸다고 생각하니 울보는 화가 나서 당장 울 것처럼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그럼 나랑 가자.”울보는 힐에게 한 번도 허드렛일을 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힐이 의아해하면서도 선선히 울보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냥 방에 가서 자려고 했었지만, 종에게는 할 일이 있다면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니까.“여물을 쑤는 데 네 키만 한 나무 주걱이 필요해. 그걸 만들러 갈 거야.”“원래 있던 건요?”힐은 저도 모르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흠칫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질문이 입 밖으로 빠져나와 버렸다. 대장은 힐이 물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힐이 물으면 어김없이 뭔가를 던져 힐의 머리를 맞추곤 했다. 대답도 해주지 않았고.대장만 그랬던 것도 아니라서, 힐은 언제나 최대한 입을 다물고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가끔가다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입 밖으로 불쑥 튀어 나가곤 했다.“날이 추워졌잖아. 날이 추워지면 물이 닿는 나무는 다 금이 가서 못써.”울보는 힐을 쳐다보지도 않고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해주었다. 같이 바닥을 닦을 땐 울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힐에게 매달려 징징대기만 해서 힐은 그를 굉장히 귀찮은 사람으로 여겼는데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자 그가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았다.울보는 힐의 표정을 힐끔 바라봤다. 바느질 방에서 쫓겨나서인지 멍하니 귀신처럼 걷던 아이의 눈에 약간이나마 생기가 도는 듯해, 울보는 조금 신난 어조로 여물을 쑬 때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만들 나무 주걱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같은 것을 주절주절 설명해주었다.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얌전히 들었다. 울보는 어쩐지 자신을 때리지 않을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있으면 조금 물어보기도 했다. 그때마다 울보는 어설프게나마 최선을 다해 설명해주었고 궁금한 게 더 없는지 물어봐 주기도 했다.‘울 때는 조금 귀찮았지만, 울보는 착하구나.’힐은 울보가 착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래서 자주 우는 걸까? 힐은 힐끔 이야기 중인 울보를 바라보았지만 착해서 자주 우는 거냐고 물어보지는 않았다. 울보가 창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그 둘은 성을 한참 걸어서 2층에 도착했다. 층마다 긴 복도가 있고 복도에 방문이 빼곡히 들어찬 게 이 성의 기본 구조다.2층은 힐이 한 번도 와 본 적 없는 곳이었는데, 성의 다른 곳과는 다르게 계단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곳에 문이 달려 있었고 문을 열자 층 전체가 뻥 뚫린 하나의 공간이 보였다. 방으로 구획이 나뉘어 있지 않아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산한 느낌이 들었다.나무판자나 갓 잘라온 듯한 큰 나무들이 2층 중앙에 높게 쌓여 있었고, 나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종들의 키보다 네 뼘은 높은 파티션을 군데군데 쳐서 작업 공간을 분리해두었다.“와아.”힐이 나지막이 탄성을 질렀다. 한 층을 통째로 쓰는 데다가 온통 나무를 자르고 사포질은 하는 중이라서 창문을 모두 열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쏟아져 내리는 빛은 힐이 보기에 아주 멋있었다.“목공 층에는 처음 왔구나.”울보는 눈이 동그래진 힐을 보며 작게 웃고 층 전체를 쭉 둘러보았다. 파티션으로 나눠진 이곳은 위에서 보면 웅장한 미로를 보는 것 같아 꽤 근사했지만, 아래에 직접 내려가면 높은 파티션이 다 자란 종들 키보다 높게 올라와서 길을 모른다면 꼼짝없이 헤매게 된다.파티션으로 나뉜 작업 공간에는 잔뜩 예민해져서 목검을 깎는 대장장이들도 있어서 잘못 들어가기라도 하면 호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울보는 고개를 끄덕이는 힐에게 아주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구석에 사면이 벽과 파티션으로 막혀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고 재빨리 나가서 커다란 나무토막을 세 개 들고 왔다.힐은 힐의 키보다 머리 하나 정도 작아 보이는 큰 나무토막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나무토막이 이렇게 큰 걸 처음 보기도 했고 나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울보가 그 큰 걸 세 개나 한 번에 들고 왔다는 게 제일 놀라웠다.‘울보는 맨날 울고 칭얼거리는 데 힘은 아주 센가 봐.‘힐은 잠깐 울보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종들 사이에서 울보처럼 나약해 보이는 종은 쉽게 먹잇감이 된다. 화풀이로 때릴 때도 있고 일을 마구 떠넘기거나 먹을 것을 빼앗기도 하는데, 다들 울보를 귀찮아하긴 해도 표적 삼아 괴롭히는진 않았으니까.힐은 그게 울보가 힘이 센 걸 모두 알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도 할 수 있을지 나무토막 하나를 들어보려 했는데, 조금 들자마자 팔이 후들거리고 이내 놓쳐버렸다.“조심해야 해. 나무가 부러지면 안 돼.”울보는 사포와 톱을 챙겨 들다가 힐이 나무를 놓치는 걸 보고 재빨리 나무토막을 붙들었다. 다행히 큰소리가 나지도, 나무가 부러지지도 않아 안도했다.울보는 톱으로 나무를 썰었다. 대충 나무 주걱 모양이 나오도록 크게 모양을 자르고, 작은 칼을 가져와서 손잡이 부근을 조금 더 다듬었다. 어차피 제가 쓸 것을 만드는 거라서 잡기 편하게만 다듬을 셈이었다.울보가 제법 그럴싸한 모양으로 주걱을 다듬고 나서 힐에게 사포를 건네주었다. 사포로 이곳저곳을 살살 문질러서 나무 가시가 하나도 없도록 다듬으라고 말했다.“이렇게 잡고 해야 손이 안아플거야.”울보가 일을 시키는 건 다른 종들과 달랐다. 다른 종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뿐인데 울보는 어쩐지 계속 ‘이렇게 해야 덜 힘이 든다.’라거나 ‘이렇게 하면 손이 안 아프다.’ 같은 말을 했다.힐은 울보가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싫진 않았다. 물어봐도 화내지 않고 열심히 설명해주는 것이 좋았고, 힐의 손을 잡아주던 딱딱하고 뜨끈한 손도 좋았다. 오늘은 울지 않는 점도 좋았다.“영감은 죽었지?”한참 묵묵히 사포질하는데 맞은 편에 울보가 털썩 앉아 사포를 집어 들며 물었다. 힐끗 보니 나무토막 두 개를 주걱 모양으로 다듬는 일이 끝난 듯했다.“네. 죽었어요.”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울보는 먼지 가득한 손으로 눈시울을 문질렀다. 저번에도 계속 우는 꼴만 보인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코가 매운 게 눈물이 찔끔찔끔 흐를까 봐 민망함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다행히 힐은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어서 보지 못한 것 같았다.“조금 더 자주 보러 갈 걸 그랬나 봐.”울보는 사포를 주걱에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자신도 예전에는 바느질 방에서 허드렛일했었다며 예전에 영감과 어떻게 지냈는지를 짧게 알려주었다. 힐은 십 년 전의 영감 이야기를 꽤 흥미롭게 듣다가,“영감이 보러 와도 된다고 했어요?”하고 물었다. 힐은 불현듯 궁금했기 때문에. 막대발은 늘 또 온다고 말했고 자신을 고개를 끄덕였다. 막대발이 못 봤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에 자신은 늘 허락했다. 그리고 막대발은 늘 자신을 찾아왔고.‘그건 막대발이 용감했기 때문이야.’힐은 막대발을 보는 것을 이제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막대발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신은 다시는 막대발을 만날 수 없고, 그녀는 이제 오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자신이 찾아갈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종은 성 밖으로 나가는 게 자유롭지 않았고, 막대발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막대발이 힐이 찾아가도 기뻐할지 알 수 없었다.다른 궁금했던 것들 사이에 파묻어 둔 질문, 힐이 가장 묻고 싶었던 것은, ‘너도 나랑 있으면 기뻐?’ 였다.힐은 막대발이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자신을 봐도 안아주지 않고, 웃어주지 않는 게 무서웠다. 그래서 막대발을 찾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보는 걸 포기하려고 했었다.“아니. 영감은 성질이 나쁜걸.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가끔 갔어.”“화 안 냈어요?”“화냈지만 괜찮아. 내가 보고 싶었던 영감 중에는 화내는 영감도 있었어.”그는 ‘영감이 화내는 거 가끔 재미있어. 맞기 전에 도망가긴 해야 했지만.’하고 덧붙이며 웃었다. 울보의 눈꼬리가 부드럽게 휘었다. 늘 눈물을 달고 사는지라 약간 짖물러 붉게 튼 눈가를 가만 보다가 힐은 다른 주걱 하나를 잡고 사포질을 시작했다.화냈지만 괜찮아. 내가 보고 싶었던 영감 중에는 화내는 영감도 있었어.그 말이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힐의 멍한 머리를 한순간에 깨워주었다. 울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솔직히 힐은 잘 몰랐다. 영감을 골리는 게 즐거워서 보러 갔다는 건지, 보고 싶어서 간 김에 골렸다는 건지. 사실 둘 다 아닐지도 몰랐다.힐은 그냥 울보의 말을 듣고 나니 문득, 막대발이 자신을 보고 화내도 막대발을 본다면 기쁠 것 같았다.‘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막대발이 나를 만나는 걸 안 좋아할 수 있고, 내가 찾아가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막대발이 보고 싶어.힐은 또 뱃속이 울렁거린다고 생각했다. 이건 설레는 거야. 막대발이 알려줬다. 얼굴이 온통 홧홧하고 웃음이 나올 것 같고 뱃속이 울렁거리면 그건 설레는 거라고.힐의 머릿속에 울보와 함께 바닥을 닦던 연회장이 떠올랐다. 그 바닥에 눌어붙었던 피와 살점이 함께 떠올랐다. 그건 어쩌면 이전에 연회에 참여한 무희의 것일지도 몰랐다. 막대발은 이번 연회에 참가하는 무희라서 연회가 끝나면 영영 볼 수 없을 수 있었다.‘막대발이 안 좋아하더라도 내가 막대발을 보려면 오늘이 마지막이야.’오늘은 연회가 벌어질 테니까. 웃는 막대발이건 화내는 막대발이건 다 좋았다. 그녀와 지낸 시간은 너무 짧았고,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었다.힐은 마지막 모습이 ‘또 올게’인 건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또 오지 않고, 또 오지 못하면서 ‘또 올게’라니. 거짓말쟁이 막대발. 그런 건 싫어. 마지막은 ‘안녕’이라고 네가 나한테 가르쳐주었잖아.불쑥 막대발이 원망스럽기도 했다.“보고 싶으면 가서 봐도 돼요?”힐은 울보를 바라보고 물었다. 이미 막대발을 보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래도 울보가 가도 된다고 해줬으면 하고.“물론이지.”울보는 방긋 웃었다. 입꼬리를 한껏 늘려 웃는 모습은 장난꾸러기 소년 같았다. 힐이 조금은 후련한 표정으로 마주 웃었다.‘그러면 딱 한 번만 더 보고 싶어.’힐은 머릿속으로 천천히 막대발을 보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했다. 머릿속에는 아직도 연회장으로 가는 길이 선명히 남아 있었으므로 성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얼핏 생각해보니 그것도 어려울 것 같진 않았다.이 종들의 성은 원래 높은 분들을 위해 지은 성이라서 하인들이 다니던 길과 침입자를 피해 달아나기 위한 도망 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그 길을 지금에 와선 종들이 쓰레기를 내다 버리거나 일을 하러 방과 방을 오갈 때 지름길 용 통로를 쓰곤 한다.특정 일을 도맡아 하는 경험 많은 종들은 다른 방에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잡일을 하지 않아서 보통은 허드렛일하는 종들이나 그 통로를 사용하곤 했다.통로는 간혹 종들 간에 싸움이 벌어져 맞아 죽은 종들을 숨기는 용도로 쓰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로에 죽은 종이 귀신이 돼서 복수를 하려고 종들을 죽인단 소문이 돌아 근래에 통로를 이용하는 종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힐은 그런 소문엔 아량곳 않는 편이었다.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그다지 두렵지도 않았다. 죽은 것들이 자신에게 해코지하는 것이나 다른 종들이 자신에게 해코지하는 것의 차이점을 못 느끼기 때문이기도 했고, 통로를 통해 돌아다니면 행동이 굼뜬 힐도 그나마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이기도 했다.힐은 오랫동안 성의 가장 어린 종으로 허드렛일을 쭉 해왔고 그동안 통로 구석구석을 꾸준히 돌아다녀서 통로 길을 눈감고도 찾아다닐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통로의 시작이 어디인지, 그 끝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고 있다. 아마 종들 중 통로를 가장 잘 아는 건 힐일터였다.힐은 머릿속으로 가장 빨리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고민했다. 삼층에 있는 통로 중에는 성 바깥 축사와 붙어있는 약초밭 쪽에 붙어 있는 게 있다. 여기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한층 위로 올라가서 통로를 찾아 나가면 될 것이다.바깥에서 누군가 마주칠지도 몰랐지만,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었다. 울보와 급하게 불려 나갔던 날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종이 외출할 때는 깨끗하게 씻고 흰 앞치마를 동여매고, 종임을 상징하는 표식을 달고 밖에 나간다.표식을 하고 나가도 재수가 없으면 죽겠지만 표식도 없이 나다니는 것보다는 바깥사람들의 손속에서 안전하리라.힐은 흰 앞치마도, 표식도 가지고 있었으니 최대한 이용해볼 작정이었다. 물론 그것들이 힐의 것은 아니긴 했지만 아무튼. 힐은 제 손을 잠깐 내려다보았다. 사포질을 하다 보니 온통 나뭇가루가 들러붙어 있었다.‘다시 씻어야겠다.’힐은 계획은 조금 수정했다. 일단 씻고 틈을 봐서 나가기로. 눈앞에서 묵묵히 사포질을 하는 울보가 문득 눈에 들어와서 힐은 돌아갈 때도 통로로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무도 마주치지 않으려면 그게 최선일 테니까.울보는 힐을 계속 데리고 다니며 일을 시킬 것처럼 굴었지만, 사포질을 끝내고 나무 주걱의 표면에 기름을 먹이고 나서는 힐을 풀어주었다. 이미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어서 힐은 조금 조급해졌다. 울보가 완성한 나무 주걱을 들고서 복도 문을 열자, 힐은 쏜살같이 뛰어나갔다.뒤에서 얼핏 울보가 조심하라느니 뛰지 말라느니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오층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서 세 번째 방문을 열고 커튼 뒤로 나 있는 통로로 들어갔다. 이 통로는 힐이 사는 첨탑 두 층 아래에 있는 욕탕으로 이어진다.힐은 유독 가파른 계단을 손까지 써가며 열심히 올랐다. 계단을 잡을 때마다 점점 더 손에 시커먼 때가 꼈다. 힐은 손톱 밑에 때가 끼지 않도록 가급적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에 힘을 꽉꽉 주었다. 손톱에 때가 끼면 찬물에 불려서는 잘 지지 않으니까.“휴우.”계단을 다 오르고 나서 힐은 귀를 쫑긋 세웠다. 이곳에서 서너 걸음만 더 가면 욕탕으로 이어지는데, 그곳부터는 발소리가 욕탕에서 들린다. 가급적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 다짐한 힐은 소리를 들어보고 누가 있다면 다시 내려가 다른 욕탕을 쓸 작정이었다.아직 달도 뜨기 전, 종들은 한참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라서일까. 아니면 이 욕탕이 워낙 작아 물을 덥힐 화로 하나 없기 때문일까. 이유야 어찌 되었건 힐에게는 다행히도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다. 힐은 안심하고 성큼성큼 걸어 욕탕으로 나갔다.더러워진 옷가지와 신발은 잽싸게 벗어 선반 위에 올렸다. 성인 셋이 들어가도 좋을 만한 욕조 안에는 차가운 물이 절반쯤 받아져 있었다. 힐도 원리는 모르지만, 이 성에 붙은 욕탕 중 몇 곳은 따로 물을 길어서 채워 넣지 않아도 물이 끊임없이 차오르는 곳이 있었다. 이 욕탕도 그중 하나지만, 이곳 물은 늘 차가워서 한여름이 아니면 사람이 거의 없었다.힐은 바가지로 물을 퍼서 나무통에 채웠다. 그리고 그 물을 손으로 조금씩 떠서 몸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몸을 문질렀다. 찬 물이 닿자 닭살이 오소소 돋아났다. 오래 씻으면 찬물이 살을 에는 것처럼 느껴져서 점점 씻는 게 고통스러워진다. 힐은 행동을 서둘렀다.잽싸게 목욕을 할 때 쓰는 약초 가루와 소금 섞은 것을 물에 풀어 넣고 바가지째로 몸에 부었다. 머리를 감고, 몸을 박박 문질렀다. 소금 알갱이가 스친 살갗은 조금씩 뽀얗게 원래 색을 되찾았다.힐은 마지막으로 몸에 깨끗한 물을 끼얹고 머리를 꾹 눌러 짰다. 머리에서 후드득 물이 떨어졌다. 한참 물을 털어내고 수건으로 사용하는 거친 면포를 꺼내 남은 물기를 모두 닦아냈다. 선반에 올려둔 더러운 옷을 보고 잠시 고민하다가, 그리 더러워지지 않은 슈미즈와 드로어즈만 꺼내 입고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뛰기 시작했다.성은 높은 첨탑 하나와 낮은 첨탑 세 개가 있고, 네 개의 첨탑이 둥그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가장 힐이 사는 가장 높은 첨탑은 21층까지 있고 가장 낮은 첨탑은 13층까지 있다. 종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전체에 넓게 퍼져 있지만 일하는 공간은 주로 낮은 층이다.힐이 있는 욕탕은 19층으로 힐의 방까지는 두 층만 뛰어 올라가면 되는 데다, 사람도 없는 곳이라 힐은 마음 놓고 슈미즈 차림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다녔다.방에 도착한 힐은 잠깐 숨을 고르고 바닥에 머리를 감싸던 수건을 내려두고 발을 문질러 닦았다. 양말을 신을 때는 발이 깨끗해야 양말 안쪽이 더러워지지 않으니까.힐은 가진 옷가지 중 가장 몸에 잘 맞는 것을 찾아 입었다. 평소에 입는 옷은 너무 헐렁해서 일하려면 끈으로 어깨나 팔꿈치, 허리 등을 동여매야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옷이 흘러내려서 도무지 일할 수 없었다.지금 찾아 입는 것도 힐의 몸에 비하면 꽤 큰 옷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때 옷이 흘러내리진 않아 끈을 칭칭 감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옷이다.힐은 잘 걷기 위해 양말만 쭉 끌어당겨 무릎 반 뼘 위에 끈을 둘렀다. 어차피 옷에 가려지는 부분이니 여러 번 칭칭 감아 동여맸다. 걸을 때 양말이 내려가면 신경이 쓰이고 발에 채여 넘어지기 일쑤니까.힐은 담요 속에 숨겨둔 앞치마와 종의 표식을 꺼냈다. 앞치마 끈을 꽉 묶으면 약간 헐렁한 이 옷도 펄럭대진 않을 터였다. 이 앞치마는 예전에 통로 어드매에 내팽개쳐진 것을 몰래 주워온 것이고 표식은 바느질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걸 힐이 주워왔다.앞치마와 표식은 나이가 찬 종들이 성인식을 올릴 때 주어진다고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힐은 사 년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힐은 아마도 열 네 살이고 사 년 후면 열여덟, 완연한 성인이 될 테니까.힐의 가슴팍에서 ‘바느질 방의 종’이라고 쓰인 글자가 빛났지만, 힐은 까막눈이라 그냥 무슨 그림인가보다 하고 말았다. 글자건 그림이건 상관없기도 했다. 어차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건 둘 다 매한가지니까.옷을 갈아입은 힐은 약간은 비장한 표정으로 심호흡을 하고 방을 나섰다. 힐의 방 맞은편은 눈으로 봐선 통로가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더듬다 보면 옆으로 밀 수 있는 돌벽이 있다. 그 벽을 밀면 숨겨진 통로가 나오는데 이 길은 성 3층까지 쭉 뚫려있고 중간중간 홀수 층마다 통로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힐은 날다람쥐처럼 재빠르게 계단을 내려갔다. 찬물로 씻어 창백했던 피부에 점점 홍조가 돌았다. 힐은 약간 덥다고 생각했다. 숨이 조금씩 차오르면 잠깐 멈춰서 숨을 골랐다.‘너무 헐떡이는 소리를 내면 금방 들킬지도 몰라.’이곳이 아무도 없는 곳이고, 다시 이 성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음에도 처음 해보는 일탈은 힐을 조마조마하게 했다. 들키는 것도, 들켜 죽을 것도 무서웠다. 그런데도 막대발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힐은 꾹 참고 숨이 진정될 때마다 다시 뛰었다.삼층 계단에서는 훨씬 주의를 기울였다. 누군가의 시선에 띄지 않기 위해서. 다행인 건 성에서는 소리가 아주 잘 울려서 힐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싶을 때는 잠깐만 살펴도 인기척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는 점과 힐처럼 인기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종이 없다는 점이었다.힐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구석에 옹송그려 숨었다. 삼층 세 번째 방에 카펫을 들추면 널빤지가 나오는데 그 널빤지를 밀어 치우면 바깥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온다. 힐은 조심스레 널빤지를 치우고 돌아올 일을 대비해 통로를 완전히 막지 않은 채 카펫만 잘 덮었다.깊은숨이 터졌다. 이십 분쯤 걷다 보니 약초의 씁쓰레한 냄새가 찬 바람에 섞여드는 것이 느껴졌다. 바깥이 코 앞이다. 잠깐 멈칫하다가 곧 성의 스산한 한기보다야 바깥의 찬 공기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며 힐은 주저 없이 바깥으로 나갔다.‘예전에 이 길을 발견했을 때는 한참 망설이다 다시 성으로 돌아갔었는데.’힐은 불현듯 드는 예전 생각을 도리질 쳐 머릿속에서 멀리 밀어냈다. 머리를 온통 울리던 날카로운 경고음이 잠깐 떠올랐지만 그런 건 지금은 아무래도 좋았으니까. 파티장으로 향하는 길은 중간에 네모반듯한 색색의 돌이 깔린 길이 있지만, 그 주변으로는 힐의 키 절반만 한 관목이 즐비해 있었다. 힐은 관목이 즐비한 길을 헤치며 걸었다.바닥을 닦으러 갔을 때는 길에 사람이 꽤 있었는데 오늘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전부 파티를 즐기는 걸까. 힐은 잠깐 그런 생각도 했지만, 힐은 영영 알 수 없으리라 여겨 잊기로 했다. 사람이 없으면 힐이야 편하고 좋았으니까.높디높은 절벽 위에서는 인간 세상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커다란 장난감처럼 조그맣게 보였다.붉은 안개로 둘러싸인 소국이 보이고, 그 주변엔 영토를 두고 다투는 왕국과 불길에 휩싸인 전쟁터나 좁쌀만큼 작아 보이는 배들이 해상전을 벌이는 것, 큰 허리케인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힐이 한참 뛰고 걷길 반복하며 욕탕으로 향하던 대, 라휄은 영 좋지 못한 기분으로 절벽 위에 서서 해가 저무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달무리 진 깊은 밤을 어느 신이 비단실로 만들어 짜낸 듯한 남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노을보다 고귀한 빛을 띠는 주홍빛 눈동자는 무심히 아래를 향했다. 선이 뚜렷한 이목구비는 쌍꺼풀 라인 하나까지 섬세해서 그는 마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기 위해 창조된 것 같았다.“잘 다녀오셨습니까?”라휄이 있는 곳으로 보랏빛 긴 머리카락과 구릿빛 피부를 가진 사내 하나가 걸어와 라휄에게 말을 걸었다. 라휄은 살짝 고개를 돌려 사내의 이름을 불렀다.“파라.”“찾으시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한동안은 라휄도 저 전쟁통에 있었다. 인간 세상에 숨겨졌을 ‘그것’을 찾기 위해서. 라휄은 조그만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묵묵히 고개를 저어 보였다. 파라는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며 손끝으로 붉은 안개를 가리켰다.“역시 이곳에 있는 거겠죠.”“그래. 그렇겠지.”라휄은 인상을 썼다. 파라는 라휄의 기분이 좋지 못함을 느끼곤 뒤를 돌아 걸었다. 라휄은 이 나라를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찾는 것이 이곳에 있다는 가능성이 없었다면 절대 이곳에 오지 않을 것처럼 굴곤 했다.라휄은 다른 나라를 뒤지면서 점점 그 가능성이 커져가는 만큼 기분 나빠했다.곁에 있어 봐야 불똥이나 튈 테니, 다른 마물들이 속속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는 참에 잠깐 몸도 피할 겸, 겸사겸사 인사라도 나눌 요량이었다.“쉽게 찾진 못하겠지만,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파라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뒤돌아 말하곤 다른 마물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인사를 나누었다. 이 정도면 파라는 최선을 다해 라휄을 위로했다고 생각했다.파라도 그랬지만 마물들은 남녀 할 것 없이 겉보기엔 달콤하고 아름다웠다. 화려한 이목구비와 탄탄한 몸이 시선을 끌었고, 요사스러운 빛을 뿜는 눈빛을 마주하면 홀린다.절벽 위는 점점 아름다운 마물들로 북적였다. 마물 몇은 파라에게 친근히 말을 붙였다.“파라님, 오늘은 즐거운 날이 되겠네요!”“몽 아벨라. 간만이네. 그래, 좋은 날이 되겠지.”인간들이 잡아 바치는 단 것들. 단내가 풀풀 풍기는 인간들을 생각하자 파라의 눈이 곱게 접힌다. 잡아 취하고 싶고, 씹어먹고 싶어지는 그 아찔한 단내. 지는 해를 받아 눈빛이 붉게 타오르는 것 같아 보였다.마물들은 본래 인내하지 않는다. 타고난 본성이 강한 힘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사리사욕을 탐한다. 갖고 싶은 것은 취한다. 단것은 먹는다. 그게 마물들의 방식이니까.“...취해도 좋다. 다만 보관하거나 품을 생각은 말아. 먹는 건 얼마든 먹어도 좋으니.”라휄은 슬슬 고삐가 풀리려는 마물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저분한 것들이 자꾸 수가 불어나고 있었다. 땅을 좀먹고 물을 더럽히는 것들이.마물과 다른 종의 피가 섞이면 보통은 죽은 아이가 나온다. 혼혈종의 몸은 마물의 강한 힘을 버티지 못해 뱃속에서부터 죽으니까. 다만 간혹, 그 몸마저 힘에 잡아먹혀 이지를 상실한 것들이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세상을 좀먹고 있는 괴물들이다.라휄과 마물들이 찾고 있는 ‘그것’은 오염된 땅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괴물들이 태어나 돌아다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뒤져볼 곳이 적어지면 편하고 좋으니 방관했다.하지만 세월이 지나 그 더러운 것들이 거세게 불어나기 시작했을 때 라휄은 일이 조금 틀어졌음을 느꼈다. 그전까진 미약하게나마 느껴진 ‘그것’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므로.파라는 라휄의 말에 투덜거리면서도 얌전히 따르겠노라 고개를 숙여 보였다. 파라는 태초부터 존재한 강하고 아름다운 라휄을 거스를 수도 없었지만 ‘그것’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에 그의 뜻을 거스를 생각도 하지 않았다.“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겠군요.”어차피, 먹는 건 상관없잖아? 파라가 주변 마물을 둘러보며 씩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 소국의 연회장으로 향했다. 다른 마물들도 라휄에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 파라를 따라 연회장으로 향했다.아이살레테가 무희들을 가둬놓은 방은 언제나 그랬듯, 달콤한 것들로 채워진 황량한 곳이었다. 연분홍색 쿠션이 가득한 조개껍질 모양 소파와 바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빼곡하고 두껍게 깔린 카펫, 푹신한 침대가 나란히 다섯 개나 붙어 있는데도 방은 조금도 좁게 느껴지지 않았다.포근하고 달콤한 귀한 것이 가득한 이 방은 목을 맬 수 있을 만큼 긴 것, 살을 뚫고 지날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것, 불을 지필만 한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곳.잎사귀는 이 방에 들어온 후 가끔 발작하듯 울었다. 덜덜 떨며 머리를 감싸고 구석에 주저앉아 있는 잎사귀가 울 때마다 방의 분위기는 낮게 침잠했다.낮게 침잠한 분위기에 숨이 막혀오면 막대발은 한 번씩 구석에 박혀서 품에 숨겨둔 허리띠를 손으로 더듬었다. 옷 위로 느껴지는 그 감촉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다른 애들이라고 이곳이 두렵지 않아 울지 않는 게 아닌걸.’잎사귀가 울 때마다 막대발은 그녀를 끌어안고 쉬이 괜찮아. 기도할까. 조그맣게 속삭이며 그녀를 달랬다. 울면 달래고 먹지 않으면 어르고 달래 먹였다. 이 방 안의 무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회에 올라야 한다. 함께 춤을 추어야만 한다. 누구 하나라도 실수하면 모두 죽을 것이다.아이살레테는 다른 감금 때와는 달리, 자꾸 불쑥 찾아와 숙제 검사라도 하듯 춤을 춰보라, 노래를 불러보라 시키고, 훌쩍 떠나길 반복했다. 평소보다 긴 감금이라 그런가보다 짧게 추측해보기도 했지만, 그녀의 추측이 뭔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녀서 의미는 없었다.막대발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신도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녀의 방문이 차라리 기꺼웠다.아이살레테가 오는 텀이 짧아질수록 막대발은 각오를 다졌다. 아니 그러지 못했을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걸 보면. 막대발은 하루가 저물 때면 시간이 가지 않길 빌었다. 그러다가도 차라리 어서 연회가 시작되길 바랐다.연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무희들은 모두 아주 일찍 일어났다. 누가 따로 깨운 것도 아닌데 다들 일찍 일어나 몸을 씻었다. 오늘만큼은 잎사귀도 울지 않았다. 눈물이 다 말라버린 듯한 텅 빈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저미게 할 정도로 애처로웠으나 무희들은 누구도 그 모습에 동요하지 않았다.정신 차리라고 잎사귀를 다독이거나 다 같은 처지임을 비관하며 울지 않았다. 덤덤히 연회장으로 갈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었다.“즐거운 날이구나. 귀한 분들을 모실 날이 왔다.”가장 마지막으로 씻으러 들어간 막대발이 젖은 몸에 하얀 가운을 입고 나올 때쯤, 짙은 화장을 한 아이살레테가 들어왔다. 오늘도 붉디붉게 칠한 입술이 무서운 아이살레테와, 하녀 둘이 공손한 자세로 걸어들어와, 무희 복 다섯 벌을 내려놓았다.“갈아입거라.”아이살레테가 퍽 기꺼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무희들은 하나씩 옷을 골랐다.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디자인이었지만 천색이나 사용한 재료들이 미묘하게 달랐다. 어떤 건 연보라색인데 어떤 건 조금 더 진한 보라색이었고, 팔꿈치에서 찰랑거리는 레이스 색도 눈처럼 흰 게 있는가 하면 크림색인 것도 있었다.막대발은 잽싸게 무희 복 앞으로 갔다.‘느림보가 준 허리띠랑 비슷한 색을 찾아야 해.’눈썰미가 좋지 않다면 무희 복에 달린 허리띠 색까지 기억하긴 어렵다. 하물며 구슬이 잔뜩 달려서 빛이 비칠 때마다 색이 달라진다면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그런데도 막대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리띠와 꼭 같은 색의 허리띠가 있는 무희 복을 찾으려고 애썼다. 혹시라도 발각된다면 소중한 허리띠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으므로.아이살레테는 서두르라고 말하며 자꾸만 무희들을 재촉했다. 아이살레테가 문밖을 힐끔거리는 것을 보며 다른 손님이 있나 궁금해질 무렵,“오 분 내로 전부 갈아입고 있도록.”아이살레테는 두 명의 하녀만 방 안에 둔 채 문을 쿵 닫고 나가버렸다. 하녀들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무희들이 옷을 갈아입고 치장을 하도록 도왔다. 바깥에서 아이살레테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걸 보면 손님이 있는 게 확실한 듯했다.‘연회 전에 무희를 찾아오는 손님이라.’막대발은 처음 겪는 일이라서 약간은 얼떨떨했지만, 손은 재빨리 움직여서 무희 복에 달린 허리띠를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숨겨둔 ‘느림보 특제 허리띠’를 대신 동여맸다.언제나 손목에 매달고 다녔던 가죽 팔찌도 풀어서 머리카락을 높게 올려 묶었다. 원래 쓰던 머리끈보다야 덜 예쁘고, 머리카락도 탄력 있는 끈으로 묶을 때보다 많이 삐져나오겠지만 크게 상관없었다. 힐에게 받아온 것을 몸에 지니고 있을 수 있다면 이젠 아무래도 좋았다.아이살레테는 약속한 오분에 딱 맞춰 문을 열었다. 활짝 열린 문으로 꽤 많은 사람이 보였는데, 아이살레테가 하녀들에게 손짓하자, 그녀들은 무희들을 몰이하듯 몰아서 복도로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복도에는 페일과 실리가 병사 몇을 데리고 서 있었다. 페일은 심경이 복잡했다. 이곳까지 와 본 적은 없었지만, 밖에선 소형 마물이니, 붉은 안개니 하는 게 너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수를 내야만 해서 왔다.페일은 지금처럼 연회를 베풀고 마물을 먹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변덕스러운 그들의 마음에 맞춰서야 될 일도 안 된다. 라휄, 그가 온갖 전장을 휘저으며 무언가 찾고 있는 듯했고, 여기에 똬리 튼 것을 보면 그게 이 나라에 있을 터였다. 적어도 그 점을 파고들어는 봐야 하지 않을까.‘소국이 힘을 기르기 전까지, 그들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페일은 그 방법이 라휄이 찾고 있던 것에 있으리라 여겼다. 그걸 미리 찾아내서 그걸 빌미로 협상을 해본다면 힘을 기르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 것도 같았다. 협상이 실패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패는 많을수록 좋다.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라휄이 찾는 것이 뭔지 알아내는 데 무희들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게 그가 실리를 대동하고 이곳까지 직접 무희들을 살피러 온 이유였다.마물들이 마음에 들어 할 아이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 암시를 걸어 그들이 찾고 있는 걸 캐오게 할 생각으로.졸지에 얇은 무희 복만 걸친 채 차가운 복도로 밀려난 무희들은 아이살레테가 그 옆에 붙어 이 애는 노래를 잘한다, 이 애는 춤을 잘 춘다 같은 소리를 늘어놓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인사했다.고개를 조아린 무희 사이에선 ‘높은 분들이셔?’ 같은 조용한 수군거림이 이어졌지만, 페일은 그 정도 수군거림 같은 건 모른 체 했다. 그는 그 정도 관대함은 갖춘 귀족이었으니까.“저 애는 사근히 말을 잘합니다. 춤도 제법 추는 편입니다만, 말솜씨만은 못합니다.”아이살레테가 막대발을 가리키면서 소개하자 막대발은 반사적으로 그들을 향해 방긋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페일은 굳은 입가를 억지로 움직여 짓는 미소가 아닌, 자연스러워 보이는 말간 미소가 마음에 들었다. 모여있는 무희 중 가장 단내가 풀풀 풍기는 무희는 제법 사람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는 듯했다.“그들 앞에서도 잘했으면 좋겠군.”페일이 막대발에게 향한 시선을 아이살레테에게로 옮기며 말하자, 아이살레테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잘할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그쳤다. 페일이 말한 그들은 미물들일 테고, 솔직히 아이살레테는 여기 있는 무희들이 입 한 번 떼보지 못할 거로 생각하고 있었다.마물들을 상대로는 어떤 감언이설도 필요 없이 그냥 다 죽을 뿐이니까.실제로 아이살레테가 가르쳐 온 무희들은 마물 앞에서 꽤 많이 막히거나 찢겨 죽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 다섯 아이는 모조리 죽겠지.그들을 가르치며 길러온 시간에 비해 사용은 한순간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아이살레테는 애초에 효율과 비효율을 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말을 아꼈다.“실리. 어떤가?”“글쎄요. 이번에도 다 죽겠네요.”페일이 실리를 부르자, 무희들을 살펴보던 실리가 고개를 저으며 페일의 귓가에 슬쩍 속삭였다. 마물들이 무희를 먹지 않고 취하길 바랐지만, 어째 이번에도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았다.무희들의 면면을 보니 마물보다 아름다운 자도 없었고, 하나같이 떨어댔으며, 무엇보다 단내가 심했다.‘최소한 애완동물이라도 되려면 맛있는 먹이로 보이면 안 되지 않나?‘높은 피가 많이 희석된 실리에게도 이렇게 단 향이 풀풀 난다면 페일이나 마물에게는 설탕 그 자체일 거로 생각하며 실리는 고개를 저었다.페일이 낮게 한숨을 쉬었다. 실리는 페일의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매 안쪽 주머니에서 얇은 시약병 몇 개를 꺼내 들었다.“뭐,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두죠. 혹시 모르잖습니까.”실리가 무희들에게 시약병을 나눠주고 한 사람씩 마시게 했다. 마실 때 옆에서 조용히 암시 주문을 걸었다.주문에 걸린 무희들의 눈이 몽롱하게 풀렸다. 막대발은 시약을 마시기 싫었지만 억지로 마시고 한 모금 정도는 입가로 흘려보내서 재빨리 손바닥으로 닦았다.‘이게 뭔진 몰라도 조금이라도 덜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순간적인 충동으로 한 모금을 입 밖으로 밀어낸 터라, 혹시 다시 먹일지도 몰라 긴장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알아채지 않은 듯했다. 약간 초조해진 막대발이 얼른 잎사귀 옆으로 걸어가려는데, 모든 무희 애들이 수군대던 것도 멈추고 미동 없이 서 있는 게 꺼림직해서 막대발은 다른 무희처럼 그 자리에 얌전히 서 있었다.모든 무희가 그 약병을 받아 마셨을 즈음에 실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마물들이 너희를 아껴 곁에 둔다면 그들이 찾는 것이 뭔지 알아 오렴.”“알겠습니다.”무희들의 낭랑한 대답 소리를 막대발도 재빨리 따라 했다. 실리는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가락을 튕겼다. 딱 소리가 나자, 거짓말처럼 멈췄던 무희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막대발은 얼른 몸을 휙 돌려 잎사귀를 끌어안았다. 막대발의 긴 머리카락 몸의 궤적을 따라 그렸다. 머리 위로 질끈 동여맨, 힐이 준 가죽 팔찌에서 세 가닥 끈 중 하나가 검게 그을리며 끊어졌다.“끝인가?”“일단은요. 약한 암시라 그들에게 걸리진 않겠지만 효과도 짧겠죠.”실리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페일에게 자세히 대답했다. 실리는 저 무희 중 하나도 돌아오지 못할 거로 생각해서 일주일 정도 유지되는 암시를 걸었다. 암시까지 걸어둔 건 정말 만에 하나를 대비한 조치였다. 페일은 몸을 돌려 무희 성을 벗어났다. 실리도 종종걸음으로 페일을 뒤따랐다.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다. 이제 페일은 연회장으로 가야 했다. 연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모든 연회에 시작하기 전부터 도착해 있곤 했다. 마물들을 관찰하기 위해.뭘 먹는지 안다면 독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뭘 피하는지 안다면 중요한 것을 숨길 수 있을 것이다. 페일은 강한 개체가 나타날 때마다 그 강한 개체에게 시선을 옮기며 마물들을 끈질기게 관찰하곤 했다.실상 그것만이 페일이 쳐 죽이고 싶은 마물들이 있는 곳에서 분을 삭이며 고분고분 머무는 이유였다.라휄은 연회장 바로 옆의 연못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래 살면 고요가 즐거워진다고 했던가. 시끄럽기 짝이 없는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로서는 저 제멋대로인 아이들이 사고 칠 걱정만 없었어도 연회 같은 곳엔 가고 싶지 않았다.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라휄도 마물은 마물인지라, 마물의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마물은 인내하지 않고 원하면 취하고 마뜩잖으면 죽이지만 오래 산 것에겐 살아온 시간만큼의 인내가 붙기 마련이다. 라휄은 딱 살아온 만큼 인내하고, 원하는 것을 아끼고, 마뜩잖은 것도 귀엽게 봐주고 넘어갈 수 있었다.가령 연회에 갈 때마다 자신에게 들러붙는 소국 귀족의 서슬 퍼런 시선 같은 것을 귀엽게 봐주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 푸른 눈에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격렬한 살기를 모른 체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더없이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아무리 살아온 만큼의 인내가 쌓였어도 마물의 인내란 건 티끌보다 작은 것이었고, 그 조그만 것들이 아무리 모여봐야 태산은 되지 않는 법이다. 라휄은 다른 마물보다는 인내심이 깊었지만, 그뿐이었다.그 무렵 힐도 짧은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며, 라휄이 있는 연못가 주위를 크게 돌아 연회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힐 스스로는 열심히 기척을 죽인다고 생각했지만, 라휄은 힐이 바스락대며 걷는 소리, 거친 숨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다.기분이 좀 괜찮은 날이었다면 단내도 나지 않는 인간 하나쯤, 길을 잃었다면 왔던 곳으로 돌려 보내 주거나 도망친 종이라면 어디 조용한 마을로 보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라휄은 힐이 연회장으로 향하도록 두었다. 마물들이 연회를 벌리는 곳으로 가면 곱게 죽기는 힘들겠지만, 선의를 베풀고 싶지 않았다.그건 힐에겐 정말 다행인 일이기도 했다. 어떻게 연회장까지 왔는데, 성으로 돌아가거나 조용한 마을로 보내진다니. 둘 다 힐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다.힐은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커다란 문 옆에 조금 열려있는 문으로 달려 들어갔다. 귀족들만 참여하는 연회였다면 문 앞에 누군가 지키고 서서 초대장을 확인했겠지만, 마물을 위한 연회에 그런 것은 없었다.누가 입장했다 큰소리로 외치는 하인도 없었고, 음식을 채우거나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이들 외엔 시중 인도 많지 않았다. 연회장 안에는 마물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귀족들, 마물들, 마물들을 위해 준비된 무희나 광대만 가득했다.광대들은 입에 독주를 머금고 내뿜으며 불을 내뿜었고 마물들은 손짓 하나로 불길의 방향을 바꿔 광대가 타죽는 걸 구경했다. 지독한 광경이 연회장 여기저기서 펼쳐졌다.힐은 벽에 바짝 붙었다. 다행히 근처에 그늘진 공간이 있어서 그리로 꾸물꾸물 움직였다. 힐은 그늘 덕에 어색한 자세로 벽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크게 티 나지 않으리라 여겼다.살짝 숨을 돌리고 나서부턴 힐은 고개를 여기저기 돌렸다. 화려하기 짝이 없는 실내엔 가끔 괴로운 비명이 울렸고, 비명 뒤엔 유쾌한 웃음이 뒤따랐다. 웃음소리와 잔과 잔이 부딪치는 경쾌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그때 홀 중앙에서 연주하던 연주자들이 갑자기 왼쪽 구석으로 쭉 빠졌다. 힐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어서 힐도 그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빤히 보고 있었다.연주자들이 자리를 잡고 다시 연주를 재개하자 무희 다섯이 어디선가 솟아나듯 나타나서 춤추듯 사뿐히 걸어 중앙에 서는 모습이 보였다.“막대발……!”힐은 그 속에서 막대발을 찾아냈다. 샹들리에 빛이 여전히 아름다운 막대발 위로 쏟아져 내렸다.악단의 지휘자가 무희들을 향해 손짓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연주자들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에 무희들끼리도 서로를 눈만 굴려 확인하고 대열을 맞춘 다음 시작 자세를 잡았다.곧이어 하프가 여린 음을 내기 시작했고 곧이어 바이올린이 경쾌한 소리를 내자, 막대발은 다른 무희들과 함께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고 서서 다른 무희와 손을 맞대었다가 떨어지고, 빙글빙글 돌았다.힐은 정신없이 눈으로 막대발을 쫓았다. 태어나 처음 듣는 음악 소리는 어쩐지 가슴 속을 먹먹하게 했고, 살랑살랑 움직이며 춤을 추는 막대발은 너무 예뻐서 도무지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무희들이 춤을 추는 중앙으로 온 달빛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았다.특히 막대발이 빙글빙글 돌 때면 달빛도 샹들리에 불빛도 막대발의 보랏빛 눈동자 안으로 산산이 부서져 들어가 막대발에게만 잔뜩 달라붙는 것 같았다. 반짝이는 막대발. 하나로 올려 묶은 머리카락이 긴 꼬리처럼 막대발을 따라 빙글빙글 궤적을 그렸다.힐은 문득 제 방 앞에서 춤추던 막대발이 떠올랐다.그날도 막대발은 구슬 허리띠를 하고 춤을 췄더랬다. 지금처럼 화려한 샹들리에도, 웅장한 음악도 없는 첨탑 한구석. 지금처럼 마음껏 다리를 뻗어 뛰듯 움직이지 못했던 그 좁은 공간에서 오직 힐만을 보고 오직 힐에게 웃어주며 반짝이던 막대발.그날의 막대발이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는 막대발과 겹쳐 보였다. 그래서 막대발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을 숙이고 들어 올릴 때마다, 힐은 묘한 기대감이 일었다.그날처럼 나를 봐주지 않을까, 나를 보고 웃어주지 않을까. 힐은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벽에 딱 붙어있던 몸을 떼고 몇 걸음 앞으로 나갔다. 자신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다. 내가 너를 보러 왔다고 알려주고 싶었고, 그녀가 웃어주길 바랐다.소리 내서 부르고도 싶었으나 한쪽에 여전히 남은 두려움에 힐은 그늘 속에 가만히 서서 막대발이 시선을 주기만을 기다렸다. 내가 온 걸 마뜩잖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대발의 표정이 굳고 싸늘히 고개를 돌려 외면할까 봐 두려워서 차라리 막대발이 힐을 발견하지 못하길 바랐다.여기까지 힘겹게 숨어들어오느라 구석구석 박박 닦아 씻은 힐의 몸은 달리며 흘린 땀과 마른 풀, 먼지 따위로 더러워졌다. 막대발의 앞에서 자신은 언제나 더러웠고, 모든 종이 다 더럽게 다녀서 힐은 그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지만, 이 화려한 곳에서 아름다운 막대발에게 막상 내보이려니 영 창피하기도 했다.힐은 부끄럽다는 건 이상한 감각이라고 생각했다. 춥지 않아도 발가락이 오므라들고 얼굴이 뜨거워지며, 당장에라도 숨어들고 싶은 감각. 두려움과 사뭇 다른 초조한 느낌. 숨고 싶고 고개를 푹 떨구고 싶었지만, 힐은 꾸역꾸역 참아내며 막대발을 빤히 응시했다.어느새 음악이 처음보다 훨씬 소리를 키우고 있었다. 무희들의 춤곡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길고 긴 연주곡들과 다르게 10분 정도로 짧은 곡이었다. 이 곡은 오로지 무희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만들어져서 짧은 곡임에도 총 세 번의 클라이맥스가 있다.첫 번째 클라이맥스에서 하프가 서정적인 솔로 연주를 하고, 두 번째 클라이맥스에서 모든 관현악기가 크레센도로 연주한다. 곡이 끝날 무렵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첼로와 콘트라베이스, 바이올린이 불꽃처럼 화려하고 빠르게 연주하다가 사그라들며 곡이 끝난다.막대발은 첫 번째 클라이맥스에서 홀로 중앙 단상에서 원을 그리며 발끝으로 돌았다. 쭉 뻗은 두 팔에 거친 레이스가 살갗 스치는 느낌이 났다. 춤을 추는 내내 많은 시선이 느껴졌지만 막대발은 노련하게도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이마나 목이 있는 위치로 시선을 주며 달콤하게 웃었다.눈이 마주치지 않게. 시선이 맞닿지 않게. 클라이맥스에서는 빙글빙글 돌아야 해서 자칫하면 누군가와 시선을 마주칠 수 있다. 계속 시선의 위치에만 집중한다면 돌면서도 눈이 마주치지 않게 할 수 있었지만, 막대발은 그냥 한 구석, 아무도 없는 곳에 시선을 고정하는 쪽을 택했다.그편이 돌 때 덜 어지러우니까. 이미 쏟아지는 시선 때문에 평소보다 어지러웠다.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맞는지 스스로도 의심스러웠다.막대발은 연회장의 2층 테라스 아래편으로 드리운 그늘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이 이 화려한 연회장에서 유일한 어두운 곳이었다. 사방이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해서일까, 그 주위로는 아무도 없었다.그 어둠 속에 시선을 고정하고 한 바퀴, 두 바퀴 몸을 돌렸다. 하프 소리가 점점 느슨해진다.‘천천히, 천천히.’막대발은 속으로 박자를 헤아렸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천천히 팔을 뻗고, 위로 치켜올리던 때, 막대발은 어둠 속에서 뻗어 나오는 한 쌍의 흰 손을 보았다. 조그마한 손을.‘느림보...?’막대발의 웃는 얼굴이 일순 흔들렸다. 예쁘게 휘어있던 눈이 번쩍 뜨였다. 반짝이는 보랏빛 눈동자가 잘게 흔들렸다. 잔뜩 일그러진 어린애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서야 막대발은 다시 웃는 표정을 지을 수 있었다. 금방 울 것처럼 잔뜩 일그러진 얼굴의 느림보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시선이 마주친 순간, 힐도 막대발이 자신을 봤다는 걸 알았다. 잠깐이지만 흔들렸던 표정에서, 그 후로도 계속 마주치는 시선에서 자신을 보고 있음이 뚜렷하게 느껴졌다.힐은 막대발이 이쪽에 시선을 주는 순간 홀린 듯 뻗었던 두 손을 더욱 앞으로 뻗었다. 두 손을 앞으로 뻗으면 포옹을 해주는 거야. 언젠가의 막대발이 힐에게 속삭이는 듯했다.“두 손을 앞으로 뻗으면 포옹이야.”힐이 작게 말했다. 포옹은 온기고. 온기는 다정일 거야. 다정한 막대발. 네가 없는 밤은 문틈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알게 되었어, 추운 건 네가 없는 거야. 힐은 막대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다정한 네가 없는 곳이 추워서 너를 찾아왔다고도 말하고 싶었다.힐의 표정이 조금씩 일그러졌다. 막대발처럼 예쁘게 웃어줘야 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은 ‘또 올게’인 게 싫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신에게 막대발의 마지막이 예쁘게 웃으며 춤을 추는 모습이라면, 자신도 막대발에게 마지막은 웃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모르겠어.’뭐가 맞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힐은 막대발을 따라 웃으려고, 입꼬리를 위로 끌어당기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사정없이 일그러진 표정은 펴질 줄을 몰랐다. 눈이 뜨겁고, 눈부터 뜨거운 게 전신으로 퍼져 살갗마저 아려오고, 목에 뭔가 큼직한 게 걸려있다.이건 안다. 슬픔이다.어린애들은 왜 울기 전엔 표정이 잔뜩 일그러지는 걸까. 잎사귀도 그랬었지. 잔뜩 찡그린 힐의 표정을 보며 막대발의 눈은 눈동자가 더는 보이지 않을 만큼 곱게 휘었다. 자신을 기다릴 줄 알았다. 매일 그 첨탑 꼭대기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기억할 거로 생각했다. 이렇게 자신을 찾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연회장에 오는 게 아니라.‘여기가 어디라고 와, 바보 느림보.’느림보는 느림보답게 꾸물꾸물하다가 한참 후에, 내가 죽고 한참 지난 다음에 왔어야지. 막대발은 힐을 발견하기 전까지 느꼈던 공포가 전부 어디로 가버린 것 같았다. 죽음이 여전히 코앞에 와 있는 걸 알겠는데, 그냥, 다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서.힐이 팔을 쭉 뻗는 모습을 보고 막대발은 부드럽게 움직이던 제 손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다. 자신이 가르쳐 준 것이다. 어느 날의 첨탑에서. 그날 느림보는 표정이 아니라 몸이 엉망이었다.심하게 얻어터져 절뚝이던 걸음, 피딱지 가득한 얼굴. 속이 상해서, 꼭 끌어안고 알려주었던 포옹과 두 손을 뻗는 제스쳐.막대발은 손을 뻗어온 저 어린애를 끌어안고 싶었다. 화려한 포장지 같은 무희 복에 감싸인 자신의 몸이 아니라. 하지만 지금 여기서 달려 내려가 힐을 안을 수 없으니까.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막대발은 자신도 똑같이 눈물을 흘릴 것 같아서 더 짙게 웃으며 시선을 돌렸다.‘내가 너를 안아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그날, 역시 ‘또 올게.’ 같은 말은 하는 게 아니었다. 저 애가 여기까지 찾아와 자신을 보고 울길 바라지 않았다. 아니, 그냥 저 아이를 만나러 갔던 첫날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몰랐다면 오지도 않았을 텐데.힐의 시선은 어딘지 맹목적이었고 순진했다. 백치 같던 아이가 하나씩 자신이 알려준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걸 보면서, 어느 날부터 그 첨탑 꼭대기 방 앞에 꺼내져 있던 작은 의자를 보면서 막대발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힐을 많이 좋아했나 보다.자신을 믿고 따르는 어린애의 존재가 연회가 다가올 때의 공포마저 견디게 했던 거라고, 막대발은 이제야 깨달았다. 그래서 후회했다.“왜 왔어. 바보 같은 느림보.”하프 솔로가 끝나고 잠깐 연주의 공백이 생겼다. 그 공백 동안 막대발은 멈춰서 숨을 골랐다. 그녀는 힐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려 무희들의 얼굴에만 시선을 뒀다.다시 연주가 시작되기 까지 아주 짧은 그 틈을 타고 시끌벅적한 소음이 힐의 귓가에 윙윙거렸다. 힐은 제 몸을 감싸 안던 막대발을 보며 자신이 끌어안긴 것처럼 따스함을 느끼다가 막대발이 등을 돌리자 가슴이 뻥 뚫린 듯한 커다란 상실감을 느꼈다.막대발은 다시는 자신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막대발은 떠날 땐 항상 뒤를 보는 일이 없었다. 등을 돌리면 그걸로 끝이다. 힐은 그제야 주위를 보았다.술병을 높게 던지며 저글링을 하는 자도 있었고, 무희 복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담소를 나누는 자도 있었다. 힐은 그제야 하나같이 웃고 떠드는 곳에서 자신만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힐은 몸을 돌렸다. 이곳을 나가야 한다. 막대발을 끝까지 보고 싶다는 마음도 설핏 들었지만 막대발의 끝이 어떨지는 이미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연회장 가득한 마물들, 이 아름다운 이들에게 먹힌다고.힐은 지금만큼은 자신이 걸려 먹히는 것보다 막대발이 먹히는 걸 보는 게 더 두려웠다. 어쩌면 먹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먹힌다면. 그것만은 보고 싶지 않았다.‘마지막 막대발은 춤을 추고 웃는 막대발이야.’힐은 후드득 떨어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문질러 닦았다. 바닥에도 이미 뚝뚝 떨군 눈물이 한가득이었다. 힐은 약간의 미련 때문에 연주가 다시 시작되고 막대발이 춤추는 모습을 조금 더 보다가 왔던 길을 되돌아 연회장을 빠져나갔다.한참 연못가를 서성이던 라휄은 더는 미룰 수 없을 때까지 미루다가 연회장으로 향했다. 파라가 라휄을 보고 재빨리 달라붙었다.파라는 자신이 입장하고부터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인간 귀족, 페일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떨어져 라휄에게 옮겨가는 게 적나라하게 느껴졌다.라휄은 자신이 연회에 오고 싶지 않은 이유 중 하나를 다시 상기해낼 수 있었다. 적대감이 가득한 시선. 시선의 주인은 또 그놈이리라. 라휄은 그 시선을 귀엽게 봐주고 넘기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애를 써야 했다.이 연회에서 제멋대로 구는 것으로 보이는 마물들에게도 몇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바쳐진 인간 외엔 죽이지도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파라는 규칙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향하든 끈질기게 따라붙는 시선이 불쾌해도 참고만 있었는데, 라휄이 오자마자 그 시선이 라휄에게로 옮겨가는 게 후련하고 유쾌했다.“이야, 인기가 많으십니다.”라휄은 파라의 벙글벙글 웃는 낯을 보고 혀를 찼지만 파라는 기분이 좋을 때면 가장 먼저 적당히 하는 방법을 까먹기 때문에 라휄의 기분이 한껏 저조한 것도 모르고 입을 놀렸다.“저 치는 라휄님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죠. 이 정도면 사랑, 억!”라휄은 헛소리하는 파라의 머리통을 내려쳤다. 파라는 자신이 왜 맞았는지 모르겠단 표정으로 2층 층계참으로 가는 라휄을 쫓아 쫑알거리며 움직였다. 쫑알거리는 소리가 거슬렸지만 파라가 기분이 좋을 때 까먹는 두 번째는 눈치 보는 방법이라, 라휄은 혀를 차면서도 더 혼을 내진 않았다.라휄에게 파라는 까마득한 어린애였으니 오래 산 것의 관대함을 십분 발휘했다.2층 층계참에 기대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자 춤을 시작한 무희들이 보였다. 단 냄새. 무희들이 움직일 때마다 달짝지근한 향이 연회 홀에 더 넓게 퍼졌다.“저 여자, 아릿한 느낌이 듭니다.”단 냄새에 마물들이 무희에게 시선을 집중한다. 배고픈 자일수록 더 진득한 시선을 보낸다. 파라도 그 입맛을 돋우는 냄새에 무희들을 보다가 막대발을 콕 집어 가리키며 인상을 찌푸렸다.분명 단 향이 진동하는데, 혀끝에 독이 닿았을 때 드는 떫고, 시선의 어드매가 저릿하게 붙들리는 그런 느낌,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당장 씹어 삼키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막대발에게서 느껴졌다.그 기운은 흐리다가 강렬해지길 반복하며 점점 커졌는데, 그럴수록 더 먹어 치우고 싶어지는 향이 풍겼다.라휄의 주홍빛 눈에 막대발이 담겼다. 빙글 도는 막대발의 치마가 동그랗게 퍼지며 허리 위로 훅 들렸다가 내려갔다. 치마가 들릴 때 순간적으로 허리띠가 가려지며 독과도 같은 그 느낌이 잠시 줄었다가, 아래로 내려가며 아릿한 느낌이 다시 강렬해졌다.“저 허리띠에서 나는군.”라휄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 있는 마물들 대부분이 그 느낌을 느낀 건 아닌지, 무희들을 보지 않는 자도 꽤 있었다. 수가 많지 않았지만 아릿한 그 기운을 느낀 마물 몇은 하던 행동마저 멈추고 막대발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그들의 눈빛에 섞인 탐욕과 호기심. 위험하기 짝이 없는 관심들. 마물들의 이성은 딱 살아온 만큼만 쌓이는 것. 참을성도 관대함도 딱 살아온 만큼만 쌓인다. 라휄은 파라를 낮게 불렀다.“파라.”“예.”파라의 시선도 막대발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으나, 라휄의 부름에 파라는 한 가닥 남은 이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가호다. 어딘가에 정령을 지닌 아이가 태어났군.”‘이 나라에 있다.’라휄은 속으로 뇌까렸다. 이곳만은 아니길 원했지만, 마물들이, 라휄이 애타게 찾고 있는 정령은 이 나라에 있는 게 확실했다. 막대발의 허리띠에서 풍기는 기운은 분명히 가호였으므로.라휄은 가만히 파라에게 고갯짓했다. 파라는 당장에라도 달려들어 막대발을 씹어 삼킬 것처럼 집중하고 있는 마물들을 몽땅 라휄의 곁으로 끌고 왔다. 이성을 잃을 것 같을 때 강한 마물의 곁에 있으면 어느 정도 이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휄이 굳이 연회에 오는 이유 중 하나였다. 마물들의 통제. 자신이 이곳에 있으면 마물들은 그의 뜻을 따라 이성을 잃고 날뛰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라휄 그가 이성을 잃고 날뛰지 않는 한은.무희들의 움직임이 잦아들고 막대발이 혼자 빙글빙글 돌 때, 라휄은 막대발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고정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 시선 끝에 힐이 있었다.막대발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작은 여자아이. 라휄은 조금 굳은 표정으로 뺨을 타고 흐를 새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굵은 눈물방울을 보았다. 라휄의 시선이 눈물방울을 따라 힐의 눈에서 바닥까지 함께 곤두박질쳤다.바닥으로 후드득 떨어지는 눈물방울은 막대발에게서 나는 것과 같은 가호가 느껴졌다. 바닥에 제멋대로 고이는 눈물만큼 짙어지는 가호가 라휄의 시선을 잡아끌었다.“인간?”허, 바람 빠지는 소리가 라휄의 입가를 타고 흘렀다. 가호를 두른 무희가 저 볼품없는 어린 인간에게 시선을 고정한 이후로 무희에게서 느껴지는 가호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무희 주변에 후광이라도 두른 듯 눈에 보일 만큼.그런데 시선을 맞춘 인간은 정령의 기운은 고사하고 아주 자그마한 힘 한 톨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린 것은 꼭 라휄과 눈만 마주쳐도 그 기운에 눌려 죽어버릴 것 같았다.라휄은 당황했다. 바닥에 떨군 눈물방울에 가호가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울고 있는 어린 것에게는 왜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는단 말인가.한참 동안 라휄은 굳은 표정으로 힐이 울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다.허름하기 짝이 없는 복장을 부각하는 비쩍 마른 몸. 대충 묶은 아마 색 머리카락과 일그러져 펴질 줄 모르는 얼굴. 눈물 때문인지 그늘 속에 있는데도 약간의 반짝임을 품은 잿빛 눈망울을 찬찬히 훑어보던 라휄은 이내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힐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시선을 거두었다.‘가호를 받은 인간인가.’매개체를 찾진 못했지만, 꼭 가호가 물건에 깃들란 법은 없었다. 라휄이 알고 있는 정령의 가호는 일종의 축복이자 기원 같은 것이다. 몸에 지닐 물건에 불어넣을 수 있듯, 사람을 붙들고도 불어넣을 수 있겠지.어쩌면 정령은 저 인간이 울지 않길 빌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울음을 빨리 그치길 빌었을지도 모르고. 저 무희가 가호를 받을 때 저 어린 것이 같이 가호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고.무수한 추측으로 머릿속이 복잡한 와중에도 라휄은 막대발에게 닿는 힐의 시선이 제 부모 뒤를 쫓아다니는 오리처럼 맹목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태어나 처음 숨을 들이켠 것들이 보내는 시선 같다고.춤이 길어질수록, 무희와 종의 시선이 오래 마주칠수록 무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호는 더욱더 짙게 퍼졌다. 어느덧 춤이 끝나고 시끌벅적한 연회장의 소음이 유난히 커졌다. 라휄은 마물들을 훑어보았다.탐욕이 가득한 눈빛은 당장이라도 무희들을 씹어 삼킬 것만 같았다. 하기야 라휄이 정령의 흔적 쪼가리라도 찾으러 타국의 전장을 들쑤시며 돌아다닌 기간이 이번엔 특히 길었다. 이곳에 남았던 마물들은 몰라도, 그간 그를 따라다닌 마물들은 그 시간만큼 굶주렸다.가호는 마물에게 독을 삼키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한쪽으로는 짙은 소유욕을 불러일으킨다. 하물며 중앙 단상에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저 무희는 단내에 가호의 기운까지 풍겨대니 굶주린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인가.“다들 눈이 벌겋군. 자, 이걸 어쩐다?”라휄은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페일은 라휄이 들어오던 순간부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힐을 주시함을 기민하게 알았다.‘종?’종의 탑에서 입는 앞치마와 ‘바느질 방’이라고 쓰여있는 표식. 이 연회는 종들이 감히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도 대담하게 숨어든 종이 있었을 줄이야. 페일은 언짢은 와중에도 조금은 감탄했다.‘대담하군. 감히 이곳까지.’페일은 뼛속까지 귀족이었다. 자신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만큼, 모든 인간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 자.페일에게 있어 종은 눈에 띄지 않고 묵묵히 제 할 몫을 해내야 하는 천한 것이라, 만약 라휄이 시선을 주지 않았다면 당장 제 뒤에 시립해 있는 부관을 시켜 연회장에 숨어든 종의 목을 쳤을 것이다.아니, 라휄이 시선을 주었더라도 그가 고개를 돌리면 당장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금세 시선을 돌릴 거라는 페일의 생각은 틀렸다. 라휄은 아주 오랜 시간 그 종을 바라보았다.라휄이 그 종을 보는 시선이 진득해지고, 심지어 울고 있던 그 종이 몸을 돌려 도망치는 뒷모습을 뚫어지라 바라보기까지 하자, 페일은 호기심이 일었다.라휄은 연회에 늦을지언정, 꼬박꼬박 나타났었지만 단 한 번도 무희를 탐하거나 먹지 않은 자라서. 무희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에게도 관심을 보인 적 없었다. 마물보다 아름다운 인간을 진상할 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으니까.‘저 종에게서 뭔가 느낀 건가?’페일은 저 종을 죽이려다가 생각을 바꿔 자신의 부관에게 낮게 명했다.“머크, 오늘 여기 왔던 종을 찾아라. 조용히 찾아서 내 방으로 데려다 놔.”머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아주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페일은 턱을 괴고 불손한 자세로 앉아, 검지 손가락의 제 턱을 쓸었다.‘무슨 바람이 불어서?’페일은 아까 본 볼품없는 종을 떠올렸다. 뭔가 있나 싶어 자신도 끈질기게 훑어보았으나 조그맣고 뛰어나가는 폼이 어설펐던 것만 기억에 남아 있다. 어떤 힘이나, 신비로운 기운 같은 것은 조금도 느끼지 못했는데 대체 왜 라휄은 그 종에게 시선을 주었을까.‘식욕이 돋았다면 당장 잡아먹었을 텐데. 혹시… 저런 취향인가?’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퍽 불쾌한 생각이었지만, 라휄은 애초에 인간이 아니니 인간의 도덕이나 미의식 같은 잣대는 불필요할 수 있었다.페일은 라휄이 저런 취향이거나, 혹은 저 종이 라휄이 전장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페일에겐 어느 쪽이라도 좋았다.아주 작은 관심일지라도 관심을 끌었다면 라휄이 제 곁에 둘 터였다. 라휄이 찾던 것과 관계가 있다면 그 종을 통해 먼저 찾아내면 된다. 라휄만이 찾을 수 있다면 찾게 두고 손에 넣기 직전에 빼돌리면 된다.‘저 종만 내 손에 넣어둔다면.’그는 라휄이 무슨 생각을 했건 상관없었다. 어느 쪽이건 저 종은 페일이 써먹기에 좋은 패니까.저 작은 종을 어떻게 사용해야할까. 연회 내내 찢어 죽이고 싶은 마물들의 틈에서 더러웠던 기분이 조금은 풀어졌다.마물들을 살펴보던 라휄의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다. 잠시 그들을 둘러본 후, 라휄이 자신의 옆에서 다른 마물들과 술을 주고받으며 독주를 물처럼 들이키는 파라에게 가호를 두른 무희, 막대발을 손끝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파라, 저 아이를 네 품에 들여라.”“라휄님? 인간은 품지 말고 먹기만 하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요.”라휄의 곁에서 머물던 마물들도 의아한 기색이 역력했다. 라휄은 파라의 머리를 꾹꾹 눌렀다. 이 어린 것은 대체로 나쁘지만, 말대답을 하는 게 제일 글러 먹었다. 마물 중에선 그나마 이성을 오래 유지하는 편이 아니라면 곁에 두지 않았을 것이다.“인간을 품으면 지저분한 것들이 자꾸 태어나니까. 저 아이는 괜찮아. 가호가 있으니 지저분한 것이 태어나지 않을 테지. 오랜만에 멀쩡한 아이가 태어나겠군.”파라의 시선도 막대발에게 고정되었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파라는 라휄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인간과 섞이면 멀쩡하게 태어난대도 마물은 아닐 텐데? 오히려 마물의 힘을 가진 인간에 가까운 것이 태어나겠지.‘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춤을 끝내고 연회장 중앙 단상 위에 얌전히 웃으며 서 있는 무희들에게 다가갔다. 정확히는 막대발에게.“나는 파라, 네 이름은?”파라가 막대발에게 물었다. 연회장 안의 시선이 모두 그리로 쏠렸다. 페일도, 페일의 뒤에 시립해 있는 론과 실리도, 마물들도 모두.막대발은 자신의 앞에 다가온 파라와 눈을 마주 보려고 고개를 한껏 젖혀야 했다. 파라의 눈은 요사스러운 빛이 났다. 막대발은 그 눈을 보며 자신이 꼭 맹수 앞의 먹잇감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그게 맞긴 해.’바보 같은 생각에 막대발은 웃었다.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이 주는 초조함이 번갈아 막대발을 흔들었다. 막대발은 무릎을 굽히며 파라가 뻗은 손을 잡아 손등에 제 이마를 기대며 고개를 숙였다.“파라님, 아름답고 귀한 분. 저는 이름이 없답니다. 귀한 분들을 위해 춤을 추는 일에 이름은 필요하지 않았는걸요.”무희가 보이는 굴종의 표시에 파라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파라도 인간사는 질리도록 봐왔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피로 귀함과 천함을 가르고, 천한 자 중 이름을 받지 못한 자야 넘치고 넘치니까.어느 종이건 제각각의 미개함이 있다. 파라는 날 적부터 피로 귀함과 천함을 가리는 게 인간의 미개함이라고 생각하며, 막대발의 턱을 쥐고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지금부터 너는 블레어. 내 것이다.”파라가 이름을 내리자, 파라에게서 굵은 사슬이 차르르 흘러나와 막대발의 목을, 어깨를, 팔과 다리를 휘감고 일순 자취를 감추었다. 사슬은 파라와 몇몇에만 보여서 막대발은 자신을 휘감은 사슬을 보지 못했다만 자신이 파라에게 사로잡혔음을 절절히 깨달았다.방금까지 중앙 단상 위를 뛰어다녔던 일이 마치 없던 일이 된 듯했고 몸이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아주 깊은 물 속에 침잠한 느낌이.막대발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이 이름이 가지고 싶다 바느질 방에서 억지를 부리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파라가 내린 이름이 머릿속을 메웠다.이름은 운명, 운명은 속박. 막대발은 블레어가 되어 파라가 내려준 운명에 사로잡혔다.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낄 새도 없이 막대발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파라에게 다가갔다.그가 다가올 때부터 두려웠었는데 지금은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가죽 속에서부터 그를 향한 애정이 싹을 틔워 제 살을 뚫고 나올 것 같았다.그녀는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고개를 숙였다. 막대발, 아니 블레어가 고개를 숙인 순간, 그녀의 머리에 묶여있는, 힐이 만들어준 가죽 팔찌의 남은 끈 두 개가 검게 그을려 으스러졌다.묶여 있던 보드라운 머리카락이 하늘하늘하게 아래로 떨어지며 그녀가 파라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모습은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다.페일의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실리는 혀를 찼다. 그리고 페일의 귓가에 조그맣게 속삭였다.“저 아이 암시가 풀렸습니다.”페일은 눈을 길게 감았다가 떴다. 라휄의 곁에 늘 붙어 다니던 파라가 암시를 건 무희를 취하려는 모습을 기껍게 보고 있던 차였다. 하필 이름을 내리다니.“이름 때문이겠군.”실리는 굳은 표정으로, ‘아마도요.’라고 말하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어딘지 마뜩잖은 구석이 있긴 했지만, 페일의 말처럼 암시가 풀린 건 이름 때문일 것이다. 이름이 없는 것에게 이름을 내리면 운명이 생긴다.그 덧없는 삶에 지워지지 않을 굴레가 씌워지는데, 마물이 무희에게 내린 운명이 자신의 종이 되는 것이라면 실리가 걸었던 ‘뒤를 캐고 정보를 빼 오기 위한’ 암시는 풀리는 게 맞았다.실리는 마물이 어떤 운명을 내렸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암시가 풀린 게 영 찜찜했지만 이내 찜찜함을 털어냈다. 이미 풀린 것, 고민해봐야 소용은 없다.“아쉽네요.”실리가 속삭였다. 페일은 실리의 말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저 무희가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저 무희는 이제 마물의 것이 될 테니 정보를 빼 오기도 수월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난 일은 후회해봐야 소용없었고, 페일에게는 아직 힐이 남아 있음으로.페일은 머크가 아직 제 뒤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계속 확인했다. 어쩐지 초조했다. 자꾸 그 종의 잿빛 눈동자가, 막 낀 먹구름처럼 한쪽의 하늘빛을 다 숨겨내지 못한 그 잿빛 눈동자가 떠올랐다.라휄은 자신을 뚫을 듯 바라보던 시선 하나가 사라졌음을 느꼈다. 페일과 그 주위에 몰린 인간들이 저들끼리 속살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라휄은 고개를 돌려 힐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봤다.아직 남아있는 눈물방울마다 짙게 가호가 서려 있었다.라휄은 속이 복잡했다. 어딘가에서 정령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확실했고, 그 정령을 찾으려고 아주 오래 온 세상을 헤집고 다녔다. 날을 세는 것조차 무의미할 만큼 긴 시간을 헤집은 끝에야 겨우 발견한 확실한 증거 앞에서 어쩐지 속이 시렸다.‘타인이 무사하기만 바라며 축복하고 사랑하기만 하는 가련한 것들이 태어났구나.’라휄은 정령의 흔적을 마주 하고서야, 자신은 차라리 그들이 태어나지 않길 바랐다고 인정할 수 있었다. 이용당하고 버려지면서도, 끝내는 자신을 불사르면서도 무사를 기도하던 어느 정령이 떠오르자 더할 나위 없이 입맛이 썼다.그나마 그가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정령을 아는 이는 아주 드물다는 점이었다. 정령은 그 타인을 위할 줄만 아는 순박하고 멍청한 성정 때문에 오래 살지도 많이 번식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태초부터 살아온 것들, 혹은 그들로부터 핏줄이 이어진 자들이나 알고 있으리라.라휄은 파라가 블레어를 이끌고 라휄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블레어는 반쯤 정신없이 파라가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라휄은 블레어를 보며, 잠깐 울고 있던 그 종을 찾아올까 고민하다가 이내 그만두었다. 흔적을 많이 모은다고 정령을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다.가호는 정령의 애정과 비례해 강하게 내린다. 둘 다 가호를 가지고 있다면 더 강한 쪽을 지켜보는 편이 좋았다. 근처에 머물고 있는거라면 정령은 자신이 가호를 내린 것을 찾아올 확률이 높았다.종과 무희, 둘 다 가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호가 더 강한 쪽은 블레어였고 이미 블레어를 손에 넣었으니 굳이 그 종을 찾지 않기로 했다.게다가 페일, 성가신 소국의 귀족, 일그러진 피를 가진 자가 다시금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다.라휄은 당장에라도 페일을 찢어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기엔 너무도 가련하고, 너무도 귀여운 아이가 아닌가. 라휄은 페일이 가진 피의 근원, 그의 피가 시작된 지점을 떠올렸다.페일의 부모의 부모. 그 부모보다 멀리, 그 피가 시작된 지점. 라휄이 알고 있는 그 피의 주인. 라휄이 페일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주홍빛 눈이 요사스럽게 빛이 났다. 라휄은 아직은 살아온 만큼의 관대함으로 페일을 귀엽게 봐줄 수 있었다.연회의 밤은 넘치는 향락의 밤. 그렇지만 이번 연회는 꽤 싱겁게 끝이 났다. 마물의 위한 연회가 생긴 후 처음으로 무희 다섯이 전부 살았다. 비록 하나는 마물의 손에 끌려갔지만.라휄은 파라가 어느새 정신을 잃고 쓰러진 블레어를 챙기길 기다렸다가 모든 마물을 데리고 돌아갔고, 페일은 자신의 방으로 향하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마지막에 라휄이 자신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본 까닭이다.그즈음 힐은 다시 첨탑 꼭대기의 제 방으로 올라가 짚으로 만들어진 잠자리에 꾸물꾸물 기어들어 갔다. 조금도 기척을 숨기지 않고 돌아왔는데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힐이 잠자리에 누워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썼다. 하염없는 눈물이 끝모르고 터져 나왔다. 막대발, 막대발. 이제 다시 못 볼 그녀가 그리워서. 다시 본 막대발의 춤을 떠올리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손에 잡힐 듯 떠올랐다. 그리고 하염없이 슬펐다.힐은 조금 후회했다. 마지막까지 막대발을 봤어야 했다.힐은 조금 뿌듯했다. 막대발이 자신을 발견하고 웃어주었다.‘막대발이 살았으면 좋겠어. 나를 보러는 안 와도 돼. 아니, 아주 가끔은 와줬으면 좋겠는데.’막대발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힐은 더 붉어질 수도 없을 만큼 새빨간 눈두덩이를 꾹 누르며 조용조용히 중얼거렸다.“오래 살아, 막대발. 오래 살면 나 보러 안 와도 괜찮아.”피곤과 물밀 듯 쏟아져 내리는 감정에 이기지 못하고 힐은 까무룩 잠이 들었다. 힐의 고른 숨소리가 새근새근 들렸다. 한동안 적막한 방 안에 검은 나무문이 열리는 소음이 끼어들어 적막을 깼다.힐이 종들의 성으로 향할 때 머크도 힐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그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자신이 힐을 쫓아 나올 때, 등 뒤로 느껴지던 마물들의 그 섬뜩한 시선이 뇌리에 박힌 듯했다.마물의 완벽한 아름다움 뒤에는 그 포악함과 잔인함, 섬뜩한 공포만이 도사린다. 그 숨겨진 것을 모두 알고 있는 머크에게 마물은 그저 끔찍한 것이고, 그 아름다움조차 징그러운 것이었다.머크는 기척을 숨기는 법이라곤 모르는 듯, 짧은 다리를 동동대며 움직이는 힐의 뒤에서 완벽하게 기척을 죽이며 따라붙었다. 이미 마물 몇은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을 테니 최대한 조용히, 연회장에서 먼 곳까지 움직여 힐을 데려갈 생각으로.힐은 머크의 예상대로 움직이는 편이었다. 되도록 길 한복판보단 관목이 자란 곳으로 움직였고, 대놓고 성에 들어가기보단 비밀통로로 보이는 곳을 이용했다.머크의 예상과 달랐던 부분은 오직 그 비밀통로의 크기가 생각보다 방대했다는 점이다. 힐을 따라 걸음을 옮기며 머크는 이 성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 언뜻 비춘 빛으로 통로 벽이 평범한 돌을 쌓아 만든 게 아님을 확인하자, 머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론스달라이트?’론스달라이트는 마물 독에도 녹아 흐르지 않는 유일한 물질로, 실리가 마물 독을 중화할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한창 빠져 있을 때 머크도 여러 차례 직접 본 바 있는 것이었다.구리와 철광석을 섞어둔 듯 투박한 광택이 나는 이 광물은 매장량이 적어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그 귀한 론스달라이트가 종들의 성 비밀통로에 가득했다. 적당히 따라가다가 힐을 기절 시켜 들고 나가려던 머크는 힐을 조금 더 따라가 보기로 했다.날 적부터 귀한 신분인 머크에게 이 성은 온통 놀라운 것투성이였다. 통로의 벽이 두꺼웠고 심지어 구멍이 숭숭 뚫린 것도 아닌데 바깥의 소리가 이 안까지 다 들리는 것도 그랬다. 이 성은 공들여 만든 티가 났다.코를 찌르르하게 울리는 악취가 났지만, 쥐도 벌레도 보이지 않는 점도 그랬다. 종들이 사는 곳을 누가 신경 써서 방역을 한다거나 쥐잡이를 보낼 리 없는데 병을 옮기는 것들이 없었다. 그 말은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훗날을 위한 위생 장치를 해두었단 뜻일 것이다.‘대체 이 성은 뭐지?’머크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힐의 뒤를 착실히 쫓았다. 짧은 다리로 아무리 동동거리고 뛰어봐야 머크가 걷는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더 수월했다.힐이 첨탑 꼭대기까지 올라가 자신의 방으로 쑥 들어갔다. 뒤따라 꼭대기로 올라온 머크는 숨을 훅 들이켰다. 뾰족하게 솟은 첨탑 안쪽 천장에는 빼곡하게 천장화가 그려져 있었다.이제는 다 죽고 없다는 이 종족들이 각자의 무기를 들고 큰 나무 주위를 에워싸고 앉아 있는 그림은 오랜 세월을 버텨온 듯 군데군데 빛이 바래고 지워져 있었다. 창밖에서 달빛이 쏟아져 들었다. 머크는 아연한 표정으로 하염없이 위를 올려다보았다.페일에게 보고해야 할까. 문득 거기까지 생각이 닿았지만 머크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 성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보고하는 건 의미가 없다. 페일은 발견물을 기뻐하며 담소를 나눌 사람도 아니었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즐기는 성미도 아니었다.이 성의 의의를 따로 알아보기로 하며 머크는 힐의 방 안쪽으로 신경을 쏟았다. 어느새 어린 종이 잠들었는지, 울음을 참는 소리 내신 색색 대는 숨소리가 들렸다. 머크는 문을 열고 들어가 힐을 어깨에 들쳐맸다.‘관리자에게 들러야겠군. 이 첨탑엔 아무도 못 오르게 해야겠어.’그가 이 성에 대해 알아볼 동안 이곳은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종들의 기록을 담당하는 자를 찾아가기로 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머크는 발길을 거침없이 옮겼다. 서둘러 첨탑에 출입을 금해두고 페일의 집무실에 이 종을 가져다 두어야 했다.왕궁 중앙부에는 그레이트 체임버라고 부르는 눈처럼 새하얀 건물이 있다. 그레이트 체임버, 혹은 화이트 체임버로 불리는 건물에는 왕이 직접 귀족들에게 하사한 방과 고위 관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임룸, 시가렛룸, 몇 개의 갤러리와 접대실이 자리하고 있었다.페일은 영광스럽게도 방과 집무실을 모두 하사받았고, 페일은 이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밖에서 노숙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집무실에는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 들르곤 했다.오늘은 예상 밖으로 종을 하나 잡아 온 터라, 페일은 노숙보다 집무실을 사용하는 쪽을 택했다. 잘 들르지 않는 곳이라도 유능한 부관들은 그가 편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년필이나 빈 양피지 같은 것들을 어디선가 구해다가 척척 책상에 늘어두었다.실리가 페일에게 부대 운영에 필요한 군량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론은 페일의 방과 집무실 앞에 쌓여있던 초대장과 편지를 한데 모아 책상 위로 가지런히 쌓아두었다.실리가 보고를 마칠 때쯤 머크는 페일의 집무실에 도착했다. 열어둔 창문으로 껑충 뛰어들어 힐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류트에게 받아온 힐의 기록을 페일에게 전달했다. 페일은 큰 상아빛 소파 위에 옹송그린 자세 그대로 자는 힐과 머크가 가져온 힐의 기록을 번갈아 가며 진득하니 보았다.기록은 얄팍했다. 배정받은 곳에서 평생 일하다가 죽는 종들의 기록이란 게 원래도 그리 길게 줄줄 나열할만한 게 없는 까닭도 있겠지만 관리자가 그다지 공들여 관리하지 않는 까닭이 제일 컸다.4926년 3월 21일 발견. 보름 전 출생으로 추정“종이 성에서 태어날 수 있나?”“에, 음. 안될 것도 없겠죠.”페일이 기록의 첫 줄에 시선을 고정하고 묻자, 힐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던 실리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페일의 부관 중 실리는 유일한 학자 출신으로 아는 것이 많았다.“전부 거세 약을 먹을 텐데 어떻게?”머크의 눈이 둥그레졌다. 성에 사는 종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거세 약을 먹는다. 생식 능력이 없는데 아이가 태어난다니. 실리는 힐긋 머크를 보고, 우아한 손짓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설명을 계속했다.“그 성안에는 거세한 종들만 있지만, 바깥 종은 좀 더 관대히 다룹니다.안쪽 종은 성년이 되기 이년 전에 약을 먹여 거세하지만, 바깥 종은 몇 년에 한 번꼴로 모든 종에게 약을 먹게 하는 식이라고 합니다.게다가... 동침한다고 경을 치지도 않거든요. 바깥 종이 임신한 채로 성안에 들어갔을 수 있어요.임신한 채 그 약을 마시면 생식 능력은 잃지만 배 속 아이는 죽지 않으니. 뭐…, 저 종이 운이 좋았다고 봐야겠죠? 바깥 종의 아이는 안쪽 종보다 자주 죽으니까.”페일은 종을 관리하는 게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이내 한숨을 쉬고 그 생각을 털어냈다.페일 혼자 모든 일을 할 순 없었다. 종을 관리하는 건 행정부의 일이고, 그들이 짜두는 판에 페일이 훈수를 둬봐야 소용없기도 했다.소국의 왕은 유능한 관리가 나라에 닥친 곤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인재 수집이 취미인 사람이라 조금 똑똑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바로 관리로 뽑아댔다.이 화이트 체임버만 해도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관리가 발에 채도록 많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게임룸에서 포커나 치고 다니는 게 문제지만.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거두었다. 부대를 이끌고 밖을 나돌며 토벌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계까지 자신과 부관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다.국왕이 벌이는 수집형 인사 처리 방식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 행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어쩐지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 들었다.페일은 얄팍한 기록을 팔랑팔랑 넘기며 훑어봤다.허드렛일 종으로 배정.부엌일 종으로 배정.배정 철회. 허드렛일 종으로 배정.…아궁이 종으로 배정.- 배정 철회. 허드렛일 종으로 배정.바느질 종으로 배정.…제법 긴 기록은 그간 힐이 어디에 배정이 되었고 쫓겨났는지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어느새 페일의 곁으로 와서 페일의 어깨 너머로 기록을 같이 보고 있던 실리가 그 긴 기록에 소리 내 웃었다.“일을 어지간히 못했나 보네요!”페일은 꽤 허술히 관리하는 문서에 네 페이지가 넘도록 꽉 찬 쫓겨남의 기록에 조금 넌더리가 났다. 혹시 성 외부에 나간 적이 있는지, 그때 누군가를 만났거나, 무언가를 찾은 게 아닌 지 같은 게 신경 쓰여 보기 시작한 기록은 마치 저 종의 무능과 무해함을 피력하는 것만 같았다.페일은 한숨을 쉬고 기록을 접었다. 이 기록대로라면 저 종은 성에서 태어나 이번 연회 전엔 성 밖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그는 힐에게 마물들과 관계가 있는 지점을 캐내 볼 요량이었는데, 기록상으로는 딱 한 번 성 밖에 다녀온 종이다. 심지어 온갖 잡일을 하면서도 끝없이 쫓겨나길 반복한 무능한 종.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있기나 할지 의심스러웠다. 어쩐지 다 부질없게만 느껴졌다.“아무래도, 그들이 찾는 것과 관련이 있진 않을 것 같네요.”페일은 고개를 끄덕여 실리의 말에 수긍했다. 의심의 끈 한 자락을 여전히 꼭 쥐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저 종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왕성에서 더 볼 일이 있나?”잠시 생각을 정리하던 페일이 머크를 바라보며 물었다. 연회도 끝난 참이니 페일이 더 왕성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서, 일정을 확인하고 별것 없다면 바로 저택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머크는 책상 앞까지 다가가 품 안에 넣어둔 작은 상자를 열어 금빛 밀랍으로 봉해진 초대장 하나를 꺼냈다. 페일은 늘 편지 확인 같은 것은 모조리 부관들에게 맡겼다.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편지 답장은 머크과 실리가 썼다.“왕녀님께서 내일 아침에 있을 조찬 모임에 초대하셨습니다. 로벨리아 공과 사이프러스 공이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가야겠군. 꽃다발을 준비하도록. 크고, 화려하게.”“네, 미리 준비해 보내두겠습니다.”페일이 이만 나가보라는 듯 손짓하자, 머크는 짧게 고개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아직 한낮이지만 왕녀에게 바치기 위한 꽃다발이라면 서둘러 준비하는 편이 좋으리라.“조찬 후, 수도 저택으로 돌아간다. 실리. 저 종에게 이름을 내릴 준비를 해두도록. 저 종은 이후로 내 곁에 데리고 다닌다.”“안됩니다.”실리가 뭐라고 대답하기 전, 론이 끼어들었다. 론은 평소에도 그리 곱지는 않은 인상을 한껏 구겼다. 실리가 ‘힉’ 소리를 내며 론의 곁에서 한 발자국 멀어졌다.페일이 손끝을 탑처럼 세우고 책상에 상체를 기울였다. 론이 반박하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는 보겠다는 태도라, 론은 잠시 제 생각을 정리한 후 낮은 목소리로 물음을 던졌다.“무엇으로 곁에 두려 하십니까.”“글쎄, 시중인으로 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페일님께서 이름을 내리셔도 출신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종인 자를 곁에 두셔서야 주위의 헛된 말만 불러올 뿐이니 최대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페일은 론의 눈을 마주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론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갑자기 종을 제 곁에 시중인으로 둬 보아야, 고명하신 귀족들에겐 코르티잔-고급 창부-과 뒹구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을 것이다.하지만 이름을 내린 사실 자체는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었다.“게다가 약혼이 코 앞이십니다.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페일이 턱을 쓰다듬으며 묘한 표정으로 웃었다. 론은 그가 망설인다고 생각하고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론이 생각하기에 높은 피에게 후손은 중요하다. 그 피가 희석되고 희석되어 한 방울보다 적게 남을지언정, 높은 피는 높은 피였고 왕국은 괴물을 상대할 수 있는 자가 더 필요했다.높은 피는 높은 피와 결합해야 조금 더 강한 아이를 낳는다. 론은 페일이 피가 진한 약혼자와 결혼을 해 자식을 많이 낳으면 농도 짙은 높은 피가 태어날 테니 그토록 약혼을 위해 애를 썼다고만 생각했다.실제로 페일은 아주 오랜 고민과 설득, 구애 끝에 약혼자를 정했고, 반년 후면 약혼할 예정이었다.“종에게 이름을 내린 것만으로도 소문은 돈다. 그래도 어차피 돌 소문이라면… 약혼 후에 도는 편이 낫겠군. 좋아, 일단 수도 저택에 숨겨두지.”페일은 당장 약혼 때까지는 자신의 평판을 더럽히지 않는 쪽을 택하기로 했다. 페일의 결정에 론은 눈에 띄게 안도의 한숨을 쉬며 표정을 풀었다. 실리는 페일의 속이 빤히 보여서 약간 의뭉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페일과 론을 가볍게 흘겨보았다.실리와 눈을 마주친 페일이 검지 손가락을 세워 입술 위로 세웠다.‘쉿.’페일의 푸른 눈 가득 오만함과 장난기가 넘실댔다. 실리가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꽉 막힌 머리통 같으니. 결국, 페일님이 원했던 대로 된 거라고.’논지가 은근슬쩍 약혼 쪽으로 흘렀다. 애초에 론은 종에게 이름을 내려 곁에 두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페일이 종을 시중인으로 곁에 두는 건 당연시 되었고 다만 그 시기를 약혼 후로 조정하는 것처럼 대화가 바뀌었지 않은가.게다가 론은 쉽게 소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만 실리는 그 소문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애초에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낮은 피에게 이름을 준다는 건, 이름을 내리는 자기 자신의 힘을 쥐어짜 없는 운명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그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이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억겁의 세월을 살아온 마물이야 블레어에게 이름을 내렸던 것처럼 그따위 준비물 없이도 이름을 내리지만, 소국에서 손꼽히는 강자인 페일이나, 어지간히 혈통이 좋은 자들도 자신의 힘만 가지고 이름을 내리지는 못한다.이름을 내릴 때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피하고자 몇 가지 약물을 써서 몸을 보호해야 하고 그 여파를 감당하기 위해 신성이 깃든 물건을 사용해야 했다.‘약물을 만들 재료도, 신성이 깃든 물건도 음지에서 조용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게다가 신성이 깃든 물건은… 이름을 내리는 데 말곤 쓰는 데도 없으니 사용처도 금방 발각되겠지.’실리는 물건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소문은 나게 될 것을 잘 알았다. 마법사이자 연금술사로 그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구해봤는가. 누군가 그 귀한 재료를 찾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뒷배를 캐내려고 혈안이 될 사람이 많았다.게다가 페일은 소국에서 손에 꼽히게 강한 사람이고, 미혼인 귀족답게 사소한 행동 하나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여 온갖 추측성 소문이 난무하는 만큼, 뒷배가 페일이라고 밝혀지면 누구에게 내리려고 하는지, 왜 내리는지 추측하며 그럴 듯하게 꾸며진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질 것이다.‘그리고 그 소문은 음험하기 짝이 없을 테지.‘높은 피가 낮은 피에게 이름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한 호의이고 그에게 운명을 주어 제게로 종속시키겠다는 의지니까.실리가 쓰게 웃었다. 실리는 페일이 종에게 단단히 홀려 이름을 내리고 첩으로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돌 것에 전 재산을 걸 수도 있었다.“잘 생각하셨습니다. 약혼 후라면 약혼녀분도 그런 소문보단 페일님의 의중을 더 주의 깊게 살필 겁니다.”론은 작게 미소를 띠고 말했지만 실리는 론보다 한 발짝 뒤에 서서 대놓고 ‘으엑.’ 하는 표정을 지으며, 론을 제정신 나간 사람을 바라보듯 바라보았다.페일은 애써 실리의 표정을 무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그렇겠지. 그녀는 소문 따위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니.”페일의 말이 맞긴 했다. 페일의 약혼녀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심지 곧은 사람이었다. 다만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대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다.한 떨기 꽃같이 청초한 그녀는 기분이 좋을 땐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지만 기분이 상하면 금방 다 죽여버릴 것처럼 날뛰는 맹수였다.그녀의 살벌한 웃음을 떠올린 실리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론은 변방 영지를 지키는 백작가 출신으로 다른 귀족들과 교류 경험이 적었다.페일의 부관이 되고부터는 다른 귀족의 성향 파악이나 들리는 평판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는 태생부터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대로만 듣는 사람이라. 말속에 숨은 뜻, 사람의 속내 같은 것은 하나도 읽어내질 못했다.‘알고 싶단 생각도 없겠지만.’실리는 실소했다. 론은 아마 겉모습만은 천사 같은 페일의 약혼녀가 약혼 후에는 고운 마음씨로 페일만을 믿고 온갖 소문을 몸 던져 막아주고 결혼까지 무사히 갈 줄 알겠지만, 그건 약혼 여부와 관계없이 그녀의 의지가 결정할 일이었다.소문이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별 탈 없이 흘러가겠지만, 만약 그녀의 기분이 상한다면?그녀가 결혼까지 염두에 두었다면 상한 기분을 페일에게 결투장을 보내 어딘가 아작 내는 방식으로 기분을 풀고 결혼을 할 테고,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얌전히 때를 보다가 파혼 장을 얼굴에 집어 던질 것이다. 실리가 아는 그녀는 그런 여자니까.“네, 약혼하신 후에는 종을 가까이 두는 일 따위, 페일님의 드높은 평판에 흠 하나 주지 못할 겁니다.”“...그래.”실리는 이번에도 표정을 숨길 생각이 없는 듯 인상을 썼다. 저 순진한 무관이 대체 뭐라는 거야. 드높은 평판? 실리는 어처구니가 없었다.페일은 실리에게 표정을 풀라는 듯 제 미간을 톡톡 두드려 보였다. 실리는 페일에게 대단한 부관 사랑이라며 비꼬고 싶은 것을 간신히 눌러 참았다.평판의 대부분은 ‘그분은 용맹하기 짝이 없으셔서 맨손으로도 적의 사지를 찢으실 분이죠.’라거나 ‘우아한 그분의 손짓에는 남성분들의 연심만 달렸겠나요? 애걸복걸하는 목도 같이 달려있죠.’ 같은 식으로 전해진다.전자는 잔악무도하기 짝이 없단 소리고 후자는 남의 목을 뎅겅뎅겅 날린단 소리라 둘 다 욕이다. 론은 전자는 용맹하다고 칭찬한다고 생각했고, 후자는 사랑받는 사람이란 소리로 알아먹곤 했다.페일의 평판도 그랬다. 까탈스럽고 성질머리가 나쁜 페일은 이미 평판이 더 갈 곳도 없이 바닥에 눌어붙어 있지만 론만 그걸 칭찬이라고 생각하며 제 상관을 자랑스러워했다.페일의 평판을 여기서 더 깎으려면 반역이라도 일으켜야 한다. 아니, 그조차도 지금 왕가에 불만이 많은 자의 지지로 인해 지금보다 평판이 좋아질 수 있었다.그러니 뭐, 누굴 품에 끼고 뒹굴건 이미 더 갈 곳도 없는 평판인데 높은 평판은 무슨 헛소리고, 흠집을 왜 걱정하는 걸까. 차라리 소문을 들은 페일의 약혼녀가 페일과 부관들을 싹 죽이러 오는 걸 걱정하는 편이 좀 더 건설적이었다.실리는 론이 벌이는 이 희극이 더없이 자신의 골치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했다.“그럼 저는 이틀 후까지 이름을 내릴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이틀 후에 수도 저택에서 뵙죠.”론이 쓸데없이 입을 놀린 덕에, 이름을 내리는 데 쓸 재료를 적어도 반년간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히 구해야만 했으니, 할 일도 아주 많겠다 이만 퇴석할 타이밍이었다.‘아깝지만 휴버트 상회에 심어둔 자를 써야겠어. 어차피 반년 후면 퍼질 일 때문에 이게 다 뭐람.’집무실을 빠져나가면서 실리는 페일이 지금 론을 타박하는 대신 자신에게 헛고생을 시키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속으로 한탄했다. 자신이었으면 멍청한 소리는 집에 가서 하라고 말하고 쫓아냈을 것이다. 반성문도 쓰게 하고.실리는 한숨을 쉬었다.실리가 방을 나서고 나서도 한동안 론이 페일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했지만 페일의 인내심은 셋까지 가긴커녕 하나에서 끝나기 때문에, 하나를 들어준 페일은 론의 제안 대부분을 무시했다.한동안 론과 ‘안 돼.’로 점철된 질답을 하던 페일은 작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소파에 뉘어둔 작은 종이 부스스 일어나서 놀란 듯 사방을 훑어보고 있었다.“일어났군.”힐은 흠칫 놀라며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놀라서 굳어버렸다. 머릿속으로는 얼른 이마가 땅에 닿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굳은 몸은 푹신한 소파에서 일어나긴커녕 손가락 하나도 까닥할 수 없었다.힐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제 몸을 뉘었던 소파의 푹신푹신한 감촉을 잔뜩 느끼며 저를 샅샅이 훑어보는 페일의 밤색에 가까운 갈색 머리카락과 짙푸른 눈동자를 잔뜩 봤다.한참 후에야 힐은 주춤주춤 몸을 일으켜 바닥에 발등과 팔꿈치, 이마를 모조리 대고 조그만 목소리로 인사할 수 있었다.“성의 종이 귀한 분을 뵙습니다.”힐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덜덜 떨려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앳된 티가 나는 고운 미성은 바보 같았을지언정, 버릇없게 들리진 않았다. 밝은 빛 아래에서 더욱 노란 빛을 띤 아마 빛 머리카락이 바닥에 함께 어지러이 널브러져서 힐은 꼭 새끼 오리나 병아리 같았다.페일은 론에게 손짓했다. 론은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힐의 뒷덜미를 잡고 일으켜 페일이 앉아 있는 책상 앞까지 한 손으로 들고 갔다.힐은 뒷덜미가 잡힌 채 허공에서 두 뼘 정도 대롱대롱 떠서 페일과 눈이 마주치지 않게 약간 아래쪽에 시선을 고정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게 기절할 것 같았다.페일은 아래로 내리깐 잿빛 눈망울을 뚫어지라 보았다. 비쩍 마른 몸에 젖살이랄 것도 별로 없는 얼굴은 둥글었고, 눈망울은 말간 빛이 났다. 빛을 본 적이 별로 없는 듯 창백한 흰 피부까지 어우러져서, 페일은 저 종이 꼭 탈색된 것처럼 느껴졌다. 풍기는 느낌이 꼭 아무것도 적지 않은 빈 양피지마냥 텅 빈 공백 같기도 했다.페일은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힐에게서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났기 때문에.“일단 씻겨야겠군.”페일이 맡은 냄새를 론도 똑같이 맡고 있었기에 론은 별말 않고 종을 내려놓고 문밖에 대기하던 성의 하인 하나 불렀다.“씻길 것이 있으니… 하녀를 데려와. 집무실 안쪽 욕실에서 씻기도록.”“예, 목욕물과 하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밖에 더 필요하신 것이 있으십니까?”“홍차와 와인 두 병.”론은 힐을 잠시 돌아보곤 하녀를 데려와 그녀를 씻기도록 명했다. 어찌 되었건 곧 페일이 이름을 내릴 아이니까.그는 하인이 목욕물을 길어오기 전, 먼저 준비해온 차와 와인, 가벼운 입가심 거리를 조금씩 먼저 맛보고 독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야 페일에게 건넸다.페일은 목욕물이 욕실로 날라질 때쯤에서야 분홍색 와인을 마실 수 있었다.\*\*페일은 왕성에 머무는 동안 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힐은 ‘네..?’라고 대답하던가, ‘아…?’하고 말끝만 위로 휙 올라가는 이상한 추임새만 내뱉었다.질문에 대한 대답은커녕 질문 자체도 이해하질 못하는 모습에 페일은 왕성에 머물던 이틀 내내 힐이 굼뜨기 짝이 없고 잘 놀란다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심문을 포기했다.애초에 알아낼 만한 것이 있을 거로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이 정도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페일의 예상 밖이라, 그는 급격한 피로를 느꼈다.페일은 자신 주위에서 답답하게 구는 걸 싫어했음에도 마지막 한 줄기 인내심을 발휘해 그녀를 고문하거나 때리지 않은 것은, 라휄이 힐의 외양을 마음에 들어 한 게 틀림없다는 쪽으로 쏠리는 생각 덕분이었다.외양을 마음에 들어 한 거라면 살결 하나 망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페일은 조찬모임에 다녀오고 나서 곧바로 힐을 마차에 던져넣고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페일의 저택은 왕성과 마차로 두시간이 조금 안 걸리고 도로도 잘 닦인 데다가 본저 대부분의 방에서 창밖을 보면 강이 보이는 입지가 좋은 곳에 있었다.그는 저택에 발을 딛기 무섭게 힐을 씻기고 먹이라 명하고, 집무실로 부관들을 불렀다. 실리와 머크, 론이 그의 집무실에 모였다. 부관들은 언제나 그랬듯, 전부 모이고 나면 자신이 진행 중인 일과 완료된 일을 구분해서 보고했다.페일은 높은 피가 섞인 자들로 구성된 부대를 총괄하는 왕국의 중역이라, 그의 곁에는 아주 짧은 틈에도 새로운 일거리가 쏟아진다.어떤 사안으로 모였건 모일 때마다 업무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관들은 다 모이는 자리에서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꼭 업무를 보고하고 페일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을 추려 보고서를 올렸다.세 시간쯤 지났을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주인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하녀 하나가 공손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말하고는 힐의 등을 툭 떠밀어 페일의 앞으로 보냈다. 힐은 여전히 조그맣고 말랐지만 잘 씻긴 덕인지 처음 그녀가 페일 앞으로 내보여졌을 때처럼 악취가 나진 않았다.힐도 곁눈질로 하녀를 훔쳐보고서는 하녀의 자세를 따라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힐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방이 아니었던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계속 높은 분들에게 휘둘려 이리저리 다녔더니 당황에 더불어 극심한 피곤을 느끼던 찰나에 다시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의 앞에 떠밀려 나가야 하는 지금 상황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다.그녀를 씻기고 먹인 이들은 그녀가 종임을 아는 듯, 주어진 일만 착실히 할 뿐 힐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힐도 그들의 굳은 표정을 보면서 도저히 먼저 물을 수 없었다.그녀가 알고 있는 건 높은 분들 앞에선 얌전히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뿐이라서 그들이 저를 멋대로 휘두르도록 잠자코 있는 게 힐이 할 수 있는 대처의 전부였다.“아.”실리가 방싯 웃으며 하녀에게 손짓해 방 밖으로 몰리고 힐의 손목을 낚아챘다. 힐은 깜짝 놀라서 당장이라도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높은 분께 거역할 수 없어서 손가락만 약간 꿈지럭댔다.실리는 그 꿈지럭대는 손가락을 못 본 체하며 힐의 턱을 들고 얼굴을 조금 가리고 있는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겨 페일이 그녀의 얼굴을 잘 볼 수 있게 했다.“열네 살 치곤 많이 작군요. 흐음, 이거 준비가 좀 더 길어지겠네요. 뭐… 그래도 준비만 해두면 의식을 못 버틸 정도는 아닙니다.”실리가 힐의 팔꿈치부터 어깨까지, 목 뒤부터 등허리까지 뼈와 신경이 흐르는 곳을 꾹꾹 눌렀다. ‘오, 제법 튼튼한데?’ 간간히 그런 소리도 했지만, 힐은 그가 누르는 곳마다 너무 아파서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다.“바로 준비 시켜. 얼마나 걸리지?”“이 녀석, 몸은 튼튼한데 마력 반응이 없어요. 페일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육체의 파장을 맞춰야 하는데 마력 반응이 전혀 없으면 파장이 계속 튕겨 나갈 겁니다. 이 약을 좀 먹이고 강제로 반응을 일으켜야 하니 하루 정도 필요합니다.”실리가 페일의 눈앞에 작은 약병을 하나 꺼냈다. 페일이 그 약병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자, 실리는 힐의 뺨을 눌러 입을 벌리게 하고는 약물을 쏟아 넣고 턱 밑부터 목을 가볍게 손으로 쓸었다.동물에게 약을 먹일 때나 쓰는 방법이었지만 그 방법은 힐에게도 잘 먹혀서 힐은 엉겁결에 약물을 삼켰다. 입안에 있을 때는 미적지근하고 아무 맛도 나지 않았는데 약물을 삼키기 무섭게 혀가 아릴 만큼 단맛이 입안에 가득 남았다.그 엄청난 단맛은 서서히 힐의 뱃속까지 퍼지는 듯했다가 이내 머리끝까지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심장 박동처럼 머리가 쿵쿵 울릴 때마다 찬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가, 곧 잠들 것처럼 의식이 몽롱해지길 반복했다.힐은 몸이 저릿저릿한 것보다 입안에 계속 남는 단맛이 더 신경 쓰였다.“아, 으. 잼 빵보다 달아….”힐은 그 말을 끝으로 서서히 앞으로 고꾸라졌다. 실리는 바로 옆에서 쓰러지는 힐을 솜씨 좋게 낚아채고 웃었다. 그 조그만 목소리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울 줄 알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어이가 없었다. 어쩌면 약 때문에 백치가 된 게 아닐까.그 약은 강제로 마력 반응을 일으키는 대신 머릿속을 곤죽으로 만든다. 가진 힘이 없을수록, 마력과 거리가 먼 몸일수록 백치가 되기 쉽고 고통은 적다.반대로 가진 힘이 많다면 백치가 되는 대신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 약은 간혹 페일에게 반기를 드는 자들에게 주는 실리의 깜짝 선물이기도 했다. 실리는 그들의 식사에 깜짝 선물을 몰래 타주는 서프라이즈를 즐겼다.어쨌건 멍청한 소리를 하면서 바로 쓰러질 정도라면 힘이 조금도 없단 뜻이었다.“내일 아침이면 일어날 테니, 페일님께서도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실리는 힐의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도록 고쳐 안고 페일에게 약병 세 개를 건넸다.“두시간 간격으로 드시고 가능한 힘을 아끼세요. 아무리 페일님이라고 하셔도 자칫하다간 몸져누우십니다.”“별걱정을 다하는군. 물건은 구했나?”“물론이죠. ”페일이 약병 하나를 열어 입에 털어 넣었다. 단숨에 약을 삼킨 페일이 실리에게 빈 약병을 던져주며 묻자, 실리는 약병을 낚아채고 자신이 들고 왔던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페일에게 건넸다.“휴버트 상회를 통했습니다. 신전의 나무와 열매를 관리하는 신관 베아트리체가 가르친 렘버 파르바티라는 놈이 신전 나무를 몰래 꺾어 팔더군요.협잡꾼 몇을 보내 도박 빚을 갚아주는 대신 렘버 파르바티가 가진 금붙이를 빼앗는 것처럼 꾸며서 그놈의 장부 일부를 카피해두었습니다.그리고 뭐… 장부에 있던 노파 집에서 나뭇가지를 훔쳐 왔죠. 운 좋게도 십 년 전쯤 노파가 치매 초기에 렘버에게 속아서 샀더군요.”훔친 사람을 찾으려면 아마 반년은 걸릴 거에요. 실리가 씩 웃었다. 페일이 따스한 온도가 느껴지는 작은 상자를 열자, 푸른 잎사귀와 작은 꽃망울 몇 개를 가진 나뭇가지가 있었다.“좋아, 잘했다. 실리.”페일이 입가를 당겨 웃었다. 실리는 툴툴대고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일 처리가 깔끔했다. 페일은 성격은 나빠도 좋은 윗사람의 덕목을 지닌지라, 사람 보는 눈이 있었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쓸 줄 알았으며 칭찬에 야박하지 않았다.실리는 고개를 조금 숙여 당연하다는 듯 칭찬을 받아들였다. 실리가 고개를 숙이자, 그의 머리카락이 힐의 지푸라기 같은 머리카락을 살짝 덮었다.“의식은 내일 오전 일찍 지하에서 한다. 그 종은… 미리 지하에 가져다 두도록.”“네, 그럼 그리로 데려다 놓죠. 머크, 담요 하나만.”실리는 한 손을 뻗어 머크에게서 담요를 받아들었다. 실리가 힐을 담요로 감싸 큰 짐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들자 머크는 그가 편히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었다. 아무리 작아도 사람을 감싼 담요 뭉치는 부피가 제법 커서 머크는,“같이 가지.”라고 말하곤 실리를 잠깐 붙들었다.“저택 하인들은 지금부터 조를 나눠서 별저 내부와 외부 대청소를 시키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하인 전부를 별저에 매달려 있게 해두면 보는 눈은 좀 줄어들 겁니다.”실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가에 서서 머크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재빨리 페일에게 하인들을 내일 오전에 치워두겠다고 짧게 보고하며 실리와 함께 나갔다.페일의 저택은 입단속이 철저한 편이고 대대로 가신이었던 자들만 저택 내에서 일하지만, 사람의 입은 하염없이 열리고 말을 쏟아지기 마련이다. 머크는 저택에서 중요한 일을 치를 때면 항상 대청소를 명분으로 휘둘러 하인들을 이곳저곳으로 치우곤 했다.머크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없는 곳만 골라서 실리를 지하로 이끌었다.본저 지하에는 실리가 이런저런 실험을 할 요량으로 마력 파동이 밖으로 새지 않게 결계를 쳐둔 곳이 있다. 실리는 그중 가장 큰 실험실의 문을 턱 끝으로 가리켰다.“깔끔하군.”늘 온갖 종이 뭉치나 양피지, 실험 재료용 약초로 난잡한 실험실이 깔끔히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머크가 작게 감탄했다.“어젯밤에 다 치워버렸지. 잔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실리는 히죽 웃으며 힐을 실험실 한가운데에 있는, 바 테이블만큼 높은 테이블에 눕히고 주변을 둘러보며 웃었다.“먼저 돌아가 있어. 론경하고 둘이 있다간 페일님은 쉬시긴 글렀을 테니까. 나는 이 녀석 상태 봐가면서 나머지 준비나 해둘게.”“그대는 론에게만 너무 박정해.”“나는 멍청이를 싫어하니까.”론경이 페일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건 말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잖아? 그에게 잘 대해줘야 할 이유 같은 건 없다고. 실리가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머크는 고개를 저었다.부관들은 대외적으로 사이가 나쁘지 않은 편이고 실제로도 그리 나쁘진 않지만, 실리가 론을 대하는 태도는 좀 나쁜 편이었다. 대놓고 무시하진 않지만 한 번씩 답답하다느니, 멍청이라느니 하는 소리를 하곤 했다.그에게만 ‘론경’이나 ‘우직한 기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랬고. 론이 조금만 더 눈치 있는 사람이었다면 둘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졌겠지. 머크는 한숨을 쉬고 실험실을 나섰다.실리는 머크가 실험실을 나가고 그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한참 동안 실험실 구석에 얌전히 서 있었다.“그놈의 론타령은.”이번에도 그 때문에 쓸데없는 고생을 한참이다. 그가 곱게 보이진 않지만 실리는 그와 척을 질 생각도 없었다. 머크가 자신과 론의 사이를 걱정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과한 걱정이고 생각하며 힐을 감싼 담요를 풀어 그녀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지하는 서늘했고 몸이 식으면 좋지 않겠지. 종이라도 이제 페일의 것으로 살아갈 여자아이니.그는 빈 양피지와 잉크, 깃펜을 찾아와서 양피지 위로 마법 진을 거침없이 써 내렸다. 그가 그린 마법 진은 마력 반응을 감지하는 것인데, 이걸 발동 시켜 힐의 근처에 두면 마력 반응이 어느 정도 강도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그 사람의 마력에 따라 반응이 강하면 짙은 빛을 내고 반응이 없으면 옅은 빛을 낸다. 보통은 흰빛이나 붉은 계통의 빛이 나는데 사람에게 어떤 빛이 나는지 보는 것은 실리의 취미생활 중 하나여서 그는 조금씩 즐거워졌다.“아직은 반응이 없네.”하긴, 아까 직접 몸속으로 마나를 흘려 봤을 때도 반응이 전혀 없긴 했지. 그가 조금은 김샌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마법 진이 그려진 양피지가 살짝 위로 뜨면서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빛이 맺혔다.“...하늘색?”아주 연약한 빛은 아까 힐에게 먹인 약물이 잘 반응한다는 것이라 기꺼운 것이지만, 그가 머리털이 나고 처음 본 하늘색 마력은 그를 꺼림칙하게 만들기 충분했다.양피지 안에서 아주 가느다란 빛이 깜박였다. 당장이라도 꺼질 듯 여린 빛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던 실리는 그 여린 빛에 홀리듯 점점 표정을 풀었다.빛의 색이 흔치 않으면 뭐 어떤가. 보통은 하얗거나 다홍빛, 핑크빛처럼 붉은 계통색이 많긴 하지만 그게 뭐 대수라고. 원래도 정해진 색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 체내의 마력이 바깥에 무섭게 들끓는 괴물처럼 이곳저곳을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상관없으리라.실리는 고개를 흔들며 어딘지 꺼림칙했던 기분을 저 멀리 치워버리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빛을 감상했다.어차피 내일 페일이 이름을 내리면 그의 힘 중 일부가 이 종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 힘이 이 종의 것으로 흡수되건 되지 않건 마력의 빛은 페일과 같아질 테니 이 조그만 하늘색 빛을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 터였다.힐은 입 안 가득 느껴지는 단맛이 낯설었다. 이렇게까지 단맛을 느끼려면 설탕 단지에 머리라도 박아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전신이 얼었다가 녹는 감각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어쩐지 별로 두렵지가 않았다. 눈앞이 먼저 깜깜해지고 제 몸이 기울었을 때도.기이한 감각이었다.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높은 분들의 말소리도 저 먼 곳에서 웅웅대서 알아듣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의식만은 또렷했다. 제 몸이 어딘가로 옮겨질 때도.그때 갑자기 힐의 의식 한 곳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도 시야는 온통 어두웠지만 알아들을 수 없던 소리가 점차 분명히 들리다가 아주 작은 소리까지 정확히 들려왔다.“...하늘색?”자신에게 약을 먹였던 자의 목소리를 들렸다. 몽롱한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해서 조금 안도하려는 찰나, 갑자기 아래로 뚝 꺼져버리는 듯한 느낌을 느꼈다.‘으아아...’입안으로 작은 비명이 맴돌았다. 힐의 의식은 끝없이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끊어졌다.힐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익숙한 검은 공간 속이었다.‘여기는?’힐은 이곳을 잘 알았다. 자신과 똑같은 아이가 있는 곳.‘나는 너잖아.’라고 자주 말해주는, 잘 웃고 잘 찡그리고 이야기도 잘하는, 힐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는 곳이다. 힐은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조심스럽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걸었다.“오지 마.”얼마나 걸어온 걸까? 힐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도 힐이 온 걸 알고 있는지, 꽤 떨어진 거리에서 흐느끼며 소리를 질렀다.힐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었다.“너도 입안이 달아?”나는 아까 엄청나게 단 걸 먹고 나서 아팠어. 몸을 꽁꽁 얼리고 다시 태우는 것 같았어. 힐이 웅얼웅얼 말하며 주춤주춤 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소심하기 짝이 없는 걸음은 아이가 몸을 파득 떨 때면 뒤로 물러나고, 잠잠할 때 다시 앞으로 가길 반복했다.“대체 왜 걜 보러 간 거야?”손을 뻗는다면 닿을만한 거리까지 힐이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휙 들어 올렸다. 힐과 똑같았던 잿빛 눈망울은 잔뜩 핏발이 서 있었고, 창백하게 질린 피부는 땀에 절어있었다.힐은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박에 알았다. 막대발. 막대발을 보러 간 걸 묻는 거다. 아이가 하는 말은 이렇듯 그 뜻이 전해지는 것처럼 바로 알아들을 때가 있었다.아니 있었나? 이 꿈을 자주 꾼 걸 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게 꿈인 걸 알았지? 잠에서 깼을 때도 알았던가? 이상한 기분이었다. 뭔가 열어선 안 된다고 들었던 상자 같은 게 저절로 열려버린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막대발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으면, 보러 가는 거야.”힐이 아이의 눈치를 보듯 눈동자를 자꾸 굴렸다. 아이도 알고 있었다. 힐이 그 물건을 건네주던 날을. 나는 너니까, 네가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니까.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웅얼댔다.그날, 그 온기. 잊히지 않을 만큼 빛나던 보랏빛 눈망울. 어쩐지 코끝이 시큰시큰해서 아이는 한숨을 연거푸 쉬었다.“걔 물건을 만들어주란 말 같은 거 하지 말 걸 그랬어…”여러 번 크게 숨을 들이켜도 목이 꼭 막혀서 울컥 눈물을 쏟아졌다. 힐이 어쩔 줄 모르고 있자, 아이는 비틀비틀 몸을 일으켜 힐의 앞으로 갔다. 앞으로 쏟아지듯 쓰러지는 아이를 힐이 양팔로 받아 끌어안고 같이 풀썩 주저앉았다.“아무거나 받아먹지 좀 마. 바보 노랑이.”아이가 힐을 마주 끌어안고 그녀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힐에게 안겨있는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내가 단 거를 먹어서 네가 아파?”“바보. 나는 너잖아. 네가 아픈 거야.”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한 힐의 이마를 제 머리로 쿵 들이박은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한 목소리로 중얼댔다. 혼잣말처럼 두서없이.“막대발이 나빠. 걔가 꼭대기 방에 안 왔으면, 걜 몰랐다면 보러 가지 않았을 거잖아. 그러면 붙잡히지도 않았을 거야. 다 엉망진창이야. 다… 그 애가 나빴어.”힐은 화들짝 놀랐다. 적어도 힐에게 있어 연회 날 막대발을 찾아간 것은 그냥 그녀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서. 그건 막대발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쁜 게 아니라 상냥했다. 오늘 아픈 건, 내가 아프고 네가 아픈 건 막대발 탓이 아니었음을 말해야 했다.한참 끙끙거리며 뭐라고 말해야 할 지 고민하던 힐이 변명하려는 듯 아이를 안았던 손을 풀자, 아이가 힐의 어깨를 부드럽게 밀었다. 마주친 말간 잿빛 눈동자가 하염없이 깊었다.“쉬-, 나도 알아. 이제 가.”나도 막대발이 사랑스러워. 아이가 쓰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허무해서. 꾹 눌러 참고 참으며 지키던 어떤 둑이 무너진 것처럼,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포기 같기도 하고 망망대해에서 헤매는 어떤 서러움 같기도 했다.뜨거운 불덩이를 품고 있던 품이 비자, 힐은 서늘한 상실감을 느꼈다. 이 추락이 끝나면 더 깊은 잠이 들겠지. 익숙한 감각에 힐이 눈을 꾹 감으려는 찰나,‘괴로워.’아이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리자마자 힐은 눈을 떴다.힐이 눈을 뜬 곳은 마정석을 박아 환한 빛이 드는 지하 실험실 한가운데. 힐은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남자들이 가물가물한 시야에 잡혔다.힐의 창백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괴로워…….”실리, 머크, 론. 페일의 세 부관은 실리의 지하 실험실에 있었다. 잔뜩 부산스러운 밖을 등지고 동이 터오길 기다리며, 의식 준비물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소국에서는 이름을 내린 일이 많지 않아, 다른 기록을 보고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유의미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강박적으로 의식을 준비했다.물론 부관들은 이 의식이 잘못된다고 해서 페일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만 페일은 그들의 윗사람이고 그가 단 일주일만 정신을 잃어도 소국의 전력과 그들의 업무에 상당한 손실이 생긴다.물론 그런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페일이 깨어날 때까지 핵심 전력과 추진 중인 일이 망가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정도일 뿐이다.그들의 말수가 점점 줄고 아침이 다가오길 초조히 기다리던 때, 힐이 숨을 크게 들이쉬며 깨어났다. 힐이 몸부림치듯 몸을 둥글게 말았다. 그 몸짓에 떠밀려 실리가 마력측정을 위해 곁에 둔 양피지가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지고, 곧 마법 진의 빛이 사그라들었다.힐의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이 그녀가 누워있던 테이블 위에 얼룩지듯 흘러내렸다.“일어났네?”실리가 웃으며 힐의 곁에 다가가 섰다. 힐은 혼란이 가득한 눈으로 상체만 슬쩍 일으켜 실리를 올려다보았다.“아, 안되지.”실리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테이블로 꾹 눌렀다. 학자라고는 하지만 밖으로 떠돈 세월이 길었던 만큼 단단한 손은 힐의 머리통을 다 담을 만큼 컸다.“쭉 자는 편이 네게 좋았을 텐데. 아쉽네.”의식은 아까 먹은 약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텐데. 실리가 혀를 찼다. 또 기절하게 될까. 손에 잡은 어깨가 너무 작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실리?”머크가 실리를 툭 건드렸다. 실리는 힐의 어깨를 놔주고는 힐을 빤히 보며 관찰했다. 다른 부관들이야 성에 있던 이틀간 정신이 붙어 있는 힐을 꽤 오래 봤겠지만 실리는 의식에 쓸 재료를 구하러 다니느라 약을 먹일 때 잠깐 본 게 전부여서 움직이는 모양새가 신기했다.꿈에 나온 아이 생각으로 벅찬 힐의 눈앞에 실리의 얼굴이 아주 가깝게 붙어왔다. 그의 숨이 느껴질 만큼. 그 거리에 당황한 힐이 몸을 한껏 웅크리고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인사했다.“높으신 분을 뵙, 뵙습니다.”실리는 힐이 몸을 동그랗게 마는 모양새가 꼭 쥐며느리 같아 보여 짓궂게 웃었다. 그의 웃음을 본 머크가 약간은 불길해하는 표정으로 그를 힐에게서 살짝 떼어놨다.“왁!”실리는 머크의 손따위 살짝 몸을 움직여 무시하고 힐에게 제 얼굴을 다시 가까이 가져다 댔다. 힐은 이번에도 실리가 흡족해할 만큼 깜짝 놀라며 몸을 파드득 떨고 바 테이블 구석으로 도망쳤다.아무래도 종들의 성에서 도망쳐 연회를 본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는 건가 봐. 힐은 눈을 꾹 감았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높은 분들 앞에 있어서 죽게 되는 걸까. 힐은 짐작 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조금 무서워졌다.죽어야 할 이유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건 그녀가 생각해본 적 없는 것이라. 살려달라 싹싹 빌면 살 수 있을까. 실리가 가까워질수록 무슨 말로 빌어야 할 지 궁리하던 머릿속이 텅 비어갔다.힐은 문득 초조했다. 높은 분이 나를 죽일 이유는 그리도 많은 것 같은데, 살려달라 빌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예전에 종들의 성에서 종이 죽을 때면 온 성에 그 비명과 애걸하는 울음소리가 웅웅 울렸더랬다.죽음을 앞둔 종은 하나같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던가 ‘저는 땜질을 제일 잘합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같은 말로 빌었다.‘나는 뭐라고 빌어야 해?’힐은 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제 삶이 계속될 가치가 생기는지는 몰랐다. 허드렛일도 잘 못 해서 매일같이 욕을 먹고 맞는 성에서 가장 어리고 굼뜬 종.힐은 제 코앞까지 실리가 고개를 들이민 것을 느꼈다. 정수리 부근에서 숨결이 느껴졌다. 그녀가 조금만 더 뒤로 물러나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위치에 닿았을 때, 론이 그녀의 허리춤을 잡고 바닥으로 휙 내려버렸다.“장난은 그만둬.”“네네, 아 잠깐.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다시 테이블 위로 올려두시죠, 론경.”장난은 이제 그만 할 테니까. 실리는 의식이 다가올수록 긴장되는 것을 달래줄 놀 거리를 빼앗겨 오르려던 흥이 싹 식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긴장은 많이 풀렸으니 된 거지 뭐. 그는 투덜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마법 진이 그려진 양피지를 들어 힐의 손에 쥐여주었다.“들고 있어.”힐은 양피지가 구겨지지 않도록 손바닥을 펴서 그 위에 올려두고 바 테이블에 얌전히 앉아서 실험실 안에 있는 이들의 발치를 눈으로 좇았다. 곁에 바짝 붙어 있던 실리는 힐의 시선이 부관들에게 자꾸 닿는 것을 보고 느른하게 웃었다.발치에만 머무는 시선은 낮은 자로 살아온 티가 나서. 이전에 있던 론과 페일의 웃기지도 않는 만담의 결론대로 저 종은 페일의 곁에 머물게 될 것이다.라휄의 아가리에 던져두고 정보를 빼 오게 할거라면 최소한 먹이로는 보이지 말아야 할 텐데. 눈을 피하고 가뜩이나 작은 몸을 더 웅크리고 엎드리는 건 적어도 실리가 보기엔 ‘나는 아주 맛있는 한 입 거리 간식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음. 우리가 보고 싶으면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쳐야지.”“실리? 그게 무슨….”머크가 당황하건 말건, 실리가 힐의 턱을 잡고 고개를 들게 했다. 실리는 이 조그만 종에게 대단히 관심이 많이 갔다. 힐은 어쩐지 이전에도 이렇게 턱을 젖혀서 들렸던 것이 떠올랐다. 그때는 손이 아니라 발이었긴 해도.‘높은 피들은 턱을 들고 있는 걸 좋아하는 걸까.’힐은 잠깐 고민했다. 분명 종들은 고개를 들면 안 된다고 다들 그랬는데. 힐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당장 죽일 것 같진 않아서 약간 안도했다. 당장 죽지 않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도 같아서.“생일이 언제야?”힐이 우물쭈물하며 손가락을 꼼지락댔다. 질문에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힐은 생일이라는 게 뭔지 몰랐다. 틀린 것을 말하는 것도 생일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도 어쩐지 오답일 것 같았다. 사실 물어보고 싶긴 했다. 다만 차마 높은 분께 물어볼 수 없어서 그녀는 우물쭈물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못 했다.“모르나? 나이는?”이번에도 힐은 자신의 눈을 빤히 보는 실리의 시선에서 제 눈을 이리저리 돌려 피할 뿐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나이가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제 나이가 몇인지 정확히 몰랐다.여름과 겨울을 몇 번 났는지 알면 나이가 몇인지 아는 거라고 흰 코가 이야기해 줬었지만 여름을 열네 번, 겨울을 열세 번 보면 몇 살인 걸까? 열셋? 아니면 열넷? 힐은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았다.“괜한 데 힘 빼지 마라. 대답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더군.”한참 실리가 힐을 붙잡고 이것저것 질문을 던질 때 페일이 실험실로 들어왔다. 언제나 정복을 고수해서 집 안에서도 크라바트를 쉽게 푸는 법이 없는 페일이 오늘은 유독 가벼운 옷차림으로 몸을 드러냈다.그는 질 좋은 실크로 만든 아이보리색 셔츠와 몸에 그리 달라붙지 않는 갈색 면바지를 입고 짙은 녹색 가운 하나를 위에 걸치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선이 굵어서 가벼운 복장으로도 정복을 차려입은 듯 단정한 느낌이 났다.“페일님.”부관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페일은 약을 먹고 난 뒤부터 욱신대는 머리를 꾹꾹 누르며 대답 대신 손을 휘저었다.“준비는?”“완벽합니다.”머크가 페일의 가운을 받아 잘 개키며 준비 상황을 하나씩 짚어 이야기했다. 페일은 이미 몇 번이나 실리에게 들어 알고 있던 항목들이라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아직도 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내는 실리를 보며 피식 웃었다.“물어봐야 소용없어. 백치나 다름없다.”“뭐, 아는 게 없겠죠. 종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질문에 반응하는 걸 보면 영 백치는 아닙니다.”어떤 단어까지 알아듣나 보는 것도 재미있거든요. 실리가 눈을 빛내며 페일에게 힐이 무슨 말을 알아듣는지, 뭘 못 알아듣고, 질문으로 어떤 단어의 뜻을 눈치챈 것 같다느니 같은 말을 잔뜩 늘어놓았다. 어딘지 신나 보이는 실리에게 페일은 한 손을 들어 보였다.“아.”실리는 그제야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서 떠들었음을 깨닫고 양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해서 페일이 있는 쪽을 향해 살짝 앞으로 들어 올렸다. 뜻대로 하겠다는 몸짓으로.힐은 제게 쏟아지는 질문의 홍수 속에 한참을 허우적대다가 자신에게 바짝 붙어 있던 실리가 몸을 좀 떨어트리자 간신히 한숨을 돌렸다. 자세히는 몰라도 그녀도 몇 번 본 적 있던 ‘페일님’이 ‘실리님’을 혼낸 것 같았다.그래서 실리가 손을 위로 들어 올렸을 때 힐은 잠시 고민하다가 실리를 답싹 껴안았다. 실리와 포옹하고 싶지 않았지만, 혼이 나면 위로가 필요한 거니까. 어쩌면 제가 포옹을 해주면 조금은 더 오래 살려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조금은 들었다.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라 굳었다. 종이 높은 피를 함부로 만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고민하느라고.“이건 뭐야?”실리는 자신을 끌어안은 조그만 몸이 주는 뜨거운 온기를 차마 떼어내지도 못하고 물었다. 떼어내야 할 것 같긴 했는데 자신을 끌어안은 손과 몸이 너무 작다는 게 새삼 느껴져서 도무지 어찌해야 할 지 알 수 없었다.“포옹이에요.”힐이 몸을 떼어내고 잿빛 눈 가득 실리를 담았다. 조금 탁한 거울 같기도 한 힐의 눈망울 속에서 실리는 제 찡그린 표정을 봤다. 힐은 약간은 기쁜 맘을 애써 가라앉히며 수줍게 웃었다. 그리고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마치 비밀을 알려주듯 속삭였다.“두 팔을 뻗으면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그토록 많은 질문에도 제대로 된 답 한 번 하지 못한 어린 종이 웃으며 하는 이야기. 페일은 자신도 모르게 힐의 앞으로 가서 섰다.탈색된 지푸라기 인형처럼 생기라곤 없어서 데룩데룩 굴리던 그 눈이 아니면 살아 있는지도 모를 거로 생각했었는데. 분홍빛 입술이 예쁘게 휘어지고, 말간 유리구슬 같은 눈망울에서는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한 하늘처럼 빛이 났다.페일은 인상을 찌푸렸다. 어딘지 불쾌한 기분이 머리를 쿡쿡 찔렀다. 실리가 놓고 간 그 약을 먹어서 느꼈던 두통과는 다른, 그런 불쾌함이.텅 빈 줄 알았던 양피지 한 귀퉁이에 이미 누군가 제 이름을 적어둔 것을 본 기분이 들었다. 생기가 도는 그 눈빛이 어쩐지 맹목적으로 제 몸을 던지는 불나방 같아서 그런 걸까. 그는 애써 고개를 털어냈다.“잡담은 이쯤하고, 시작하지.”그가 손짓으로 부관들을 뒤로 물렸다. 실리만 바로 물러나지 않고 재빠르게 나뭇가지를 바 테이블에 올려두고 뒤로 물렀다. 페일은 제 앞에 가지런히 앉은 종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충동적으로 속삭였다.“두 팔을 뻗으면 포옹이라…, 우스운 재롱이구나.”그가 손을 들어 힐의 손을 잡아 올렸다. 힐이 움찔 몸을 떨며 얌전히 있으려고 애를 썼다. 어쩐지 속 내에 조금 더 살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포옹을 한 게 들킬 것 같아서 그녀가 고개를 숙이려고 하자, 페일은 그녀가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다른 손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들게 만들었다.“고개는 들고 있도록.”눈이 마주쳤다. 군림하며 살아온 자의 오만과 아집, 어떤 충동이 고스란히 담긴 파란 눈 속에 어린 피식자가 담겼다. 곧 그가 끔찍이 증오하는 것의 곁으로 보낼 어린 종.“네게 이름을 내릴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명대로 움직여 나를 즐겁게 해라.”페일의 눈이 부드럽게 휘었다. 그가 쭉 쥐고 있던 힐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다. 작은 손은 거칠기 짝이 없는데도 말랑한 느낌이 났다.너무 작은데. 페일이 조그만 손을 쥐고 중얼거렸다. 이렇게 작은 백치가 페일이 맡길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을까. 라휄의 품에 파고들어 비밀을 캐내고 그 품에 칼을 꽂아 넣을 수 있는가.이름을 내린다고 해서 없던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페일이 지금 이름을 내려준다고 힐이 갑자기 자란다거나, 평생 모르고 살던 예법을 줄줄 왼다거나, 강한 힘을 가질 수 없다.‘먹이고 가르치면 쓸모가 생기겠지.’페일은 뒷 일은 뒤에 생각하기로 했다. 라휄이 관심을 보인 인간은 처음이고, 재료가 있으면 쓸모는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 있다. 그는 주어진 패를 고민만 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버릴 만큼 멍청이가 아니고, 작고 어린 종은 그에게 주어진 한 장뿐인 패니까.일단 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먼저니까. 페일은 흩어지려는 생각을 바로잡고 신성이 깃든 나뭇가지를 힐의 손에 쥐여 주었다. 힐은 따스한 기운이 풍기는 나뭇가지를 양손으로 받아들고 살짝 끌어안았다.그가 어린 종에게 주려고 준비한 이름은 자네스. 아주 오래된 말로, 조롱이라는 뜻이다. 라휄에게 보낼 것이니 성심껏 이름을 골랐다. 페일은 이름을 내려 그 운명을 제 손아귀에 쥐려 할 뿐, 제 곁에 오래 머물도록 할 생각은 없었다.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몸이 조금 더 자라고 나면 라휄의 곁에 던져 놓고 그가 미끼를 물길 기다릴 것이다.페일이 그녀의 머리에 손을 올렸다. 조금씩, 천천히 그녀에게 제 마력을 밀어 넣었다. 순식간에 엄청난 마력이 힐의 작은 몸으로 흘러 들어갔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부터 손발톱 끝까지 페일의 마력이 힐의 몸을 채우고 또 채웠다.페일의 손을 타고 흘러드는 마력은 금방 힐의 작은 몸을 금세 가득 채웠다. 작은 종에게 더는 빈 곳이 없자, 페일의 마력은 힐의 세포 하나하나를 강제로 비집고 들어갔다. 느긋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몸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것에 힐은 눈을 크게 떴다.처음 마력이 쏟아질 때 느낀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고양감이 점점 거북함으로 바뀌었다. 점점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힐은 세포 하나하나가 팽창하는 느낌에 제 살갗이 같이 부푸는 건 아닐까 제 팔로 시선을 내렸다. 창백한 피부가 점점 희게 질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력은 여전히 일정하게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몸이 점차 고통을 호소했다.지하의 돌벽을 툭툭 치는 바람 소리, 몸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으로 한껏 예민한 살갗에 닿는 축축하고 찬 공기, 실험실 한쪽에서 나는 약초 냄새. 온 세상이 빙빙 돈다. 모든 감각이 통증처럼 쏟아졌다. 힐은 마치 제 몸이 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차마 입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삼켜낸 비명이 눈으로 쏟아졌다.울음 섞인 숨소리만 점점 거칠어졌고, 힐의 눈물을 받아먹은 나뭇가지가 그녀의 품에서 봉오리를 터트렸다.페일은 힘을 불어넣을수록 몸에 한계 이상으로 과하게 쌓인 마력이 빠져나가서인지 점점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물먹은 솜 같던 몸이 더할 나위 없이 가뿐했다. 몸에 무리를 주던 마력이 다 빠져나갈 때 즈음에는 알 수 없는 고양감까지 느껴졌다.‘아직 기절하지 않는군.’페일은 어린 종이 잘 버틴다고 흡족해하고 있지만, 한계를 넘어선 고통이 당장 꺼질 것 같은 힐의 의식을 계속 깨우고 있었을 뿐 힐은 당장 기절해도 이상하지 않았다.힐은 몸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나뭇가지를 품에 안은 채 한껏 제 몸이 터지지 않도록 끌어안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것에 매달렸을 뿐이니까.시간이 점점 흘렀다. 곁을 지키던 머크가 저택의 일 때문에 두 번쯤 밖을 오갔고, 론이 제가 맡은 일을 하러 나갔다. 반나절이 지난 후엔 힐은 제가 살아 있는 게 맞는지도 헷갈렸다.힐의 품 안에서 봉오리가 톡톡 터지며 꽃과 새 잎사귀가 점점 자라자 나뭇가지의 따스한 온기가 점점 짙게 느껴지며 고통을 조금씩 녹여주었다.힐은 나뭇가지에 의지해 버티고 또 버텼다. 온몸이 땀에 절고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되었다.페일은 제 손바닥 밑에서 나뭇가지를 끌어안고 꽤 오랜 시간 입술을 꼭 물고 버티는 어린 종에게 조금은 감탄했다. 반나절이 넘는 시간 동안 타인의 마력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을 그도 알고 있었다.실리를 끌어안고 발칙한 소리를 할 때는 불쾌했는데, 고통에 떨면서도 버티는 모습이, 특히 제 손아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얌전히 남아 있는 게 흡족했다.페일은 제 손이 올라가 있는 힐의 둥근 머리통을 바라보았다. 지푸라기 같은 금발은 까슬한 게 촉감이 퍽 좋지 않았지만, 숱이 많아서 폭신한 느낌이 났다. 페일은 마력주입을 멈추고 천천히 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네 이름은 나오미다.”포식자의 변덕은 미덕이라. 그는 원래 주려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내렸다. 라휄의 시선을 끈 것 외엔 별다른 가치가 없던 어린 종에게서 생각지 못했던 인내심을 발견했다.‘일 년 정도 키우고 가르쳐 볼 가치가 생겼군.’그가 낮게 웃었다. 변변찮게만 보이던 재료가 생각보다 질이 좋아 흡족했다.페일이 힐에게 밀어 넣었던 마력이 폭주하듯 바깥으로 맹렬히 솟아올라 사슬처럼 힐을 칭칭 휘감아 돌았다. 힐이 고개를 휙 들었다. 페일의 푸른 눈과 힐의 잿빛 눈이 마주쳤다.흐트러진 갈색 머리카락과 짙푸른 안광을 내뿜는 눈이 가물가물한 시야에 잡혔다. 흐릿하고도 선명한 그 낯이 힐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박혔다. 힐은 눈을 질끈 감았다.터질 듯 몸을 채우던 것이 삽시간에 빠져나갔다. 온몸이 식어버릴 것 같은 탈력감에 힐은 페일이 자신을 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표정을 잔뜩 구겼다. 페일의 크고 마디가 굵은 손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힐의 귓가에는 온통 그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서늘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귀하신 분의 웃음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감각.“나오미…….”힐이 자신이 받은 이름을 뇌까렸다. 그 순간 힐을 휘감아 돌던 사나운 것들이 힐에게로 쑥 빨려 들어갔다. 사납기 짝이 없는 마력이 한순간에 힐의 몸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원래 있던 자리를 찾으려는 듯이.나오미. 나의 귀염둥이. 처음 듣는 단어임에도 그녀는 그 뜻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힐은 그대로 까무룩 눈을 감았다.‘나는 힐이야.’최초의 기억,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깨닫고 머릿속 한쪽에 고이 모셔두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의식이 완전히 끊어졌다.페일은 무너지는 힐의 몸을 받았다. 그저 백치인 줄 알았던 것이 생각보다 인내심도 있고 튼튼해서 마음에 들었다.“실리.”“네.”페일이 부르자, 곁에서 쭉 대기하던 실리가 짙은 녹색 가운을 들고 페일의 근처로 다가왔다. 페일은 그 가운을 받아 작은 종, 나오미의 몸 위로 신생아에게 포대기 싸매듯 칭칭 감싸 어깨 위로 나오미를 들쳐멨다.“...페일님? 숙녀를 대하는 예의라기엔 너무 무례한데요.”실리는 약간 질린 표정을 지었다. 실리가 아는 한 페일은 원래도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타인을 안아 드는 법을 이따위로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었다.“숙녀? 이 종?”“예, 뭐. 출신이 낮은 피긴 해도…, 왕국 법 상 이름을 가진 자는 이름을 준 자의 가문에 속하잖습니까. 이제 아가씨가 되신 거죠.”페일은 헛웃음을 쳤다. 소국의 신분제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높은 피와 낮은 피, 그리고 자유민.높은 피는 고귀한 혈통인 왕가와 귀족 가를 일컫고, 자유민은 나라를 위해 일을 하되, 왕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지를 옮길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낮은 피는 오로지 높은 피를 위해 일을 하고 삶을 바쳐 헌신하는 자다.평화롭던 시절에는 핏줄로 이어진 경우, 부부로 연을 맺은 경우만 그 가문의 사람으로 인정했었다.허나 타국과 오랜 전쟁, 끊임없이 쏟아지는 괴물들로 점점 전장에 설 높은 피가 부족해지자, 조금이라도 일그러진 피를 가진 이들을 찾아 전장에 세우기 위해 ‘이름을 가진 자는 이름을 준 자의 가문에 속한다.’는 법이 생겼다.일명 ‘양자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만들어진 역사가 깊지 않은 법이라 세부조항도 따로 없어서, 가문에 속한다고 해도 직계로 데려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유민에게 이름을 주고 방계로 들이거나 가신으로 들이곤 했다.“내 가문의 숙녀가 되었단 소릴 하고싶은 건가?”“소리가 아니라 그겁니다. 직계로 들이실 필요는 없죠. 방계 중에서 고르시는 것도 좋습니다.”페일은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표정으로 실리를 보다가 몸을 휙 돌려 실험실 밖으로 나갔다. 그도 많은 힘을 쏟아부었던 차라 지칠 대로 지쳐서 쓸모없는 소리는 나중으로 미루고 싶었다.“나중에 상의하지.”“페일님 론경과 제 처우가 너무 다른데요.”그 우직한 기사님의 헛소리는 전부 들어주시는 편이잖습니까. 실리가 페일의 등 뒤를 졸졸 따르며 종알댔다. 페일은 머리가 지끈거렸다.“...그 것도 나중에 같이 이야기해보지. 다만 내 저택에 실험실을 가진 부관은 너 하나인 점을 충분히 상기하고 오면 좋겠군.”페일은 실리의 다음 말을 조금도 기다리지 않았다. 바로 몸을 돌려 걷다가, 제 어깨에 들쳐멘 힐을 떠올리고는 곧바로 실리에게 휙 던졌다. 실리는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레 그녀를 받아서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게 하고 로브로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도록 꼼꼼히 싸맸다.“난 이제 쉬어야겠어. 실리, 내일 조찬은 내 방에서 같이 들지. 머크와 론, 그리고… 나오미를 챙겨 오도록.”페일은 그 말만 남기고 머리가 아프다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페일이 결정해주어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지만 실리는 고분고분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실리는 녹색 가운에 휘감겨 번데기 같은 힐을 품에서 한 번 고쳐 안고 히죽 웃었다. 아직 힐을 위한 방도 없는 데다가 처우도 결정된 것 하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짧게 고민하다가 머크의 방으로 힐을 옮기기로 했다.“어째, 이 아가씨는 깬 것보다 기절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군.”품에 미동도 없이 늘어진 그녀는 또래 애들보다 한없이 가벼워서 실리는 가뿐한 발걸음으로 걸어 다녔다. 똑똑“머크, 있나?”실리는 머크의 방문 손잡이 위에 작게 매달려 있는, 노커로 문을 두드렸다. 대체 왜 방문에 노커를 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실리는 머크도 어딘가 맛이 갔다고 생각했다.‘하긴. 높은 피는 대부분 돌았지.’피가 주는 힘은 강력했고 인간의 정신력은 나약하다. 어디 한 구석 돌아 있지 않은 게 더 이상할지도 모른다.“들어오게.”안에서 머크의 목소리가 들렸다. 실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 머크의 응접실을 그대로 지나쳤다. 녹색 덩어리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실리를 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던 머크는 그가 향하는 방향을 보고 표정을 굳히며 실리를 붙잡았다.“잠깐, 실리. 그쪽은 침실인데?”“나도 알아. 너 어느 쪽 침실 제일 안 쓰지?”“뭐?”머크가 실리를 제 몸으로 가로막자 실리는 점점 흘러내리는 녹색 가운을 추슬러 조금 빠져나온 힐의 흰 손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 주인의 가문 아가씨인데 함부로 보이면 안 되지. 실리가 나오미를 아가씨라고 생각할수록 점점 유쾌해졌다.“너 침실 요일별로 두고 쓰잖아. 하나만 내줘. 하룻밤이면 충분해.”“...엘로이 후작 저엔 침실 일곱 개짜리 방이 없어. 내가 쓰는 방에 침실은 네 개뿐이야. 무슨 소린지 알겠나?나도 쓸 침실이 부족하단 소릴 하는 거야. 그러니 한숨 자고 싶은 거라면 자네 침실로 가게.”머크가 굳은 표정으로 단호한 축객령을 내렸다. 실리는 그가 가진 강박 중 가장 말도 안 되는 침실 강박증을 진작 뜯어고쳤어야 했다고 한탄했다. 물론 속으로만.“그럼 그중 하나를 줘.”실리는 머크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며 직접 자신에게 손을 대 끌어내려 하기 전에 추슬렀던 녹색 가운을 살짝 열어서 힐의 머리카락을 조금 그에게 보여줬다.머크는 그 지푸라기 같은 머리카락만 보고도 이미 의식은 끝났고 그녀가 이름을 받았을 것을 알아챘다.“나오미님이 쉴 공간이 필요하거든. 알다시피 내 방엔 침실이 하나뿐이라.”나오미님이 나랑 잘 순 없잖아? 실리가 익살스럽게 웃었다. 머크는 힐이 이름을 받은 사실 자체나, 실리의 농담보다는 그 이름에 놀라서 표정이 굳었다.‘귀염둥이? 페일님의?’실리가 그의 어깨를 툭 두드리듯 치고 아무 문이나 열어 활짝 열어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푹신한 침대에 나오미를 눕히고 캐노피 커튼을 내렸다. 실리는 조금 멈칫했다. 커튼이 안쪽이 비출만큼 얇았다.그가 얼굴을 한 번 쓸었다. ‘머크의 침실 취향 따위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는데.’ 낮게 읊조리고 그는 힐의 목 끝까지 이불을 덮었다. 얼굴 말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도록.‘안이 비추는 침대가 있는 곳에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 부적절하긴 했지만, 어차피 나오미가 정신이 들 때까지 꼼짝없이 그녀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 실리로서는 안이 좀 보이는 편이 낫긴 해서 다른 침실로 옮기지 않기로 맘을 다잡았다.그는 의자를 하나 가져다 문가에 두고 그 위에 비스듬히 다리를 꼬고 앉았다. 실리는 아직 멍한 머크를 힐끗 보며 혀를 찼다. 아무래도 오늘은 실리에게도 피곤한 날이 될 모양이다.“페일님께서는 어디 계시지?”의자에 늘어져 있는 실리 위로 머크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실리는 힐에게 고정된 고개만 살짝 돌려서 어둡기 짝이 없는 머크의 낯을 천천히 살폈다.“내게 새 아가씨를 던지고 쉬러 가셨지.”아가씨라니. 머크가 한숨을 내쉬는 걸 보며 실리는 상체를 조금 바로 세우고 무릎에 팔꿈치를 올려 턱을 괴었다. 귀족들이란 어쩌면 이리도 신분 이동에 민감한지. 종이 귀족 가문에 들어가는 게 뭐 어때서. 실리가 삐뚜름하게 웃었다.말이 끝나기 무섭게 페일에게 가려는 머크를 실리가 붙잡았다. 그의 마른 손이 탄탄하게 그을린 머크의 팔을 휙 잡아챘다.“오늘은 쉬셔야 해. 내일 조찬 때 보자고 하셨으니 그때까진 기다려.”“나를 부르신 건가?”“너, 나, 멋진 기사님 하나, 아가씨 한 분. 귀빈 넷이지.”실리는 손짓으로 머크와 자신, 문밖과 힐이 있는 침대를 척척 가리켰다. 일없으면 너도 의자 가져와서 내 옆에 좀 앉고. 실리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며 머크에게 손짓했다.“그대는 행동도 말투도 전부 고쳐야... 후, 됐네. 여기로 앉지.”머크는 방만하기 짝이 없는 실리의 몸짓에 당장이라도 한소리를 하려다가 피곤이 켜켜이 쌓여 어둑한 실리의 눈가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실리는 꼭 푹 삶은 나뭇잎처럼 지쳐 보였다.머크는 마뜩잖은 감정을 그대로 살려 쿵쿵 걸어 서재 한구석에 있던 푹신한 1인용 소파 하나를 찾아 들고 왔다. 머크는 실리의 어깨를 툭 치고 소파로 손짓하며 자리를 권했다.“아, 고마워.”실리는 꾸물꾸물 움직여 푹 쓰러지듯 소파에 한껏 기대앉았다.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몸이 편해지니 어쩐지 점점 피로가 몰려오는 듯해서 그는 뻑뻑한 눈을 문질렀다.“이런 의식, 두 번은 못 해 먹겠어.”힘을 쏟아붓고 받아들이는 건 페일과 힐의 몫이었지만 의식의 준비부터 의식 중에 퍼지는 마력 파동을 숨기고, 뒤처리하는 건 모두 실리의 몫이었다. 신성이 깃든 나뭇가지를 구하고 그들이 마실 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과정이 촉박했다.게다가 페일은 이미 모든 힘을 쏟아부어 이름을 내림으로 할 일이 끝났지만 실리는 저 아가씨가 깨어나서 멀쩡하게 걷고 말하는 걸 볼 때까지 할 일이 끝나지 않는다. 아직 할 일이 태산같이 쌓였다는 게, 이미 쌓인 피로보다 더 실리를 괴롭혔다.“차라도 한 잔?”머크는 그의 잔뜩 충혈된 눈을 보고 혀를 찼다. 그는 실리에게 질문해놓고서 대답도 듣지 않고 차를 가지러 자리를 옮겼다. 대답을 굳이 듣지 않아도 실리가 당장 곯아떨어지지 않으려면 뭐라도 마실 게 필요할 테니까.머크는 찻잎을 찻주전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티코지를 두르고 주전자와 찻잔 두 개를 은 쟁반에 담아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다. 실리는 소파 등받이에 한껏 기대어 꼭 소파와 한 몸인 양 달라붙어 있었지만, 시선만은 침대에 고정하고 있었다.그의 녹안이 연둣빛으로 빛났다. 그가 제 마력을 풀어 까무룩 쓰러진 저 아가씨를 보듬고 있었다. 그녀가 무리하게 받아들인 마력으로 인해 몸이 상하지 않도록.“한 잔 들지.”머크는 쟁반에서 찻주전자와 찻잔을 꺼내 테이블 위로 옮기고 실리가 보는 앞에서 은쟁반 위로 찻물을 조금 따랐다. 뜨거운 찻물이 차가운 쟁반에 쏟아지며 수증기가 피었다.조금도 변색하지 않은 은 쟁반을 물끄러미 보다가 실리가 빙긋 웃었다.“하나하나 확인시켜줄 필요 없어. 독이 들었대도 마실 생각이니까.”지금 엄청 졸리거든. 실리는 중얼거리면서 뜨거운 찻물을 한숨에 들이켰다. 식도가 다 익어버릴 것 같은 느낌에 잠이 좀 가시는 것도 같았다. 그가 뜨거운 찻물을 단숨에 삼키고 웃는 얼굴을 보면서 머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자넨 미쳤어.”“도어노커나 떼고 말해. 실내에서 대체 그걸 왜 달아두는 거야?”페일은 나른함을 느끼며 눈을 떴다. 이름을 내리며 바닥까지 닥닥 긁어 쓴 마력은 아직 절반도 차오르지 않았다. 그는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뻗어 눈앞으로 쏟아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어제 이름을 내리는 의식에서 마력을 아낌없이 싹 다 퍼부었더니 전신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얼마 만에 한계까지 마력을 뽑아 쓴 거지?’페일은 왕국 군의 수장이 되고, 가문의 가주가 된 순간부터 함부로 아프거나 죽어선 안 되는 자가 되었다.조직이라는 건 묘한 구석이 있는 유기체라서. 무수히 많은 수족이 다치고 죽어도 머리만 무사하면 된다.머리를 뺀 나머지가 다 죽어 나가도 시간을 들여 기회를 만들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다. 페일만 어느 한 곳 상하지 않고 무사하다면.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가장 소중한 것도 자신. 페일이 나라를 위할수록, 가문을 사랑할수록 가장 중히 생각할 것은 자신의 안위. 그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아야 하니 힘을 바닥까지 쓰지 않는다. 언제고 마지막 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하니까.현기증이 돌았다. 머리를 짚고 핑 도는 시야를 다잡으려 눈을 꾹 눌러 감으며 그는 이름을 내린 종, 나오미를 잠깐 생각했다. 제 손 아래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벗어나지 않던 그 작은 아이.그는 곧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렁줄을 당기고 하녀가 세숫물을 들고 오길 기다리는 동안 그는 서 있는 자리에서 팔다리를 쭉쭉 늘리고, 관절을 하나하나 돌리며 가볍게 몸을 풀었다.그가 스트레칭을 마치고 가볍게 얼굴을 씻는 동안 침실 바깥은 조금씩 소란스러워졌다. 그는 머리를 감겠느냐 묻는 하녀를 물렸다. 그리고는 셔츠를 걸치고 단추를 목 끝까지 채웠다.“조찬은 응접실로 들여라.”그는 얌전히 그의 곁에서 옷 시중을 드는 집사에게 짧게 말하고는 응접실로 향했다.\*\*이른 오전부터 페일의 방에는 방문객이 많았다. 그의 응접실에 론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서성이고 있었고, 곧이어 실리와 머크가 들어왔다. 그들은 고갯짓으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서 페일이 나오길 기다렸다.“자네들 오늘 표정이 영 아니군.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론은 눈 밑이 거뭇한 머크와 실리에게 의아한 듯 물었다. 실리가 보낸 전령에게 전날 의식은 무사히 끝났음을 오늘 조찬에 대한 소식과 함께 전달받았던 터라 더욱더 의아했다.“큰 건 아니고, 어제 의식 뒤처리가 좀 손이 많이 가서.”실리가 머리를 뒤로 쓸어올렸다. 주근깨가 드문드문 박힌 콧잔등이 조금 찡그려졌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론경’이나 ‘기사님’이라고 부르며 론을 비꼴 힘도 없었다. 지금 실리는 어서 방에 돌아가 침대에 코를 박고 그대로 곯아떨어지고 싶었다.“간밤은 평안하셨습니까?”그들이 자리에 앉아 소소한 사담을 나누고 있을 때, 가슴팍에 금색 자수로 포인트를 준 셔츠와 트라우저스-발목까지 오는 바지-를 입은 페일이 응접실로 걸어들어왔다. 부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나쁘지도, 좋지도 않아. 몸에 기운이 없군.”페일은 조금도 숨김없이 제 몸 상태에 대해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가주인 그의 몸 상태는 극비에 따르는 것이지만, 그는 제 부관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곤 했다. 그건 페일이 부관들에게 보내는 신뢰 표시이기도 하고, 안 좋을 때를 대비하라는 경고이기도 했다.그가 테이블에 앉은 이들을 쭉 둘러봤다. 어제 실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부관들은 모두 자리에 있었지만, 어제 직접 이름을 내린 종, 나오미가 자리에 없었다.“나오미는?”“아직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그런가. 언제쯤 일어나지?”실리는 이곳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본 힐의 상태를 떠올렸다. 숨도 고르게 쉬고 체내에 도는 마력도 안정적이었다. 아주 작지만, 몸을 뒤척이던 것까지 함께 떠올랐다.“빠르면 이틀, 늦어도 나흘 이내로 깨어날 겁니다. 회복 속도가 아주 좋으신 편이라.”똑똑.집사가 반쯤 열려있는 문을 두드렸다. 페일이 고개를 끄덕이자 집사는 빠르게 페일과 부관들의 앞에 찻잔을 내려놓고 식전 차를 따랐다. 붉은 찻물이 찻잔 가득 담겼다.식전 차로 새콤한 히비스커스 티를 마시며 페일은 제 부관들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초조한 기색을 보이는 머크와 눈이 마주치자 페일은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았다.“하나같이 할 말이 많아 보이는군. 급한 불부터 해결할까?”페일의 말에 부관들은 당장이라도 안건을 이야기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페일은 한 손을 들어 모든 말을 막아버렸다.“론부터 하지. 루헬른 영지 마물 토벌 건으로 이야기 나온 게 있던가?”론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가 들어 올리며 가장 먼저 발언권을 받은 것에 짧게 감사를 표하고 입을 열었다.“어제 토벌 작전 회의에서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만, 사이프러스 공자가 은밀하게 제게 독대를 청했었습니다.공자에게 익명으로 루헬른 영지 남쪽 엘 강 상류에 있는 필라투스 성당으로부터 원조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내용은 사제 서른 명이 고립되었으니 마물 토벌 전 구조해달란 겁니다.”“필라투스? 처음 듣는 이름인데.”페일은 시중 인들이 트롤리를 밀고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부관들에게 손짓했다. 약속한 듯 그들은 입을 합 다물고 시중 인들이 음식을 테이블 위로 내려두는 것을 가만 보고 있었다.페일의 응접실에서 종종 열리는 조찬은 대부분 회의와 함께 하므로, 시중 인들은 디저트를 제외한 모든 요리를 테이블 위에 요령껏 올려두었다.그들의 주인, 페일은 들을 권한을 주지 않은 자가 회의할 때 자주 드나드는 걸 싫어하지만 식사가 순서대로 나오지 않거나 미리 내놓아 식어 빠진 음식을 먹는 건 개의치 않아 했으므로.푸른 채소에 가볍게 오일과 후추를 뿌린 샐러드와 각종 베리류 과일과 삶은 계란, 올리브를 작게 썰어 둔 콥샐러드가 가장 먼저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갓 만든 말랑한 흰 빵 위에 붉은 라즈베리 잼을 바르고 수란을 올린 토스트가 페일과 부관들 앞으로 하나씩 돌아가고 베이컨이나 소시지가 가득 담긴 그릇은 론 가까이에, 훈제 연어와 구운 대구살은 머크와 가까운 곳에 놓였다.실리는 시중 인들이 모두 나가길 기다리다가 시중 인들이 모두 나가자 필라투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고대 용을 신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신을 믿는 곳은 아니라서 성당보다는 역사학자의 연구실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땅속에 묻힌 고대 유물을 파내는 게 그들이 신앙을 따르는 방식이죠.”“그 신전이 산속에 있나?”“신전이 아니라 성당입니다만, 뭐 상관은 없겠죠. 네. 고대 용을 섬기는 곳은 전부 산속에 있습니다.”페일의 눈에 조금 짜증이 서렸다. 그들이 섬기는 게 신이건 고대 용이건, 기도하건 땅을 파건 페일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지만, 구조하러 가야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산속으로 그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마물 토벌 시기를 놓치거나 짐짝을 한 아름 안고 나오는 것은 사양이니까.“구조는 마물 토벌 이후로 한다. 그들이 독촉하거든 독촉한 만큼 늦게 간다고 전해.”“예. 마물 토벌 이후 루체른에서 길잡이를 받아 구조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출정 대 배급 준비는 모두 끝났고 출정할 인원 확정이 금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좋아. 토벌은 직접 다녀오되, 구조 작업은 사이프러스 공자에게 맡기도록. 토벌대장 자리도 공자에게 주도록 해.”고생은 일 받아온 놈이 해야지. 페일이 낮게 읊조리며 웃자 실리가 ‘암요. 암요.’라고 익살스럽게 말하곤 페일을 따라 웃었다.페일이 라즈베리 잼이 발린 빵 위로 버터를 두껍게 발랐다. 그가 론에게 몇 가지 사항을 더 지시하는 동안 차가운 버터가 따듯한 잼에 살짝 녹아들었다.그가 토스트를 베어 물 땐, 두껍게 발라 둔 버터가 잼과 닿는 부분만 살짝 녹아 미지근하고 고소한 짠맛과 라즈베리 잼의 달달함이 말랑한 흰 빵과 함께 입안에서 녹아내렸다.페일은 빵을 부스러기 하나 떨어트리거나 묻히지 않고 아주 우아하게 먹어 치웠다.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속이 계속 허해서 페일은 달달한 라즈베리 잼과 버터를 빵에 발라서 몇 개나 더 먹었다.“그럼, 실리.”론의 보고가 끝나자 페일은 바로 실리를 불렀다. 머크가 초조하게 자신을 보고 있는 걸 알았지만, 저렇게 초조히 굴 때는 꼭 이야기는 길어진다. 페일은 작은 것부터 처리하는 것을 선호했다.“저는 마지막으로 해도 괜찮을까요?”실리가 의뭉스러레 웃었다. 꿍꿍이속이 꽉 들어찬 것 같은 표정은 타인을 불안하게 만들기 충분했지만 페일은 실리가 어떤 표정을 짓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그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머크.”한참이나 초조히 자신을 힐끔대던 머크를 불렀다. 머크는 페일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실리에게도 조그맣게 ‘고맙네.’하고 감사를 전했다.“먼저…, 별저 대청소는 잘 끝났습니다.”실리가 히죽 웃었다. 별저 대청소는 안팎의 눈을 피해 어떤 일을 벌일 때 머크가 시중인을 한쪽으로 치워두기 위해 자주 써먹는 변명거리라.별저 대청소가 잘 끝났다는 건, 의식이 끝나고 그에 대한 소식이 한 자락도 빠져나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말이었다.그럼,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실리는 훈제 연어를 포크에 돌돌 말아 사워크림에 푹 찍어 한입에 넣었다. 속이 다 후련했다.“그리고 나오미...님은 제 침실 중 한 곳에서 쉬고 계십니다만, 이후로 처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이름과 님 사이의 공백이 꽤 길었다. 페일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아내고 머크와 시선을 맞추었다.“마물의 입속에 넣을 아이다. 잘 먹여서 보낼 수 있을 만큼 키워둬라.”“성은 내리지 않습니까?”심드렁하게 말하는 페일에게 실리가 질문했다.“이름을 내리면 가문으로 데려올 수 있지만 이름을 내린다고 가문에 데려와야만 하는 건 아니지. 성은 주지 않는다.마침 별저도 청소했으니, 별저에서 기르지.”실리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페일이 성까지 안겨주지 않을 거로 생각하긴 했으니까. 실리는 눈에 띄게 안도하는 머크와 론의 표정을 보고 한숨을 푹 내쉬고 입을 열었다. 한숨을 쉬었지만, 그는 오늘 중 가장 눈이 빛났다.그 아가씨의 하늘색 마력. 그 예쁜 색에 정이 가서일까, 아니면 이곳의 모두가 그 아가씨를 가문에 넣지 않겠다 말해서 제 안의 반발심이 튀어나온 걸까. 이유가 뭐든, 실리는 그 아가씨를 이 저택 안에서 보고 싶었다. 가끔 식사를 같이해도 좋고.“페일님, 가문이 없으면 그 아가씨는 연회에 못 갈 텐데요. 단내가 나질 않으니 무희로는 쓸 수 없잖습니까?”“무희만 그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머크가 대번 눈을 둥그렇게 뜨고 실리의 가로막았다.“그럼 남장이라도 시켜서 광대로 넣을까?”저글링도 가르치고? 십 분 안에 죽기 딱 좋겠네. 실리가 웃으며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머크는 그의 녹안을 들여다보며, 그가 얼마나 심기가 불편한지 깨달았다. 그가 론을 볼 때 흔히 하던 대로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미간을 모으는 것을 보며 머크는 제가 실리의 기준에서 멍청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도 물러설 수 없었다.머크는 다른 부관들과 다르게 페일의 가신이다. 그의 주인인 페일 렘넌트 드 엘로이는 엘로이 후작가의 마지막 직계고.마지막 직계인 만큼 페일이 죽고 나면 작위는 방계로 넘어갈 것이다. 직계 혈통을 잇기 위해 자식을 보려 해도 제 짝이 있어야 자식도 있는 건데 그 짝부터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후작가는 그 시초부터 아주 강한 피를 타고났고, 그 피를 이은 자라면 허투루 바깥으로 새어 나가도록 하는 대신 피를 흐리지 않도록 5촌 이상의 혈족과 맺어주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다.너무 철저히 관리해온 터인지 지금에 이르러서는 방계혈족이 너무 많았다. 그에 비해 직계는 오직 페일 하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페일 하나만 사라지면 후작 작위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그 많은 혈족 중 누가 가져가게 될진 모르겠지만.‘그들에겐 기회가 온다는 게 중요하겠지.’머크는 한숨을 쉬었다. 페일이 어서 결혼해 후계문제를 철저히 한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다. 페일은 토벌이며 안개 정찰이며 툭 하면 사지를 오가는데, 결혼하고 후계를 보더라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어쩌면 아이는 다시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부인도 뭐, 다시 얻을 수도 있겠지. 첩을 들여도 될 테고. 하지만 만약 페일이 사지에서 죽는다면? 방계혈족은 얌전히 있을까?그들은 아마 후작 부인도, 후계자도 페일의 시체와 함께 순장하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 들 것이다.그렇다 보니 페일과 격이 맞는 고위 귀족들은 그에게 청혼서를 달라고 하지 않았고, 페일 자신도 굳이 청혼서를 여기저기 찔러보며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서 페일에게 결혼이나 후계는 점점 먼 단어가 되고 있었다. 그가 예비 약혼녀를 구하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가.그의 예비 약혼녀 달리아는 아주 강한 여자인 데다 페일과 원하는 바도 같아서 모든 우여곡절을 강행돌파 했지만, 그토록 강한 달리아에게도 페일은 청혼서를 보내지 않았다.그는 후작가의 내부 단속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전에는 그녀에게도 청혼서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가 죽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는 자신의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 예정된 비극에 아무나 붙잡아 끌어들이지 않으려 들 테니.머크가 보기에 나오미를 가문에 들인다는 건 방계혈족을 들쑤셔서 가뜩이나 혼란한 후계 문제에 불씨를 붙인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나오미의 출신이 낮은 피라는 것도 문제지만, 마물에게 바칠 예정인 그녀가 직계로 들어간다면 일의 정황을 모르는 방계에서는 그녀의 신랑감을 방계에서 구하고 작위를 가져오기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다. 방계로 들어간다면 그녀를 제 아래에 두고 페일과 결혼해야 한다고 박박 우길 테고.그러다가 그녀가 마물에게 넘어가면 가주가 가문의 사람을 막 대했다며 가주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페일을 건드릴 것이 불 보듯 뻔했다. 지금은 흠잡을 곳 없는 가주라도 가문의 사람을 마물에게 바쳤다면 페일의 이름에 흠이 날테니 점점 위치가 불안해질 것이다.“시중인으로 들이면 될 텐데? 페일님 가문에 직접 들이면 여파가 너무 커져.”머크가 한껏 날을 세웠지만 실리는 테이블 위로 팔을 올려 턱을 괴고 지루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방만한 자세에 머크와 론은 표정을 굳혔다. 그들끼리 있는 자리도 아니고 페일 앞에서까지 방만하게 굴다니. 머크는 역시 어제 한소리를 단단히 해야 했다고 생각했다.“시중인으로 가면 고통도 없이 죽겠네요. 삼 분 안에. 그것들이 광대는 가지고 논다고 숨이라도 오래 붙여두지만 시중인은 바로 죽이잖습니까.”실리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제 목을 긋는 시늉을 했다. 머크는 그 경박한 손짓을 보자 딱 그렇게 실리의 목을 긋고 싶었다.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가운데 페일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스스로 물잔을 채우고 레몬을 띄운 물을 마셨다. 페일이 듣기에 머크는 너무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실리는 거슬릴지언정 틀린 말을 하진 않았다.연회에서 살아나오는 아랫사람들은 운이 좋아 눈에 띄지 않은 자들뿐이다. 마물들은 살육을 즐기니까. 연회장 바닥은 연회를 한 번 치르고 나면 온통 피와 살점으로 뒤덮이곤 했다.머크는 연회장에 들어갈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연회장에서 힐이 자력으로 라휄의 눈에 띌 방법은 없다고 봐야 했다. 라휄이 어느 시점에 들어올지도 알 수 없었고 그가 힐을 발견할 거란 보장도 없었다.연회장에서 마물들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도 죽지 않으려면 높은 자, 즉 귀족으로 연회에 참여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었다. 마물들은 귀족을 죽이지 않으니.페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회장 풍경에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동안에도 머크가 한참을 온갖 사례를 들어 나오미를 가문에 들여선 안 된다 주장했고, 실리는 온갖 비꼬는 말과 행동으로 머크의 성질을 돋웠다.두 사람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지만, 내용만큼은 그럴듯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에 론은 그사이에 끼어들지 않고 얌전히 소시지를 먹었다. 잘 구운 소시지는 한 입 베어 물면 바싹하게 구운 표면이 뽀득 깨지면서 탱글탱글한 속과 육즙이 입안에 팡팡 퍼졌다.론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소시지를 씹다가 짭짭할 육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구살을 입에 넣었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대구살은 간이 심심해서 짭짭한 소시지와 함께 먹으면 간이 잘 맞았다.그들이 한참 동안 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을 때, 페일이 탁 소리가 나도록 물 잔을 내렸다.“그만. 갈수록 말투가 귀여워지는군.”“칭찬으로 듣죠. 감사합니다, 페일님.”페일이 딱히 누군가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눈만은 실리에게 고정되어 있어서 실리는 대번에 벙싯 웃으며 대꾸했다. 지적을 못 알아들은 양 대꾸했지만 내내 테이블에 올려두던 팔꿈치는 얌전히 내렸다.“그대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은 것 같군.”페일이 쭉 뻗은 손가락으로 무릎에 올려둔 냅킨을 들어 입가를 닦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은 입가를 닦고 있는데도 어설퍼 보이긴커녕 귀한 티만 줄줄 흘렀다.“나오미는 방계로 들인다. 굳이 직계로 들여봐야 골치 아플 테니.”“하지만 페일님…! 방계로 들이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도…!”“그만. 연회장에 들일 방법을 더 고민하는 것보다 방계를 눌러두는 편이 간단해. 이참에 한번은 꺾어두도록 하지.방계 혈족들은 나오미가 이 저택에 있는 동안 수도 출입은 금지라고 전해둬. 그 아이가 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페일은 반발하는 머크의 말을 막고 힐의 처우를 정했다. 그리고 묵묵히 식사 중인 론을 잠시 보다가,“그리고 방계에 올리는 건 육개월 뒤로 하지. 뭐…, 내 약혼이 끝난 후로. 일단 나오미는 이 저택에 방을 하나 내주도록. 실리. 방은 네가 골라라.”왕성에서 나눈 대화를 떠올리고 육개월 뒤로 일을 미뤄버렸다.“성은 무엇으로 내리시나요?”실리는 론까지 꼼꼼히 챙겨주는 페일의 작태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물었다. ‘역시 기사님과 제 대우는 천지차이네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상황 상, 꾹 눌러 참았다.“아이가 없는 방계 가문이 웨지우드던가?”“웨지우드와 첼시, 리즈웨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리즈웨이는 마지막 리즈웨이의 나이가 육십이 넘어서 곧 성이 돌아올 겁니다.”후작가는 유서가 깊었고, 유서가 깊은 만큼 많은 족보가 복잡했다. 일반적으로 귀족가의 마지막 후손이 죽으면 그 성과 영지가 왕가로 돌아가지만, 고위 귀족의 방계는 직계로 성과 영지가 돌아왔다.머크는 불편한 속내를 누르며 성실히 페일의 물음에 대답했다.“리즈웨이. 나오미 리즈웨이라…어감이 나쁘지 않군. 나오미를 리즈웨이로 들여.”부관들은 페일의 결정에 고개를 숙였다. 리즈웨이라면 곧 후작가로 환수될 곳인 데다, 방계가 수도에 들어오는 것, 나오미를 만나는 것을 모두 막는다면 방계에서 그녀를 이용해 뭔가 꾸밀 수는 없을 터였다. 머크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았으나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훌륭하신 결정, 감탄했습니다.”실리가 활짝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직계니, 방계니 따지며 작위 싸움을 하는 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딴 잡소리들 따위는 페일이 멀쩡히 살아 자식을 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페일이 멀쩡히 살아서 자식을 잔뜩 낳고 그 자식들도 무럭무럭 자라면 그만인 일이라고. 그리고 페일이 죽는다면 자신은 이 후작가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으니 다 알게 뭐란 말인가.실리는 제 주인으로 페일을 택했지, 후작가를 택한 게 아니었다. 지금이야 후작가가 페일의 것이라 후작가도 살뜰히 살피고 있지만 페일이 죽는다면 그는 후작가가 어떻게 되건 어느 지방에 틀어박혀 약학 연구나 하나 죽을 생각이었다.“그리고 실리.”“네 말씀하시죠.”“예의범절이 많이 모자라군. 왕국표준예절법 기본 개론서를 필사해오도록.”검사는 머크에게 받도록. 페일이 고개를 삐딱하게 눕히며 턱짓으로 머크를 가리켰다. 1,700페이지에 달하는 그 두꺼운 책을 떠올린 실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네..에? 페일님 저는 아가씨를 돌봐드려야 하는데….”실리가 힐끔 페일의 눈치를 보았으나 페일은 조금도 무를 생각이 없었다. 칭찬은 확실히, 벌은 더 확고히 해야 하는 법. 페일이 입꼬리를 끌어당겨 웃자 귀한 사파이어처럼 깊고 파란 눈이 약간 접혔다.“다섯 번.”“...네에, 개론서부터 구해야겠네요.”횟수가 늘어나자 실리는 반쯤 우는 표정으로 그렇겠노라 대답했다. 더 대꾸하면 더 늘어날 테니 지금이라도 잠자코 하겠다 하는 게 나을 테니까.“걱정 말게. 내 방에 하나 있어.”머크는 상냥히 실리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그리고는 실렁줄을 당겨 식사를 물리고 디저트를 내오게 했다. 후작가의 체리파이는 오늘따라 아주 달콤했다.힐은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땐 어김없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마주하고 있었다. 자신과 똑같은 말간 얼굴을 보자 물속에서 뭍으로 끌어 올려진 것처럼 정신이 확 들었다.“이제 정신이 들었어?”너, 내내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해서 놀랐단 말이야. 아이가 상냥하게 웃으며 힐의 얼굴에 손을 뻗어왔다. 평소처럼 금방 힐의 뺨을 쓰다듬어 줄 듯 뻗은 손은 뺨에 닿기 직전 멈췄다. 금속이 부딪치는 소리와 팽팽히 당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힐의 시선이 아이의 손끝을 타고 아이의 손목, 손목에 단단히 감긴 쇠사슬을 고쳐서 아이의 눈에 닿았다. 먹구름 같은 두 눈이 마주쳤다.“왜 묶여있어?”“이름을 받았으니까.”“이름을 받는 게 뭐야?”“사슬이 걸리는 거야. 이렇게.”아이가 두 손과 발을 하나씩 들어 보여주고 머리카락을 들어서 가려져 있던 목도 보여주었다. 사슬에 칭칭 감긴 하얀 목은 금방이라도 졸려 죽을 것처럼 답답해 보였다.힐이 아이의 앞으로 성큼 다가가 목에 감긴 사슬에 손을 올렸다. 약한 스파크가 튀고, 손바닥이 덴 것처럼 붉게 부풀었지만 더한 고통을 오랫동안 받아서인지 힐은 아프단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네가 이름을 받은 거야?”힐은 어쩐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름을 받은 건 자신인데 왜 이 아이에게 사슬이 걸린 거지? 약을 먹었을 때도, 그 단것을 마셨을 때도 자신보다는 이 아이가 괴로움에 떨어야 했다.그 전에는? 훨씬 전에는 어땠지? 내가 아플 때 이 아이랑 나랑 같이 아팠던가?분명히 이 아이를 아주 오래전부터 만난 것 같은데 뚜렷하게 기억에 남은 것은 괴로워하며 울던 모습뿐이었다. 힐의 표정에 점점 혼란스러움이 드러나자 아이는 제 앞에 다가온 힐의 뺨을 양손으로 챱 소리가 나도록 잡아 제 눈앞으로 끌었다.아이에게 묶인 사슬이 일으킨 파문이 금세 고요히 가라앉았다.“쉬-. 내가 너야, 너는 나고. 네가 이름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거야. 그것만 알면 돼.”“그럼 나는 왜 사슬이 걸려있지 않아?”힐이 제 손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뚝뚝 흘렀다.“너랑 나는 둘이지만 받은 이름은 하나니까. 사슬도 하나야.”“그럼 왜 너만 자꾸 아프고 괴로워져? 내가 사슬을 걸면 너는 풀려?”그럼 내가 사슬을 걸게. 힐은 자꾸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울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서 차라리 저 사슬을 자신이 걸고 싶었다. 예전에 허드렛일하다가 잘못해서 밧줄로 칭칭 묶여 두들겨 맞은 적이 있었는데 매 맞는 것만큼이나 밧줄로 묶인 곳이 아팠었다. 힐은 아이가 아픈 게 자신이 아픈 것보다 싫었다.‘짚으로 만든 것도 아팠으니 쇠로 된 건 더 많이 아플 거야.’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이는 바르르 떨듯 작게 웃었다. 웃는 것도 목이 죄어 힘들었는지, 웃는 중간중간에 잔기침했다. 아이의 표정이 괴로움으로 찡그려질 때마다, 둥근 이마에 땀이 맺힐 때마다 힐의 표정은 점점 흐려졌다. 꼭 제가 더 아픈 듯이.“네가 걸면 나는 풀려. 그치만 네가 사슬을 걸게 하진 않을 거야.”아이가 힐을 꼭 끌어안았다. ‘사랑스러운 노랑이.’라고 힐의 귓가에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간지러워서 힐은 몸을 조금 꼼지락댔다. 아이의 품에서는 바람 냄새가 났다. 새벽에 첨탑 꼭대기 방 창문을 열고 있으면 나던 것과 꼭 같은, 돌벽에 스친 바람 냄새.내가 너고 네가 나라면, 나도 그런 냄새가 날까. 힐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묻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아이가 아파하는 게 속이 찡하게 아파서, 질문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으니까.“그와 엮이는 운명이 생겨서 일이 다 틀어진 줄 알았어. 그렇게 피했는데도 운명이 얽혀버려서 반쯤은 포기했었는데, 아직 괜찮을 것 같네. 응, 생각보다 괜찮아.그에게 직접 엮인 것도 아니니 조금 더 발버둥 쳐볼까 봐. 이렇게 사랑스러운 널 두고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서 마지막에는 속삭임보다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하기야 크게 이야기했어도 힐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겠지만. 아이가 힐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했는데도, 힐은 그냥 고개를 주억거렸다.“네가 그렇다면 그런 걸 거야.”근원을 알 수 없는 믿음이 힐의 안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서 아이를 온전히 믿었다. 그 이상한 믿음은 힐과 아이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울컥울컥 쏟아졌다.아이는 힐을 끌어안은 손에 힘을 주었다. 엮여야만 하는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고 엮여서는 안 될 이는 이미 힐을 봐버렸다. 힐이 성년을 맞이할 때까지 앞으로 사 년.‘이 운명은 끝이 나빠. 그래도 나랑 상성은 나쁘지 않으니까 버틸 수 있어.’아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치켜들려다가 몇 번 더 기침하며 눈물을 찔끔 흘렸다. 힐이 손을 뻗어 아이를 마주 안고 등을 토닥였다.“하하. 안아주는 건 참 좋아. 그렇지?”아이가 색색 숨을 내쉬며 웃었다. 아이는 힐의 품이 좋았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끌어안으면 마주 안아주는 작은 품은 따뜻하고, 포근해서 절로 긴장이 풀리고 복잡한 머릿속이 깔끔해지는 느낌을 주었다.“응. 안아주는 건 좋아. 그리고 안는 것도 좋아.”힐도 아이의 목덜미에 고개를 푹 박고 웅얼거리다가 푸스스 웃었다. 안으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콩닥콩닥 뛰는 맥박 소리가 들린다. 끌어안은 상대방에게서 나는 냄새도 안정감을 주었다.“원래는 어른이 되면 알려주려고 했는데.”아이가 힐의 어깨를 붙잡고 품에서 떨어트렸다. 힐은 약간 아쉬워하면서도 순순히 떨어졌다.“네 이름을 잊지 마. 너는 나오미가 아니잖아.”아이가 상냥하게 웃었다. 힐의 입이 조그맣게 움직였다.“나는… 힐.”“그래, 너만 알고 있어.”힐의 어깨가 뒤로 떠밀렸다. 힐의 의식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아이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점점 흐릿하게 멀어졌다. 왜 꼭 떠밀어서 나를 보내는 거야? 잠깐 불만이 생겼지만 작은 불만도 곧 의식과 함께 가라앉았다.페일과 부관들이 조찬을 들고 있던 그때, 힐이 눈을 떴다. 아직 고통의 잔재가 남은 몸은 욱신거렸고, 손 하나 까딱할 기력도 남지 않아 반쯤 뜨던 눈꺼풀도 금세 다시 감겨버렸다.“...힐…”힐, 내 이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끊어질 듯 가느다란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한숨처럼 내뱉은 이름은 마치 부른 적도 없다는 듯 금방 흩어졌지만 짧은 음절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자, 신성이 깃든 나뭇가지를 끌어안았을 때처럼 따스한 기운이 입술부터 서서히 힐의 작은 몸에 퍼졌다.따뜻하고 상냥한 기운이 힐의 몸을 찢을 듯 부피를 늘려가는 페일의 마력을 천천히 다독여서 넘치는 마력 일부를 몸 밖으로 흐트러뜨렸다. 힐은 조금씩 고통이 옅어지는 느낌에 한결 편한 표정으로 다시 까무룩 잠이 들었다.곧 새근새근 작게 울리는 그녀의 숨소리만 방 안에 남았다.조찬 자리가 마무리되자마자 머크는 잠깐 숨돌릴 틈도 없이 집무실로 왔다.집무실은 페일의 세 부관이 일할 때 주로 쓰는 곳인데, 중간에 회의용으로 가져다 둔 16인용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큰 책상이 열 개나 이곳저곳에 배치되어 있고 서류를 보관하는 자료실 세 개가 딸려 있다.론은 주로 부대 훈련이나 토벌을 직접 이끌기 때문에 출장이 잦아 이 집무실에 장기간 머물지 않았고, 실리도 연구실에 틀어박혀 무언가 만들거나, 페일이 지시하는 은밀한 일을 하러 바깥에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 이곳에 가장 오랜 시간 붙어 일하는 건 머크뿐이라 대부분의 물건은 머크가 쓰기 편한 대로 정돈되어 있다.머크는 집무실 한 가운데 놓인 큰 테이블 앞에 서서 할 일을 정리하기 위해 빈 종이 여러 장을 꺼내 나란히 펼쳐두고 정신없이 손을 놀렸다.원래부터 맡고 있던 일도 줄어들긴커녕 매일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데다, 그 아가씨를 납치하러 갔던 종들의 성, 그곳의 론스달라이트도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으니 할 게 너무 많았다.다행히도 나오미 아가씨를 방계에 올리는 일은 반년 정도 유예가 생겼지만, 방계로 들인다면 연회에 참석하기 전에 한 번은 사교계에 나가야만 했다.아무리 바쳐질 용도로 들인 아가씨라고 해도 다짜고짜 귀족들이 가득 모인 곳에 저도 귀족이랍시고 나설 순 없으니 이제껏 마물들에게 바쳐진 어린 귀족들이 그랬듯 서너 번은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또 후작가의 방계로 그 고귀한 이름에 흠집을 내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교육을 해야 하고 시중을 들 사람을 은밀히 뽑아야 했기에 머크는 머리를 싸매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정리했다.머크는 종이 한 장 당 하나씩 해야 할 일과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을 빼곡히 적어넣고 중요한 순으로 번호를 매겼다. 교육에 관한 건단 시간에 이루기 힘드니 중요 표시를 여러 번 해서 맨 윗 번호를 주었다.“후.”“...왜 자네가 한숨을 쉬지?”머크는 휘갈기듯 움직이던 펜을 멈추고 제 옆에서 한숨을 푹 쉬는 실리를 의아하다는 듯 쳐다봤다. 손이 쉴 새 없는 머크와 달리 실리는 함께 집무실로 들어온 후 계속 턱을 괴고 얌전히 앉아 있기만 했는데 대체 왜? 머크는 진심으로 의아했다.실리는 조찬의 끝 무렵에서 디저트를 먹다가 갑자기 ‘나오미 아가씨 상태가 이상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퇴석 허락조차 받지 않은 채 달려 나갔다가 ‘잘 주무시네요. 오늘 중에 깨어나시겠네요.’라며 머쓱히 들어왔다.그 후로 조찬이 끝날 때까지 별말 없이 앉아 있더니, 아가씨의 곁으로 가서 상태를 보는 것도 아니고 바삐 일하는 자신의 곁에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한숨이라니.“자네를 보니 한숨이 나와. 개론서는 언제 받으러 갈까?”“아. 지금 같이 가지. 어차피 아가씨께 가려면 내 방으로 가야 하잖나.”머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 일을 정리한 종이 뭉치와 일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챙겨 들고 부관들의 집무실 밖으로 나왔다.둘은 넓은 후작저를 성큼성큼 걸으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다. 후작저는 아주 넓고 계단이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도록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층은 중앙에, 어느 층은 동쪽에 있는 식으로 중구난방이어서 말없이 걷기에는 지루한 길이었다.열심히 필사하라는 농담 섞인 격려에서부터 토벌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 주제가 오가다가 문득 머크가 힐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할 일의 대부분이 그 아가씨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 머릿속 한쪽에 계속 그녀 생각이 남아서 주제도 자연스레 그쪽으로 흘렀다.“아가씨께서는 언제 깨어날 것 같은가?”“머지않아서. 왜?”“아가씨가 깨어나시면 시중들 아이도 필요할 테고…, 당장은 아니라도 방계로 입적하실 테니 걸맞은 교육도 받으셔야 하니까.”머크의 고민이 실리에게 옮겨붙기라도 한 듯 그의 미간에도 두 줄 주름이 생겼다. 저택 하녀를 시중으로 붙일 수도 있겠지만, 아가씨에겐 좋은 레이디스 메이드가 필요하다. 화장해주고, 머리를 만져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에게는 여성의 지식을 알려주고 수발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하긴. 그건 나중에 구해도 상관없겠지. 당장 밖에 다닐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아이니까.’적당히 손재주가 있는 하녀를 붙이면 될 터. 실리는 시중인에 대한 생각은 거기에서 정리했지만, 교육에 대해선 그도 머크만큼이나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소국은 예법 기본서만 1,700페이지에 달하도록 예의범절을 중시했고 같은 귀족이라도 직계인지 방계인지에 따라 다른 예법을 배운다. 성인이라면 자신의 작위나 왕궁에서 위치, 영지의 크기와 수입 등에 따라 직계와 방계를 신경 쓰지 않지만, 성인이 아니면 가문에 따라 예법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그렇다 보니 아이가 배우는 예법이 더 까다로웠고 보통은 자신의 신분에 따라 하나만 배워 익히곤 해서, 자신과 격이 다른 경우 어떤 식으로 예를 취하는 지 사람을 만나 접하며 대충 알게 되는 게 전부라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상세히 알지 못했다.그들은 모두 높은 피를 가진 귀족 중에서도 손에 꼽히게 귀한 피를 가진 데다가 지금이야 페일의 부관으로 일하며 같은 위치에 있으니 지켜야 할 예법도 같지만, 그들도 어린 시절은 분명 다른 것을 배웠다.머크는 직계이나 차남으로, 론은 직계이나 삼남으로, 실리는 왕족 방계로 자랐기 때문에 부관 중에서는 누구도 힐에게 맞는 예법을 가르칠 수 없었다.“교육이 문제네. 다른 건 우리가 가르칠 수 있지만, 예법은… 교사를 들이기도 애매하고.”“교사를 납치하는 건 어떤가? 자네가 손을 쓰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머크가 진지하게 묻자 실리는 개소리말라고 타박하고 싶은 마음을 신사답게 뒤로 물렸다. 아가씨를 종들의 성에서 납치해온 이후로 머크는 종종 사람을 납치해서 쓰자는 주장을 하곤 했다.실리는 범죄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머크를 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예법 교사는 모두 귀족이야. 게다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자들은 행실이 깔끔해야 하니 모든 스케줄과 경로를 공개한다고.납치했다간 반년은커녕 두 달 안에 엘로이 후작가에서 사람을 납치했다고 소문이 날거야.”머크는 답답함에 한숨을 쉬었다. 그도 그런 것을 몰라 납치하자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다. 그저 당장 교사를 구할 길이 없어 답답함에 아무 이야기나 한 것뿐이었다. 예법은 까다롭고 내용도 많아서 한시라도 빨리 교사를 구해야만 하니까.“머크, 실리.”“아, 론.”“론경.”그들이 저택 2층 테라스를 지나칠 때, 테라스에 앉아 있던 론이 일어나 다가왔다. 키가 190㎝가 넘고 다부진 체형의 론은 헐렁한 포엣 셔츠에 몸에 달라붙는 짙은 녹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도 경무장을 한 것처럼 위압감이 넘쳤다.“어딜 가는가?”“실리는 아가씨께, 나는 실리에게 예법 개론서를 빌려주러.”“같이 가지. 무슨 이야기 중이었기에 둘 다 표정이 그런가?”론이 다른 부관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누고 물었다. 머크는 손을 앞으로 펴서 함께 가자는 듯 앞쪽으로 내밀어 손짓하며 짧게 그들이 현재 나누고 있던 가정교사 이야기를 꺼냈다.“예법이라면 또래의 방계 아이가 있으면 될 것 아닌가?”연회에 나갈 준비를 마칠 때까지 적당히 방계 귀족인 시늉만 할 줄 알면 되는 데 굳이 교사까지 필요한가? 론은 이야기를 다 듣고서 별걱정을 다한다는 투로 담담히 말했다.모든 귀족이 예법 교사를 불러들이진 않았다. 잘 교육받은 또래의 아이를 불러서 함께 자라게 하며 놀이 친구 겸 가까운 곳에서 예법을 알려주고 보고 배우며 자연스레 몸에 익도록 하곤 했다.그편이 또래 아이를 통해 그 아이의 주변인을 소개받으며 사교계에서 자리를 넓히는 데 도움도 되고 실제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익히는 데 좋아서 다른 귀족 집안과 활발히 교류하는 곳은 흔히 쓰는 방법이었다. 물론 아이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또래 아이와 예절 교사를 모두 붙이는 곳이 더 많았고.“격이 맞는다면. 그래. 믿을만한 가문이고, 나이 차가 5살 아래면 교사를 구하지 않아도 돼.”“자넨 동생이 있지 않나? 음, 이전에 듣기에는 나이 차가 많은 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네 동생을 불러들이면 어떤가?”머크는 실리가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는 ‘‘멍청이를 보는 실리의 제스쳐’를 취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실리의 표정을 살폈다. 머크는 오늘 그 표정을 하도 많이 봐서 적어도 일주일은 보고 싶지 않았다.실리는 예상외로 아주 평온한 표정이어서, 그는 그 평온한 표정이 깨지지 않도록 재빨리 대답하며 론의 말을 막아보려 애를 썼다.“머크, 실리는 왕족이야. 왕족 방계는 고위 귀족 직계와 같은 걸 배운다고.”“아-.”론은 그제야 실리가 왕족이었음을 상기하곤 고개를 끄덕였다. 론의 시각에서 실리는 왕족다운 말투나 행동과 거리가 멀어서 행동거지만 보고 있으면 왕족임을 자꾸 잊어버렸다.머크가 계속 실리의 표정을 살펴보고 있는 걸 알았는지, 생각에 잠겨있던 실리는 머크를 향해 씩 웃었다. 녹색 빛 가득한 눈망울은 장난기가 다분했다.“우리 기사님은 총명하시기도 해라. 아주 좋은 생각이야.”잊어버려 미안하다고 한마디쯤은 해두려던 론은 실리가 자신을 칭찬하자 입꼬리를 당겨 웃으며 고개를 까딱였다. 그의 미소는 언제나 그랬듯 근사했다.실리는 어느새 도착한 머크의 방문 앞에서 서서, 방 주인을 옆에 두고 노커를 힘차게 두드렸다. 장난기 가득 한 표정에 머크는 ‘되었으니 들어가!’라고 말하며 문을 힘차게 열고 그들을 자신의 방 안에 들여보냈다. 그의 얼굴이 잘 익은 과일처럼 달아오르는 것을 보고 실리는 낄낄 웃었다.“자, 여기서부턴 조용히 해. 우리 아가씨가 주무시니까.”실리는 머크의 방을 제 방인 양 헤집으며 힐이 잠든 침실 문을 살그머니 열었다. 조용한 숨소리만 색색 퍼지는 방안은 고요했다.실리가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가 침대에 드리운 얇은 커튼을 열었다. 새근대는 숨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다.침대 머리맡에 드는 햇살이 잠든 아이의 머리칼에 잔뜩 흩뿌려져서, 차갑고 습한 지하 실험실에선 지푸라기 인형 같던 아이는 헝겊 인형처럼 포근한 빛이 났다.편안히 잠든 그 모습에 실리는 안도감과 이질감을 동시에 느꼈다. 조찬 때 이미 한 번 내려와서 확인했던 그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풍경 때문에.분명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페일의 마력이 몸 안에서 날뛰고 있어서 실리는 제가 가진 마나를 공기 중에 풀어 날뛰는 마나가 힐의 몸을 찢고 나오지 못하게 꾹꾹 누르고 있었다.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마력으로 꾹 눌러 막고 있던 마력이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퍼져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그 순간 자신의 마력도 크게 요동을 쳐서 그는 조찬 중에 힐에게 달려왔었다.그는 자신의 머리를 한 번 쓸어 넘기고 평온히 자는 힐과 자신을 진중히 바라보는 동료들에게 시선을 옮기며 입을 열었다.“곧 일어나시겠어. 날뛰던 마력도 잠잠하고, 잠도 깊게 든 것 같아 보이진 않네.”마력도 정상, 몸컨디션도 정상. 분명 기뻐해도 좋은 일이었지만 자꾸 속에 걸리는 것들 때문에 실리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 아가씨는 독특한 마력의 색부터 시작해서 자꾸 실리의 상식과 계산 밖의 일을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심지어 파장도 달라.’페일의 파장은 활활 타오르는 강렬한 느낌을 준다면, 이 아가씨의 파장은 꼭 깊은 숲속 계곡물 같은 느낌을 주었다.페일의 마력을 받았으니, 마력이라곤 한 톨도 보이지 않던 자라면 당연히 페일의 파장이 느껴져야 했다. 실제로 새벽까지는 아이의 몸에서 온통 페일의 마력과 똑같은 것이 느껴졌고. 실리는 어딘지 미심쩍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자신이 따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닌데 예상보다 일찍 날뛰는 마력을 잠재운 것도, 파장이 이렇게까지 다른 것도.‘아직은 더 지켜볼까, 아니면 조금 확인을 해볼까. 이것도 나중에 생각할까 아니면…’페일에게 물어볼까?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일단 페일을 만나는 게 좋겠다고 결론 지었다. 그는 판단을 페일에게 미루기로 했다.이 아가씨는 어차피 페일님의 것. 자신이 의구심을 가지는 건 중요치 않으니. 그저 질문하면 된다. 결정은 주인의 몫이고 자신은 질문만 잘해도 좋은 부관이니까. 실리는 그제야 속이 좀 개운한 느낌이 들었다.“그럼 좀 기다리지. 페일님께 보여드려야 하고, 우리도 인사드려야 하니까.”실리를 따라서 온 머크와 론도 조용히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바싹 마른 작은 몸과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마디가 작은 손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고, 연약해 보이기도 했다.“너무 작은데.”론이 손을 쭉 펴서 손가락만 힐의 손 위에 가져다 댔다. 얼마나 작은지 가늠해보려는 듯이. 손톱이 여기저기 깨져 있는 거칠고 작은 손은 론의 손바닥에 반도 차질 못했다.한참 동안 그들이 힐의 조그만 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할 때, 힐이 조금씩 몸을 꿈틀대다가 일어났다.힐은 얼굴로 쏟아지는 빛이 눈 부셨는지, 눈이 조금 뜨다가 다시 꾹 감길 몇 번이고 반복했다. 실리가 작게 웃으며 힐의 얼굴 위로 손을 뻗어 그늘을 만들어주었다.“일어나셨나요, 아가씨?”다정한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이자, 그녀가 몸을 파득 떨며 벌떡 일어났다. 실리는 제 손이나 다른 딱딱한 곳에 그녀가 부딪혀 아파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녀 앞에서 좌우로 흔들던 손을 얌전히 물리고, 힐의 뒤통수와 침대 헤드 사이로 손을 끼워 넣었다.“아...?”놀라서 무작정 뒤로 물러나던 힐의 머리가 격하게 움직이다가 실리의 손바닥에 훅 내리꽂혔다. 작은 머리통이 실리의 손에 닿는 느낌이 제법 폭신했다.“오. 머리숱이 많으시네요. 아, 놀라지 마세요, 좋은 겁니다. 아가씨.”나중에 좀 잃어도 풍성할 테니까요. 실리가 웃으며 농담을 건네고 나서야 힐은 실리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머크와 론까지 휙 고개를 돌려서 확인했다.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라 안도했고, 한 편으로는 불안했다. 또 그 단 것을 먹일까 봐.“일어나셨습니까, 나오미 아가씨.”머크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얼떨결에 힐은 인사를 하려고 납죽 엎드리려는데 실리가 재빠르게 손을 뻗어 그녀가 엎드리지 못하게 상체를 일으키고는, 다른 손으로 힐의 작은 머리통을 잡고 위아래로 까닥였다.“절하지 마세요. 아가씨는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시면 됩니다.”“무례해. 실리.”“아, 이런. 실례했습니다.”론이 그의 무례를 지적하자 실리는 재빨리 힐에게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섰다.“제대로 인사드리고, 목욕과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싶은데, 그보단 페일님을 먼저 뵙는 게 중요해서. 페일님께 먼저 가시죠. 그때 페일님께서 저희 소개도 해주실 겁니다.”힐은 제게 눈을 맞춰오는 실리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름을 받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쉴 새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냈다.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두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페일에게 이름을 받았다는 것, 또 하나는 이들은 자신을 때리지도 고통스럽게 하지도 않을 거라는 것.이름을 받은 건 상황상 파악했지만, 후자는 그냥 감으로 알아차린 것이라 큰 자신감은 없어도 나름대로 근거는 있었다. 막대발에게 조금 배웠던 높임말. 그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것이고, 힐에게 있어 주먹을 휘두르는 쪽이 윗사람, 맞는 쪽이 아랫사람이었으니까.‘’습니다’는 높임말이야.’서열이 바뀐 거다. 영감이 다 죽어갈 때 대장을 못 때리던 것처럼. 부관들과 힐의 서열이 실제로 바뀐 것은 아니었고 그들은 언제고 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죽일 수 있었지만 적어도 힐은 그렇게 생각했다.힘이 어느 쪽에 실리는지는 가장 밑바닥에 사는 것들이 제일 잘 아는 법이고 힐은 종 중에서도 밑바닥이라, 자신이 힘이 어디에 실리는지는 대부분 맞추는 편이라고 믿었다. 전부는 아니고 열에 일곱, 여덟 정도는 맞출 수 있노라고.“아가씨? 안아서 옮겨드려도 될까요?”실리가 멍하니 생각에 잠긴 듯한 힐의 눈앞에 손을 흔들었다. 그 방자한 태도에 머크가 실리의 등을 꾹 찔렀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힐이 안아준다는 말에 반응하듯 고개를 서서히 끄덕였다. 작은 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옅은 색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실리가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그녀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트를 씌운 다음 안아 들었다.이 아가씨는 여전히 후작저 정원에 풀어 키우는 사냥개보다 가벼워서 실리는 잠깐 ‘역시 밥은 먹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의식 때문에 꽤 오래 굶었는데? 가뜩이나 앙상한 몸이라 영양실조가 있는데 수프라도?’ 같은 생각을 하며 고민했다.페일에게 보이고 자신이 이상함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 알린 다음 그의 결정을 듣길 바라는 마음과 많이 먹여 조금은 묵직하게 만들어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팽팽히 줄다리기했다.실리가 밥부터 먹이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갈 무렵, 론이 그의 등을 툭 치고 문을 가리켰다. 밖으로 어서 나가자는 제스쳐에 그는 음, 하고 앓는 소리를 내더니 머크에게,“다녀오면 바로 드시게 아가씨 식사 좀 여기 마련해두자고.”라고 말하고 나서야 걸음을 뗐다. 어차피 제대로 된 식사가 준비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그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페일에게 다녀와서 미리 준비된 음식이 좀 식었을지언정 바로 식사하는 편이 좋으리라.‘식사하고 갔다가 체할 수도 있고.’실리가 자신의 코트로 둘둘 말린 힐과 고개를 저으며 설렁줄을 당기는 머크에게 번갈아 시선을 주었다. 지금 가려는 페일을 만나는 자리가 조그만 아이가 견뎌낼 만큼 부드러운 분위기는 아니리라 생각하며.페일은 허연 흉터가 잔뜩 남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겼다. 그의 갈색 머리카락이 눈가에서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의 시선은 한참 전부터 그가 이름을 내린 작은 여자아이에게 꽂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그의 부관인 머크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의 목록을 하나씩 읊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불편한 기색이 다분한 표정으로 꼬물거리는 아이가 더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그만. 나머지는 따로 듣고 인사부터 하지. 나오미.”그가 손을 들어 머크의 말을 막고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자마자 힐은 숙였던 고개를 휙 들어 페일과 눈을 맞췄다.힐은 실리가 자신을 안아 들고 이곳에 세운 후로 자신에게 하녀가 필요하다, 옷이 필요하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만 잔뜩 들으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라 곤혹스럽기만 했다.예전에 흰 코가 ‘높은 분들 앞에서는 얌전히 엎드리거나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라.’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어서 그녀는 얌전히 손을 모으고 입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보고 있던 차에 페일이 자신을 불러주자 조금은 안도했다.힐도 ‘필요하다’는 게 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뭔가를 필요하다고 말하려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한다는 것과 그 설명은 필요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도.힐이 긴장하고 있던 건, 머크가 줄줄 쏟아내는 말 중에서 그녀가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신발, 옷, 가르쳐줄 사람 정도인 데다 심지어 자신에게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는 조금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혹시라도 누가 자신에게 그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 지 몰라 잔뜩 긴장했었다.‘나는 옷도 신발도 있는데.’그녀가 뿌듯한 맘으로 조그만 발을 낡은 신발 안에서 꼼지락거렸다. 페일과 그의 부관들은 그녀를 위한 옷을 따로 사들이지 않았기에 그녀는 잡혀 온 날 입고 있던 옷 한 벌과 왕성에 머물 때 받았던 하녀들이 아주 오래전 입었다는 옷 두 벌을 가지고 있었다.하녀들이 입었다는 옷은 힐이 입기는 조금 컸지만 이미 성인의 옷을 여기저기 동여매며 입어왔던 힐에게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몸에 잘 맞는 옷은 처음이라 기쁨을 주었다.힐이 팔에 착 감기는 직물의 감촉을 즐기고 있을 때, 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긴 그늘이 힐의 머리 위로 드리웠다. 힐은 고개를 들어 페일과 얌전히 시선을 맞추었다.삐딱한 자세로 서 있어도 조금의 틈도 없이 단정한 사람. 이름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힐이 지금껏 봐온 어떤 사람보다도 깨끗한 페일의 외양은 묘한 공포감을 자극했었는데 자신을 나오미라고 불러주는 페일은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되려 달라붙어 떨어지고 싶지 않을 만큼 그가 좋았다. 끌어안고 싶은 것과는 다르게 꼭 붙어 있고 싶은 감각이 낯설기만 했다. 힐은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전이라면 당장 목이 베여도 할 말 없는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어쩐지 그래도 될 것 같아서.그의 눈을 바라보는 것도, 그의 옷자락을 잡는 것도 이미 허락받은 것처럼 당연하게만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도, 눈빛도 처음 힐을 잡아 와 다그치듯 이것저것 물을 때와 다르지 않았음에도.“페일님?”힐의 목소리는 미미하게 끝이 떨렸다. 페일은 손을 뻗어 그 손을 제 옷자락에서 떼어낼까 고민하다가, 작은 손이 자신을 잡고 있도록 두었다. 제게 속하도록 이름을 주어서일까. 그는 옷자락을 살그머니 잡아 온 작은 손을 떨치고 싶지 않았다.‘이름을 준다는 건 이런 건가.’그럴지도 몰랐다. 삐쩍 마른 아이의 시선에서, 작은 손에서 간지러운 소속감을 느꼈다. 그는 문득 연회장에서 이 아이를 처음 보았던 것을 떠올렸다. 왕성에서 더럽기 짝이 없는 행색으로 제 앞에 납죽 엎드리던 것도.그때는 저 회색 눈이, 창백한 피부가 탈색된 것 같아 텅 빈 지푸라기 인형 같아 보였는데, 지금은 지푸라기 같은 머리카락에 닿는 빛이 번지는 모양이나 회색 눈망울을 담은 눈가가 휘어지는 모양과 입을 달싹거릴 때 생기는 볼우물 같은 게 보여 이제야 저 아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게 실감 났다.“...그래, 나는 페일 렘넌트 드 엘로이. 네 주인이다.네 이름은 나오미 리즈웨이. 너는 내 뜻대로 나를 위한 일을 하여라.”“네. 시키시는 일을 할게요.”나오미 리즈웨이. 몇 번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고 힐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일은 시키는 사람이 적당한 때에 뭘 하라고 알려줄 테니까. 너무 묻지 않아도 혼이 나지만 너무 일찍 물어도 혼이 난다. 그리고 힐은, 너무 일찍 물어서 혼난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굳이 묻지 않기로 했다.“저들이 당분간 너를 돌볼 테니 필요한 게 있거든 그들에게 말하도록.”페일이 손짓으로 부관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왼쪽부터 론, 머크, 실리다. 자세한 소개는 따로 받아.”페일은 턱으로 자신의 부관을 한 명씩 가리키며 이름을 알려주었다. 이름을 직접 알려준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힐은 이미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이름보다 제 이름이 된 ‘나오미 리즈웨이’를 반복해서 되뇌었다. 나오미는 내 이름인 걸 알고 있는데 리즈웨이는 뭘까. 내 이름이 길어진 걸까?뭔지 모르지만 페일이 말할 때 ‘리즈웨이’라는 단어가 아주 우아하게 들려서 좋았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자기 것이 아닌가.손에 쥘 수 있는 것이었다면 첨탑 꼭대기 방 항아리 안에 숨겨놓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들었다.“그럼 이제 다 나가.”페일은 간단히 축객령을 내렸다. 그의 취향이 담뿍 밴 이 프라이빗 룸은 그가 온전히 쉬기 위해 마련한 곳이라 어지간하면 출입을 허락하는 곳이 아니다. 1급 기밀인 나오미가 껴있는 게 아니었다면 부관들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페일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몸을 쉬게 할 생각으로 이곳에 온 터라, 나오미를 만난 기꺼움과는 별개로 휴식을 방해받는 게 그리 달갑진 않았다.게다가 책상 네 개가 들어가면 꽉 찰 만큼 작은 공간이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북적이기 좋은 장소가 아니기도 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키도 크고 덩치도 좋다면 더더욱.“머크, 나오미님 데리고 먼저 가 있어. 방은… 아직 못 정했으니까 일단 네 침실로.”실리가 머크의 어깨를 툭 치고 힐을 향해 눈짓했다. 머크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에게 다가가 귓가에 뭐라고 속삭이더니 곧 그녀를 품에 안고, 이곳에 올 때 그랬던 것처럼 실리의 코트로 머리끝까지 덮어 가린 후 방을 나갔다.실리는 그들이 나가고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한참을 더 침묵을 지켰다.“뭐지?”먼저 침묵을 깬 건 페일이었다. 그는 한쪽에 마련된 흔들의자에 앉아 가볍게 몸을 흔들었다. 낡은 의자는 이제 페일이 앉기엔 너무 작아서 그가 몸을 앞뒤로 기울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우리 아가씨, 나오미님 몸 상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실리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표정은 자못 심각했다. 그는 의식이 끝난 이후 그녀의 마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파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했다.“‘마력이 하늘색이었고, 마력 파장이 나와 다르다. 이렇게 빨리 회복된 것도 이상하다.’라.”페일은 눈을 깊게 감았다가 뜨며 실리를 쳐다봤다. 그가 흔들의자 옆 서랍을 뒤져 시가를 꺼내 입에 물었다. 실리가 손가락을 튕겨 시가에 불을 붙여주었다.페일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연기를 머금었다.“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그는 피곤할 때면 습관적으로 시가를 찾아 입에 물곤 했다. 페일이 시가를 태우는 걸 보는 건 오랜만이었다. 괴물 같은 체력에, 컨디션 관리도 꼼꼼히 하는 그가 피곤해하는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의식의 여파가 남은 건 아가씨만은 아닌가. 실리가 예민하게 그를 살폈다.“하고 싶은 말을 해. 실리.”“저는 결정을 부탁드리러 왔습니다만? 지켜볼까요, 아니면 알아볼까요?”실리가 어깨를 으쓱이자, 페일이 입으로 연기를 뿜어내고 짙게 웃었다. 짙은 회색 연기 속으로 몽롱하게 조소하는 그의 얼굴은 지독히 무료한 것 같기도 했고, 긴 속눈썹이 만든 그늘로도 가려지지 않는 새파란 안광 때문에 배부른 맹수가 사냥감을 응시하는 것처럼 나른한 긴장감에 쌓인 것 같기도 했다.“난 거짓말을 싫어해. 하고 싶은 걸 허락받으러 온 거잖아.”그래서, 뭘 하고 싶어? 붉은 입술이 호선을 그렸다. 뭘 해도 허락해줄 것처럼. 실리는 애써 웃어 보였다. 맹수 앞에 두려움을 보여봐야 잡아 먹힌다. 그게 설령, 자신의 주인일지라도.“아가씨를 실험에 써도 됩니까? 또 할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름을 내리는 의식을 치를 때마다 마력 파장 예측이 안 되는 건 골치 아프니까요.아, 그리고... 교육에 들어가면 세뇌 약을 좀 쓰고 싶네요.”“실험 범위는?”“외부 마나 반응을 포함한 마력 감지죠. 가능하다면 뼈 하나 정도 주시면 더 좋고.”이빨도 좋아요. 사람 몸이 타인의 마력을 받고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건 정말 드문 경험이라, 생각만으로도 짜릿해서 실리는 페일의 눈치를 보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마력을 받기 전에 샘플을 미리 채취해뒀더라면 힐의 상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이미 늦었으니 할 수 없었다. 지금부터라도 샘플을 모아두는 수밖에.“상해는 용납하지 않는다. 유치가 남았는지 모르겠다만… 이가 빠지면 그건 가져도 좋아. 그 외에는 나오미가 동의한다면 실험을 허락하지.”페일은 실리의 탐구욕으로 번들대는 표정을 무심히 보다가 픽 웃었다. 사람을 모르모트로 보는 눈. 실리는 페일이나 부관들을 볼 때도 한 번씩 피를 뽑아도 되겠냐고 묻곤 했다. 전투 중에 크게 다쳐 뼈가 으스러졌을 때는 치료를 한다면서 뼛조각을 몰래 빼돌리다가 걸리기도 했고.자신의 부관 중에서 정신이 가장 멀쩡한 건 역시 론이다. 페일은 어제 실리가 왜 론만 챙기냐는 듯 하소연했던 것을 떠올렸다. 왜 론만 챙기냐니.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동료 둘이 미쳤으니 상사라도 챙겨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세뇌 약은 왜 쓰려 하지?”“의식 진행하기 직전에 제가 아가씨께 이것저것 물어봤잖아요? 반응을 보니 아는 것, 모르는 것을 제법 잘 구분하더라구요.교육을 받지 않은 것치곤 생각이 많아요. 단기간에 지식을 밀어 넣긴 좋아도, 사상을 밀어 넣기 어려운 타입입니다.생각이 많으면 길이 잘 안 들죠. 차라리 약을 먹이고 세뇌와 교육을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페일은 손끝으로 의자 손잡이를 톡톡 두드렸다. 나오미가 그냥 답답한 백치는 아닌 모양이었다.“약은 길어야 일주일 정도 가지 않나?”“오래 먹여서 길들이면 약을 끊어도 석 달은 세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실리는 페일이 뭘 고민하는지 단박에 알아차렸다. 라휄에게 아가씨를 보냈을 때, 스파이 노릇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거겠지.석 달은 짧다면 짧을 것이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라휄이 찾는 것에 대한 정보만 손에 쥘 거라면 석 달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하지만 조금 더 그의 곁에 두고 틈을 노려볼 수 있다면?‘나오미가 얼마나 그의 마음에 들진 모르겠지만…, 짧게 쓰고 버리기엔 아까운 패지.’페일은 최소한 힐을 대체할 다른 패를 찾기 전까진 그녀가 필요했다.“약은 쓰지 않는다. 천천히 길들여도 좋아. 완벽하게 길들이도록. 지금 나오미를 대체할 만한 패는 없어. 세뇌 약은 무희들에게 먹이는 거로 하지.파라가 데려간 그 무희처럼 놓치지 않게, 이름을 내려도 풀리지 않을 만한 걸 만들어봐.”“윽. 제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서 일감만 잔뜩 주시다니요. 역시 제 처우에 대해 면담을 좀 하고 싶은데요.”실리는 어깨를 크게 떨구며 좌절했다는 듯 울상을 지었다. 페일이 맹수처럼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는 입에 머금었던 연기를 훅 내뿜고 피우던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껐다.그을린 부분을 나이프로 커팅한 후 시가 케이스에 넣는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서 소매 틈으로 얼핏 드러나는 손과 손목에 남은 하얀 흉마저 우아해 보였다.“지껄여 봐.”프라이빗 룸에 그가 피운 시가 연기가 자욱했다. 연기 속에서 턱을 치켜든 오만한 자세로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있는 페일은 철부지 룸펜 같았고, 단정한 옷 위로도 느껴지는 잘 단련된 몸의 탄탄함은 보는 이를 절로 긴장하게 했다.그의 손이 철제 시가 케이스 위를 톡톡 두드렸다. 깡통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텅텅 났다. 손가락으로 치는데 대체 왜 저런 소리가 나는 건지, 실리는 이해할 수 없었고 사실 별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그가 관심 있는 건 되려 저 무지막지한 손가락 아래에서도 구겨지지 않는 시가 케이스니까. 외국과 완전히 단절돼버린 지금은 구할 길이 없는 귀한 것. 실리는 그 케이스를 보며 방긋 웃었다. 자신의 주인은 돈이 많아서 참 좋다고 생각하며.실리가 페일에게 제 처우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원하는 것을 잔뜩 이야기하고 있던 때, 머크는 생에 처음 겪는 혼란 속에 있었다.“그렇게 허리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론이 표정 하나 없는 낯으로 바닥에 납작 붙어 있는 힐의 몸을 휙 들어 올렸다.“힉.”론이 힐을 들어 올리며 곰손만큼이나 큰 손으로 그 작은 몸의 명치를 꾹 눌러버렸다. 눈이 빠질 듯 크게 뜨고 고통 속에서 숨을 들이켜기만 하는 어린아이를 보며 머크는 눈앞이 캄캄했다. 론은 정말이지, 어린아이를 다루는 방법 같은 건 하나도 몰랐다.머크가 어설프게 바닥에 붙은 힐을 떼어내려 땀을 뻘뻘 흘리는 론의 어깨를 툭툭 쳤다. 론에게 맡기느니 그냥 말로 설득을 해서 똑바로 서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법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은데.“론 그만. 아가씨, 바닥에 엎드리지 마세요. 자 제 눈을-, 아가씨?!”“웩.”그가 힐에게 말을 걸기 무섭게 바닥에서 약간 떨어져 제 가슴팍을 쥐고 있던 힐이 부르르 떨더니 속에 든 것을 게워냈다. 따로 먹은 것도 없어서 멀건 액체만 줄줄 쏟아졌다. 머크는 놀라서 힐의 등을 두드리려는 론의 손을 제 몸으로 막았다.‘이 힘으로 아가씨 등을 치려고 했다고?!’근육이 보기 좋게 부풀어 오른 단단한 머크의 몸이 움찔거릴 정도로 세게 등을 두드리는 게 믿기지 않았다. 상식이 없는 걸까. 아니면 우리 아가씨를 모시게 된 게 된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머크는 침음성을 내서 손을 휘저어 론을 뒤로 물렸다.“론, 자네는 하녀를 좀 불러주겠나? 아가씨는 내 방으로 일단 데려가지.”머크는 한참 게워내고 헥헥 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힐에게 손을 뻗었다. 힐은 조금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눈물이 찔끔 맺힌 눈을 깜박이다가 머크에게 안겨서 ‘으아으.’하는 이상한 소리를 냈다.머크가 그대로 방을 나서며, 힐에게 ‘저 친구가 원래 저렇지는 않다.’라느니 ‘착한 사람이다.’ 같은 소리를 잔뜩 늘어놨다. 힐은 몸을 더 웅크리며 일이 이 지경이 된 까닭을 떠올렸다.페일이 있는 곳에서 나섰을 때, 힐은 갑자기 내쳐진 기분에 조금은 서럽고, 많이 아쉽고, 기다리면 또 볼 수 있을까 싶어 머크의 품에서 폴짝 내려와 잠깐 그 방문 앞을 서성거렸다.돌로 만든 것처럼 반들반들한 방문은 힐이 혼자 열 수 없을 것처럼 무거워 보였고, 곳곳에 음각된 꽃이며 동물은 참 신기해서 어느덧 쓸쓸함도 잊고 방문을 빤히 들여다봤다.그녀의 뒤에 얌전히 그녀를 관찰하던 론이, ‘동물과 꽃이 마음에 드십니까?’라고 묻기에 저 문을 보고 말하는 거 싶어 고개를 끄덕였더니, 론이 그녀를 안아 올리고는,‘그럼 아가씨께서 원하는 방을 골라보시겠습니까? 같은 문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동물과 꽃이 새겨진 문은 더 있을 겁니다.’라며 그녀를 안아 든 채, 이곳저곳 돌아다녀 주었다. 문에 있는 게 뭐냐고 묻지 않아도 ‘나팔꽃’이라던가, ‘북방 늑대개’라며 설명도 해줬다.힐도 긴장이 많이 풀려서 슬쩍 손을 뻗거나 몸을 기울여 저기를 가자, 저거를 알려달라 몰래몰래 신호도 보냈다. 론은 그녀의 몸짓이 아주 작아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움직이고, 설명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다. 적어도 힐은.힐은 또 구역질이 치밀어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으엑, 윽’같은 소리를 냈다. 머크가 당황하며 그 큰손으로 힐의 등을 조금 더 꼭 끌어안고 동상처럼 자리에 멈춰 섰다.힐이 꽃이나 동물을 같기에 론은 그녀를 이끌고 저택에서 가장 그림이 많은 방으로 가려 했다. 힐도 눈을 빛내며 가고 싶은 티를 팍팍 냈고. 문제는 날붙이를 제 몸같이 쓰는 멋진 기사님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른다는 점이었다.그가 발걸음을 떼려 할 때 머크가 밥을 먹어야 하니 나중에 오자며 그와 힐을 살짝 말렸는데, 론은 금세 다녀올 수 있으니 저만 믿으라며 믿음직스럽게 웃어 보이고, 힐을 안고 거침없이 그림방까지 뛰었다.머크는 힐의 상체가 바람 앞의 바람개비처럼 들쑥날쑥 나빌레 던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론은 정말 바람처럼 뛰었고, 힐은 나부꼈다. 론이 그녀를 그림방에 도착해 내려주었을 때 힐은 그대로 바닥으로 엎어져 구역질했다.힐은 맹세하건대 종들의 성에서 살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아무리 아프게 맞고, 배를 걷어차여도 바닥에 이렇게까지 속을 게워낸 적은 없었다.그런데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달리는 론에게 안겨서 느낀 멀미는 힐이 늘 흰 코에게 자랑했던 ‘배앓이 안 하는 노랑이의 튼튼한 배’도 구역질을 하게 만들었다.멀미는 배앓이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힐에게 구토같은 건 다 배앓이니까, 그녀는 자기 배가 아파서 그렇다고 생각했다.다행히 먹은 게 없어 나온 것도 없었지만, 놀란 힐이 제 옷소매로 바닥을 박박 닦다가 납죽 엎드려 죄송하다고 손을 싹싹 빌었다. 힐은 가뜩이나 창백한 얼굴이 누렇게 떠서 더 시체 같은 낯빛이었다.머릿속이 온통 새하얀 경고음으로 꽉 찬 것 같았다. 당장 납죽 엎드려 비는 힐을 자꾸 바닥에서 일어나라는 머크도, 억지로 떼어내려던 론도 겁이 나서 도저히 마주 볼 수 없었다.그때, 론은 이 아가씨가 낮은 피의 종이라는 걸 새삼 실감한 데다 아가씨가 살려달라 비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표정을 굳혔고, 힐은 그의 표정이 굳어갈수록 더 바닥에 눌어붙었다. 머크가 ‘일어나세요, 아가씨.’라고 했을 땐, 거의 바닥에 엎드린 수준으로 붙어 있었다.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총체적 난국이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론이 그녀를 바닥에서 떼어내려다가 결국 힐이 한 번 더 속을 게워내기까지 했으니 상황은 점점 험난해지기만 했다.이 캄캄한 상황을 어쩌나 고민하던 머크의 귓가에서 힐이 구역질을 참으며 읍읍대는 소리가 들렸다. 머크는 힐의 몸에 미동도 전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레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그녀가 제 무릎 위에 앉은 채, 자신의 가슴팍에 고개를 기대도록 자세를 바꿨다.“괜찮습니다. 토하세요.”힐은 머크가 자신의 고개를 토하기 쉽도록 고개를 몸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주고, 등을 살살 쓰다듬는 손길을 느꼈다. 머크는 손이 아주 크고 뜨거워서 등을 쓸어주니, 금방 차가운 등에 온기가 돌았다.‘다들 손이 엄청나게 크다.’온기가 느껴질만큼 정신이 들자, 힐은 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마디마디가 툭툭 불거져 보이는 볼품없는 손은 거칠고 조그마했다.“...아니예요.”힐은 토하고 싶지 않았다. 토하는 건 체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토하고 나면 뱃속부터 이빨까지 상한다고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토하는 게 조금 더 무서웠다.이미 두 번이나 했으니까 더 하면 이빨이 몽땅 빠져버리는 게 아닐까. 약간 겁이 났다.“그럼 속이 진정되면 말씀해주십시오. 방으로 모시겠습니다.”그가 큰 손으로 계속 힐의 등을 쓰다듬어주었다. 힐은 그의 목깃을 꼭 붙잡고, 머리를 그의 가슴팍에 더 꾹 붙였다. 그의 몸은 말랑말랑하진 않았지만 뜨끈해서 꼭 붙어 있기에 좋았다.힐이 구역질하는 횟수가 점점 줄고, 머크가 등을 쓰다듬는 대신 토닥이기 시작했을 무렵, 페일에게 원하는 것을 잔뜩 약속받은 실리가 그들을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머크? 아가씨? 방에 안 들어가고 뭐하세요?”힐이 머물고 있던 머크의 방까지 10미터도 채 남겨두지 않고 복도에 앉아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괴상하기 짝이 없었다.“...아가씨 속이 좋지 않으셔서. 안에선 음식 냄새가 날 테니까.”“아프시다고? 잠깐만. 내가 볼게.”머크는 슬쩍 힐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다. ‘론이 붙들고 뛰어서 구역질하셨다.’고 말하고 싶지만, 숙녀가 구역질한 이야기를 자신이 꺼낼 순 없으니까.실리는 머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옆에 주저앉아 힐의 턱을 잡고 제 앞으로 끌고 왜 이리저리 돌렸다. 눈 밑을 눌러보고, 귀를 만져보고, 혀를 내밀게 해 목구멍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딱 붙어있는 힐과 머크 사이에 손을 쑥 집어넣어 힐의 배를 꾹꾹 눌러가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오 분 정도 힐을 꼼꼼히 보던 실리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고 머크를 팔꿈치로 툭 쳤다. 힐이 그의 무릎에 앉아 있으니, 그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툭.“아가씨 들고 뛰어다녔어?”“...난 아냐.”머크는 실리의 시선을 피했다. 정말 머크가 들고 뛴 건 아니지만, 론이 들고 뛰는 걸 막지 못했으니 어쨌든 머크의 잘못이었다. 실리는 ‘우리 기사님은… 용맹도 하셔라.’라며 어이없다는 듯 낮게 읊조렸지만, 머크에게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이 알아차려 주는 편이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나아서 실리의 무례한 말투를 못 들은 척 넘겼다.“아가씨. 잠깐, 손을 주세요.”실리가 힐을 향해 주근깨 가득한 콧잔등을 찡그리며 최대한 무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힐이 머크의 목깃을 잡고 있던 손을 실리에게 내밀었다.힐이 내민 손바닥 위로 실리의 손끝이 닿았다. 그가 손가락으로 힐의 손바닥을 톡톡 두드릴 때마다, 진녹색 눈망울이 연둣빛으로 빛났고 그의 손끝에서 힐의 손바닥으로 반짝이는 가루 같은 것이 떨어져 스며들었다.“자아, 이제 안 아프실 거예요. 어때요?”“뱃속이 따듯해.”힐은 뱃속에서 목구멍까지, 배꼽에서 이마까지 데굴데굴 구르는 돌멩이가 녹아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힐은 실리를 향해 양손을 뻗었다. 실리는 그 손을 보다가, ‘아.’ 소리를 내곤 그녀를 안아 들었다.“배고프죠? 가서 밥 먹어요. 아가씨는 많이 자라야 하니까.”실리가 머크에게 눈짓했다. 머크가 재빠르게 제 방 앞으로 가 문을 잡아주었다.“와..!”힐은 금방 맛있는 냄새가 황홀하게 올라오는 테이블 앞에 앉을 수 있었다. 침묵은 중요하다 스스로 되뇌어도 이런 것을 보면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힐은 그레이트 체임버에서 지낼 때도 버터와 잼이 올라간 흰 빵에 작게 썰린 고기와 채소를 볶은 것을 듬뿍 먹어서, 자신은 더는 먹는 것에 감탄할 게 없을 줄 알았다.커다란 원형 테이블 위로 열 개도 넘는 크고 작은 접시들 위에 온갖 음식이 황홀한 냄새를 뿌렸다.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긴 동그랗고 기다란 빵들을 빼고는 힐이 아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그녀가 아는 음식이라곤 수프와 스튜, 빵과 채소 고기 볶음이 다였으니까.힐은 입을 벌린 채, 실리를 가만히 살펴보았다. 그레이트 체임버에서는 하녀들이 식사를 챙겨주어서 밥시간이 되면 음식과 힐만 딱 남아 있었다. 힐은 다 제 것이겠거니 싶어 게눈감추듯 싹싹 먹어 치웠었지만 지금은 조금 헷갈렸다.‘이건 누구 걸까?’밥을 먹자고 했으니 나도 먹어도 되는 걸까? 차마 묻지도 못하면서 눈만은 음식에 딱 붙어 있었다. 실리는 그녀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의자를 하나 빼서 그녀를 앉히고 냅킨을 목에 매주었다.“장하네요, 아가씨. 나는 아가씨가 음식에 달려들 줄 알았는데.”‘기다려’는 배울 필요 없겠어요. 잘 기다리네. 실리는 콧노래 부르듯 중얼대며 힐과 손바닥 하나 거리만큼 가깝게 의자를 당겨와 앉았다.“아가씨께 무례하게 굴지 마.”힐의 곁으로 다가온 머크가 실리의 무례를 지적하며 작은 포크와 나이프를 힐의 손에 쥐여주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에 놀라서 손을 쫙 펴버리자, 머크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면서 포크와 나이프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했다.“넌 아가씨께 빡빡하게 굴지 마. 첫 식사 자리에서부터 예절을 가르쳐야 해? 편히 드시게 두라고 오늘은.”실리는 힐에게 충격이 가지 않도록 요령 좋게 머크의 손등을 찰싹 때렸다. 머크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의식 때문에 힐이 아주 오래 굶었고, 식어도 괜찮은 음식으로 마련되다 보니 포크와 나이프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 대부분이라 얌전히 물러났다.테이블 위에는 샌드위치나, 한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게 손질된 달팽이 요리, 채소 테린느와 껍질을 미리 까둔 가재 앞발처럼 식사가 될만한 핑거푸드는 다섯 명은 먹어도 될 만큼 양이 많았다.“힘 넘치는 론경은?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아. 식사는 같이 안 할 거야. 이번 토벌은 론이 아니라 내가 가게 될 거니까. 페일님께 보고드리러 갔겠지.”설명해보란 듯 실리는 한쪽 눈썹을 슬쩍 치켜올렸다. 실리와 머크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힐을 살뜰하게 챙겼다. 실리가 식사 시중을 들 듯, 빵 바구니를 당겨주었다.“다 아가씨 거니까 많이 드세요.”힐은 잠시 망설이다가, 빵에서 나는 냄새를 킁킁 맡았다. 고소하고 달콤하기까지 한 흰 빵 냄새. 그녀는 빵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려다가 실리에게 물었다.“정말요? 다 내꺼예요?”조심스럽게 한 음절씩 나오는 목소리에 실리는 과장된 제스쳐로 맞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여주었다.힐이 작은 손가락을 꼬물대면서 빵을 찢어 입에 밀어 넣고 우물우물 씹었다. 딱딱하기는커녕 퍼석하지도 않은 빵은 정말 입에서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빵 하나를 순식간에 해치웠다.그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면서도 머크와 실리는 일 이야기를 했다. 론이 힐의 예법 교사로 들일만 한 방계가 있는지 알아보러 가고 머크가 토벌을 대신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갑자기 힐이 제 멱살 부근을 잡더니 옷을 쭉 끌어당겼다.성긴 옷감 아래로 불툭 튀어나온 쇄골과 흉곽 뼈가 도드라져 보이는 마른 가슴팍이 훤히 드러났다. 머크와 실리가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은 가운데, 힐은 태연하게 목 부근으로 빵을 하나씩 밀어 넣었다.“?!”“아가씨?”머크는 힐이 제 목 부근을 잡아당겨 맨살이 보였을 때도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리로 빵을 집어넣자 차라리 기절하고 싶은 기분이었다.실리도 머크와 별반 다를 바 없었지만, 그래도 머크보다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튕겼다. 어린 아가씨라도 가슴팍에 손을 밀어 넣어 빵을 뺄 순 없으니 마법을 써서 그녀가 옷에 밀어 넣었던 빵을 다른 곳으로 죄 이동시켜버렸다.“아가씨, 미리 챙겨놓으면 나중에 먹을 땐 맛이 없습니다.드시고 싶을 때마다 말씀하시면 언제든 드릴 테니까 옷에 넣지 마세요.”머크가 힐의 손을 붙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최대한 상냥히, 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쉽게 말하려고 애를 썼다.실리는 머크의 뒤쪽에 후두둑 떨어지는 빵을 보며 힐이 마치 햄스터 같다고 생각했다. 먹이를 저장해두고 꾸물꾸물 움직이는 게 딱 햄스터 같다고.힐은 빵을 챙기려다가 실패한 날, 밤에 엉엉 울었다. 그날 먹었던 흰 빵이 엄청 맛있어서 몇 개 챙겨 두려고 하다 실패한 건 괜찮았다. 서럽지 않았다. 그들은 힐에게 욕심부린다고 화를 내지 않았고 틈틈이 힐에게 따끈한 새 빵을 가져다주었다.많이 먹어서 부른 배를 통통 두드리며 힐은 행복하게 푹신한 침대 위에 올랐다. 다만 언제나 홀로 있던 시간이 되고 나니, 이제야 자신이 어디에 와 있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서.‘막대발이 만약에 살았다고 해도 여기까지 나를 보러는 못 와.’커튼이 쳐진 침대는 힐이 머물던 첨탑 꼭대기 방만큼이나 넓었지만 여기는 힐이 좋아하는 것, 귀한 것을 몰래 숨기던 항아리도 없고 조금씩 받아온 천들을 모아 만든 소중한 담요도 없다. 빵을 가져와도 어차피 숨겨둘 곳이 없었다. 그 사실이 공허했다.게다가 여기서는 흰 코도 볼 수 없다. 잼 빵도 나눠주고, ‘노랑아’하고 불러주던 다정한 흰 코. 바느질 방 꼽추 할멈이 죽었을 때처럼 내가 없어진 걸 알면 울까?‘마지막에 제대로 보고 왔으면 좋았을까?’의미 없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좀 먹었다. 한참 눈물을 뚝뚝 떨구던 힐이 제 옷에 얼굴을 푹 묻고 벅벅 문질렀다.‘이제 막대발 생각은 그만해야 해.’잔소리하던 흰 코도, 안아주던 막대발도. 침대 커튼 틈으로 달빛이 길게 들어와서 힐의 발치에 닿았다.달빛을 보면 달과 함께 찾아오던 막대발이 연상돼서 다시 작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힐은 많은 죽음을 겪었다. 죽은 종 중에선 그녀에게 친근하게 굴어준 사람도 있었고, 그녀가 맞을 때 몸으로 꼭 감싸서 아프지 않게 지켜준 사람도 있었다.죽음은 다시 못 보는 거니까. 그 사람과 지내며 가장 좋았던 것만 몇 개 추려서 마음에 꼭 품고 있어야 한다. 자꾸 죽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울다 보면 나중에, 정말 나중에 생각하고 싶어질 때는 자신이 울며 그리워했다는 사실만 떠오를 테니까.소중한 건 아주 깊은 곳에 넣어두어야 한다. 기억에 때가 타지 않도록. 힐은 그런 건 자신 있었다. 소중한 막대발. 사랑스러운 아이. 힐은 불에 덴 듯 얼얼한 가슴을 꼭 붙잡고 잇새로 울음소리가 빠져나가지 않게 숨을 참았다.‘마음속에 항아리가 있는 거야. 나는 거기에 막대발을 넣고, 뚜껑을 닫아야 해.’숨을 참고, 울음을 참고. 참으면 많은 게 지나가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날에, 슬픔이 턱 끝까지 쫓아오면 그때 슬쩍 꺼내 볼 막대발과의 기억을 차곡차곡 마음속에 정리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잘만 흘렀다. 달은 금방 지고 해가 고개를 치켜들었다.침대 커튼 틈으로 이른 아침의 여린 햇빛이 쏟아졌다.다음 날부터 힐은 실리와 머크의 손에 이끌려 큰 침실과 서재와 드레스룸, 그리고 응접실 두 개와 작은 욕실이 딸린 방으로 방을 옮겼다.“자, 오늘부터 저와 머크가 아가씨 교육을 맡게 되었답니다.”실리가 빙긋 웃었다. 평소에는 늘 풀러 두던 잿빛 머리카락도 단정히 묶고 늘 입던 느슨한 로브가 아니라 목 끝까지 단추를 채운 커프스 셔츠와 면바지, 조끼까지 잘 갖춰 입은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는 평소보다 귀한 티가 났다.실리는 오늘도 우물쭈물하는 힐의 앞에 몸을 숙여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앞으로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은 뭐가 되었건 다 물어보세요. 이제 그게 아가씨의 역할입니다.”“...교육이 뭐예요?”평소보다 다정한 그 목소리에 홀린 듯 힐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고, 실리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자, 실리의 녹안이 부드럽게 휘었다.“ 배우고 가르치는 거요. 궁금한 걸 물어보고, 궁금한 걸 물어보면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힐의 눈동자가 끔뻑였다. 잿빛 눈동자는 묘한 푸른 기가 돌아서, 실리의 머리카락과는 전혀 다른 재색이었다.“물어보면 알려주는 거?”“네.”“다정하게요?”실리도, 머크도 힐의 질문엔 한동안 답을 하기가 어려웠다. 다정하게?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들어본 게 언제더라? 머크는 당황해서 힐을 찬찬히 살폈다.동그란 눈에 긴 속눈썹.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이지만 아마 빛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면 금으로 뽑은 실처럼 빛이 나게 되겠지. 살이 좀 더 오르면 피부도 더 뽀얀 색이 될 테고. 머크의 허리께에나 간신히 오는 작은 여자아이는 무구했고, 어리석었다.낙인 같은 이름을 받아 페일의 말을 따르며 마물에게 바쳐져야만 하는 아이는, 모든 즐거움을 박탈당한 종의 삶을 살아온 아이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그 조그만 머리통에서 다정 같은 단어를 떠올렸다.그것도 시간이 갈수록 더 그녀를 잔인하게 사지로 몰아세울 이들을 보면서.“네, 아주 다정하게요.”실리가 달콤하게 웃었다. 조금 느린 대답이었지만 힐은 만족한 듯 웃었다. 마치 그녀 앞에 서있는 자들이 온전히 자신을 다정히 대해줄 거라고 믿는 듯 말간 웃음이었다.머크는 가슴 한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욕지기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실리가 정신 차리라는 듯 그를 툭 칠 때까지 바보처럼 서 있었다.이용하려고 데려온 종이다. 자신이 직접 납치했다. 옆에서 그녀에게 다정히 가르쳐주겠단 개소리를 하는 실리가 그녀에게 목줄을 채울 준비를 해주었고, 자신의 주인은 기껍게 그녀에게 목줄을 채워뒀다.그는 언뜻, 집사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하녀들이 ‘종이 출세를 했다’고 말하고 다녀 입막음했다던가.출세라. 이름 높은 후작가에 방계로 들어갈 어린 종은 출세를 한 걸까. 아니다. 이 후작가는 어린 종에게 또 다른 새장이다. 조금 더 먹이가 잘 나오고, 깨끗하며, 넓은 새장에서 순진무구한 종은 고운 포장지를 입고 선물용으로 자라겠지.그녀가 마물에게 바쳐지는 데에는 다른 귀족들이 제 자식을 바치는 것 같은 숭고함 따위, 있을 리 없으니, 그녀는 종들의 성에 있을 때도 지금도, 죽는 순간까지 종일 뿐이다.머크는 제 속에 고개를 치켜든 게 죄책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감정도 때로는 알아선 안 된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한 번 쓸어내리고 다른 걸 생각하기 위해 애를 썼다.가령, 붉은 안개 근처 마을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마물에게 잡아먹히는 자유민들의 비명 같은 것들. 그는 저 어린 종의 맑은 눈망울과 여린 그 목소리를 그런 잔혹한 것으로 지웠다.힐이 후작저에 머문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었다. 힐은 거울을 마주 보고 앉아 잘 다듬어진 머리카락을 빗었다. 아직 손을 넣어 만지면 빳빳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빗으로 빗을 때 뭉텅 뽑혀 나오진 않을 만큼 머릿결이 좋아졌다.그간 힐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앉는 방법, 뛰지 않고도 빨리 움직이는 방법, 흐느적거리지 않고 걷는 법 등을 배웠다.실리와 머크는 상냥했고, 그녀가 묻는 말이라면 뭐든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있던 곳이 왕성 깊은 곳에 있는 종들의 성은 예전에 어느 높은 피에게 바쳐진 성이었다는 것도 알고, 자신은 종이며, 이제는 높은 피가 되었다는 것도 안다.자신에게 페일이 무엇을 원하는 지도.종들의 성에서 자신을 잘 살펴주던 흰 코는 항상 ‘생각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라고 했지만,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세요.’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생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조금씩 꾸준히 넣어주었다.힐은 그 점이 가장 좋았다. 아는 게 생기면 멈춰서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다음 길을 찾을 수 있다. 느림보도 노랑이도 제재받던 것을 나오미는 권유받았다.지난한 달은 힐이 후작저에, 페일에게, 실리와 머크에게, 그리고 나오미라는 역할에 적응하는 시간이었다.힐은 빗을 화장대 위에 내렸다. 빗고 나니 부스스하던 머리카락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지푸라기 같던 색에서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했다. 아직 군데군데 물이 빠진 듯 얼룩덜룩하긴 했지만.‘나도 좀 더 지나면 금발이 되려나? 어제 본 사람처럼?’어제 아침, 힐이 밥을 먹을 때마다 그녀의 손을 붙잡고 포크 질을 알려주던 머크가 토벌을 하러 간다며 훌쩍 떠났고, 힐에게 강렬한 멀미의 기억을 선사해준 론이 돌아왔다. 론과 똑같은 금발 머리에, 초록 눈을 가진 어딘가 유약해 보이는 소년을 데리고.“누구일까?”분명 론과 같은 색이었는데, 소년의 머리카락은 론보다 훨씬 눈이 부셨었다. 더 반짝거리고, 더 시선을 잡아끄는 색. 할 수 있다면 자신도 그렇게 벌꿀 같은 금발을 가지고 싶은데.-똑똑그녀가 소년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활짝 열려 있는 침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실리가 장난스레 웃으며 방문에 다시 한번 똑똑하고 노크를 했다.“실리! 들어오세요.”“다행입니다. 두 번 만에 방에 들여 주셔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셨나요?”실리가 힐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힐은 그 손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실리에게 배운 것을 검사받을 겸, 함께 차를 마시곤 했는데 오늘이 그 티 타임이 있는 날이었다. 보통은 머크가, 머크가 바쁠 땐 실리가 힐을 페일의 응접실까지 에스코트 해주곤 했다.“어제 론과 함께 온 소년이요, 그 사람 머리카락이 예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론과 함께 온 소년이라면…, 아. 알렛데이아 영식. 그렇네요. 반짝거리는 금발 머리죠.”“네에. 이 나라에는 흔한 색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예쁜 금발은 처음 봤어요. 혹시 그 소…. 아니, 영식을 아세요?”실리는 종달새처럼 지저귀는 힐을 잠깐 내려다보고 웃었다. 자신을 보면 얼어붙기 바쁘던 힐은 다정히 가르쳐준단 말 한마디에 홀랑 넘어가더니, 이제는 제법 긴 말을 재잘거렸다.“알다마다요. 그 영식은 유명하거든요.”“와… 저도 알려주세요. 유명한 영식 이야기 듣고 싶어요.”힐은 매일 밤 실리가 해주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 이야기 중 대부분은 ‘옛날에 어디 사는 누구가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았다. ’ 식의 동화였다. ‘그 누구는 정말 유명해서 다들 알죠.’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기 때문에 힐은 이번에도 이야기를 해줄까 싶어 실리를 조금 졸랐다.“으음. 이건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직접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게 좋겠죠.”“직접이요? 언제요?”“네 직접요. 언제일까요? 아마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으셔도 될 거예요.”힐은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힐은 그 뒤로도 천천히 걸으며 실리와 대화를 계속했다.격식 있는 복장도 갖추지 않고 가지는 티 타임이지만, 검사를 위해 갖는 자리라, 실리는 대화를 이끄는 척하면서 끊임없이 힐에게 복습을 시켰다. 힐도 어렴풋이 지난 1주일간 배운 내용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잠자코 대화를 이어갔다. 페일의 응접실에 도착할 때까지.“아.”힐과 실리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묘한 눈빛으로 서로를 잠깐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티 타임 자리에 삐쭉 솟아있는 금발과 그 옆에 숨겨진 것처럼 모습 대부분이 가려진 금발 머리가 함께 보였기 때문에.“앉지.”아마 실리와 힐은 페일이 앉으라고 손짓하지 않았다면, 한참 그 자리에서 서로를 보다가 작게 ‘저 소년은’으로 시작되는 대화를 나눴을지도 모를 일이었다.페일은 성가시다는 표정을 조금도 지우지 않고, 자리에 갓 앉은 힐에게 손짓을 보냈다. 힐은 금발 머리 소년에게로 자꾸 가려는 시선을 애써 돌려 론을 보았다. 아예 관심 없는 듯 굴고도 싶었지만, 고개를 치켜든 호기심이 차마 완전히 시선을 돌리진 못하게 했다.“잘 지내셨습니까, 아가씨.”힐의 노골적인 시선에 론은 고개를 숙여 보이며 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네에, 무사, 무, 무사평탁하셨나요?”‘으앗..!’“염려해주신 덕에 무사 평안하게 다녀왔겠죠!”힐이 조그맣게 기어드는 목소리로 론을 힐끔 보고 물었다. 갑자기 말을 걸 줄 몰랐던지라, 힐은 놀라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을 더듬는 데다가 말실수까지 해버렸다.‘하필 페일님 앞에서...!’고개를 숙인 힐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것은, 아마 빛 머리카락 사이에 빼꼼 보이는 붉은 귀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실리는 헤죽 웃고 그녀 앞에 빈 찻잔을 하나 올려두고 찻물을 따르며 짐짓 유쾌한 어조로 말했다. 힐의 말실수를 재빨리 덮어주려는 듯이. 실리는 페일의 표정을 힐끔 살피고 찻주전자를 내려놓았다.‘교육보다 크게 키우는 데 집중해.’두 번째로 차를 마셨을 때였나, 페일이 자신을 따로 불러 그렇게 이야기했었다. 다 필요 없으니 크게 크게 키우라고. 그 말을 한 후로 페일은 아이가 말실수하더라도 슬쩍 쳐다볼 지언 정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었다.그리고 그게 실리의 믿는 구석이라. 실리는 슬쩍 힐의 등을 쿡 찔렀다. 힐은 좀 크게 움찔거리긴 했지만, 소리를 내진 않고 무사히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있었다.그녀는 몸을 일으키고 습관적으로 페일을 보다가 그의 시린 눈을 똑바로 마주 보게 되었다. 페일은 제 눈을 똑바로 보는 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소개부터 할까. 이 아이가 나오미 리즈웨이. 내 방계혈족이다.”곁에서 잘 보필하도록. 페일이 나오미에게 시선을 떼 금발 머리 소년에게 눈짓하자, 론의 곁에 앉아 있던 소년이 우아하게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에드워드 라반 드 알렛데이아. 론의 방계혈족으로 네 예법을 봐주고 곁을 보필할 아이다.”페일이 힐을 보며 소년을 짧게 소개해주었다. 힐은 응접실에 들어올 때부터 눈길을 끌었던 소년을 한참이나 빤히 바라봤다. 가까이서 본 알렛데이아 영식은 신기했다. 론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는데, 에드워드는 론과 닮은 반짝거리는 짙은 금발이지만 몸도 더 작고 건강해 보이면서도 날씬했다.“잘 부탁드립니다. 나오미님. 부디 에드워드라고 불러주시길.”“저도 잘 부탁해요.”“오늘부터 알렛데이아 영식이 너와 하루에 세시간씩 같이 보낼 예정이니, 같이 나가보도록.”페일이 힐과 애드워드에게 축객령을 내렸다. 평소대로라면 실리가 힐에게 이것저것 묻고, 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는 것을 모두 털어 대답하며 꽤 긴 시간 티 타임을 가졌을 텐데.그 시간 동안 페일이 고요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는 힐은 어쩐지 아쉬운 마음에 페일을 자꾸 힐끔힐끔 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까딱여 인사하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바로 뒤따른 애드워드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알았지만, 힐은 응접실을 한참 동안 보고 나서야 몸을 돌려 애드워드와 마주 섰다.‘어? 론경 옆에 있을 때는 작아 보였는데?’한 팔 정도 간격을 두고 서 있는 애드워드는 생각보다 크고, 생각만큼 호리호리하지 않았다. 복도로 들이치는 햇빛을 받아 벌꿀보다 진한 금발은 반짝였고, 가만히 있어도 조금 올라간 입꼬리는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단정했다.‘예쁘다. 편안해 보이고. 저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아.’힐은 에드워드처럼 평온한 표정을 짓는 사람은 처음 봤다. 보고 있으면 긴장이 모두 달아나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나오미님. 아직 샤프롱이 없으시다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함께 산책하는 건 어떠신지요?”힐은 에드워드가 내민 손을 바라봤다. 페일과 부관들의 손은 아주 크고 흉이 많았다면, 에드워드의 손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길고 모양이 좋은 데다가 흉 하나 없이 매끄러웠다.“아-.”힐은 자신의 손을 위로 겹치려다가 조금 멈칫했다. 에드워드의 손 위로 서서히 겹쳐지는 자신의 손은 너무도 거칠고 못나 보여서.손목부터 손가락 끝, 손톱 하나하나가 전부 예쁜 손이 신기해서 한동안 힐은 에드워드의 손을 빤히 바라보았다.“나오미님?”“앗, 네, 네! 저도 산책 좋아해요.”에드워드가 자신을 부를 때에야 힐은 그의 매끄러운 손에서 시선을 돌려 예쁜 진녹색 눈을 바라보았다. 예쁜 눈은 보석 같기도, 숲의 푸르름을 뚝 떼온 것 같기도 했다.특히 벌꿀 빛 속눈썹이 사르르 아래를 향할 때면, 눈망울에 내리는 그림자마저도 금빛이 서리는 듯했다. 슬쩍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하얀 이마와 우뚝 선 콧날도, 분홍색 입술도 모두 고귀해 보였다.“에드워드...님은 론경과 친해요?”힐은 천천히 1층 현관으로 자신을 에스코트하는 에드워드를 몰래 힐끔거리다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돌리고 말을 걸었다. 몰래 훔쳐본 기분이 들어서 조금 민망했다.“말을 낮추세요, 나오미님. 에드워드면 충분합니다.”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실리는 웃을 때가 아니면 다정해 보이지 않았고, 머크는 웃을 때 조금 더 무서운 인상이었기 때문에 힐은 웃지 않고도 상냥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에드워드가 신기했다.“론 형님과는 교류가 잦은 편입니다. 주변을 잘 챙기시거든요.반년에 한 번쯤은 얼굴을 보고, 두 달에 한 번씩은 편지를 보내주세요.”“교류가 뭐예요?”“연락하고 지내는 걸 교류한다고 합니다.”에드워드의 짤막한 설명에 힐의 눈이 동그래지고 난감한 기색으로 눈을 굴렸다. 교류가 뭔지 물어봤을 때처럼.‘못 알아들었구나.’에드워드는 조그만 동물의 앞발을 손에 쥐었을 때처럼, 제 손 위에서 작게 꼬물거리는 뜨끈한 온기를 느끼면서 현관문을 열었다.늦가을의 바람은 서늘했지만, 날은 화창했다. 후작가 본 저택 현관에서 미로 정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키가 작은 관목과 단풍나무가 즐비했고 빛을 받은 노랗고 붉은 잎들은 온통 온화해 보였다.“연락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 후작저에 오기 전에 ‘후작저로 갈게요’라고 미리 편지를 보내면, 후작저의 사람들은 제가 온다는 연락을 받은 거죠.”바닥 곳곳에 쌓인 단풍이 나무에 달린 것보다 많은 것을 보니 곧 겨울이 오겠다고 생각하며 에드워드는 힐에게 연락에 관해 설명했다.“에드워드님은 연락을 한 거고요?”“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드워드면 충분합니다.”에드워드가 힐에게 웃어 보였다. 힐이 ‘힉’소리를 내고 고개를 휙 돌렸다가, 다시 에드워드를 곁눈질했다.‘웃으니까 무서워. 머크도 무서운데, 머크랑 다르게 무서워!’머크는 웃을 때 얼굴을 잔뜩 찡그리는 게 무서웠다면 에드워드는 예쁘게 웃는데도 엄한 분위기 때문에 무서웠다. 또 에드워드님이라고 하면 다음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에드워드라고 부르라고 할 것 같았다.“네에…, 그렇지만 저도에드워...드도 방계잖아요. 실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랑, 둘이 신분이 같은 거랑은 둘 다 존댓말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힐은 그가 화내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조금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힐은 아직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발음도 웅얼거리고 매끄럽게 말을 하지도 못했지만, 에드워드는 그녀의 말을 도중에 막지 않고 끝까지 눈을 마주 보며 들어주었다.‘방계는 다 같다고 생각하는구나.’힐이 하고 싶었던 말을 얼추 이해한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귀족 내 계급에 대한 이해가 없음과 에드워드라고 부르라는 그의 말을 못 들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님 자를 붙여왔음도 알아차렸다.힐이 말한 대로 둘 다 방계 혈족이긴 했다. 다만 후작가의 방계와 백작가의 방계는 서로 눈 마주치는 데도 순서가 필요할 정도로 거리가 멀었다.그는 힐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제 시선을 피해 눈을 요리조리 굴리는 모습이 품위라곤 조금도 없어 보여서 그는 작위와 작위에 따른 방계혈족의 대우에 관해 설명하려던 생각을 머릿속에서 말끔히 지웠다.잿빛 눈을 데굴데굴 굴리다가 에드워드와 눈이 마주쳐 고개를 푹 숙이고 귀까지 빨갛게 달아오르는 모습은 귀여웠지만, 귀족의 몸가짐으로 보긴 어려웠다.그제야 그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들었던 그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론과 함께 이곳에 오면서도, 어젯밤 페일에게도 그녀의 출신부터 왜 종이 방계 혈족이 되어야 했던 지까지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다.‘어차피 사교계에서 깊은 관계를 맺지도 않을 테고…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리는 편이 좋겠지.’그는 힐을 갓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그럼, 우리 서로 말을 놓을까요? 친한 친구처럼요. 저를 에드워드라고 불러주시면 저도 나오미님을 나오미라고 부를게요.”힐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친구는 되자고 하면 되는 걸까? 궁금했지만 물음을 삼켜 목 뒤로 꾹 넘겼다.“좋아요.”친구는 빨리 되는 게 좋다.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지는 만났을 때 알 수 없다. 헤어짐이 다가올 때야 ‘이다음부터는 볼 수 없어.’ 하고 알게 되니까.그 사람이 좋아질지 아닐지도 만났을 때는 알 수 없지만, 미리 친구가 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같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좋아졌을 때 많이 후회하게 될 테니까.힐은 고개를 끄덕였다.‘좋아하게 될 거라면 빨리 좋아하는 게 좋아.’마음속 항아리에 말 한마디, 웃는 표정 하나라도 더 넣어둘 수 있을 테니까.거울처럼 말간 눈은 가을볕에 반짝였고 뺨은 발그레했다. 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에드워드는 들떠 보이는 힐에게 다시 한번 웃어주었다.“그럼 우린 이제 친구네요, 나오미.”이번에는 엄하지 않게, 상냥히.\*\*페일은 여느 때와 같이 실리와 론에게 보고를 받는 중이었다.“더 미룰 순 없겠군.”“네, 사이프러스 공자가 토벌대장을 맡은 일로 아직까지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페일은 나오미를 수면 위로 꺼낼 때까지, 그리고 약혼식을 올릴 때까지 후작저 바깥으로 나가는 일을 최대한 줄이려 했었다. 힐을 연회에 데려가려면 물 밑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예비 약혼녀 달리아와 다시 약혼 협상을 할 준비도 해야 했기 때문에.“ 사이프러스 공작은 정말 피곤한 사람이야. 사이프러스 공작은 공자가 토벌대장을 못 맡았다고 해도 항의했겠지.”사이프러스 공작과 그를 지지하는 귀족들로부터 받은 항의 편지를 실리가 페일의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았다. 끝모르고 쌓이는 편지에 페일의 미간이 구겨졌다. 마음 같아선 토벌에 따라간 공자를 다리라도 부러트려 공작저로 돌려보내고 싶을 지경이었다.“공자… 몰래 납치해서 공작저로 보내는 방법도 있긴 하죠. 그러면 이 주간은 별말 없을 겁니다. 토벌대장이 토벌이 끝나기도 전에 저택으로 돌아온 거니까요.”머크가 납치에 맛 들였는데, 머크한테 시키면 좋아할 거에요. 실리가 요즘 들어 툭하면 납치로 일을 처리하려 드는 머크를 생각하며 웃었다. 페일은 당장이라도 그 말을 실행에 옮기고 싶을 만큼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좋다-, 고 하고 싶지만 안 되겠군. 그 이주가 끝나면 매일같이 결투장을 들고 와서 나를 귀찮게 할 테니까.”“하! 사이프러스 공작이라면 그 결투장조차 제 손에 들지 않을 겁니다. 용병이나 가문의 기사를 보낼 게 뻔합니다.”론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사이프러스 공작처럼 비겁하게 남의 힘을 돈을 사서 제 사리사욕에 쓰는 것을 혐오했다. 매일같이 마물이 창궐하고 자유민의 피가 강을 따라 흐르는 시대에, 오직 제 사리사욕을 위해 타인의 피를 흘리다니.기사도라곤 조금도 없는데, 공작도, 그 공자도 자신이 숭고한 성자라도 된 양 설치지. 론은 그 점이 특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후, 마음엔 안 들지만 할 수 없지. 사이프러스 공작이 왕녀를 손에 쥐고 있으니.”페일이 아까부터 몇 번이나 읽었던 구구절절한 사연이 길고 길게 적혀있는 편지를 들어 올려 팔랑팔랑 넘겼다. 아이보리색 편지지에 금색 잉크.‘정말 금을 녹여 만든 잉크겠지.’왕녀가 자신에게 보낸 이 사치스러운 편지는 사이프러스 공자에 대해 걱정을 하는 척하며 ‘엘로이 후작이 무능하고 게을러 사랑하는 사이프러스 공자가 사지에 홀로 내몰린 게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된다.’는 내용과,‘사이프러스 공자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도 토벌에 나가 고생을 하는 데 가진 건 힘밖에 없는 비정한 엘로이 후작이 후작저에 박혀 놀고만 있는 게 꼴 보기 싫다.’라는 내용을 12쪽에 걸쳐 구구절절이 담고 있었다.“거슬려, 아주.”왕녀의 사이프러스 공자 사랑은 수도 귀족이라면 모를 리가 없을 만큼 유명했다. 사이프러스 공자가 토벌대에 참가할 때부터 왕녀가 안달을 낼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편지로 닦달을 할 줄이야.페일은 달갑지 않음을 넘어서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페일도, 사이프러스 공작도 이 편지를 보낸 당사자, 아델라 왕녀의 동복형제인 리암 왕자를 왕세자로 지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이프러스 공자를 얼마나 사랑하건, 같은 파벌의 귀족에게는 동일한 대우를 해야 했다.연심에 눈이 멀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제 위치도 모르고 날뛰는 망아지 같은 꼴이라니.“내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이라면 왕명이 나올 겁니다. 왕녀가 오래 불만을 토로하는 꼴을 왕께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실 테니.왕실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왕녀의 주장대로 페일님께 토벌을 명하실 수 있습니다.”“이른 시일 내에 토벌하러 간다고 왕성에 전령을 보내. 세 군데 정도면 당장 입을 다물게 하긴 좋겠군. 1주일 이내에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만 경로를 짜두도록.”론의 말에는 이 자리의 모두가 동의한다. 사이프러스 공작은 집요한 자인만큼 끝없이 왕녀를 뒤흔들 테고, 왕녀는 페일을 쪼아댈 테니까.왕녀가 보내는 편지는 제아무리 은밀히 전달해도 금방 내용이 퍼진다. 같은 내용을 편지를 한 달 내내 보낸다면 분명 왕은 왕명을 내릴 것이고.왕명이 내려오게 되면 그땐 얼마나 자리를 비울지 가늠할 수 없었다. 차라리 먼저 움직이는 편이 좋을 터라 페일은 출정을 결심했다.“공작가로도 전령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나불대는 입은 한시라도 빨리 닫게 하는 편이 좋겠죠.”론은 페일 앞에 쌓인, 뜯지도 않은 공작가 측의 항의 서신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페일이 그 시선을 보고 서신을 바닥으로 휙 밀어버렸다.“기사님도 참. 그럴 필요 없어. 후작가 전령이 왕성에 도착하자마자 공작이 왕녀를 찾아갈 테니, 왕녀님이 친절히 공작에게 알려주시겠지.”실리가 장난스레 웃었다만 그의 녹색 눈에는 진득한 혐오감이 가득했다. 왕성에 얼마나 많은 공작의 개들이 있는데. 왕실에 충성을 다하는 자보다 공작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가 훨씬 많을 거라는 데에 실리는 제 오른팔도 걸 수 있었다.후작가의 전령이 왕성 입구에 발을 딛자마자 공작의 개가 공작가로 부리나케 달려갈 테고 공작은 졸부나 탈 것 같은 그 우스꽝스러운 황금색 마차를 타고 왕성에 들어가 왕녀에게 우연히 편지 받으신 걸 들었다며 사이프러스 공자를 운운하고 편지를 보여달라 빌겠지.어쩌면 그렇게 잦은 우연인지. 실리의 입가가 비죽 솟았다. 속이 빤히 보이는 건 마음에 들었지만, 그 속내가 역겨워 맘에 들지 않는 자다. 사이프러스 공작은.“그래. 전령은… 누구에게 보내는 게 좋을까. 왕녀에게 보내주면 재미가 덜할 텐데.”페일이 왕녀의 편지를 마치 부채처럼 팔락였다. 고급 종이는 아주 묵직해서 부채처럼 흔들어도 쉽게 구김이 가지 않고 빳빳함을 유지했다.“조슈아 왕자님께 보내시죠. 지지 세력이 없는 분이니.”현 왕가의 직계는 총 다섯. 페일을 들들 볶아대고 있는 2 왕녀 아델라 외에도 넷이나 더 있다.아델라와 같이 왕비의 배에서 나온 동복형제인 리암, 에이든과, 후궁의 배에서 나온 이복형제 비비안, 조슈아.아직 왕은 젊고, 세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왕비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델라와 리암은 높은 피로써 쓸만한 힘이 없었고, 에이든은 고작 세 살이라 세자가 되지 못했다.반면에 비비안과 조슈아는 마법에 대한 재능을 타고났지만 후궁의 자식이라 권위가 없었다.“좋군. 겉봉투에 조슈아 저하께 보낸다고 크게 써두도록.”페일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소국에서 ‘저하’는 세자에게만 붙이는 칭호였다.지금까지 페일은 왕비의 자식인 리암을 지지했다. 정확히는 리암의 뒤에 버티고 있는 로델리아 공작가 출신의 왕비를 지지했다. 왕비는 현자라 칭해도 좋을 만큼 현명했고 상벌이 확실했으므로.실리가 키득거렸다. 조슈아에게 전하라고 칭한다고 해서 페일이 정말 조슈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은 실리도 알고 있었다. 멍청한 자가 아니라면 그 편지의 뜻을 알아차릴 것이다. 계속 아델라 왕녀가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페일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라는 경고를.“출정은 나와 론이 가는 걸로 하고, 왕실 군사는 빌리지 않는다. 후작가의 기사들로 추려.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고.”“알겠습니다. 기사들을 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내일까지 물자 조달과 토벌 경로 전달 드리겠습니다.”론과 실리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그리고, 실리. 내가 출정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나오미를 크게 키워두도록. 한 달이나 먹였는데 아직도 너무 작군.”두 배는 키워놔. 페일이 덧붙이는 말에 실리는 비명을 속으로 꾹 삼켰다. 중앙에 있는 숲에서 왕비 궁으로 가는 길목에는 동그랗게 꽃잎을 피운 붉은 달리아, 붉게 핀 꽃무릇과 보랏빛 국화가 만발한 정원이 있다.사시사철 계절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곳으로, 왕비가 가진 정원 중에서는 소박한 편이나 그 정취가 훌륭해 왕비가 가장 아끼는 곳이었다.연한 노란빛 식탁보를 깐 티 테이블 위에는 티푸드와 얼그레이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왕비와 그녀의 아이 왕녀 아델라와 그녀의 아버지인 로델리아 공작이 앉아 있었다.“아델라, 사랑스러운 내 딸. 엘로이 후작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들었어요.”“네 어마마마.”왕비의 시선이 왕녀 아델라에게 닿았다. 왕가의 상징이자 고귀한 마법을 타고났음을 증명하는 잿빛 머리카락이 아닌, 왕비를 꼭 닮은 연두색 머리카락과 비취색 눈동자를 가진 가녀린 외모의 아델라는 꽃이 흐드러진 정원에서 파릇한 새싹 같았다.“후. 왕녀님….”로델리아 공작이 아델라의 태연한 표정에 입을 열어 무슨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왕비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로델리아 후작은 속이 답답해 죽겠다는 듯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있으면서도 왕비의 손짓에 얌전히 입을 다물었다.그의 존중에 왕비는 미소와 눈짓으로 감사를 전했지만, 아델라는 그에게 조금의 시선도 보내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로델리아 공작이 없다는 듯이.“엘로이 후작이 조슈아 왕자에게 전령을 보냈단 건 알고 있겠죠.”아델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안 그래도 사이프러스 공작이 자신을 찾아오는 날 엘로이 후작이 전령을 보내는 바람에 그녀가 기대했던 사이프러스 공작과 즐거운 대화는 온통 그 무도한 엘로이 후작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기분이 상했던 차였다.그런데 어머니까지 엘로이 후작 이야기를 꺼내다니?아델라는 자신의 어머니를 잘 알았다. 이 왕국에서 가장 현명한 여인이라 높이 칭송받는 어머니는 늘 아델라가 원하는 것을 갖기보다 참기를 원했다.왕비는 아델라가 가장 높은 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랫것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눈 밖에 난 자들에게도 친절하기를 강조했다.아델라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강조하는 것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아델라는 자신의 어머니는 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사랑했다면 어머니는 지금 자신을 품 안에 끌어안고 당장 페일을 끌고 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을 테니까.아델라는 가장 비정한 어미를 꼽으라면 제 어머니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거로 생각했다.오히려 아델라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구해오는 사이프러스 후작이 아델라를 더 위하고 사랑하겠지. 아델라가 떫은 미소를 지었다.“그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자의 이야기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후작이 무례했나요?”아델라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 보려는 것처럼 왕비는 아델라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아주요. 감히 제 편지를 무시한 것만으로도 경을 쳐야 할 일인데 조슈아에게 전하라고 칭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리암 오라버니가 버젓이 계시는데도 말이에요.”왕비는 내내 입가에 걸려있던 자애로운 미소를 거두었다. 아델라와 꼭 닮은 비취색 눈동자는 미소를 거두기 무섭게 아주 싸늘하게 가라앉았다.“후작이 왜 그 편지를 조슈아에게 보냈을까요?”“아랫것의 생각까지 제가 알아야 할까요?”페일 렘넌트 드 엘로이 후작을 거침없이 아랫것이라고 표현하는 아델라의 말에, 잠자코 대화를 듣고 있던 로델리아 후작의 표정에는 경악이 서렸다. 왕비가 자신의 개입을 원치 않음을 알아서 조용히 있을 뿐, 만약 자신의 발언이 허락되었다면 로델리아 후작은 큰 소리를 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아랫것이라…그럼 아델라. 왕녀는, 윗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더 큰 것을 봐야죠. 엘로이 후작의 일이라면 어머니, 어머니께선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미 사이프러스 공작이 그 무례한 자를 호되게 혼내기로 제게 약속했답니다.”왕비의 표정이 싸늘히 굳어가는 것도 모른 채, 아델라는 꿈에 빠진 듯 몽롱한 눈빛으로 뺨을 붉혔다. 자신을 꼭 닮은 아델라. 꽃처럼 청초하고 푸르른 새싹처럼 생기 있는 예쁜 아이.닮을 거라면 얼굴이 추해도 좋으니 자신의 지혜로움을 빼닮았다면 좋았을 것을. 사이프러스 공자에게 빠져 그 아비인 공작의 말이라면 뭐든 믿고 따르는 자신의 딸은 열일곱이란 나이에 걸맞게 사랑스러웠고, 더없이 멍청했다.“그랬군요. 사이프러스 공작이.”그녀가 보기에 아델라는 그다지 똑똑하지 않았다.똑똑하지 않기에 더욱 얌전히 입을 다물고 자신을 갈고닦아야 할 시기에 사이프러스 공작의 달콤하고 멍청한 말에 속아 겸손과 지혜 대신 오만과 무지를 답습한다니.왕비는 아델라를 손에 쥐고 흔들려 드는 멍청한 사이프러스 공작에게 깊은 분노를 느꼈다.왕은 애첩 루드밀라에게 빠져 모든 정무를 등한시했고, 대부분의 일은 왕비인 그녀와 그레이트 체임버의 관료들이 맡아 했다.‘그리고 그 그레이트 체임버에 가장 많은 방을 하사받은 것은 엘로이 후작. 실제로 업무를 맡은 귀족의 반은 후작의 추종자나 다름없지.’그레이트 체임버에 방 하나 하사받지 못한 사이프러스 공작이 아니라. 사이프러스 공작가 하나의 힘으로는 엘로이 후작을 귀찮게 할 수 있을지언정, 그를 다치게 할 방법이 없었다.그녀는 왕성 안에 살면서도 이런 사실 하나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아델라에게 깊은 실망을 느꼈다.“좋아요. 이 이야긴 그만두죠. 아델라, 엘로이 후작은 유능하고 리암에겐 유능한 지지자가 많이 필요해요. 그대도 알 거라고 믿어요.”아델라가 불퉁한 표정을 숨기지 않은 채 눈을 내리깔았다.“그대는 왕녀로서, 리암을 지지하는 왕족으로서 역할을 해내지 못했으니, 그대의 모든 대외활동을 중지하겠어요.적어도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왕녀 궁에서 한 발도 나가지 말고 반성하며 기다리도록 해요.부디…, 내가 왕녀를 쓸모없다 여기지 않게 해주길 빌어요.”고작 알량한 힘 하나 믿고 설치는 후작 하나 때문에 너무한 처사라고 항의하려던 아델라는 왕비의 서늘한 마지막 말에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다.그리고 이내 퇴석하겠다 말하며 왕비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내가, 이 나라의 왕족인 내가 그따위 후작 놈 하나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한다고?’자신의 궁으로 걸음을 옮기는 아델라의 턱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사이프러스 공작을 불러들여 이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 한껏 불만을 토로하고 지혜를 빌리고 싶었지만, 아델라는 참았다.자신이 사이프러스 공작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걸 아는 순간 비정한 자신의 어머니, 카이라가 정말 자신을 쓸모없는 패로 여길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비취색 눈 가득 억울함이 고였다.달리듯 자리를 빠져나가는 아델라의 뒷모습을 보며 왕비, 카이라는 한숨을 쉬고 로델리아 공작에게 애써 미소 지었다.“아버님을 모셔두고도 못난 모습만 보여 드렸군요.”“아닙니다.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없음에 죄송할 따름입니다.”백발이 성성한 로델리아 공작은 제 얼굴을 손으로 한 번 쓸어내렸다. 그가 생각하기에 아델라는 카이라의 외모와 현왕의 성격을 빼닮았다. 아름답고 오만한 아델라.‘반대였다면 좋았을 것을.’그가 쓰게 웃었다. 그도 카이라도 철부지 어린 아이 같은 아델라가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명랑하고 천진한 아델라가 만약 왕녀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아델라를 품에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애정을 퍼부었을 테니까.다만 왕녀라는 신분은 자신보다 왕국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자리다. 무수한 권리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니.“엘로이 후작은…,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아니에요. 아버님. 엘로이 후작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하지만 그의 기분이 단단히 상했으니 한 번은 위로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레이트 체임버의 관료 절반 이상은 그를 따릅니다. 그가 리암 왕자님을 향한 지지를 접으면 지금 그레이트 체임버에서 보여주는 충심도 사그라들 겁니다.”카이라가 비취색 눈을 접어 예쁘게 웃어 보이고 온기가 남아 있는 빈 찻잔을 쥐었다.“걱정 마세요. 제게 재미난 생각이 있답니다.”“과연. 왕비님은 현명도 하셔라.”“편지?”실리가 제 손에 쥔 편지를 자신의 책상 위로 휙 던졌다. 마음 같아선 구겨버리고 싶었으나, 편지 겉봉투에 적혀있는, ‘페일 렘넌트 드 엘로이 후작님께, 애정을 담아 달리아 아펜첼 드 마이엔펠트’ 라는 문구 때문에 참을 뿐.실리와 함께 집무실에 있던 론이 책상 위로 던진 편지를 집어 들어 읽었다. 실리가 얼굴이 붉어질 만큼 화가 났음에도 편지를 멀쩡히 두다니. 론은 속으로 감탄했다.달리아의 편지는 짤막했다.[페일 렘넌트 드 엘로이 후작님께.잘 지내셨으리라 짐작하며 인사는 줄입니다.달리아꽃을 본 적 있으신 줄로 압니다.제 이름도 그 꽃을 따왔다는 걸 말씀드린 적 있던가요?저는 최근에 만개한 달리아를 보러 다녀왔답니다.한데 달리아의 주인이 조그마한 비취를 아껴 손아귀에 꼭 쥐더군요.저는 그녀의 보물에 흠집이 없길 빌어주었지 뭡니까?애정을 담아, 달리아 아펜첼 드 마이엔펠트.]“영애께서 꽃놀이를 다녀오셨나 보군. 정말 착하신 분이야.”타인이 아끼는 보물을 함께 아껴준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하신지. 론이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작태에 실리는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한쪽 눈만 치켜떴다.대체 뭐라는 걸까? 저 멍청이는.“달리아님은 착하지도 순하지도 않아. 여기서 착하고 순해 빠진 건 자네뿐이야. 멋쟁이 기사님.”“이 편지는 그럼 무슨 뜻이지?”론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도 수도 귀족들은 편지에 말을 베베 꼰다는 것 정도는 안다. 다만 달리아도 그렇게 말을 베베 꼬았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지.제법 뻔뻔한 그 행동거지에 ‘우리 기사님, 점점 뻔뻔해지시는 것 같단 말이죠.’라고 비꼰 실리는 한숨을 쉬고서 편지의 의미를 론에게 알려주었다. 이 순박한 기사님은 대체 언제야 귀족 간의 대화를 이해할까.론은 모르겠지만 실리가 봤을 때 달리아의 편지는 다른 귀족들이 보내는 것처럼 은근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도 귀족치고는 아주 노골적인 편이었다.“달리아꽃의 주인은 왕비, 작은 비취는 아델라 왕녀. 그렇다면 그녀가 비취의 흠집이 없길 빌었다는 건 뭘까요, 론경?”실리가 힐에게 말을 가르쳐 줄 때 쓰곤 하는 말투로 물어왔다. 론은 조금 표정을 찌푸렸지만 실리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내놓았을 뿐.“영애는 아델라 왕녀가 상처받길 원치 않는다?”“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요.아델라 왕녀를 꼭 쥐었다는 건 그녀가 왕비에게 벌을 받았단 거고, 달리아 영애가 그녀에게 흠집이 없길 빌어주었다는 건…, 이 일이 여기에서 끝나길 바란다는 거지.경고가 먹힐 건 알았지만 너무 크게 먹혀버렸어. 왕비가 달리아님을 불러들일 줄이야.”게다가 달리아의 주인이라는 표현. 달리아꽃의 주인이 아니라 달리아의 주인.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달리아 꽃에게서 따왔다는 그 문구도. 실리는 이 편지를 당장 페일에게 전해야겠다고 말하며 편지를 론의 손에서 빼앗았다.“흠, 그럼 나는 에드워드를 나오미님 곁에 붙여두고 가지. 곧 나오미님의 오후 일과가 시작될 테니까.”론은 실리가 페일에게 보여줘야 할 것들을 주섬주섬 챙기는 모습을 잠시 보다가 집무실을 나섰다. 실리는 대답도 없이 손만 팔랑팔랑 흔들어 그를 배웅했다.힐은 에드워드가 온 뒤로 꽤 규칙적인 일과를 따르며 생활하게 되었다. 그녀의 아침은 8시에 시작해서, 9시에 밥을 먹고, 11시부터는 글씨 쓰는 연습을 한다.1시가 되면 다시 점심을 먹고 3시부터는 오후 일과를 시작하는데, 보통은 실리의 수업을 빙자한 대화 시간을 3시간쯤 갖고, 6시부터 1시간 산책을 한 후 저녁 식사부터 에드워드와 시간을 보냈다.실리가 바쁜 날에는 실리와의 수업 대신 에드워드와 오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론이 연못가에서 다리를 접고 앉아 쉬고 있는 사슴 모습이 조각된 문을 두드렸다.- 똑똑.“네, 들어오십시오.”방 안에서 들리는 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에드워드는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책을 읽고 있다가 론의 얼굴을 보며 웃으며 책을 덮었다.“형님.”“밥은 먹었나?”에드워드가 우아하게 일어나 그가 자리에 앉도록 안내하려 했지만, 론은 고개를 저었다.“예. 먹었습니다. 형님께서는요?”“곧 먹어야지. 에디, 실리와 나는 지금부터 페일님을 뵈러 가야 해. 괜찮다면 네가 나오미님께 가 있겠니?”론이 에드워드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두드리며 물었다. 거구의 론 옆에서 늘 조그마한 소년 같아 보였지만, 이제 그의 큰 손 밑에서 휘청이지 않을 만큼 훌쩍 큰 에드워드는 꽤 믿음직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살짝 벌어진 입술 틈새로 가지런한 이가 드러났다.“네. 그럼 형님, 바로 가셔야 한다면 같이 나가시죠. 저도 바로 나오미님께 가겠습니다.”에드워드는 가볍고 경쾌한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에드워드가 힐의 예법 친구로 소개받은 후 1주일간 매일 저녁을 함께 먹고, 저녁 식사 후부터 힐이 잠들 때까지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고작 1주일 본 사이치고는 꽤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묘하게 시선을 떼기 어려운 조그만 아이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과,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행동은 신선했다.에드워드는 오늘도 그 아이의 반응이 더욱 다양하게 나올만한 이야기를 준비하려고 800페이지에 달하는 왕국의 지역별 이야기 모음집을 읽으며 그녀를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저녁 식사 전에 만날 수 있다니.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서렸다. 어서 그녀에게 오늘 읽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에드워드는 힐이 있을 조그만 응접실로 가는 십 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다.“에드워드?”에드워드가 밝은 미소와 함께 힐의 응접실에 도착했을 때, 힐은 소파에 배를 깔고 엎드려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이다가 엎드린 채 모습에서 상체만 세우고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동그랗게 커진 눈에 점점 기쁨이 서리는 모습을 만끽한 후에야 에드워드는 응접실 문을 닫고 힐의 옆으로 가 무릎을 굽히고 힐과 시선을 맞췄다.“나오미.”그가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고는 그녀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휙 들어 올렸다. 힐은 순식간에 에드워드의 머리 위까지 번쩍 들렸다가 조심스러운 그의 손짓을 따라 소파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다.놀람과 약간의 공포가 지나가고 난 그녀의 얼굴에는 반짝이는 호기심만 가득 남아 빛이 났다.“혼자 계시더라도 소파에 엎드려 계시면 안 됩니다.”“그런가요? 실리는 혼자 있을 때 많이 엎드려두지 않으면 커서 후회할 거라고 그랬어요. 좀 더 게으름을 잔뜩 부리라고 그랬다고요?”“실리님이요? 아 이런. 그렇다면.”힐이 실리 핑계를 대자, 에드워드는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는 장난기를 읽고 장단을 맞춰 약간은 과장된 몸짓으로 손을 가슴 앞에 대며 몸을 숙이며 짓궂게 웃어주었다.힐의 뺨은 분홍빛 생기가 돌았다. 아직 또래 아이처럼 젖살이 붙으려면 한참 멀었지만 웃음을 터트리는 목소리나 따끈한 체온은 힐에게 깊숙이 남아 있는 고된 노동의 흔적을 약간은 지워주었다.“뭘 하고 계셨나요?”“아! 글씨 연습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었어요!”힐이 소파 위에 잔뜩 널려둔 종이 몇 장을 모아 에드워드의 앞에 펼쳐 보여주었다.삐뚤빼뚤한 글씨로, ‘안녕하세요. 평안하신가요?’ 같은 인사말이 무수히 적힌 종이 한 장과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그려진 종이 세 장이 에드워드의 눈앞에서 좌르르 펼쳐졌다.에드워드는 종이 가득 그려진 나뭇잎을 가리키며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고동색 잉크로 그린 나뭇잎은 삐뚠 글씨와 달리 제법 섬세하고 그럴싸했다.“쉰 시간이 더 많군요?”“앗. 히히. 실리 눈은 정원 나뭇잎 같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려고 그렸어요. 실리 줄 거에요.”어제 같이 산책하러 가자고 했는데, 실리는 바빠서 밖에 못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실리는 밖에 잘 안 나간대요. 힐이 즐거운 듯 키득키득 소리 내어 웃었다.“선물인가요?”힐의 눈이 반짝였다. 에드워드는 그 눈에 시선을 뺏기는 바람에 소리 내 웃지 말라고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네!”제 건요?”그 반짝임에도, 거기에 시선을 뺏겨 웃는 법을 가르칠 타이밍을 놓친 자신에게도 어쩐지 조금은 심통이 나서 에드워드는 나뭇잎이 그려진 종이로 입가를 가렸다. 입술에 닿는 서늘하고 꺼끌꺼끌한 종이 감촉이, 코끝에 맺히는 잉크 냄새가 그의 심통을 부추기는 것 같았다.“엣?”힐은 조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받았다는 듯 눈을 둥글게 떴다. 에드워드의 눈이 조금 더 가늘어졌다.“제 눈도 초록색인데.”에드워드는 힐의 앞으로 성큼 다가가,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그녀의 얼굴에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제 눈을 보라는 듯이.힐의 시야가 에드워드로 꽉 찼다. 숨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본 에드워드의 눈동자는 실리보다 더 옅은 초록색.‘실리가 큰 나무에 달린 나뭇잎 색이면 에드워드는, 에드워드는...’“꽃잎 밑에 있는 초록색은 뭐라고 불러요?”힐이 에드워드의 눈동자에서 시선을 떼지도, 고개를 멀리 떨어트리지도 않고 물었다. 힐이 작은 목소리로 소곤댈 때마다 에드워드의 얼굴에 그녀의 숨이 자꾸 닿았다.간지러웠다. 간지러운 게 숨결이 닿은 얼굴인지, 힐에게서 나는 비누 냄새를 맡은 코인지. 알 수 없지만, 어딘가가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었다.“꽃받침이라고 부릅니다.”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지난 일주일간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던지는 힐에게 익숙해진 에드워드는 당황하지 않고 낮게 웃었다.그리고 조곤조곤 물어오는 분홍빛 입술에 잠깐 시선을 주었다가, 살짝 시선을 올려 다시 그녀와 눈을 맞추고 힐이 그랬듯 작은 목소리로 느지막하게 속삭였다. 그의 시선을 따라 황금빛 긴 속눈썹 만든 그림자가 길어지고, 짧아졌다.“에드워드의 눈은 꽃받침이에요.”꽃잎 그림자에 가려진 여린 초록색이 황금빛 속눈썹 그림자에 가려진 에드워드의 눈망울과 똑같으니까.힐은 그의 눈망울에 드리우는 그림자마저 금빛이 나는 것 같다며 웃었다. 실리에게 주려고 나뭇잎을 그렸다며 웃던 것처럼 천진하게 웃음소리를 내며.에드워드는 충동적으로 손을 들어 힐의 분홍색 입술을 손등으로 지그시 눌렀다. 그리고 의아한 듯한, 아직은 웃음이 채 가시지 않은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뗐다.“...소리를 내서 웃는 건 우아하지 못해요. 이렇게 입꼬리만 올려 웃어보세요.”그는 말랑한 감촉이 남아 어쩐지 찌릿한 느낌이 드는 손등을 그녀의 입술에서 떼고 양쪽 검지 손가락으로 그녀의 입꼬리를 위로 끌어당겼다. 어설픈 미소가 입가에 걸렸다.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그녀의 무구함에 맞지 않는 미소가.‘간질대던 느낌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에드워드가 그 어설픈 미소를 보며 그녀에게 바짝 붙어 있던 몸을 뒤로 물리려던 때, 힐이 자신의 입꼬리를 올리고 있던 에드워드의 손을 붙잡았다.“알려줘서 고마워요, 에드워드.”힐이 웃었다. 소리를 내서 웃진 않았지만, 그녀의 고른 치열이 보일 정도로 함빡 웃음 지었다.에드워드는 자신의 손을 잡은 조그만 손의 온기와 햇볕 같은 웃음과 눈망울에 비친 얼빠진 제 모습 때문에 힐이 스스로 몸을 돌려 그에게서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가까이 서 보는 그녀의 눈망울은 거울처럼 얼빠진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어서. 자신의 명치에나 닿을까 말까 하는 작은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산책하러 가고 싶어요. 꽃받침을 보고 싶어요.”“잠시 다녀오는 것도 좋겠죠. 밖은 추우니 겉옷을 가지고 오세요.”힐은 어딘가 얼빠진 에드워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대다가, 고개를 흔들지 말라는 잔소리를 실컷 듣고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포르르 도망쳤다.에드워드는 그녀가 사라진 응접실 소파에 앉아 미처 정리하지 못한 나뭇잎이 그려진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제 손등으로 입술을 덮었다.그는 드레스룸에서 힐이 옷걸이를 뒤적이는 소리에 손등을 얼굴에서 떼고 종이로 얼굴을 덮었다. 입술에 닿는 종이의 감촉도, 코에 스치는 잉크 향도 어딘가 쌉싸름했다.종이로 다 가리지 못한 귀가 붉었다.“달리아가?”페일은 실리가 팔랑팔랑 흔들며 당장 찢어버리고 싶다는 듯 노려보는 편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오늘은 토벌을 대비해 몸을 풀 겸 연무장에 나와 있던 터라, 론이 그가 편지를 편히 볼 수 있도록 그의 목검을 받아 한 구석으로 치우고 벤치 대용으로 쓰는 스툴을 가져와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었다.“아. 왕비가 달리아에게 수를 썼나 보군.”달리아와 왕비의 관계에 대해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던 실리와는 다르게 페일은 태연히 편지를 읽고 네모반듯하게 접어 실리에게 건네주었다.“예? 그게 끝인가요?”실리는 응접실과 집무실, 그의 프라이빗룸과 서재까지 모조리 뒤지며 페일을 찾아다닌 시간이 아까울 만큼 밍숭맹숭한 반응에 눈을 모로 떴다.“눈이 생선 눈알 같군. 바닷속 깊이 사는 생선 눈알.”페일은 그의 표정을 보고 픽 웃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몸을 움직였더니 검을 휘두른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땀이 제법 나서 등허리며 가슴팍이 온통 땀으로 절었지만, 기분만은 상쾌했다.“수건을 가져오겠습니다.”“됐어. 일감을 잔뜩 지고 왔으니 일을 해야지. 들어가지.”론이 그의 젖은 셔츠를 보다가 저택 안으로 몸을 돌리려고 하자 페일이 고개를 저으며 손목을 감아둔 아대를 끌렀다. 손목, 팔꿈치, 무릎처럼 다치고 나면 쉬이 낫지 않는 곳마다 주렁주렁 달고 있던 보호대가 그의 손에서 툭툭 풀렸다.“론, 목욕물을 미리 채워두라고 해. 응접실에서 먹을 걸 주문해두고.”“예. 먼저 돌아가겠습니다.”페일이 문득 생각난 듯, 론을 저택으로 미리 돌려보내고 끌러낸 보호대를 스툴 위에 차곡차곡 쌓았다.“기다림은 미덕이죠. 목욕물도, 음식도요. 미리 준비해 버릇 하시면 인내가 쌓이질 않는답니다.”실리는 그가 허리에 찬 복대를 끝으로 모든 보호구를 풀어낼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다, 그에게 조언하듯 핀잔을 남기고는 스툴째로 전부 들고 연무장 한구석으로 걸어갔다.“심통이 잔뜩 났군.”페일이 웃으며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그의 똑똑한 부관은 자신의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이 다시 자신의 손바닥 위로 돌아올 때까지 강박적으로 굴곤 했다.“달리아는 신경 쓰지 말도록. 조슈아 왕자에게 보낸 전령은 어차피 경고일 뿐이니. 답장이 어떻게 오든 누구를 통해 오든 신경 쓸 거 없어. 경고했으면 그걸로 끝이야.”페일은 느긋하게 실리를 다독이듯 말했다. 그 말에 멈칫한 실리가 스툴을 휙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페일을 빤히 바라봤다. 그의 푸른 눈 뒤편에 있는 생각을 읽어내려는 듯이.“경고는 끝났지만 다른 불씨가 타기 시작했을 수 있죠. 왕비 전하가 얼마나 현명한지 있으셨나요?달리아님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들면 곤란해집니다. 제가 하는 연구도, 페일님의 이상도 십 년은 뒤로 밀리겠죠.”그는 달리아의 편지 때문에 머릿속이 터져나갈 지경인데 정작 페일이 저렇게 태연하게 구니 도무지 침착함을 고수할 수 없었다.실리는 자신의 입술을 세게 물었다. 방음 하나 되지 않는 바깥에서 분에 못 이겨 자신과 페일만이 공유하고 있던 계획을 떠벌리지 않기 위해.“바보 같은 소리를.”페일이 입가를 쓰다듬었다. 그의 입꼬리가 삐죽 위로 치켜 올라갔다.“달리아는 왕비에게 통제당할 만큼 피가 옅지도 멍청이도 아니지. 그녀가 우리 계획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가진 것도 달리아에게 필요해.그녀가 감정적으로 굴지만, 않는다면, 계획까진 함께 갈 수 있겠지.”페일은 화가 쌓일 때마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달리아를 잠깐 떠올렸다. 소국에서 가장 위험한 폭탄 달리아 아펜첼 드 마이엔펠트. 주황색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다니는 곳마다 사고를 쳤었지.“왕비가 그녀를 다룰 수 있을 것 같나?”페일이 실리를 보며 물었다. 페일은 다룰 수 있을 것 같냐 물었지만, 절대 다룰 수 없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달리아님은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지뢰밭 같은 분이시니까요.”실리도 달리아가 다룰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전에, 실리의 안에서 달리아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단 걸어서 돌아다니는 지뢰밭에 가까웠다.‘지뢰밭은 어디에서 터질지 밟기 전엔 모르지.’달리아가 딱 그랬다. 그녀 곁에 있는 자가 운이 좋다면 달리아는 터지지 않겠지만, 운이 나쁘면 터질 것이다.“그래. 달리아에게 목줄을 걸고 그걸 쥐고 있다 한들 의미가 없어. 게다가 왕비 전하는 영민하시니 굳이 나를 눌러보겠다고 달리아를 이용할 멍청이도 아니고.”달리아가 제 주인이라고 참을 리 없는데. 실리는 그제야 페일이 덤덤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실리의 주인은 왕비가 달리아를 다룰 수 있을 리 없겠지만, 다룰 수 있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패를 손에 쥐고 고작 페일을 밀어내고자 그 패를 꺼내진 않을 테니까.“그럼 무대응으로 일관하겠습니다.”실리는 잿빛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고는 조금 지친 듯 한숨을 쉬었다.“그래. 적어도 아직 왕비와 우리는 적대관계가 아니니, 그쪽에 힘 빼지 말도록 해.”지친 실리의 어깨를 두드리고 페일은 조금 돌아가는 길로 저택을 향할 걸었다. 몸을 잔뜩 쓰고 난 후에는 천천히 걸어주는 편이 좋다. 보통을 마사지를 받을 테지만, 그는 무방비하게 타인의 손에 몸을 맡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운동 후에는 조금 걸으며 근육을 진정시키는 쪽을 선호했다.걷는 것을 싫어하는 실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페일의 뒤를 따라 걸었다. 이 길로 가면 이십 분은 걸어야 저택에 돌아갈 수 있는데. 실리가 구시렁거렸다.“그대는 조금 더 움직여야 해. 매일 한 시간은 걷고 있나?”“물론이죠. 제 방에서 연구실로 두 번만 왕복해도 한 시간인데.”“수도 저택이 커서 다행이군.”그들이 잡담을 나누며 저택 쪽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부터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다.“아. 에드워드와 아가씨네요.”실리가 귀를 쫑긋 세우는가 싶더니, 금세 힐의 목소리를 알아채고 페일에게 알려왔다. 페일은 걸음을 멈췄다. 쉼 없이 조잘대는 목소리 하나와 맞장구치듯 가끔 대답만 하는 소년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하더니, 곧 페일과 실리의 시야에 에드워드와 힐이 보였다.해를 따라 고개를 돌리는 커다란 해바라기를 앞에 두고 두 금발 머리 아이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다.“둘 다 금발 머리라서 그런가. 해바라기도 햇볕도 잘 어울리네요.”힐의 머리카락은 아직 에드워드처럼 윤기가 흐르는 금발로 보이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실리는 제가 보살피는 아가씨의 푸석한 머리카락도 에드워드와 묶어 금발 머리로 퉁쳤다.“에드워드와 둘이 붙어 다니나?”“네. 제가 없을 땐 에드워드가 아가씨 곁에 머무르게 하고 있으니까요.”“붙여 놓으니 나오미가 너무 작아 보이는데.”실리는 조금 미간을 구겼다. 저놈의 작다 소리에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아가씨는 최선을 다해 크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식물도 아니고 한 달에 1cm만 자라도 아주 잘 자라고 있는 편이죠.”나오미 아가씨, 한 달 동안 1.4cm나 크셨단 말입니다. 실리는 억울함을 꾹꾹 담아 말했지만, 페일은 무시하고 몸을 돌렸다. 그들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저택에 가기 위해.“잘 먹이고 잘 재워. 많이 걷게 하고. 내가 토벌에서 돌아올 때쯤 다시 확인하지.”“...네. 힘... 내보죠.”“좋아, 이쯤에서 마무리하지.”실리가 품에 소중히 끌어안고 온 서류와 토벌 관련 사항 점검을 마치고 페일은 업무 종료를 선언했다. 실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이라고 중얼거리곤 뻑뻑한 눈두덩이를 꾹꾹 눌렀다.‘피곤해.’흘깃 밖을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실리는 인제 그만 방에 들어가 잠이나 진탕 자고 싶었지만 솟구치는 수면 욕구를 꾹 눌렀다.“페일님 출정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출발하신다면, 오늘 저녁은 나오미님과 함께 하심이 어떠신가요?”“저녁을?”론이 테이블 위에 대충 널부러진 빈 접시를 흘깃 바라봤다. 그들은 일하는 내내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푸짐한 샌드위치를 잔뜩 먹었는데 또 저녁을 먹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이.“기사님은 연달아 열 끼도 드실 수 있으면서 그런 표정 하지 말아주시죠.”실리가 약간은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잔뜩 움직이고 잔뜩 먹고, 또 잔뜩 움직이는 사람이 뭘 좀 먹었다고 식사를 못할 리 없음을 잘 아는 까닭에. 실리가 투덜대기 시작하자 론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응시했다.“아직 둘 다 기운이 남았나 봐? 티격태격하는 걸 보니.”페일이 실리가 앉은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빙긋 웃었다. 론과 실리의 눈 밑은 이미 거뭇한 데 비해 페일의 잡티 하나 없는 흰 얼굴은 번쩍번쩍 광이 났다.서류나 좀 더 볼까. 페일이 나지막이 말하자 실리는 ‘아뇨, 얌전히 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실리는 이유 모를 억울함에 떨었다.“그래. 당장 내일 출정할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다 함께 들지. 나오미와 에드워드 둘 다 부르도록.”“제가 가서 전하죠. 식사 때 다시 뵙겠습니다.”실리가 곧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페일의 응접실에서 하도 일만 했더니 이제 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조차 일하는 기분이 들어 조금 진절머리가 나던 차라, 응접실을 벗어나는 발걸음은 더없이 경쾌하고 재빨랐다.응접실 문을 닫는 실리의 등 뒤로 페일이 낮게 웃는 목소리가 얼핏 들렸다. 론이 ‘페일님?’하고 부르는 목소리도.실리는 팔을 위로 쭉 뻗으며 기지개를 켰다. 쭉 앉아 있었더니 몸이 찌뿌둥했다. 말을 많이 해서 목도 좀 아팠고.“아직 정원에 계시는 것만 아니면 좋겠는데.”실리는 정원에 다시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나오미와 에드워드가 그녀의 응접실에 있기를 빌었다. 페일이나 다른 부관들이야 몸이 굳는다며 툭하면 밖을 뛰어다니고 목검을 들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기본 동작을 수백 번씩 연습하지만, 실리는 몸이 찌뿌둥하다고 해서 운동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몸이 고되면 쉬어야지 왜 또 몸을 움직인단 말인가.실리는 힐의 방을 향해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게으름은 피울 수 있을 때 잔뜩 부려야 하는 법이니까. 그는 게으름을 사랑해야 마법이 발전한다는 어느 현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편이었다.똑똑“네, 들어오세요.”실리가 문에 노크하자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들어오라는 말에 피식 웃으며 문을 열었다.“아가씨, 누군지도 안 묻고요?”“실리일 줄 알았거든요.”웃음기 서린 질책에 힐은 우아한 영애들처럼 양손을 무릎 위에 곱게 포개고 앉아 태연히 대꾸했다.“이야-! 우리 아가씨, 점점 자세가 좋아지네요. 에드워드 덕분인가.”“그럴 리가요. 나오미님께서 영민하신 덕입니다.”실리가 들어올 때부터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에드워드의 이름을 입에 담자 그가 고개를 약간 들고 가슴 앞에 한 손을 올려 몸을 숙였다.예절을 사람으로 만들면 이놈이 되려나. 실리가 웃으며 그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헝클어트렸다. 에드워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몸을 바로 세우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다.그 몸짓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서 실리는 감탄을 숨기지 않았다. 에드워드는 생김새도 귀한 티가 났지만, 그 몸짓 하나하나가 아주 우아해서 보고 있자면 꼭 어느 성화 속 천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는 듯해 감탄을 숨기는 쪽이 이상하다 여겨질 정도였으니까.“에드워드를 보니 우리 아가씨는 한참 멀었네요.”“더욱 정…. 정진하겠습니다?”힐이 더듬더듬 말끝의 음을 휙 올리자, 에드워드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아직 말이 익숙하지 않아 자꾸 물어보듯 종결 어미에 강세가 들어가는 게 좀처럼 고쳐지질 않아서.실리는 힐이 눈짓으로 에드워드의 표정을 살피는 것을 보았다. 자신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차린 듯해서 실리는 힐의 실수를 지적하는 대신 그녀의 볼을 살짝 잡아당기고, 머리를 쓰다듬었다.“아가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정진할 필요 없어요. 게으름 피울 수 있을 때 실컷 게을러야 한다구요.”“엎드릴까요?”“좋죠.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가죠.”힐은 실리가 던지는 농담과 무게가 비슷한, 가볍기 짝이 없는 말에도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대꾸했다.‘게으름을 엎드리는 걸로 알고 있네.’잘못 아는 부분을 정정해줄까 잠깐 고민하던 그는 다음 기회에 정정해주기로 했다. 미간을 모으고 입술을 꾹 눌러 모으며 짓는 표정은 심각해 보이기보단 귀여워서. 실리는 힐의 진지함에 장단 맞추듯 웃음기를 싹 빼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좋아요. 밥은 중요한 거니까.”힐은 자신을 향해 펼쳐진 실리의 손을 물끄러미 보다가 한참 후에야 조그만 제 손을 얹었다.실리와 에드워드는 힐의 행동과 말 사이 공백에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녀가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은 채 힐을 기다려주었다.“에드워드는요?”실리가 천천히 그녀를 식당으로 에스코트하려는데, 힐이 그의 손을 살짝 잡아당기며 물었다.“아. 에드워드, 너도 같이 가야 해.”그제야 페일이 둘 다 데려오라고 했던 게 떠올라 실리는 고개를 돌려 에드워드를 불렀다. 그가 빈손을 들어 어서 오라는 듯 팔랑팔랑 손짓했다.“초대에 감사드립니다.”“초대는 페일님이 하셨으니 이따 뵙거든 인사드려. 아가씨도요.”에드워드가 차분히 인사를 건네자, 실리도 대수롭지 않은 듯 대꾸했다. 페일의 이름을 대면서도 평화롭기 그지없는 그들과는 다르게 힐은 눈이 동그래지고 복숭앗빛 뺨에 생기가 더해졌다.‘페일님.’자신이 나오미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일까? 힐은 이상하리만치 그가 좋았다. 마주칠 때마다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선도, 아주 가끔이지만 낮게 웃을 때의 목소리도, 가끔 창밖에 시선을 던지는 근사한 푸른 눈동자도 전부 좋았다.실리나 머크, 에드워드가 그렇듯 그녀 곁에 머무르며 대화를 오래 나누지 않아도 힐은 페일에게 알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다. 그녀는 실리가 이끄는 대로 천천히 걸으며 그 친밀감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했다.‘에드워드가 들려준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사랑이나 우정은 아닐 거야.’아직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아 잘 몰라도, 사랑이나 우정은 아닐 거라고 힐은 단정 지었다.‘우정도, 사랑도 같이 있고 싶어지고 보고 싶다가, 그리워하는 거야.’힐은 페일과 같이 있고 싶었지만 없을 때 보고 싶지도, 그립지도 않았다. 막연하게 자신이 따를 사람이라는 이 느낌을, 함께 있을 땐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 헤어질 때 아쉬운 기분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힐이 오늘도 결론 짓지 못할 생각을 한참 하는 사이, 페일과 식사를 할 때 종종 이용하는 대식당에 도착했다.집사가 대식당의 문을 열어주자, 새하얀 식탁보를 깐 기다란 테이블과 이미 도착해 자리를 지키고 있던 론과 페일이 보였다.“페일님.”힐이 조그맣게 그를 부르며 치맛자락을 슬쩍 잡고 무릎과 허리를 굽혔다. 가장 상석에서 지루한 듯 분홍색 와인이 반쯤 찬 와인 잔을 돌리던 페일의 시선이 힐에게 닿았다.“페일님, 초대에 감사드립니다.”힐의 뒤에서 고개를 숙이는 에드워드까지 훑어본 후에야 페일은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았다.“좋은 저녁이야. 초대에 응해주어 고맙군.”페일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온통 신경을 쏟는 두 아이의 뒤로 실리가 방긋 웃었다. 평소라면 ‘앉아.’ 한 마디로 끝냈을 페일이 힐의 예절 수업이 시작된 후로 약식이나마 제대로 된 인사말을 건네다니.제 주인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잡고 있던 힐의 손을 이끌어 그녀가 앉을 자리까지 에스코트해 주었다.“고마워요, 실리.”실리가 빼준 의자에 냉큼 올라앉으며 힐이 그의 귓가에 소곤소곤 속삭였다. 아직 이 커다란 식탁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 곤란하던 참이라, 페일의 앞에서 또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는 게 좋았다.“뭘요. 그런데 자리는 얼른 외우실 거죠?”실리도 힐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귓가에 대고 작게 속삭이고 장난스레 눈짓하자 힐은 살포시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다.식사를 위해 모인 모두가 자리에 앉자, 시중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식전주와 에피타이저 몇 가지를 올렸다.“용건부터 간단히 할까.”페일은 자신 앞에 놓인 금빛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운을 뗐다.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이 페일에게 쏠렸다.“이왕 모인 건데, 공치사부터 해주시는 건 어떠신가요?”실리가 자신의 잔을 슬쩍 들어 올리며 은근히 물어오자, 페일은 ‘풋’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페일은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서두를 길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정찬 때 늘 부른 이유나 이야기하고 식사를 시작했지만, 형식을 귀히 여기는 귀족들은 정찬 전에 항상 공치사부터 시작하는 길고 긴 연설을 하고는 했다.“좋아. 그럼 공치사부터.”식탁 위에 작은 웃음이 번졌다. 공치사가 뭔지 모르는 힐만 빼고. 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얼어있었다.“실리, 론. 토벌 준비를 빠르게 해치우고 있더군. 맘에 들어. 남은 것들도 곧 마치리라 믿지.”“최선을 다하겠습니다.”“최선을 다하겠습니다.”페일이 실리와 론에게 공치사답게 영혼이라곤 조금도 없는, 조금은 무성의한 칭찬과 독촉을 하곤 잔을 들었다. 론은 언제나와 같은 무표정으로 실리는 약간은 떫은 미소로 대답하고, 잔을 들어 허공에서 페일과 잔을 맞부딪히는 시늉을 하고는 단숨에 삼켰다.달큰한 샴페인이 찌릿하게 목을 타고 흘러내려 갔다.“에드워드. 나오미를 잘 보필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후로도 네 역할을 잊지 말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에드워드는 페일의 두 부관이 그랬던 것처럼 잔을 들어 부딪히는 시늉을 하고 샴페인을 삼켰다.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에드워드가 샴페인을 모두 마시는 걸 바라보던 힐은 페일이 자신을 쳐다보는 걸 깨닫고 나서야, 페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를 하고 음료를 한 번에 다 마시는 건가 봐.’힐은 당장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막상 제 차례인 듯 페일이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자 도무지 누군가에게 물어볼 자신이 없어졌다.타인에게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은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페일 앞에서만큼은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랬다간 혼이 날 것 같다거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면 지금은 별 이유 없이 그냥 드러내는 게 싫었다.힐의 안에서 부끄러움이라는 사치스러운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힐만 몰랐다.“나오미. 한 달간 1.4cm가 자랐다고 들었다. 다음 달에는 그보다 더 클 수 있도록 해라.”“최선을 다하겠습니다.”힐은 앞선 세 명이 그랬던 것처럼 잔을 들고, 허공에서 한 번 흔든 다음에 벌컥벌컥 안에 든 사과 주스를 마셨다. 달콤한 사과 주스에 꿀을 가득 넣어 혀가 아리도록 단 음료는 단숨에 힐의 불안을 씻어내리고 기분을 황홀하게 만들어주었다.힐이 음료를 다 마시고 제 입술을 혀로 핥는 모습을 보며 페일이 웃었다. 혼자 잔뜩 낑낑대길래 무슨 생각을 하나 싶었는데, 음료를 마시면서 금방 표정이 밝아진다.조그만 얼굴에서 쉴 새 없이 바뀌는 표정을 보는 건 즐거웠고, 손을 뻗어 입가에 묻은 주스를 닦아줄까 잠시 고민할 만큼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고생한 너희를 위해 준비한 만찬이다. 충분히 즐기도록.”페일이 만찬 시작을 알리며 잔에 든 샴페인을 단숨에 털어 넣었다. 페일까지 샴페인을 모두 마시자 시중인들이 재빨리 식사에 어울리는 드링크로 잔을 바꾸고 따끈한 음식을 차례대로 들여왔다.“휴우.”모두 식기를 들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이제야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끝났다는 생각에 힐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실리가 그 한숨을 듣고 킬킬 웃었다.“제대로 된 정찬은 처음이시죠? 잘하셨어요.”“고마워요….”힐은 긴장이 풀리자 약간 피곤했지만,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법이라든가, 멀리 떨어진 음식을 먹는 방법은 힐도 다 아는 내용이라 무리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었다.조용한 식사가 한참 이어지고, 마지막 디저트가 나올 무렵에 힐은 너무 많이 먹어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다.“아. 나오미, 에드워드.”문득 생각난 게 있다는 듯, 페일이 둘을 불렀다. 에드워드와 디저트로 나온 달달한 브라우니를 초콜릿 시럽에 퐁당 담그던 힐의 시선이 페일에게로 쏠렸다.“나와 론은 곧 토벌을 나간다. 따로 출정식은 없으니 인사는 오늘 정찬으로 대신하지.실리가 내가 없는 동안 저택을 지킬 테니 필요한 게 있다면 그를 찾도록 해라.”페일이 마치 산책하러 나간다는 듯 평온하기 짝이 없는 투로 출정 소식을 알렸던 다음날 달빛이 채 가시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저택은 온통 출정으로 부산스러웠다.잠에서 깬 건지, 아예 자지 않은 건지 모를 시중인들이 바쁘게 뛰어다녔고, 페일이 갑옷을 챙겨 입는 동안 미리 준비를 끝낸 기사들이 차가운 새벽바람에 말의 몸이 식지 않도록 저택 주변을 따라 말을 걷게 했다.그들의 대화 소리와 말발굽 소리, 사용인들이 뛰어다니며 내는 소리가 모두 합쳐져 부산스러운 분위기가 알음알음 퍼졌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힐도 그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자신의 서재 창가에 의자를 가져다 두고 앉았다.온갖 시끄러움에서 유리된 듯 고요한 그녀의 서재는 힐이 창문을 열었을 때야 온갖 소리가 밀려들었다. 힐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바쁘게 움직이는 저택에서 홀로 붕 뜬 것만 같은 이 공간이 그제야 세상에 발을 붙인 것 같아서.힐은 창가에 팔을 얹고 그 위에 얼굴을 기댔다. 한쪽 귀가 팔에 눌리자, 말이 움직이는 소리며 기사들의 갑옷에서 나는 둔탁한 쇳소리가 자신의 맥박과 함께 통통 튀는 것처럼 들렸다.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 멍하니 하나, 하나 사람들이 오가는 걸 지켜보다가 멀리에서도 화창히 빛나는 금발 머리를 발견했다.“아. 론경하고 에드워드다.”일찍 자라는 말을 고의로 무시한 건 아니었지만, 눈이 마주치면 당장 침대로 올라가라고 엄한 얼굴을 할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 힐은 고개를 숙이고 눈만 빼꼼히 내밀었다.론과 에드워드는 덩치가 큰 말과 함께 걷고 있었다. 가끔 투닥거리듯 서로를 은근슬쩍 밀기도 하고, 론이 에드워드의 머리를 잔뜩 헝클며 쓰다듬기도 했다. 그건 누구도 힐과 나누지 않는 것들이라 힐은 가진 적도 없는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그 둘에게 고정된 시선을 도무지 돌릴 수 없었다.“배웅도, 안녕도 필요 없다고 그랬으면서. 다 바보야.”에드워드만 배웅하는 건가. 아니, 아마 실리도 배웅하고 있을 테지. 페일님 옆에 있을 거야. 힐은 서운했다. 그녀도 마물이 뭔지, 토벌이 뭔지 이제 알고 있는데. 자신만이 이방인인 것 같은 이 저택에서 같은 이방인인 줄 알았던 에드워드도 저곳에 있다는 게.간신히 저택에 발붙인 공간이 또다시 붕 뜨는 기분. 다시 한번 밀어내진 것 같은, 무거운 상실감이 힐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내가 종이라서 그래.’스스로 납득할 이유를 찾고 나서야 론과 에드워드에게서 눈길을 돌릴 수 있었다. 힐은 낮게 가라앉은 눈으로 처음 보는 기사들에게 뭔가 건네는 시중인들을 보며 피식 웃었다.하나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같은 후작저에서 살고 있지만, 힐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다. 페일과 부관들, 집사, 그리고 눈에 익은 시중인 몇 명. 최근에는 에드워드까지.힐은 저 아래에 있는, 힐이 모르고 힐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갈 수 없는 건 참 싫은 기분이라고 생각했다. 자신도 저 아래로 내려가 말 옆을 함께 걷고 싶었고, 페일의 곁에 있다가 ‘다치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싶었다.마물은 사람을 잡아먹고 물과 땅을 망치는 괴물이라고 했는데. 페일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귀가 닳도록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위험한 괴물을 죽이러 가는 그가 다치지 않길 빌어주고 싶었다. 어쩌면 인사를 핑계로 한 번 더 보고 싶은 걸지도 몰랐다.론이 에드워드에게 하듯, 페일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면. 웃어주시고, 잘했다 칭찬해주신다면 나는 정말 기뻐서 뭐든 할 수 있을 텐데.“아, 실리.”현관문으로 실리가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 느슨한 셔츠와 통이 큰 바지를 입고 위에 긴 붉은 색 가운을 걸친 실리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바닥을 퉁퉁 쳤다. 세게 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점점 그 소리가 크게 들렸다.“-신호를.”실리가 입을 떼자, 그가 퉁퉁 치던 바닥에서부터 새파란 불꽃이 피어올라 하늘로 솟구쳤다.불꽃이 하늘 위에서 후작저를 둘러싸듯 빙글빙글 돌자, 말을 걷게 하던 기사들이 자신의 말에 올라타고 순식간에 현관 앞으로 모여들었다. 거대한 군마들이 내뿜는 기세는 한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힐마저 겁먹을 만큼 위협적이었다.힉. 힐이 몸을 웅크리면서도 궁금증을 참지 못해 고개를 바깥으로 빼꼼 빼고 있을 때, 페일이 저택에서 나왔다. 삽시간에 사방이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지금까지의 부산스러움은 전부 없단 듯이.“말은?”“준비해뒀습니다.”페일이 묻자, 실리가 근처에서 말고삐를 쥐고 있던 종자를 손짓으로 불렀다. 다른 말보다 키가 큰 말의 갈기를 손으로 몇 번 빗겨준 후 페일은 말에 휙 올라탔다.그가 올라타기 무섭게 말을 달려 저택을 한 바퀴 돌았다. 그 뒤로 론을 비롯한 후작가의 기사들이 따라붙었다.말들을 걷게 했을 때 났던 소리가 ‘다그닥, 다그닥’ 정도였다면, 말들이 뛰기 시작하자 마치 천둥이 치듯 ‘두두두’ 하고 큰 소리가 나며 땅이 울리는 것만 같았다. 힐은 창틀을 꾹 붙잡으면서도 시선을 뗄 수 없었다. 페일이 출발하기 전까지 최대한 그를 봐두고 싶었으니까.“말들은?”“다 잘 뛰네요. 이상 없어 보입니다.”순식간에 달려 다시 현관으로 돌아온 페일이 묻자, 기사와 말의 반응을 살피던 실리가 웃으며 대꾸했다.“좋아. 출발!”페일이 능청스럽게 웃는 실리에게 손짓하자, 그가 다시 나무 막대기로 바닥을 통통 쳤다. 저택 위를 빙글빙글 돌던 불꽃이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나가자, 페일이 투구 창을 닫고 그 불꽃이 가는 방향으로 쏘아져 나갔다. 페일과 기사들이 맨 망토가 훅 뒤로 젖혀지며 펄럭이고, 그들의 머리 위를 밝히는 불꽃의 푸른빛에 물든 갑옷은 새벽빛과 뒤섞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냈다.힐은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잘 다녀오세요. 다치지 마시고 오세요. 금방 오셨으면 좋겠어요…….”페일이 얼굴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점이 되어갈 때쯤, 힐은 아주 조그맣게 속삭이며 홀로 그를 배웅했다.힐은 한참이나 더 바깥 구경을 하다가 짙은 피로와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힘들어서 꾸물꾸물 침대에 파고들어 눈을 감았다.“아가씨.”실리가 스프에 얼굴을 박기 직전인 힐의 어깨를 잡아 등을 곧게 펴도록 자세를 잡아주며 말꼬리를 늘렸다. 어젯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이 조그만 아가씨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뭘 먹기는커녕 스푼도 겨우 쥐고 있었다.평소라면 졸리다고 칭얼거리던, 잠을 억지로 참아내고 스프를 먹든 했을 이 조그만 아가씨는 오늘따라 실리와 눈을 맞추기도 거부하고 대답을 하는 일도 없이 계속 졸고만 있었다.“우리 아가씨, 왜 오는 기분이 좋지 않으실까? 아침 식사가 맘에 들지 않으시나요?”힐이 언젠가 품 안에 차곡차곡 빵을 쌓았던 이후로, 그녀의 식사에는 몇 종류의 따끈한 빵이 함께 올라왔다. 언제나 빵을 보면 아닌 척하면서도 해사한 웃음을 지었는데 오늘은 스프만 뜨다 말다를 반복하는 모양이 퍽 이상했다.힐의 시선이 잠깐 실리에게 닿았다. 눈이 마주치자, ‘맛없는 식사를 내오다니. 다 제가 혼내줄까요?’ 하고 묻는 실리의 거뭇한 눈가에 그녀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다.졸음에 힘입어 한껏 토라짐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의 거뭇한 눈 밑을 보니 약간 죄책감이 들어, 힐은 고개를 휙휙 저었다. 피곤해도, 졸려도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실리밖에 없겠지. 거기까지 생각이 닿으니 그녀는 더는 실리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아니요, 나는 스프 좋아해요.”“아가씨는 빵도 좋아하시죠.”실리가 설탕 시럽과 시나몬 가루가 듬뿍 뿌려진 롤 하나를 그녀의 접시에 덜어주었다.‘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땐 우선 단 걸 먹여봐야지. 어린 애는 왕족이건 자유민이건 다 똑같으니까.’실리가 자신이 덜어준 빵을 입에 넣는 힐을 보고 피식 웃었다. 실리의 말이라면 꽤 잘 따라주는 어린아이가 작은 입을 한껏 벌려 빵을 와앙 베어 먹는 모습은 귀여웠다.‘내가 졸린 만큼 실리도 졸리겠지.’둘 다 페일이 떠나는 걸 보고 잤으니. 혀가 아릴 만큼 달콤한 설탕 시럽의 맛이 입안을 꽉 채우자 힐은 졸릴 텐데도 오늘 아침 식사 자리까지 꼬박꼬박 찾아와 준 실리에게 괜히 화풀이를 한 기분이 들었다.힐에게 있어 실리는 이 저택에서 힐을 가장 많이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가장 많은 것을 알려준 사람이었다.게다가 새벽에 있던 일도 힐의 깊은 외로움도 그의 잘못은 아니었다.사실 배웅을 못 하게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배웅은 필요가 없다고 페일이 말했었고, 그는 정말 새벽에 홀연히 떠나버렸을 뿐이다.그가 언제 떠나는지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숨긴 것도 아니었다. 어쩌면 힐이 물어봤다면 알려줬을 수도 있다. 에드워드가 그 자리에 있던 걸 보면.정말 숨겼다면 힐이 먼발치에서나마 페일을 볼 수 있을리도 없었고. 그들은 그냥, 그냥 힐을 따로 불러주지 않았을 뿐이고, 그간의 눈치로 자신은 저곳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힐이 방 안에서 나가지 않았을 뿐이니까.“미안해요. 심술부렸어요.”힐이 자신의 주먹만 한 빵 하나를 몽땅 먹고서 실리의 소매를 잡고 사과했다. 실리는 역시 단 걸 먹이는 게 효과가 참 좋다는, 뜻 모를 말을 중얼거리곤 괜찮다며 그녀의 머리를 슥슥 쓰다듬었다.그가 머리를 쓰다듬어주자, 어쩐지 실리의 손이 어쩐지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기분 좋게 그 따스한 쓰다듬을 즐기려던 힐은 자꾸 새벽에 본 론과 에드워드의 모습에 자신과 실리가 겹쳐 보여서 눈물을 툭 떨궜다. 눈망울에 가득히 눈물이 고이고 떨어지길 반복했다.“아가씨?”그녀를 맡아 교육을 하는 동안 우는 모습을 본 적 없던 실리가 놀라서 몸이 굳었는지,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도 못 하고 얌전히 그녀의 손아귀에 소매를 잡힌 채 서 있다가 와락 품에 안겨 오는 그녀를 어정쩡하게 마주 안아주었다.자주 안고 다녀 익숙한 온기가 그의 품 안에서 바르작대며, 사실 새벽에 페일이 떠나는 것을 봤다고 작게 고백해왔다. 자신을 모르는,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현관으로 뛰어가기가 겁이 났다는 것부터 자기가 봤던 것들, 느꼈던 것을 가감 없이 전부.“배웅을, 나도 배웅하고 싶었어요.”울음에 푹 젖은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실리는 말 없이 그녀를 토닥이며,“아이고, 그랬어요?”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의 짙은 녹색 눈이 어둡게 빛이 났다. 힐이 보여주는 감정적인 빈틈이 기꺼워서.“나… 나도 잘 다녀오세요 하고, 다치지 마시라고 하고 싶었어요….”“아가씨는 페일님이 좋은가요?”페일은 에드워드보다도 힐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적었는데도 힐은 고개를 끄덕여 긍정했다. 이름을 받아서 그런 걸까. 실리는 페일이 이 어린아이에게 곁을 내준 적이 없는데도 그의 곁을 탐하기 시작한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페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끝없이 주입한 보람을 조금은 느끼며.세뇌 약만큼 효과가 좋진 않아도, 교육은 인간을 세뇌하는 좋은 수단이다.‘아는 게 없고 멍청할수록, 감정적으로 몰려 있을수록 더 효과가 좋지.’말로 사람을 세뇌할 때면, 감정적으로 구석에 몰기 위해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고된 노동으로 몰아넣거나, 어딘가에 감금해서 홀로 오랜 시간을 버티게 하는 게 실리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었다.머릿속에 든 생각을 전부 토막 내기 위해. 생각을 멈춘 인간은 무분별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만을 유일한 빛인 양 웅키게 되니 번거롭지만 약 없이도 그럭저럭 길들일 수 있었다.힐에게는 고통을 주긴 커녕 편하고 안락한 환경을 주다보니, 실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 진행이 더뎠는데, 그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힐이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켰다.그의 붉은 입꼬리가 호선을 그렸다. 이제야 괜찮은 방법이 떠올라서. 그는 언제나 그랬듯 기회를 놓치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가 입을 열어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아가씨-, 페일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제가 따를 유일한, 유일한 분이요.”실리가 힐을 번쩍 안아 들어 냅킨으로 빵가루와 시럽이 묻은 입을 닦아주고, 그녀의 응접실에 마련된 하늘색 소파에 앉아서 그녀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그가 상을 주듯 그녀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다. 새벽 내내 차가운 한기와 묵직한 외로움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던 작은 몸은 그 온기에 눅진히 녹아들어 다시는 이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힘껏 그를 마주 안아왔다.“아가씨의 이름을 잊지 말아요. 아가씨가 페일님을 잘 따른다면, 저택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든 페일님 곁에 있을 수 있어요.”실리가 은근한 목소리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힐은 여전히 눈가에 매달린 눈물을 뚝뚝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다.“내가 말을 잘 들으면, 다음에는 배웅할 수 있어요?”“물론이죠. 약속할게요.”아가씨는 페일님의 것인걸요. 그분 곁만이 아가씨의 자리죠. 실리의 목소리는 낮았고, 은근했고, 달콤했다. 힐은 그의 말을 믿었다. 그가 알려준 다른 것들을 믿었듯이.페일님은 내가 따를 유일한 분.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주인. 머릿속이 따끔거리고 이유 모를 불신감이 작게 고개를 들었지만 새벽에 느꼈던 차가운 외로움이 그 불신감을 짓눌러 삼켜버렸다.“나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힐의 목소리가 덩달아 작아졌다.“천천히요. 하나씩 알려드릴테니까. 일단 많이 드셔야죠. 쑥쑥 자라야 다른 것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실리는 웃음을 유지한 채 그녀를 다시 음식이 놓인 테이블 앞에 앉히고 목에 새 냅킨을 둘러주었다.페일의 출정 준비를 돕는 중, 페일의 집무실에서 또 크게 키우라는 말에 시달렸던 것을 상기하며.힐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눈을 꼭 감고서 입에 음식물을 넣고 씹어 삼켰다.먹고 자라면, 몸집이 조금 더 커지고 나면 자신도 저택의 다른 사람들처럼 졸린 눈을 비비며 부산스럽게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현관에 나가 큰 말 옆을 걷다가 눈을 마주 보고 ‘잘 다녀오세요.’하고 인사할 수 있을 테니까.‘내게 이름을 주신 분은, 내게 곁을 내줄 유일한 분.’힐은 입에 넣은 토마토를 짓이기듯 씹으며, 멍하니 생각했다. 침실에서 한참을 뒤척이다 일어나 갔던 서재. 창문을 열기 전까지 서재 안을 메우던 적막. 꼭 세상과 동떨어진 것 같았던 그 고요가 창문을 열 때에야 조금 부서졌었다.그제야 한 가닥쯤은 세상에 맞닿는 것 같다고 느꼈던 그 새벽은 힐이 견디기에 너무 무거워서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사무치게 몸이 추웠다.페일님 곁에 있다면 다시는 그런 적막 속에서 혼자 닿지도 않을 인사를 할 일은 없으리라.‘이젠 혼자 조용히 있는 건 싫어.’종들의 성에 살 때도 막대발이 찾아오기 전에는 늘 홀로 새벽을 지새웠다. 온종일 일을 하고 쓰러지듯 잠들었는데. 이제 그 추위는 잘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게, 조금도 괴롭지 않고 잠들었던 추위 같은 건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았다.힐은 이제 홀로 잠들고 싶지 않았다.누군가가 곁에서 재잘거려주던 기억은 타인의 몸에서부터 흘러오는 온기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한 번 알게 된 온기는 달콤했고 그 포근함은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것이라서.“실리 점심때도 나랑 있어 줄 거예요?”“그럼요. 저는 언제든 아가씨 곁에 있을 거예요.”“그럼 밥 다 먹고 나랑 낮잠 잘래요?”힐은 제 옆에 붙어 앉아서 식사 시중을 들어주는 실리의 몸에 머리를 푹 기댔다. 실리는 자연스럽게 힐을 다시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정수리에 턱을 올렸다. 제법 무례한 자세에도 힐은 잠자코 그가 자신의 정수리에 고개를 기대도록 두었다.직접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렇게 앉으면 꼭 끌어안기는 느낌이 들어 힐이 가장 좋아하는 자세였다.실리가 사냥 직전의 고양이처럼 꿍실꿍실 뒤로 움직여 제품으로 파고드는 힐을 더욱더 깊게 안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쓱쓱 쓰다듬었다.“낮잠 좋죠. 하지만 불경한 짓이니, 낮잠 주무실 동안 곁에 있기만 할게요.”그가 말할 때 몸을 타고 그의 목소리가 퍼지듯 들어오는 느낌이 간지러워서 힐이 그의 품속에서 작게 키득거렸다. 실리도 그녀가 웃는 소리가 몸을 타고 흘러드는 걸 느꼈지만 그녀를 밀어내진 않았다.처음 맛본 온기에 달려드는 어린애 같아서. 애정과 온기를 미끼로 길들일 수 있다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새 시중인을 잔뜩 붙여야겠어.’실리는 양상추를 포크로 찍어 그녀의 입에 넣어주며, 저택의 시중인 중 그녀의 전속 시중으로 붙일만한 이를 떠올렸다.적당히 할 일은 하되, 그녀가 종임을 아주 꺼림칙해 하고, 이 귀여운 아가씨에게 조금도 정을 주지 않을만한 사람. 아주 이기적이고 제 안위만을 챙겨 종국에는 그녀를 상처입힐만한 사람.‘그리고 죽여도 탈이 안날 사람으로.’그는 힐이 애정을 갈구하다가 상처 입고 결국 페일 외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감정의 한 조각도 주지 않을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도 그녀를 상처입힌 사람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회색 눈망울에 언뜻 하늘색 맑은 빛이 어리는, 밝게 웃음 짓는 표정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녀를 상처입힐 이들 때문에.그가 힐의 머리에 자신의 귀가 딱 붙도록 고개를 숙여 머리를 가져다 댔다. 양상추를 씹는 사각사각하고 아삭대는 소리가 그녀의 머리를 통해 귓가로 들어왔다.실리가 미간을 구기며 웃었다. 제 머리 위에서 실리가 웃자, 그가 웃는 이유가 궁금한지 왜 웃냐 물으려고 ‘어-’하고 목소리를 내던 힐이 입안에 음식물이 있어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그리고 곧 뭔가 결심한 듯 아주 빠르게 양상추를 씹어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왜 웃냐고 묻고 싶지만, 입에 음식물이 있는 채로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 얼른 삼키고 물어보고 싶다. 그 단순한 고민 과정이 빤히 보여서 실리가 힐을 끌어안고 박장대소했다.이 조그만 아이는 투명하게 속이 보인다. 속이 투명한 사람은 도무지 싫어할 수 없었고, 그 속이 너저분하지 않을수록 사랑스러웠다.“아이고, 천천히 드세요. 저는 쭉 곁에 있을게요.”적어도 당분간은, 꼭 붙어 있어야지. 이 귀여운 머릿속에서 자신은 사라지고 페일님만 생각하게 되면 그때 떨어지면 되지 않을까.‘이건 마음이 약해진 건 아니야. 어차피 약혼식 전엔 다른 시중인도 못 붙일 테고.’그냥 아직 계획을 시작하기엔 이른 거라고 생각하며 실리는 힐의 앞접시에 계란 두 개를 더 옮겨주었다. 이미 배가 빵빵해질 대로 빵빵해진 힐이 잔뜩 울상을 지으며 계란을 노려봤다.아침 식사가 끝난 뒤로 실리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힐이 그의 공백을 느끼기 전에 서류를 잔뜩 들고 그녀의 응접실로 돌아왔다.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가 탑처럼 쌓이는 걸 멍하니 보던 힐은 제 손에 들려있던 글씨 연습 책과 하루에 한 장씩 썼던 연습지를 몽땅 찾아 들고 서류 탑 옆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아가씨?”몽땅 쌓아 올려도 힐의 발등에도 닿지 않는 높이에 그녀가 울상을 짓자, 실리가 웃음을 머금고 그녀를 불렀다. 사실 굳이 쌓아보지 않아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적은 양이었는데. 실리는 이걸 가지고 그녀를 놀릴까 말까 잠깐 고민했다.“저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만큼은 오게요.”힐이 제 허리께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실리는 그녀가 왜 고개를 끄덕이는지 영문도 모르고 같이 고개를 끄덕여주었다.회색 눈 가득 의지를 담고 바닥에 쌓아둔 자신의 글씨 연습 책과 연습지를 주워들어 책상에 펼쳤다. 조금 딱딱한 고동색 가죽 의자에 앉아 깃펜으로 손을 뻗는 모습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실리가 웃음을 거두고 그녀를 의자에서 끄집어냈다.“아가씨는 낮잠을 잘 거라고 하셨잖아요?”그가 다시 꽂아둔 깃펜을 조금은 미련이 남은 눈으로 보며 힐이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실리는 저걸 오늘 다 하는 건가 봐.’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데다가 밥도 잔뜩 먹어서 잠깐만 행동을 멈춰도 그 자리에서 잘 수 있을 만큼 졸렸지만, 실리가 바닥에 쌓아둔 종이 탑은 힐의 허벅지 중간까지 왔는데 자신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결과물이 그 반의반도 안되는 게 맘에 걸려서 힐은 눈만 데굴데굴 굴렸다.“아가씨 제가 게으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피울 수 있을 때 잔뜩 피워야 한다고 그랬어요.”“맞습니다. 똑똑하셔라. 그럼 아가씨는 글씨 연습을 하셔야 할까요, 아니면 낮잠을 주무셔야 할까요?”“어…, 낮잠을 자요?”“그렇죠. 영민하신 아가씨께서는 부디 제가 저 서류를 볼 동안 푹 주무시길.”실리는 미련이 듬뿍 남아 보이는 회색 눈망울이 더는 책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힐의 어깨를 잡아 몸을 휙 돌리고 그녀의 차림새를 살폈다.힐은 부들부들한 벨벳으로 만든 연한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아직 레이디스 메이드가 없어서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머리부터 입고 머리 위로 쭉 올려 벗을 수 있는 단순한 디자인의 원피스였다.실리는 잠깐 옷을 갈아입고 자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 벨벳은 잠옷을 만들 때 쓰기도 하지만 힐이 입고 있는 원피스는 잠옷으로 쓰지 않는 디자인이니까.힐이 남자애라면 주저 없이 옷 시중도 들어주고 옷차림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을 테지만, 그의 예의범절은 사람을 비꼬거나 놀려먹을 때가 아니면 착실히 작동하는 편이라서 그는 차마 힐의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다.‘편하면 된 거지, 뭐.’원피스에 달린 리본이 많아서 사실 편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원피스를 빤히 볼수록 떨떠름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티 내지 않고 힐을 침실까지 손을 꼭 잡고 에스코트했다.그녀의 응접실에서 침실은 문 하나만 열면 되는 거리라 손까지 잡을 필요가 없었지만, 실리도 힐도 당연하다는 듯 손을 잡고 걸었다.“그럼 이따가 깨워주세요. 점심 먹기 전에요.”침실 문 앞에 도착하자 힐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실리를 보며 연거푸 ‘꼭이에요.’라고 당부했다. 실리가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그럴게요. 그럼 좋은 꿈 꾸시길.”힐은 침대에 털썩 누워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겼다. 반쯤 열린 침실 문 틈으로 실리가 다시 응접실의 낮은 소파에 앉아 서류 탑을 끌어당기는 모습이 보였다. 조그만 힐의 키에 맞춘 가구에 실리가 앉아 있으니 어쩐지 이질감이 들었다.언젠가 에드워드가 들려준 소인국에 찾아온 거인 이야기가 떠오르는 모습에 그녀는 옆으로 몸을 돌려 동그랗게 몸을 말고 숨죽여 웃었다. 침대로 따스한 볕이 들었다. 힐은 손을 뻗어 빛 속에 손을 두고 이리저리 움직였다. 낮은 그림자가 손 밑부터 힐의 얼굴까지 쭉 뻗었다.고요한 침실에 응접실에서 나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깃펜이 종이에 그어지는 소리가 뜨문뜨문 퍼졌다.‘팔랑팔랑하고 사각사각….’실리의 잿빛 머리카락 위로도 볕이 들었을까. 침대에 흩어진 자신의 머리카락에 볕이 내려앉은 것을 보며 힐은 그런 것이 궁금했다. 고개를 들면 당장에라도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졸음이 내리 앉은 머리는 무거워서 좀처럼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힐의 눈이 뜨고 감기는 텀이 조금씩 길어지다가, 어느덧 그녀는 완전히 잠에 빠져들었다. 힐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방안을 새근대는 작은 숨소리가 대신 채웠다.중앙 대륙 한복판에는 안개로 둘러싸인 섬이 있다. 아주 오랜 약속이 묻힌 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가장 오래된 고래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섬이. 많은 이름이 있는 이 섬은 아는 자들에게는 모든 이름이 진실인 곳이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이름이 신기루가 되는 곳.먼 옛날 세상이 만들어질 때 가장 처음 만들어진 이 섬은 이 종족들이 모여 살던 낙원이었고 최초의 욕심이 생긴 지옥이었으며 스러져버린 정령의 마지막 가호가 묻힌 곳이었다.라휄도 이곳에서 어미의 태를 빌리는 대신, 태초의 것들이 ‘창조’라고 불렀던 이의 손에서 밤하늘이나 별보다 먼저 태어났다.태어나던 날에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기억하는 라휄에게 안개가 잔뜩 끼어 빛 한 점 들지 않는 이곳은 꼭 바닷속 깊숙이 빠진 낡은 호화 유람선처럼 덧없었다. 아름다웠던 순간에 있던 모든 게 갖춰져 있으면서도 전부 녹슬어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곳.태초에 태어난 것들이 욕심을 품고 정령과 창조가 정한 금기를 어긴 대가로 버려져야 했던 땅.라휄은 섬의 커다란 동굴 속에서 오늘도 행복이나 즐거움과는 동떨어진 채 인상 한 번 풀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원탁에 모여 앉은 자 중 어떤 이는 라휄의 눈치를 보았고, 어떤 이는 그의 기분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잔을 기울이고 크게 웃었다.“찾았다면서?”즐거움 섞인 목소리가 물소리처럼 감미롭게 울렸다.연노랑 빛 샴페인이 반쯤 차 있는 라휄의 잔 위로 적색 포도주가 콸콸 쏟아졌다. 샴페인 위로 포도주가 잔 속으로 쏟아지며 거품이 일고, 그 거품과 함께 투명하게 일렁거리던 샴페인이 붉게 물들다가 이내 잔 위로 넘쳐흐를 때까지.“도리스! 감히 라휄님께…!”라휄의 좌측에 앉아 있던 파라가 원탁 가득 흥건한 액체를 보며 이를 갈았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이.“도리스님이겠지. 꼬마야?”네가 누구 덕에 이 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지? 구불구불한 긴 청록색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도리스가 입꼬리를 당겨 웃었다. 빤히 보고 있으면 가라앉을 것 같은 심해가 담긴 눈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사나운 기색의 파라도 주춤하게 만들 만큼 위엄이 넘쳤다.“흔적만 찾았다.”라휄이 젖은 잔을 들어서 연노랑 빛 샴페인과 적색 포도주가 섞인 것을 한 모금 삼켰다. 쓰고 떫은 맛. 저 도리스의 악취미를 술로 빚으면 이런 맛이 날 것 같았다.“흔적이라…, 어디에 있어? 가지고 왔겠지?”도리스가 원탁에 기대며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렸다. 라휄은 그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턱 짓으로 파라를 가리켰다.그리고 고개를 들어 원탁에 앉은 자들을 훑었다. 소란 한 가닥 남기지 않고 침묵 속에 잠긴 원탁 앞에는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불리는 이 종족과 인간들의 왕과 마물이 앉아 있었다.원탁 앞에 앉은 자들은 도리스가 라휄의 잔을 채우던 그때부터 이곳을 줄곧 응시했는지, 그들의 시선은 온통 라휄과 도리스를 향해 있었다.도리스는 파라를 턱짓으로 가리키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라휄을 불만스레 바라보다가 그의 시선을 따라 원탁에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크게 웃었다.“점점 모이는 자들이 형편없어지네. 이제 제대로 된 힘을 가진 자들은 다 죽었나 봐.”도리스의 웃음이 뚝 하고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원탁에 앉은 이들이 몽땅 달려든대도 도리스 자신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만큼 미약한 기운들 때문에.“그래. 이제 창조가 만든 아이는 너랑 나만 남았어, 도리스.”라휄의 노을빛 가득 한 눈이 도리스의 심해에 닿았다. 도리스는 이를 악물었다.라휄과 도리스의 시선이 진득하게 맞붙었다. 먼저 시선을 피한 건 라휄이었다. 깊디깊은 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라휄의 밑바닥부터 소름 끼치게 이어져 오는 죄책감으로 피가 말라붙는 기분이 들어서.라휄은 잠시 도리스의 눈을 피하려 눈을 꾹 감았다가 뜨고 자신이 소국에서 찾은 흔적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찾은 건 정령이 내린 가호야. 소국의 어린 먹잇감이 가호가 내린 허리띠를 가지고 있었어.”라휄은 소국에서 있었던 일을 간결하게 줄여 도리스에게 말해주었다. 그날 라휄이 봤던 가호의 아릿한 빛과 떨군 눈물마다 가호가 서렸던 어린 여자아이에 대해서도 하나도 숨김없이.도리스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눈을 꾹 감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가호. 정령의 흔적이라. 좋아. 가호를 찾았다면 거기에 정령도 있겠지.”도리스가 눈을 떴다. ‘있겠지.’ 그 말은 꼭 있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애원 같았다. 심해의 어두운 빛을 담은 눈이 묵직한 안광을 뿌렸다.창조가 만든 바다 깊은 곳, 심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도리스. 도리스가 손을 들어 허공을 살짝 매만지자, 동굴 속에 있던 자들이 동굴 밖으로 모조리 밀려났다.그녀는 휑한 원탁에 홀로 앉아 있는 라휄의 맞은 편에 앉아 턱을 괴고 라휄과 다시 한번 눈을 맞췄다. 깊은 세월을 담고 있는 노을빛 눈과 밤하늘을 닮은 짙은 남색 머리카락은 볼 때마다 먼 옛날의 낙원을 떠올리게 했다. 도리스가 정말 행복했던 시간부터 머리를 찢어 기억을 도려내고 싶었던 날까지 전부.“라휄, 너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밤이야.”“...그래.”먼 옛날의 낙원에서 창조와 정령이 정한 유일한 금기를 어겼던 종족, 밤. 도리스가 입 밖으로 뱉지 않은 뒷말이 비수처럼 라휄의 뱃속에 박히는 것 같아 라휄은 도리스의 눈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분노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눈을 내리깔았다.정령을 사랑했던 창조는 정령이 홀로 외롭지 않도록 세상을 만들어 그녀에게 선물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령을 위한 것, 그녀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밤이 그걸 어기고 다른 종족을 사랑했다.이 종족 간 정을 통하지 말라. 그 가볍고도 어려운 금기는 밤과 인간의 사랑으로 인해 너무 쉽게 깨졌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곧 결실을 맺었다. 창조가 만들지 않은 최초의 종족이 낙원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그 아이를 혼혈종이라고 불렀다.그 혼혈종은 태어남과 동시에 정령을 위해 창조가 만들었던 세계를 하나씩 부수고 더럽혔다. 그가 발을 디딘 땅은 검게 죽었고, 입을 댄 물은 썩어들었다. 낙원의 모두가 겁에 질려있을 때, 정령이 그 혼혈종에게 담담한 손길로 가호를 내려 그 발길이 딛는 곳이 검게 죽지 않게 했다.‘어쩌면 그게 문제였을지도 몰라.’도리스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때 정령을 말리지 않았던 게, 그 혼혈종을 죽이지 않았던 게 문제였을 지도 모른다. 낙원에 살던 자들은 그날 어떤 죄를 지어도 정령이 자신들을 놓지 않을 거란 걸 알아버렸으니까.그 간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정령이 자신을 갈아 넣어 창조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을 위해 가호를 내려줄 것을 알고 난 후로, 끊임없이 서로를 탐했다.‘욕망하고, 아이를 낳고. 멀쩡한 아이가 간혹 생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혼혈종이 되었었지.’정령이 그 많은 혼혈종에게 가호를 내려 멀쩡히 낙원에 발을 딛고 살 수 있게 힘을 쓰고, 또 썼다. 그녀가 가진 힘을 죄 써서 으스러질 때까지. 옆에서 정령을 말리며 제발 그러지 말라 우는 도리스에게 ‘괜찮아. 도리스.’라고 속삭이던 말들이 자꾸 떠올라서 도리스는 미칠 것 같았다.조금도 괜찮지 않았잖아. 점점 죽어가고 있었으면서. 도리스는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위한 정령을 차마 미워할 수 없어서 바보같이 그 말에 안도했던 자신을 저주했다.정령이 탈진해 쓰러지던 날, 그때까지 정령이 눈을 가려두었던 창조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정령을 사랑하라고 만든 세계가 그와 정령을 배신하고 저들끼리 정을 통해, 창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 냈다.창조는 금기가 깨졌다는 것과 정령이 자신의 눈을 가렸단 것에 분노했다. 그 광폭한 분노는 정령을 위해 만든 세상의 절반이 뚝 사라질 만큼 거셌다.금기를 어긴 것들이 죽어 나갈 때 도리스는 정령의 옆에 붙어 그녀를 회복시키려고 자신이 가진 힘을 몽땅 때려 부었다.그리고 마침내 정령이 눈을 떴을 때, 정령은 창조의 앞으로 달려 나가 그 분노를 잠재우고자 눈물로 빌었다. 제발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창조는 허탈한 웃음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반쪽만 간신히 남은, 부서진 세계를 간신히 붙들고 눈가에 고인 눈물을 훔치며 정령은 금기를 어기고도 살아 있는 것들과 그것들의 뱃속에 자라는 혼혈종을 걱정했더랬다.바로 곁에서 정령이 창조에게 그랬듯, 제발 그만두라고 비는 도리스에게 ‘미안, 도리스.’라고 한 마디만 남겨둔 채 모든 힘을 쏟아부어 살아남은 것들을 감싸 아우르는 가호를 걸고 존재가 부서질 만큼.도리스는 그 끔찍했던 기억이 바로 어제처럼 생생했다. 제품에서 부서지며 ‘아이들을 네가 아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말하던 그 밉고 고운 얼굴 한 자락 잊지 못했다.“나는 밤과 인간이 가장 싫어.”최초로 금기를 어긴 그들이 아니었다면, 도리스는 낙원에서 정령의 곁에 머무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알아. 네가 밤과 인간을 모조리 으깨고 싶어 하는 것도-,”아니 적어도 도리스 스스로가 금기를 어긴 밤과 인간, 그들 사이에서 나온 혼혈종을 죽였더라면.“-네가 그럴 수 없다는 것도.”도리스의 표정이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창조가 한올한올 신경 써서 다듬어 만들었을 눈썹이 찡그려지고, 백옥보다 흰 피부는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아이들을 네가 아껴줬으면 좋겠는데.’정령이 사라지고 나서 얼마나 긴 시간을 살았는지 기억조차 못하면서도 정령의 마지막 말 하나는 도무지 도리스의 머릿속에서 잊히질 않았다. 도리스는 정령이 사랑했던 그것들을 아낄 수도, 털끝 하나 해칠 수도 없었다.혹시라도, 정말 만약에라도 멀쩡한 정령이 다시 도리스 앞에 돌아온다면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것을 해한 도리스를 봐주지 않을 것이 두려워서. 밉고 증오하는 그것들을 감히 건드릴 수 없었다.“그, 입. 다물고. 정령을 찾아와 라휄.”도리스는 라휄을 힘으로 누르는 대신 술잔에 든 액체를 그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었다. 피보다 붉은 포도주가 그의 머리부터 턱 끝까지 방울방울 떨어졌다.“소국을 다 뒤집고 그 역겨운 붉은 안개를 네가 전부 들이마셔서라도. 정령을 찾아와. 내가 미쳐서 이 낙원을 유지할 힘이 사라지기 전에.”라휄은 조심스럽게 도리스를 훑어봤다. 정령이 사라지고 난 후 그녀가 남긴 마지막 가호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힘으로 붙잡아서 이 낙원을 지키고 있는 도리스,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어디 있는 지 모를 정령을 갈구하는 가련한 도리스를.창조가 떠난 세상이 먼지보다 작게 바스러지지 않은 것은 도리스가 정령의 가호를 붙들어준 덕임을 누구보다 라휄이 잘 알았다.“그래. 샅샅이 뒤져서 찾아오지.”라휄은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너무도 무거웠고 이 상황이 참으로 우스웠지만, 도리스 앞에서 비죽대며 웃는 대신 몸을 돌려 동굴 밖으로 나가기를 택했다.죄를 지은 것들은 모두 죽었는데, 지은 죄가 없는 라휄과 도리스만 이곳에 남겨져 억겁을 살며 벌을 받는 꼴이라니.라휄은 세계가 깨지지 않도록 도리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도리스는 정령을 찾기 위해 라휄의 바람대로 세계를 지탱한다.“라휄님? 대체 안에서 무슨…?”동굴 입구에서 서성이던 파라가 잽싸게 라휄의 옆에 붙었다. 제 망토 자락을 들고 라휄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려는 듯 다가오자, 라휄이 귀찮다는 듯 손짓으로 그를 물렸다.“알 것 없어. 소국으로 가기 전에… 마물들을 모아. 혼혈종 사냥 시간이다.”제 처지를 우습게 여기던 어쨌든, 라휄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다. 오염을 흩뿌리고 다니는 혼혈종의 수가 줄어들면 도리스가 받는 부담도 덜어질 테니 혼혈종의 수를 줄이고 소국으로 가서 정령의 흔적을 뒤져봐야 했다.“과연 그녀가 얼마나 더 버틸까...?”시간은 많이 남았다 여겼는데, 오늘 본 도리스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미쳐가고 있었다. 어쩌면남은 시간은 몇 년도 채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그는 파라와 함께 높이 날아오르고서야 쓰게 웃었다. 어쩌면 도리스만큼은 아닐지라도 자신도 정령에게 미쳐있는 게 아닐까? 세계가 깨지지 않길 바라며 도리스가 원하는 대로 정령을 찾고 있지만 라휄은 왜 자신이 세계를 지키려는 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파라, 블레어를 데려와.”“네? 혼혈종을 사냥하신다면서요?”“그래. 대륙 끝에서 소국 쪽으로 쭉 보이는 족족 죽이면서 움직일 테니 블레어를 데리고 합류해.”파라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낮게 침잠한 라휄의 기분을 눈치채고 재빨리 소국을 향해 날았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에드워드는 오전부터 쭉 후작저 이곳저곳을 뒤졌다. 사라진 힐을 찾기 위해.그는 그간 철저히 지켜왔던 예의범절도 다 집어던진 채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벌써 반나절째 후작저 구석구석을 뛰어다니고 있었다.“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나오미…!”오늘 아침 일찍 자신을 부른 실리에게 나오미의 상태를 전해 들고 힐의 방에 갔을 때, 텅 빈 방을 본 후로 그는 도저히 초조함을 감출 길이 없었다.실리는 오늘 자신이 급한 일이 있어 저택 밖에 나갔다 와야 하니 종일 힐의 곁에 붙어 있으라며, 아가씨가 외로워하니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아가씨가 페일님을 배웅할 기회도 없이 보내서 많이 외로워하셨다는 취지의 말은 어느덧 다 지워지고 페일이 떠나고 홀로 남은 느낌에 울었다던 작은 아이의 우는 모습만 에드워드의 머릿속에서 끝없이 떠오르고 있었다.대체 왜? 에드워드는 처음엔 의문을 느꼈던 것 같다. 페일이 출정을 하러 간다고 해도 길지 않은 시간일 거라고 자신과 같이 듣지 않았던가? 게다가 그녀가 페일을 만나는 횟수는 자신이 페일을 만나는 횟수보다 적었다.페일과는 주에 한 번, 길어봐야 서너 시간 남짓인 짧은 만남이었을 텐데. 실리나 자신은 그대로 저택에 남아 있는데도, 페일이 없다는 것에 그렇게 외로워한다는 게 조금은 불쾌한 것 같기도 했다.아니, 사실은 많이 불쾌했다. 특히 실리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걸 봤을 때는 더욱. 그래서 치졸한 건 알지만 에드워드도 그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착실히 그녀 곁에 붙어 있으면서도 굳이 힐에게 먼저 말을 붙이지 않았었다.하지만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웃고 지내지 않았던가? 실리와 매일 시시덕거리며 붙어 지내는 걸 봤는데.“아-.”숨이 턱 끝까지 닿도록 숨 가쁘게 이곳저곳을 뒤지던 에드워드의 걸음이 후작저의 넓은 미로 정원 끝자락에서 멈췄다.벌꿀 같은 머리카락이 온통 부산스레 흐트러졌고, 자신의 방을 나설 땐 분명 챙겨 있고 있었던 조끼도 어딘가에 내팽개쳐버린 데다가 늘 목 끝까지 단정히 잠구던 커프스단추도 두 개나 풀려있었다.에드워드는 잔뜩 흐트러진 꼴로 숨을 몰아쉬며 낮은 관목들 틈에 피어난 해바라기 사이로 시선을 고정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푸른 빛을 간직한 잎사귀 사이로 긴 아마 빛 머리카락과 연두색 원피스 자락이 보였다.에드워드는 헉헉거리지 않도록 차분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차림새를 단정히 해야 하는데, 옷매무새를 가다듬다가 저 조그만 아이가 또 어디론가 숨어버릴까 봐 시선을 뗄 수 없어서, 가쁜 숨이 좀 진정이 되자마자 그는 해바라기 앞으로 가서 그 틈으로 손을 뻗어 힐을 잡았다.“찾았다, 나오미.”퉁퉁 부은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단 힐이 에드워드를 올려다봤다. 뛰느라 엉망이 된 자신을 올려다보는, 울음으로 엉망이 된 그녀를 보자 안도와 기쁨이 그를 빠듯하게 채웠다.“왜 울고 있어요?”마음 같아서는 대체 왜 이곳까지 와서 혼자 울고 있느냐 다그치고 싶었지만, 에드워드는 참았다. 그는 그녀를 다그치는 대신, 그녀의 팔을 잡아당겨 힐을 끄집어내 꽉 껴안았다.“에드워드?”힐은 순식간에 그의 품에 꼭 껴 안겼다. 잔뜩 뛰어 아직도 심장이 거센 박동을 하는 그의 품은 뜨거웠고, 찬 바람에 이리저리 스친 그의 옷자락은 서늘했다. 에드워드의 거센 심장 박동이 힐의 귀에서 쿵쿵 크게 울렸다.“에드워드가 왜 여기에 왔어요?”“제가 오면 안 되나요?”힐은 그저 누군가 올 거란 생각을 못 해서 물어봤지만, 에드워드는 퉁명스레 쏘아붙였다. 표정을 엄하게 지을 지언 정, 한 번도 힐에게 퉁명스레 대한 적 없던 그가 퉁명스럽게 굴자 힐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아, 아뇨. 누가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어본 건데….”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제 품 안에서 꼼지락대는 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한참 뜸을 들이고 난 후에야 그녀를 품에서 놓아주고 입을 뗐다. 신사답게, 신사답게.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며.“내 예법 친구가 나를 두고 사라져서요. 우린 친한 친구가 되기로 했을 텐데도.”에드워드는 처음으로 제 말이 생각과 다르게 튀어 나가는 것을 경험했다.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평화로운 마이엔펠트 백작저는 오늘 이른 시간부터 부산스러웠다.저택의 하인과 하녀들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바지런히 움직이며 바람이 거센 창가마다 크림색이나 레몬색의 두꺼운 커튼을 달고, 바닥에 깔아둔 고급스러운 갈색 카펫을 걷어내고 포근한 양털 러그를 깔았다.저택의 안주인 마이엔펠트 백작 부인은 조금 부산스러웠으나, 시장통처럼 북적이지 않게 은근한 절도가 살아있는 몸동작으로 묵묵히 움직이는 시중인들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냈다.겨울을 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곳저곳 꼼꼼히 살피고 지시하던 마이엔펠트 백작 부인은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들을 모조리 결정해 지시하고 나서야 ‘그럼 모두 조금만 더 고생해주길.’이라고 상냥한 말을 남긴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백작저 삼층으로 올라갔다.그녀는 오늘 자신의 아름다운 딸, 달리아 아펜첼 드 마이엔펠트를 데리고 새 겨울 드레스를 주문하러 요즘 수도에서 가장 이름 높다는 디자이너 몰리의 살롱에 갈 예정이었으므로.“달리아? 준비는 끝났니?”그녀가 삼층 가장 우측의 하얀 문 앞에 도착하자, 달리아의 시녀가 문을 열어주었다. 연노랑 색 벽지를 바른 방은 백작 부인이 가장 신경 써서 꾸민 방으로 가히 걸작이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화 몇 점과 달리아를 위해 맞춘 태피스트리, 새하얀 가구들을 놓고 북방 여우의 가장 부드러운 연회색 털만 모아 만든 러그를 깔아 부드럽고 포근한 분위기가 났다.달리아는 부인이 방에 들어오자 만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인에게 다가가 손을 꼭 쥐었다.“네, 어머니. 바로 가실 수 있도록 마차도 제가 준비해두었어요.”“어머. 마부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건 아닐까?”비록 머리색과 눈 색은 달랐지만, 이목구비만큼은 자신을 빼닮은 사랑스러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차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는 부인의 눈꼬리가 부드럽게 휘었다.“어머니가 손님방에서 나오실 때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았을 거예요.”“그래, 잘했어. 미리 준비해주다니 고맙구나.”달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부인과 똑같이 눈꼬리를 부드럽게 휘며 잔잔히 미소지었다.마차를 타며 달리아가 힐끔 시간을 확인했다. 부인은 새벽같이 일어나 저택 단장을 시작했기에 부인이 결정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끝내고 나왔음에도 시간은 이제야 열한 시 반을 넘기고 있었다.보통 마차를 가지고 있을 만큼 부유한 자들은 이 시간쯤 일어나 늦은 오전 티타임을 갖거나 조금 이른 점심을 먹을 시간이라서 달리아는 내심 거리가 한산하기를 기대했다. 어머니와 함께 외출하는 건 오랜만인데 마차 안에서만 죽치고 앉아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으니까.하지만 달리아의 기대와는 다르게 백작저를 나와 수도의 드레스 샵이 가득한 거리로 가는 길목에는 온통 마차로 가득했다. 마차를 끄는 말이 달리기는커녕 아주 느리게 타박타박 걷는 것이 마차의 진동으로 느껴졌다.“길이 많이 복잡하구나.”마이엔펠트 백작 부인은 부채로 입가를 살짝 가리고 한숨을 쉬었다. 하나뿐인 딸 앞에서도 품위 넘치는 부인의 곧은 자세를 보며 달리아는 창가에 대충 팔을 걸치고 고개를 기대던 자신의 방만한 자세를 조금 반성했다.“그거야 다들 어머니와 똑같이 하려고 드니 그렇죠. 마이엔펠트 백작 부인이 새 계절 드레스를 맞추는 날 드레스를 안 맞추면 그게 무슨 못 배워먹은 일인가요?”이미 오랜 시간 마차 안에 있어 기분이 저조한 달리아가 흐흥 코웃음을 치자 부인은 약간 민망한 듯 부채를 펴서 입가를 가리면서도 달리아의 말투를 지적했다.“달리아. 말을 곱게 써야 한단다.”달리아는 혼나는 아이의 정석적인 모양새대로 곧게 허리를 펴고서 말을 곱게 쓰겠다고 대답했지만, 자신의 말이 틀렸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귀족 부인으로 갖춰야 할 소양을 모아 사람으로 만들면 마이엔펠트 백작 부인이 된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 유명해서 수도 귀족 사이에서는 ‘귀족 부인의 소양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 대신 ‘마이엔펠트 백작 부인처럼 하라.’는 말이 관용구처럼 쓰인다.평소라면 바깥으로 걸음 하지 않는 시간에 길에 빽빽이 깔린 귀족가 문양이 크게 박힌 마차들이 즐비 하는 게 제 어머니를 따라 드레스를 맞추려는 다른 귀족 부인들의 속 보이는 외출이 아니라면 뭐가 있겠는가.‘어머니가 드레스 맞출 때 같이 맞춘다고 자기들한테 어머니 같은 품격이 생기는 줄 아나?’달리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어머니랑 비슷하게 저택을 꾸미고, 드레스를 맞추고 입어도 몸에 걸친 것이나 저택의 모양새가 같아지는 거지 제 어머니와 같아지진 않으니까.어머니의 품위와 교양은 어머니의 생각에서 나온다. 달리아가 스무 해 동안 봐온 자신의 어머니는 말투 하나, 눈빛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고, 그건 따라 한다고 비슷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차라리 어머니의 사고방식을 배운다고 어릴 적부터 마이엔펠트 백작저를 드나드는 귀족 영애들이 생각 없는 귀부인들보다 제 어머니를 더 닮지 않을까.그런 생각을 하며 달리아는 다시 마차 창에 고개를 기댔다. 길고 굽슬굽슬한 오렌지빛 머리카락이 뺨에 닿아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달리아, 무릎을 빌려줄까?”“좋아요.”달리아는 어리광을 부리듯 자신의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부인의 허리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다. 은근한 캐모마일 향이 부드러운 드레스 천과 함께 달리아의 코끝을 간지럽혔다.“어머니께 캐모마일 향이 나네요. 제게서도 캐모마일 향이 나고 있나요?”그녀가 부인의 드레스 자락에 고개를 비비며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귀한 아가씨가 할 법한 행동은 아니라 해도, 더없이 사랑스러운 몸짓이라 바이엔펠트 부인은 고요히 웃으며 그녀의 굽슬굽슬한 오렌지빛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그럼. 우리는 같은 것을 마셨잖니.”“정말요? 기뻐라. 전 어머니를 따라 하는 다른 귀족 부인들이 싫지만, 음, 정정할게요. 줏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거든요.”달리아가 씨익 입꼬리를 위로 당겨 웃으며 몸을 뒹굴 굴려 마차 천장을 쏘아보았다. 백작 부인이 또다시, ‘달리아, 말조심.’이라고 말하는 걸 슬쩍 못 들은 체 하면서.“오늘은 어떤 드레스를 맞추러 가시나요?”달리아는 부인의 말을 못 들은 체 했지만, 뻔뻔하게 굴 수 있을 만큼 낯이 두껍지는 못해서 은근슬쩍 말을 돌렸다. 부인은 달리아의 속셈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해주었다. 자신의 귀여운 딸은 늘 솔직하고 숨김없었고, 그건 비록 거친 방식으로 표현되더라도 아주 큰 장점이었으니까.부인은 달리아의 솔직함을 아꼈다. 부인의 앞에서 달리아가 솔직할 자격이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달리아는 아주 강한 피를 이어받은 아이였으므로.부인은 강한 자는 숨김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 부류의 사람이다. 숨기는 것은 거짓이 되기 쉽고 힘을 가진 자가 거짓을 일삼기 시작하면 악으로 빠지기 쉬우니까.부인은 달리아를 기를 때 숨기는 것보다 차라리 감정을 터트리도록 가르쳤다. 그게 달리아가 소국의 폭탄으로 불리는 시발점이 되었을지라도 후회는커녕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내 사랑스러운 딸이 폭탄이면 뭐, 어쩔 텐가? 마이엔펠트의 딸을, 짙은 피를 가진 아이를 누가 감히 해할수나 있을까.“오늘은 네 것을 맞출 거란다. 곧 왕성에 다녀올 거라고 들었는데,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을까?”부인이 묻자, 달리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인의 무릎에서 몸을 일으켰다. 왕성의 이야기가 나온 이상 자신이 누워 있을 수 없었으니까. 높은 분들을 입에 담을 때는 정중한 몸가짐을 시늉이라도 내야 해서.부인이 기특하다는 듯 달리아의 등을 토닥여주었다.“네. 약혼식 전에 한 번은 더 만났으면 좋겠다고 왕비 전하께 편지를 받았거든요.”달리아의 머릿속에서 황금빛 펄을 듬뿍 뿌린 남색 편지지 위에 흰색 잉크로 쓴 간결한 편지가 두둥실 떠올랐다가 사라졌다.“시일은 정했니?”“아뇨…, 페일님과 함께 가볼까 싶었는데 출정을 나가셔서.”달리아의 표정에서 살가운 빛이 완전히 가셨다. 페일 램넌트 드 엘로이 후작은 자신이 보낸 편지에 답장을 주기는커녕, 토벌을 나간다는 형식적인 안부 편지 한 장 없이 훌쩍 토벌을 나갔다.그녀도 사이프러스 공자 일로 감정이 상한 왕녀 때문에 페일이 직접 토벌을 나서게 될 거란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에게 엿을 먹이고 떠날 줄이야.평소라면 페일이 사지에 스스로 걸어가건 말건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테지만 이번만은 아주 기분이 나빴다.페일이 왕녀를 건드리는 척, 왕비를 건드린 덕분에 자신은 한동안 왕비 곁에서 되먹지 않은 재롱을 피운 거로도 모자라, 왕비가 보는 앞에서 페일에게 직접 편지를 적는 굴욕까지 겪어야 했으니까.나흘이나 자신을 왕성에 붙잡아 두고 쓸데없는 담소를 나누자며 거머리처럼 들러붙던 왕비는 자신이 그 앞에서 페일에게 편지를 쓰고, 그 내용까지 은근슬쩍 전부 보여주고서야 대단히 만족한 표정으로 자신을 귀가할 수 있게 해줬다.“솔직히 가고 싶진 않아요. 왕비님의 정원은 따분하거든요.”“그래, 나도 잘 알지.”달리아가 조용히 읊조리자 부인이 곱게 웃으며 맞장구쳐주었다. 마이엔펠트 백작 부인, 비앙카는 자신과 꼭 빼닮아 강한 피를 물려받은 자신의 딸을 다정히 응시했다.“왕비 전하께서는 피가 짙은 이를 대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 그분과 내가 함께 어울렸던 소녀 시절에도 그분은 따분한 것들을 선호하셨단다.그래도 자주 찾아뵙고 위로해드리렴. 피가 옅을수록 소중히 대해주는 게 중요해. 특히 우리보다 높은 가문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지.”비앙카에게 있어 왕비가 벌이는 두뇌 싸움은 따분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 아마 자신의 딸에게도 그랬을 것이다. 비앙카가 달리아를 그렇게 키웠으니까.비앙카는 책상 앞에서 벌어지는 따분한 농간에 휘둘려 같이 머리를 굴리지 않도록, 달리아를 오만해 보일 만큼 올곧고 솔직하게 키웠다.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 머리를 써서 누군가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고, 배신하고. 그런 모략이나 계략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부 약한 자들의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다.강한 피를 물려받은 이들에게는 따분하기 그지없는 것들.비앙카가 왕비와 함께 어울리곤 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작게 웃었다.아주 오래전, 소녀였던 때부터 자신의 곁에 두려고 애쓰던 왕비는 결국 자신을 이용해 한 계단씩 착실히 밟아 올라가 결국 왕비가 되었다. 비앙카는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도록 두었다. 자신의 심기를 어지르지 않는다면 무슨 수작을 부리든 뭐가 문제일까.“네, 어머니.”달리아는 마음에 들진 않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몇 번이나 ‘음…’하는 목울음 소리를 내고서야 대답했다. 비앙카는 달리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자신의 딸을.“네가 정말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오면, 언제든 내게 말해주겠니?”마차는 어느덧 드레스 샵과 디자이너의 살롱이 모여 있는 거리에 도착했다. 비앙카가 먼저 내리고 달리아를 향해 손을 뻗어 에스코트하듯, 자신의 딸이 편히 내릴 수 있게 손을 잡아주며 달리아의 귓가에 작게 이야기했다.“네. 그럴게요.”달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그렇겠다 대답했다. 어차피 자신은 일거수일투족을 비앙카에게 털어놓는 편이니 싫다 좋다는 이야기를 더 하는 정도야 어렵지 않았다.비앙카는 웃으며 이주 전부터 예약했던 디자이너 몰리의 살롱이 아니라 좀 떨어진 곳의 드레스 샵으로 들어갔다.“사람이 덜 붐비는 쪽이 낫겠어. 드레스가 더 빨리 나올 테니까. 곧 왕성에 갈 때 입는다면 새 드레스가 좋잖니?”비앙카가 달리아의 어깨에 숄을 둘러주었다. 숍의 도제가 헐레벌떡 뛰어나와 고개를 조아리며 그들이 편히 앉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달콤한 사과 주스와 오렌지 주스, 티코지를 두른 찻주전자와 찻잔 두 개가 재빨리 그들의 앞에 놓였다.“잉카의 드레스 샵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인. 편히 보실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준비해왔는데, 먼저 보시겠습니까?”예의 바르게 카탈로그를 펼쳐 비앙카와 달리아 앞으로 내미는 도제에게 비앙카는 ‘이 아이가 입을 겨울 드레스를 맞출까 하는데. 디자이너를 불러주면 좋겠군요.’라고 말하곤 카탈로그를 한 장씩 넘겼다.잘 표백해 하얀 양피지에 드레스 디자인을 그리고 직접 천과 레이스를 잘라 위에 붙인 카탈로그는 비앙카가 봤던 어떤 카탈로그보다도 세심해서 그녀는 우연히 들어온 이 샵이 꽤 괜찮게 느껴졌다.“달리아, 늘 말하는 거지만. 네가 싫은 걸 할 필요는 없어. 조금도. 누구도 네게 강요할 수 없지.”비앙카는 아주 오래 왕비가 자신을 이용하게 뒀지만, 그녀가 달리아마저 이용하려 들고 달리아가 그걸 싫어한다면 그걸 자신이 참을 수 있을까?“저도 알아요. 제게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달리아가 자신 앞에 펼쳐진 카탈로그를 대충 훑으며 대꾸했다. 자신은 참아본 적이 없다. 부당하다 일컫는 일에 대응하지 않았던 적도 있지만 그건 그 일이 달리아를 화나게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달리아는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았다. 자신은 이성적으로 판단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판단해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운다. 화도 마찬가지다. 화가 나면 화를 낸다. 솔직할 것. 비앙카가 자신에게 당부한 그 한 가지가 달리아의 전부를 만들었다.“드레스가 완성되면 왕비 전하께 편지를 써야겠어요. 원래는 페일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른 시일 내에 뵙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그러렴.”네가 원한다면 뭐든 해도 좋은 거지. 비앙카가 웃으며 덧붙였다. 달리아와 비앙카는 곧 도착한 디자이너에게 원하는 디자인을 설명하며 드레스를 잔뜩 주문하고 해가 질 때에야 드레스 샵을 나섰다.달리아는 마차 위에서 깃펜과 잉크, 종잇조각을 꺼내 들었다. 아무리 푹신한 쿠션을 깔고 앉아도 여전히 덜컹거리는 마차에서 중심을 잡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그녀는 깃펜 끝자락을 입술로 살짝 물고 놓길 반복하며 쓸 말을 천천히 골랐다.“왕비 전하께 바로 편지를 쓰려고?”“네. 생각난 김에 만날 시일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미뤄둔다고 안 보게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달리아가 눈을 내리깔고 중얼거렸다. 눈꼬리가 살짝 치켜 올라가 도도해 보이던 눈매는 살짝 내리깐 것만으로도 깊고 청아해 보이는 분위기를 냈다.이목구비는 쏙 빼닮았지만 늘 고상한 웃음을 띠고 자애로운 표정을 짓는 비앙카와 다르게 달리아는 내키는 대로 눈을 뜨고 코를 찡긋대고 입술을 내밀기도 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곤 했다. 비앙카는 달리아가 얌전히 웃고 있는 것보다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감정을 맘껏 드러내는 것이 좋았다.“사랑스러운 내 딸. 네가 곧 약혼할 게 나는 믿기질 않는구나.”비앙카는 문득 반년도 채 남지 않은 달리아의 약혼이 떠올랐다. 보통 귀족 집안의 약혼식이라면 일 년 전에는 준비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달리아가 ‘자신과 엘로이 후작님께 맡겨달라.’고 말하는 바람에 약혼 준비는커녕 아직 반지 하나 제대로 오 가지 못했다는 것도.“저도 이제 스물이 넘었는걸요.”저는 벌써 스물둘이라고요. 달리아가 키득키득 웃으며 비앙카를 응시했다.“다른 귀족 영애들은 열둘부터 약혼해서 열여덟엔 결혼을 하던가? 너무 어린 나이구나. 스물둘이 되었어도 이렇게 어린아인데.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다니.”비앙카가 작은 한숨을 쉬며 손을 뻗어 달리아의 뺨을 쓰다듬었다. 다정한 손길에도 달리아는 인상을 펴기가 어려웠다. 그 다정한 손길에 자신이 감추고 있는 것이 끄집어내질 것 같아서.귀족 집안에서 이른 나이에 정략결혼을 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달리아의 약혼도, 결혼도 달리아의 것. 다른 귀족 가문에서 정략결혼이 가문을 위해 휘두를 좋은 무기이자 방패라면 마이엔펠트에서 달리아의 약혼과 결혼은 달리아의 무기이자 방패였다.오롯이 달리아만 휘두를 수 있는, 달리아의 것.달리아가 페일과 약혼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마이엔펠트에서 왜 페일을 택했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달리아의 것은 달리아 만이 선택할 수 있으니. 비앙카가 이렇게 약혼과 결혼을 직접 적으로 입에 담은 것도 몇 번 되지 않았다.“불안하신가요?”달리아가 조심스레 비앙카의 눈치를 살폈다. 입 밖에 낸 적은 없어도 이 약혼에 애정이라곤 한 톨도 들어가지 않았음을 비앙카가 모를 리 없었다.“불안이라.”비앙카는 살포시 웃으며 달리아의 뺨을 살짝 꼬집는 시늉을 했다. 아직 솜털이 채 가시지 않은 스물 두 살짜리의 말랑한 뺨은 달리아가 열다섯이었을 때와 똑같이 보드라웠다.“네 아버지와 나는 너를 마이엔펠트로 키웠지. 마이엔펠트의 것이 아니라, 마이엔펠트의 주인으로. 네 결정이 마이엔펠트의 결정이란다. 나는 불안하지 않아. 다만…”“다만요?”“약혼 후에 바로 결혼하지 말고, 약혼 기간이 길었으면 하는데. 아직 네가 내 곁에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구나.”“하지만 그럴 순 없는걸요?”달리아의 표정이 조금 시무룩해졌다.“그래. 그래도 나는 언제나 네가 행복하길 가장 바란다는 걸 기억해주렴.”달리아가 볼을 잡힌 상태에서 해사하게 웃었다. 기쁨으로 충만한 눈빛과 이가 다 드러나 보일 만큼 커다란 미소를 걸고.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애정을 표현해주는 건 달리아를 행복하게 만드니까. 달리아는 행복을 숨기지 않았다. 있는 힘껏, 할 수 있는 가장 환한 표정으로 웃고 비앙카를 끌어안으며 잔뜩 행복을 드러냈다.저택에 도착하자 비앙카가 드레스 샵에서 그랬듯, 마차에서 먼저 내리고 달리아가 내리기 쉽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다녀오셨습니까. 마님, 아가씨.”집사가 마차 앞에서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저택은 오전부터 시작한 단장을 마치고 한층 포근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그럼 어머니, 푹 쉬시길.”달리아가 비앙카를 가볍게 끌어안고 속삭인 후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정확히는 서재로. 달리아는 능숙하게 편지지를 꺼내 책상 위로 펼치고, 잉크 병을 열었다. 검은색 잉크의 톡 쏘는 기름 냄새가 독해서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아직 헛구역질이 나올 땐 아닌데.’코에 냄새가 익숙해질 때까지 잠시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난 후에야, 달리아는 빈 종이에 몇 번 자신이 적을 내용을 써가며 이리저리 문장을 만들고 순서를 바꿔가며 편지에 적을 내용을 만들고 나서 편지지에 쭉 옮겨적었다.빠르게 갈기듯 적는데도 섬세한 필체는 한 자, 한 자 정성 들여 쓴 것처럼 간격 하나 틀어지지 않았다.“로라.”달리아가 서재 문 앞에 서서 대기하던 시녀를 부르자, 로라가 재빨리 색색의 밀랍 초가 잔뜩 담긴 바구니를 손에 들고 다가왔다.“네, 달리아님.”“오늘은 가문에서 나가는 편지니까 가문의 색에 맞추는 게 좋겠어. 흰색 초를 가져와. 음…, 주황색도.”달리아는 잉크가 마르길 기다렸다가 반듯하게 접어 봉투에 넣고 흰색 밀랍을 투둑 녹여냈다. 그리고 흰색 밀랍을 동그랗게 떨어트린 곳 끄트머리에 살짝 주황색 밀랍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달리아는 흰색 위로 주황색 밀랍 한 방울이 똑 떨어져 사르르 녹아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오른쪽 검지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눌러 편지를 봉인했다.가문에서 나가는 편지이되, 자신이 보냄을 드러낼 수 있게. 이 편지를 함부로 무시한다면 가문의 이름을 끌고 들어갈 것이고, 내용으로 트집을 잡는다면 고작 영애가 보낸 철없는 편지로 포장할 수 있도록.달리아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자주 폭발하는 폭탄이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사교 매너와 처세술을 모르는 얼간이가 아니었다.“로라. 전령을 불러줄래? 이 편지를 왕비 전하께 바로 보내야 해. 그리고 전령에게 답변은 바로 듣고 오라고 해.”“네. 답변을 듣기 전엔 돌아오지 말라고 이를까요?”“음…아냐. 바로 답장을 주실 수 없다면...,‘만나 뵙는 건 나흘 이내가 아니라면 곤란하니 바로 답변을 주실 수 없다면 차후에 시일을 다시 잡자’고 하는 게 좋겠어.전령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너도 그만 쉬도록 해.”난 여기서 발 뻗고 게으름이나 피울 거니까 돌아오지 말고. 달리아가 마지막 말을 내뱉으며 키득키득 웃었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에는 근래 보기 드물던 만족감이 어려있었다. 로라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재빠르게 시중인들의 숙소에 머무는 전령을 향해 움직였다.로라가 서재를 나가고 나서, 달리아는 책상 앞에서 일어나 한동안 방안을 서성였다. 왕비에게 보낼 편지에는 ‘연락도 없이 토벌을 떠난 엘로이 후작과의 약혼 준비로 바빠질 예정이니 약혼 전에 만나려면 나흘 이내여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아 보냈다.관례상, 약혼은 여자 측이 원하는 약혼식에 대해 남자 측으로 보내면, 남자 측에서 약혼식을 준비한다. 결혼은 반대로 남자 측이 원하는 결혼식에 대해 보내고 여자 측에서 준비하고.이번에는 엘로이 후작가에서 약혼 준비를 맡아 해야 하는데, 약혼이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가 토벌에 나가버려서 관례와는 다르지만, 달리아가 상당 부분을 직접 준비해야 했다.달리아는 굳이 페일이 토벌에 나가게 된 원인이 왕녀에게 있음을 콕 집어 무례한 소리를 적지 않았지만 똑똑한 왕비는 그 편지를 받으면 기저에 깔린 왕녀에 대한 비난을 바로 알아챌 거라 생각하니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토비.”달리아가 이름을 부르자, 어딘가에서 불쑥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남자가 나타났다. 토비 델. 달리아가 언제 불러도 기분 좋은 그 이름을 다시금 입 밖으로 내며 토비의 뺨을 감싸 쥐었다. 여린 갈색의, 굽슬굽슬한 머리카락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스쳤다.“네, 달리아님.”토비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허리를 숙여 달리아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낮은 목소리는 청아해서 가끔씩 달리아는 ‘토비가 말이 많은 사람이면 좋았을걸.’하고 투덜대게 만들곤 했다.“페일 렘넌트 드 엘로이 후작이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해 와. 내가 직접 가서 약혼 준비로 상의할 게 있거든.”“찾고 계심을 페일님께 전할까요?”토비가 물었다. 달리아를 빤히 응시하는 검은 눈동자에 불쾌감이 진득하게 서렸다. 그 새카만 불쾌감이 달리아를 기쁘게 했다. 마치 토비가 질투하는 것 같아서. 달리아는 발꿈치를 살짝 들어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그래. 전해 둬. 가급적이면 둘만 보자고도.”“둘이서만요.”토비가 달리아의 뒷말을 몇 번이나 입속에서 굴려보다가 이내 달리아의 입술에 제 입술을 꾹 눌렀다. 둘이서 보겠단 그 말에 확신을 실어주지 말라는 듯, 짓궂게.“읍, 토비!”달리아가 그의 입술을 손으로 가로막으며 웃음을 터트렸다. 그의 넓은 어깨를 감싸 안고 단단한 가슴팍에 고개를 묻자, 웃음이 한껏 피어난 달리아의 꽃같은 얼굴이 쏙 그의 품으로 숨어들었다.“토비, 토비 델.”달리아가 납작한 자신의 배로 토비의 손을 잡아끌었다. 토비는 몸을 굳혔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배를 조심스럽게 쓸었다. 곧 깨질 유리 세공품을 어루만지듯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여기에 우리 아이가 자라는 건가요?”토비의 목소리는 점점 물기에 젖어 들었다. 왼쪽 이마부터 뺨을 가로지르는 허연 흉터를 가져서 얼핏 잔혹해 보이는 토비는 달리아를 처음 만나던 날에도 이렇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울먹이며 달리아가 뻗은 손을 잡았었다.“응. 우리 아이가 여기 있어. 몇 번을 확인하는 거야?”“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납작하고… 심장 소리도 안 들려서.‘달리아의 손바닥이 찰싹 토비의 팔을 쳤다. 토비는 달리아가 자신을 때린 줄도 모르는 것처럼 그녀의 배에서 시선을 떼질 못했다.“바보. 이제 한 달이잖아. 아마 점점 티가 날거야.”토비가 달리아의 입술에 다시금 입을 맞췄다. 아주 소중한 것에게 경외를 보내듯 정중하고 달콤한 입맞춤이었다.“티가 나기 전에 약혼하실 생각이신가요?”달리아를 안아 들고 서재 한쪽에 마련된 소파로 앉히며 토비가 물었다.“그래. 약혼을 하고 네 신분을 복권하고 나면 파혼하려고 했는데. 일이 조금 틀어졌네.”달리아가 그 품에 고개를 기대고 웅얼거리듯 말하자 토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달리아와 함께 보낸 밤이 불현듯 떠올라서.“...제가 참을성이 부족했습니다.”달리아가 빨갛게 달아오른 토비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마에 입 맞추며 꺄르르 즐거운 웃음소리를 냈다.“그러면서도 죄송하다곤 하지 않는 게 내 토비다워.”“...싫으셨나요?”“그럴 리가.”내가 토비를? 그럴 리가 없지. 달리아가 들뜬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토비의 팔을 당겨 함께 소파 위로 쓰러지듯 누웠다. 토비는 달리아가 원하는 대로 그녀의 바로 옆에 누워 부드러운 주황빛 머리카락을 쓸어주었다. 달리아는 마치 기분 좋은 고양이처럼 ‘으음’하고 기분 좋은 목울음 소리를 냈다.“달리아님.”“달리아.”단호한 목소리에 토비가 빙긋 미소 지었다. 토비가 열다섯 살, 달리아가 열 살일 때부터 함께 지내서일까. 토비는 점점 달리아의 표정을 닮아갔다. 지금처럼 조용히 미소짓는 표정은, 이목구비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일지라도 꼭 쌍둥이처럼 보일 정도로 똑같았다.“네, 달리아. 부디 몸을 조심해 주세요. 제가 다녀올 동안은 특히. 다른 것보다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해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달리아는 천천히 손을 들어 토비의 흉터를 덧그렸다. 반역자로, 죄인으로, 종으로 살았던 토비의 과거가 남긴 가장 선명한 흔적을.루드밀라에게 빠진 왕에게 충언을 건넨 토비의 아버지는 루드밀라를 울게 한 죄로 반역자가 되었다. 그때 토비의 나이가 일곱 살. 고작 일곱 살 난 어린 토비는 높은 피가 주는 축복을 만끽할 새도 없이 반역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죄로 일곱 살에 종이 되었다.달리아는 자신이 열 살이고, 토비가 열다섯이었던 첫 만남을 떠올렸다. 지루한 티 타임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 하염없이 왕성을 돌아다니다가 토비를 만났던 그 날을.거적때기 같은 옷을 걸치고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몸을 움직이던 종들 틈에서, 강렬한 의지가 담긴 토비의 눈을 마주쳤던 순간을 달리아는 잊지 않았다.달리아는 그 길로 토비를 제 것으로 삼았다. 마치 홀린 것처럼.‘지금은 정말 홀리긴 했지.’토비가 달리아의 순을 잡고 그 손바닥에 자신의 입술을 묻었다. 말랑한 입술에서 전해져오는 온기가 따스했다.“달리아... 몸을 아끼겠다고 말해주세요.”애원 같은 말이 이렇게까지 예쁠 건 또 뭐람. 달리아가 아직도 자신의 손바닥에 닿아 있는 그의 입술을 엄지손가락으로 훑었다. 토비가 또 달리아가 자주 짓는, 눈꼬리만 휘는 웃음을 지었다.자신과 똑같은 표정을 짓는 토비. 사랑하는 이가 자신과 같은 표정으로 스스로를 아껴달라 애원을 한다. 달리아는 이런 순간에 느끼는 감정에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 쭉 고민하곤 했다.달리아의 마음이 꼭 굳어빠진 고무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 점점 말랑해지는 것처럼 풀리는데 그건 꼭 찌르르하게 전신에 퍼지는 신맛 같기도 하고, 혀가 녹을 듯 달콤한 것이기도 해서. 달리아는 아직도 이 감정을 부를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다.“난 말이야, 뭐든 할 거야. 너를 위해, 우리 아이를 위해.”달리아의 눈꼬리가 휘었다. 깊은 눈매가 휘며 짙은 주황색 보석 같은 눈동자가 속눈썹 그림자 속에서도 선명히 빛을 냈다.“그리고 나를 위해서.”달리아가 토비의 몸을 살짝 떠밀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네. 달리아, 당신을 위해서.”나도 뭐든 지 해요. 토비가 조곤조곤 속삭이고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몸을 일으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페일을 찾아 달리아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야 한다. 달리아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그리고 다시 달리아의 곁으로 돌아오고 말리라. 자신의 구원자. 소중한 달리아의 곁에.토비는 제 눈앞에서 뜨거운 차를 벌컥벌컥 들이켜는 실리 피스토스를 무감한 눈으로 응시했다. 짜증을 감추지 않는 눈빛은 불손했고 연신 머리를 쓸어넘기는 손은 부산스러웠다.‘언제봐도 곱게 보이지 않는군.’토비는 얌전히 찻잔을 앞에 두고 그와 마주 앉아 있는 이 상황이 우스웠다. 어깨를 스치는 타다 만 잿빛 머리카락을 가진 사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신다니. 심지어 자신과 마주 앉은 남자, 실리 피스토스 또한 불쾌함을 한가득 담아 자신을 보고 있었다.토비는 이 상황이 우스울 뿐, 이곳을 찾아오며 걱정했던 것처럼 화가 치밀진 않았다.왕족들이 가지는 마법의 상징, 잿빛 머리카락을 보면 속을 까맣게 태우는 증오가 일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뱃속을 뒤트는 분노가 슬금슬금 고개를 치켜들기는 해도 예전만큼 눈이 돌아가진 않는 게 신기하기도 했다.‘하긴 복수 같은 걸 생각하는 시기는 예전에 지났지.’왕가를 떠올릴만한 것의 끄트머리만 봐도 눈앞에 몰려드는 새까만 감정에 묶여, 자신의 가문을 반역자로 몰고 내친 왕을 쳐 죽이려고 자신을 내던졌던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토비가 빙긋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었다. 그맘때의 자신을 떠올리면 함께 떠오르는 달리아의 화난 얼굴이 선명히 생각나서.잔뜩 화난 표정으로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 하고 자신을 쏘아보던 어린 달리아는 토비가 복수에 눈이 멀어 자신을 불살라 먹을 때마다 달려와 그의 앞을 가로막고 화를 내고, 울고, 끌어안아 주곤 했다.‘그맘때 달리아는 망아지 같았어.’이리저리 제 기분대로 들판을 달리는 망아지처럼 달리아는 어느 날은 토비를 붙잡고 울었고, 어느 날은 짜증을 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는 꼭 토비의 소맷자락을 잡고 모든 걸 꿰뚫을 듯 투명한 주홍빛 눈동자로 자신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토비는 달리아의 시선 속에 담긴 애정이 점점 자신의 타오르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텅 빈 마음을 채워오던 것을 뚜렷하게 기억했다.지금은 사랑이라고 이름 붙인, 그 충만하게 차오르던 달콤함에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 고민하던 것도.“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나는 이렇게 기분이 더러운데 말이에요.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하던 토비가 달리아와 똑 닮은 표정으로 미소를 짓자, 실리가 퉁명스레 구시렁댔다.“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선 늘 기분이 나쁘거든요.”토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미 설탕을 가득 넣었던 찻잔에 각설탕을 세 개 더 집어넣고, 조그만 설탕 집게를 뒤로 휙 던졌다. 무른 은으로 만든 집게가 구석에 숨어 있던 실리의 정보원의 목을 꿰뚫고 벽에 박혔다.“방금 죽인 정보원은 할 일이 아주 많았는데. 이건…. 달리아님께 이를 겁니다.”실리는 한숨을 쉬고 손을 휘저었다. 토비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며 때려 부순 흔적으로 가득한 휴버트 상회 창고 이곳저곳에 숨어 있던 자들이 조용히 창고 바깥으로 물러났다.숨어서 자신을 응시하는 간지러운 시선이 하나둘 사라지자, 토비는 진하게 웃으며 의자에 등을 기대며 다리를 꼬았다.“머리 위에 한 놈은 할 일이 없는 놈입니까?”“제 호위는 좀 봐주시죠. 관대하신 분께서 참.”“제 인내심에 관해 설명이 필요하십니까?”실리가 질색하며 관대함이니 인내니 하는 말을 줄줄 늘어놓기 시작하자 토비의 눈웃음이 짙어졌다.“...나가있도록.”결국 실리는 토비를 한참 노려보다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자신의 호위까지 물렸다. 정보원들과 달리 호위에겐 기척을 숨기는 마법을 세 개나 걸어뒀는데. 실리가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대체, 마이엔펠트는 왜 하나같이 이따위란 말인가. 실리는 하나같이 제어할 길 없는 폭탄이라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싶었다. 마이엔펠트는 실리가 세치혀를 놀리기 전 그 혀를 가닥가닥 끊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자들.말이 안 통하는 자들은, 특히 마이엔펠트의 것들은 빛나는 지성만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믿는 실리와 상극이었다.“토비 델. 대체 당신이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이젠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호위가 창고 밖으로 나가자, 실리가 으르렁대는 목소리로 물었다.실리는 토비가 호기롭게 휴버트 상회 창고를 부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만사 제치고 이리로 달려왔다.페일이 토벌을 나간 뒤 극심한 불안과 외로움에 떠는 힐을 에드워드에게 떠맡기듯 부탁하고는 힐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와서 초조하기 그지없는데, 토비는 두 시간이 흐르도록 입 한 번 떼질 않고 있으니 짜증이 치밀었다.“페일님은 어디 계십니까?”“페일님은 왜 찾으시는지?”토비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긴 대화를 시작하는 대신 바로 본론을 꺼냈다. 실리는 쩡하니 얼어붙을 것 같은 목소리로 대꾸했다.페일이 토벌 중 이동하는 경로는 그가 첫 토벌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극비였다. 엘로이 후작을 적대하는 무수한 자들이 토벌을 방해할 수 없도록.“달리아님께서 페일님을 긴히 뵙고자 합니다. 되도록 독대를 원하셨죠.”“그럼 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년 전에도 달리아님이 토벌 후 귀환하는 페일님을 마중한다고 오셔서는 친히 후작님의 다리를 부러트리셨잖습니까.”실리는 이년 전 토벌 후 귀환하다가 맞닥뜨린 달리아가 페일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페일이 달리아의 팔을 부러뜨린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소국에서 가장 피가 짙은 두 사람이 벌이는 싸움은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당장 기절하고 싶을 만큼 끔찍했다.그 난장판은 실리의 기억 속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악몽으로 남아 있었다. 그것도 아주 치가 떨리는 악몽으로.“그분이 달리아님의 심기를 어지럽히셨으니까요.”토비는 태연자약하게 설탕을 잔뜩 넣은 차를 마셨다. 연노란 빛 찻물 아래로 다 녹지 못한 설탕 알갱이가 깔린 차는 시럽과 같은 단맛이 났다.실리가 토비의 평화로운 표정을 보며 미간을 찡그리고 한쪽 관자놀이를 손으로 꾹 눌렀다.심기? 심기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실리가 생각하기에 달리아의 심기는 애초부터 더 어지럽힐 수도 없는 난장판이라. 지뢰밭에 어지럽힐 게 대체 어디 있다고.달리아를 마치 정상적인 사람인 양 취급하는 토비도 도무지 대화가 통하는 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실리는 대화로 타협을 볼 생각을 저 멀리 집어치웠다.‘적당히 알려주고 얼른 보내자.’마음을 정한 실리는 꾹 닫혔던 입을 뗐다.“...토벌은 세 번 이뤄집니다. 첫 번째 토벌을 시작하면 그때 전령을 보내 알려드리겠습니다.”“정정하죠. 달리아님은 한시바삐 페일님을 뵙고자 합니다. 약혼에 대한 이야기니, 저번처럼 서로 기분이 상할 일은 없을 겁니다.”실리의 일그러진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던 토비가 조금 더 자세히 원하는 바를 이야기 했다.이대로 위협과 버티기를 반복하며 실리를 고문해볼까 싶은 마음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이미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여기에 오래 머물수록 달리아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테니 어서 용건을 마치고 돌아가고 싶었다.“....”실리가 신경질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탁탁하고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메꿨다.“페일님께 먼저 의중을 여쭤야 합니다. 내일 다시-,”“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실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의 말을 끊는 토비를 응시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네. 그럼 잠시 실례. 한 시간 내로 돌아오죠.”토비는 양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펼친 후 위로 살짝 들어 보였다. 뜻대로 하라는 몸짓을 보내고 그는 다디단 차를 마저 마셨다.실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휙 몸을 돌렸다. 그는 창고 밖으로 나가기 무섭게 주변을 서성이던 자신의 정보원들을 물리고 창고 밖에 조그맣게 마련된 경기 초소로 들어갔다.“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실리는 신경질적으로 자신에게 걸어둔 환영 마법을 지웠다. 가벼운 로브 하나만 걸치고 있던 그의 몸 위로 보석 박힌 귀걸이며 반지가 주렁주렁 드러났다.실리가 직접 만든 고성능 마법 물품들이었다.그가 오른손 중지에 끼고 있던 반지를 왼손 검지로 툭툭 두드리자 투명한 반지 위로 파란 문양이 하나씩 떠오르며 빛을 냈다.실리의 역작, 통신용 장신구 시리즈 중 하나인 통신 반지에 푸른 빛이 빼곡히 떠오르자 실리가 자신의 마력을 조금씩 반지로 밀어 넣었다.“-페일님. 실리입니다.”- 무슨 일이지?“달리아님의 애완견이 찾아왔습니다. 페일님의 위치를 알려달라네요.”- 토비 델? 달리아도 함께 왔나?달리는 말 위에서 통신을 받은 듯, 페일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들렸다.“아니요.”실리는 휴버트 상회로 쳐들어온 토비의 만행을 약간의 사심을 담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했다. 그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 이런. 달리아는 이 통신구를 알고 있는 모양이군. 토비 델이 내 대답을 듣겠다고 버티고 있는 걸 보면.“그런 것 같네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며칠 걸려야 페일님과 연락이 닿을 걸 알 테니까.”- 뭐, 상관없어. 달리아의 정보원을 캐내는 건 돌아가서 논의하지. 일단 달리아에게 내 위치를 전달하도록. 직접 찾아오라고 전해. 독대도 허락한다.“저도 달리아님과 동행할까요?”실리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뗐다. 달리아가 간다면 혼자 갈 리 없었다. 토비를 비롯해 달리아의 수족이 모두 움직일 것이다. 과연 페일과 론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실리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너는 나오미를 지켜. 어쩌면 달리아가 나오미의 존재를 눈치챘을 수도 있으니. 토비 델에겐 두 번 째 토벌 장소를 알려주고 일주일 후에 그곳으로 오라고 전해.“알겠습니다. 그럼 이만.”실리는 다시 반지를 톡톡 건드려 통신구를 껐다. 통신구를 켤 때와는 반대로 빛이 나던 문양이 하나씩 가라앉았다. 반지가 완전히 투명해지길 기다렸다가 다시 환영 마법을 걸어 장신구를 모두 감췄다.“후.”실리는 잠깐 사이에 마력이 뭉텅뭉텅 빠져나가는 극심한 탈력감에 잠시 머리를 짚고 앉아 있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도는 느낌.왕족의 피를, 마법을 이었어도 미약하기 짝이 없는 마력은 5분이 채 못 되는 통신으로도 바닥을 보였다.실리는 시야가 진정되길 기다렸다가 다시 창고로 들어섰다. 토비가 집게를 던져 죽인 정보원의 몸에서 흐른 피 냄새가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비릿한 냄새와 먼지 냄새 가득한 곳에서 설탕을 잔뜩 넣은 차를 홀짝이는 살벌한 외모의 남자는 그린 것처럼 잘 어울렸고, 지독하게 잔인한 느낌을 풍겼다.“상회 창고가 이게 뭡니까. 제 정보원을 죽인 것과 창고를 부순 것은 달리아님께 편지로 항의할 겁니다.”“좋을 대로. 다만, 그 편지가 달리아님의 심기를 어지럽힌다면… 저는 당신의 손가락 마디 수를 두 배로 늘려드릴 겁니다. 손가락뼈를 다 반으로 분질러주죠.”실리의 투덜거림을 토비는 가볍게 받아쳤다. 실리는 정말 편지로 항의할 생각은 없었기에 질색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으로 살벌한 대화를 잘라버렸다.실리는 바로 용건을 말하고 토비를 돌려보낼 생각으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창고 입구에 서서 입을 열었다.“페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소람’에서 뵙자고 하셨으니 그리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마 하루 이상은 기다리지 않으실 테니 날을 꼭 지키세요.”“친절한 충고,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갈 테니 다음 기회에 다시 뵙길.”달리아가 원하는 소식에 토비의 만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짧게 스쳤다.“...네에. 다음에 뵙겠습니다.”기왕이면 아주 멀고 먼 미래에.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당신은 관짝에 누운 상태로요. 실리는 마음속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꾹 눌러 담고 떨떠름하게 다음에 보자 말하고는 떠나는 토비를 지켜봤다.토비의 기척이 저 먼 곳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실리는 창고 밖을 서성이던 자신의 호위와 정보원들을 창고 안으로 불러모았다.“여기 정리부터 하지. 당장 납기일 급한 게 있던가?”“2주 후에 고든의 영주가 주문한 밀랍 초 600개가 가장 급합니다.”“밀랍… 초는 약하니 다 부서졌겠군.”창고 우측의 선반이 전부 부서져 박스가 바닥을 나뒹굴고 있었다. 아마 밀랍 초는 충격을 못 이겼겠지. 실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밀랍 초는 하나에 금화 세 개씩 하는 건데.“미치겠군. 일단 물건 부서진 건 수량 파악하고, 당장 납기가 급한 것부터 대체품 찾아서 채워놔.”실리는 바닥에 널브러진 박스에서 시선을 돌렸다. 저 박스 하나하나가 손해 볼 금액이라고 생각하니 속이 쓰렸다.“그리고… 다음부턴 창고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거든 다 때려 부수기 전에 용건부터 묻고 나한테 전해. 가급적 빨리 올 테니까 다신 뭐 부서지지 않게 해.”쓰린 속을 애써 달래고 실리가 이것저것 지시하며 만신창이가 된 창고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허겁지겁 실리 앞으로 달려온 상회 직원이 조심스럽게 실리에게 말을 붙였다.“손실액은… 어떻게 처리할까요?”“...자연 재해로 장부 올리고 내 사재로 처리해.”실리는 조금 울고 싶었다.식물에 미친 현자 아비가일이 노후를 보낸 곳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소도시 소람.소람의 중앙광장에 있는 샘에는 아비가일이 죽기 직전에야 완성했다는 식물 성장의 마법 진이 가라앉아 있는데,샘이 있는 중앙광장부터 거미줄처럼 소람 전체에 뻗어 나가는 이 샘물이 닿는 영역에는 키우기 까다로운 식물부터 소람의 온화한 기후와 맞지 않는 식물까지 온갖 식물이 자랐다.‘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사고 싶은 이가 있다면 소국의 소람으로 가라.’ 는 말이 타국까지 번지곤 했으니, 소람에서 희귀한 꽃과 나무가 끝없이 펼쳐지던 그 황홀경은 가히 대단했다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적어도 마물의 서식처가 생기기 전까지는.‘현자 아비가일도 설마 샘물을 마시고 자란 식물을 탐내는 마물들이 소람으로 몰려올 줄은 조금도 몰랐겠지.’페일은 검을 허공에 휘둘러 검신에 진득하게 들러붙은 오물을 털어냈다. 소람에는 실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마물이 우글우글 몰려 있었다.“국경에서 본 거대 서식처보다 이곳이 마물의 밀도가 높았습니다.”거진 오백에 가까운 마물들이 그들을 향해 일제히 눈을 돌리던 광경은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렸다.론이 핼쑥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페일의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론의 망토는 마물의 피가 닿았는지 군데군데 검게 그을린 자국과 함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큰 부상은 없어도 이곳저곳 자잘한 흉터가 론의 전신을 뒤덮고 있었다.“이곳 식물이 입맛에 맞았던 모양이지.”페일은 입가를 비틀어 웃으며 몇 번이나 더 검을 휘둘렀다. 큼직하게 붙어 있던 마물의 살점이 얼추 떨어지자, 그는 검 끝을 바닥으로 향하게 고쳐쥐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포켓을 열어 녹색 빛이 도는 성수를 검 손잡이부터 검 끝까지 천천히 흘렸다.치이익.검신을 따라 흐르는 성수는 썩은 것처럼 검붉은 피를 태워 독하고 짙은 연기를 피워냈다. 지독한 냄새. 코가 얼얼할 만큼 독한 냄새가 올라왔다.“독하군.”꽃과 나무에서 나는 향으로 가득했던 소람인데. 너저분한 독연이라니. 페일의 푸른 눈이 깊게 가라앉았다.마물의 번식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국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들도 점점 망가져 갔다. 소국 전체를 놓고 보자면 지난 십 년 동안 벌써 나라의 오분의 일이 망가졌다.망가지는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빨라지기까지 하고. 과연 페일은 소국을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페일은 이를 악물었다.페일은 론과 후작가의 기사들도 페일이 뿌렸던 초록빛 성수를 검신에 들이붓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온통 불길한 빛을 띠는 매캐한 연기가 주변에 가득 피어올랐는데도 연기가 흘리는 지독한 냄새에 코를 감싸 쥐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익숙해졌군.’무감한 표정으로 연신 자신의 검을 살피는 기사들과 주변에 널브러진 마물의 사체에 정화 물약을 뿌리는 연금술사들의 모습을 보며 페일은 쓴웃음을 지었다.자신을 따라 무수한 토벌에 생사를 걸어온 자들은 생존을 자축하며 썰렁한 농담 한마디를 나누기보다 차분히 토벌을 마무리하고 다음 토벌을 준비하는 데 더 익숙한 자들이라서.하나같이 앳된 낯. 십 대부터 이십 대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이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삶의 환희를 느끼는 대신 페일의 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보고 때로는 살아갈 무수한 날을 포기한다.“언제봐도 기분이 더러워.”페일이 검게 물든 땅을 발끝으로 툭 건드렸다. 오염된 땅은 끈적한 늪처럼 질척거렸다. 그가 신발 앞 코에 들러붙은 검은 흙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을 때, 론이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왔다.“페일님. 누군가 접근하고 있습니다.”“아.”페일은 그제야, 멀리서부터 일부러 내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달리아가 잠깐 독대를 청했다. 론, 기사들과 연금술사들을 챙겨. 서식지 바깥에서 대기하도록.”“예.”론은 자신의 말에 올라타며 달리아라는 이름에 잠시 페일을 혼자 둬도 되는지 고민했다.‘굳이 페일님께서 독대를 언급하셨다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 없단 말씀이시겠지.’나름대로 결론 내린 론이 고개를 꾸벅 숙여 보이고 기사들과 연금술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는 것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페일이 그들에게서 휙 시선을 돌렸다.일부러 쿵쿵거리는 느낌이 다분했던 발걸음이 자신의 지척에서 멈췄으므로.페일이 독한 냄새를 흩뿌리는 연기 틈으로 시선을 주자, 경쾌하기 짝이 없는 웃음소리가 들렸다.“오랜만에 뵙네요, 페일님.”매캐한 검은 연기 속에서 하얀 레이스 양산을 든 토비와, 오렌지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을 연분홍색 리본으로 높이 올려 묶은 달리아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토비가 든 양산 속에서 반쯤 얼굴이 가려져 웃고 있는 입꼬리만 반듯하게 보이던 달리아가 양산 밖으로 쓱 빠져나와, 주위를 훑어보았다.발목을 드러내는 벨라인의 연분홍색 드레스와 붉은 깃털로 만든 장식용 부채를 손에 쥔 달리아는 오염된 검은 땅을 딛고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털끝 하나 더러워지지 않은 모습이라, 존재 자체가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겼다.“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셨군요.”페일은 그때까지 손에 쥐고 있던 검을 검집에 넣고 정중히 한 손을 가슴 앞에 댔다. 그리고는 잠시 시선을 돌려 론과 토벌대가 어디까지 물러났는지 잠시 확인했다.그들이 꽤 멀리까지 떨어져 조그맣게 보이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페일은 다시 달리아와 토비에게 시선을 주었다.“어머. 눈치가 제법 생겼네요?”페일님과 제가 독대하게 그냥 두진 않을 줄 알았는데. 달리아가 휙 휘파람을 불었다. 연분홍빛 드레스를 입고 있는 우아한 레이디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휘파람을 불어대는 것도, 예비 약혼자의 부관을 낮잡아 보는 것도 아주 불손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지만 페일은 달리아의 행동을 지적하기보다 장단 맞추는 쪽을 택했다.“론이 눈치가 생겼다기보단 그대가 조금 더 관대해진 것 같군요.”“뭐,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저는 앞으로 굉장히 관대해질 예정이랍니다.”달리아는 관대해졌다는 이야기는 제법 듣기 좋았다. 태교 겸 인내를 기르는 것도 좋겠지.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꼬리를 곱게 접어 웃었다.“그럼 관대하신 달리아님, 약혼으로 할 말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흐응. 관대해진 김에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귀족다운 대화나 해볼까 했는데. 뭐, 좋아요. 약혼을 앞당겼으면 해요.”“약혼을요.”페일은 달리아의 의중을 쫓아가려는 듯 그녀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탁한 기운 하나 없이 투명한 눈은 매캐한 연기와 오염된 것들로 가득한 곳에서도 빛을 잃긴커녕 반짝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네. 약혼을요. 아, 그리고 결혼도 빨리했으면 하는데요.”달리아가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녀의 경쾌한 어조와 반짝이는 눈망울에 서린 은근한 기쁨을 읽고 페일은 당황스러움에 인상을 찌푸렸다.그가 고개를 삐뚜름하게 꺾으며 눈짓으로 그녀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토비를 가리켰다.토비 델. 세간에는 달리아의 애완견으로만 알려진, 달리아의 연인을.“우리 계약에 결혼이 있던가요?”페일이 토비와 달리아가 연인 사이임을 상기시키려는 듯 눈짓을 보내자 달리아는 장식용 부채를 쫙 펼쳐서 자신의 입가를 가렸다. 그녀의 주황색 눈이 곱게 접혔다.“없었죠. 내가 당신과 약혼해서 ‘그 일’을 처리해주면 당신은 내 토비의 신분을 복권해주고 우리는 파혼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페일은 고개를 끄덕였다.“게다가… 당신은 토비 델과 결혼하는 것까지가 목표 아니었습니까? 왜 저와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지?”페일이 달리아와 토비에게 번갈아 시선을 주었다. 달리아가 탁 소리가 나게 부채를 접고, 어느새 자신의 위로 양산을 씌워주고 있는 토비의 팔뚝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임신했거든요.”“...네?”“그러니까, 이제부터 넣죠. 약혼, 파혼 사이에 결혼 하나쯤 넣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달리아가 달콤하게 웃었고 토비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서 있었으나 귀 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페일은 한참이나 침묵한 후에야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었다.‘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적을 해야 하는 건지.’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달리아의 옆에서 귀 끝을 발갛게 물들인 토비 델이겠지. 페일이 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달리아는 재빨리 약혼하고 결혼까지 하자고만 말했지만, 그 이유가 임신 때문이라면 달리아와 토비 사이의 아이를 엘로이 후작가의 아이로 두겠다는 뜻과 다를 게 없었다.페일의 후계로 삼을 아이가 생긴다면 물론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게 달리아와 토비의 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달리아도 토비도 집요함으로는 누구도 따라 올 자가 없는 이들이니 분명 토비가 신분을 되찾고 나면 아이를 데리고 마이엔펠트로 돌아갈 테니까.페일은 후작가의 후계가 생겼다가 사라질 그 여파를 도무지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다.“...거절합니다. 제정신인가요 달리아?그대와 내가 결혼한 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엘로이 후작가의 아이가 된다는 걸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페일은 달리아를 차디찬 눈으로 보며 낮게 이야기하다가 토비를 휙 노려보았다. 토비가 들고 있는 흰 레이스 양산 끝이 페일의 목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어서.“토비, 내려.”달리아가 직접 양산을 꾹 쥔 토비의 손을 아래로 끌어내렸다.“모를 리가요. 흠, 그래도 이렇게까지 거부하실 줄은 몰랐어요. 못이기는 척 몇 가지 조건을 더 거실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달리아가 입술을 작게 삐쭉댔다. 그녀가 가볍게 눈을 흘기고 입을 다물자 그들 사이에서 꽤 오랜 시간 침묵이 감돌았다.달리아는 페일이 자신과의 결혼을 꺼림칙해 하더라도 거부할 거라곤 생각해 본 적 없었다.그녀는 소국에서 손에 꼽힐 만큼 강한 사람인 데다, 페일과 이해타산이 제법 맞는 축에 속하니 ‘그 일’ 외에 다른 것을 몇 가지 더 조건으로 걸고 페일이 결혼을 받아들일 줄 알았다.그들 사이에 내려앉은 침묵이 깊어졌다. 어느덧 마물 서식처에 가득했던 연기도 많이 흩어졌다. 페일은 한참 입을 다물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입을 열어 침묵을 깼다.“우선…, 약혼은 다음 달 초에 하고, 그대가 제 저택에 들어와 사는 건 어떻습니까.”“결혼 대신 동거라.”달리아가 자신의 양 팔꿈치를 감싸고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페일의 제안을 곱씹었다.약혼 기간 중에 임신하는 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일이었다. 자칫하면 약혼자가 아닌 타인과 사이에서 가진 아이임을 눈치채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고.평판 따위 개나 주고 사는 달리아에게 사람들의 입방아는 고민할 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아이의 친부를 찾다가 토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건 곤란했다.‘토비가 수면 위로 나오는 건 최소한 신분을 돌려받은 뒤여야만 해.’마이엔펠트의 이름 아래에 숨겨두었다곤 해도 토비는 종의 신분인 데다, 이미 왕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다. 왕이 얼마나 개차반이건, 토비가 어떤 부당한 일을 겪었든 간에 왕은 왕이라. 죽이려는 시도만으로도 이미 토비는 반역자였다.신분을 되찾고 모든 의혹을 어둠 속에 파묻어야 한다.그 후라면 모를까 어떤 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지금 토비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 그의 신분부터 그의 행적까지 모든 게 파헤쳐져, 반역자인 토비는 죽을 테고 그를 숨겨주었던 마이엔펠트 또한 몰살당할 것이다.차라리 페일과 약혼 후 동거를 시작한다면?적어도 달리아가 가진 아이가 타인의 아이라고 의심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구설에 오르더라도 정숙하지 못한 자신과 페일에게 화살이 돌아갈 테니까. 친부를 찾고자 하지 않으면 토비가 드러날 일도 없으리라.달리아는 긴 고민을 마치고 페일에게 손을 내밀었다.“좋아요. 약혼은 최대한 간소하게 제가 준비해둘게요.”“약혼 계약은 그대가 제 저택에 들어오는 날 갱신하는 거로 합시다. 제 조건도 더 추가해야 하니까.”쪼잔하긴. 달리아가 투덜거리는 소리를 못들은 체 흘려넘기며 페일이 제 손에 끼고 있던 아대를 벗고서 달리아의 하얀 손을 잡았다. 그가 손등에 입을 맞추기 전 달리아는 손을 휙 빼고는 인사도 없이 뒤로 돌아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마법을 펼치고 난 뒤에 퍼지는 마력 파동이 페일의 예민한 감각에 요란한 경종을 울렸다.“이젠 숨기지도 않겠다는 건가.”페일은 헛웃음을 터트렸다. 의심이야 하고 있었지만 정말 토비 델이 마법사였을 줄이야.오늘도 실리는 달이 꼭대기에 걸렸을 때에야 후작저로 돌아왔다.토비가 난장판으로 만든 창고는 당장 납품해야 할 물건들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쓰던 곳이라, 부서진 물건의 대체품을 찾아 납품하고 망가진 창고 대신 물건을 보관할 새 창고를 찾고 토비가 죽인 사람들을 수습하느라 지난 2주는 실리에게 가히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실리가 피곤함을 느끼며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어린아이의 뜨끈한 몸이 답싹 그의 품으로 달려들듯 안겨 왔다.“아가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실리! 실리를 기다렸어요!”아이보리색 도톰한 원피스를 입고 종아리 중간까지 내려오는 긴 녹색 카디건을 입은 힐이 들뜬 목소리로 실리를 반기며 그의 서늘한 로브 자락에 얼굴을 비볐다.“세상에. 너무 늦게 주무시면 키가 안커요.”힐이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마주 보며 입술을 삐죽이다가 이내 맑은 웃음소리를 냈다.한쪽으로 땋아 내린 머리카락은 어두운 저택에서도 은근한 빛이 났고 말간 회색 눈은 기쁨이 서려 찬찬히 살펴보고 있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 켠에 부드러운 바람을 불러오는 천진함이 느껴졌다.실리는 그녀의 머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쓰다듬고 힐을 안아 들었다. 그간 잘 먹인 게 뿌듯할 정도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제법 묵직한 무게감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머크가 왔어요.”힐이 그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있다가 퍼뜩 생각난 것처럼 실리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오늘 포크 쓰는 법을 두 번이나 검사했어요. 머크가요.”에드워드도 안 말려줬어요. 불만 섞인 속삭임은 점차 낮아졌다. 눈썹을 모아 미간을 찌푸리는 그 표정은 묘하게 에드워드가 불만을 표할 때의 표정과 닮아 있었다.“이런. 머크가 온 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지금까지 안 주무신 건가요?그나저나…. 아가씨의 포크 질은 완벽한데도 세 번이나 검사했다니. 머크를 혼내줄까요?”저택에 갓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피곤으로 무거웠던 눈이 가벼워지는 느낌. 이런 게 피로가 싹 가신다는 걸까. 실리는 힐을 안고 중앙 계단을 오르며 힐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귓가에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마치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세 번이 아니라 두 번이요. 실리가 머크를 혼내도 괜찮아요?”실리의 말을 정정하면서도 힐의 눈이 동그랗게 뜨였다. 에드워드와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힐도 제법 배운 게 있다 보니, 페일의 밑에서 일하는 실리와 머크가 같은 위치라는 것쯤은 이제 힐도 알고 있었다.그리고 ‘혼낸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놀라는 듯하면서도 은근한 기대감이 느껴지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실리는 푸스스 웃었다.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던 힐이 제 귓가 바로 옆에서 실리가 웃자, 간지러운 바람이 귓가에 닿아서 귀를 쓱쓱 비벼 문질렀다.“아가씨, 저는 왕족 방계 출신인걸요. 뭐, 페일님 밑에서 일하는 건 똑같지만 타고난 건 제가 위란 소리죠. 그러니까-, 네. 저는 머크를 혼내도 괜찮아요.그리고 제가 페일님과 가장 오래 일한 부관이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제가 선배죠.아가씨를 괴롭힌 못된 머크는 다섯 번도 혼내도 괜찮아요.”이 조그만 아가씨가 머크를 혼내달라 말하면 그걸 핑계 삼아 지금껏 페일과 다른 부관들의 몫까지 혼자 맡았던 설움을 담뿍 담은 잔소리나 해볼까. 실리의 녹색 눈에 장난기가 가득 서렸다.힐은 한참 고민하다가 이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곱게 땋아 내려 끝부분에 선명한 녹색 레이스 리본을 묶은 긴 머리카락이 함께 살랑거리며 실리의 손등을 간지럽혔다.“아니요. 실리가 머크를 혼내면 제가 일러서 두 사람을 이간하는 거니까. 제가 포크 쓰는 법 검사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직접 말할래요.”2층 층계참에서 실리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가 새삼스럽단 표정으로 제법 똑 부러진 소리를 하는 힐과 눈을 맞췄다.“우리 아가씨는 관대하기도 하시지.”물음에 아무것도 대답할 줄 모르던 힐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컸다. 거칠고 마른 몸에 뽀얗게 살이 오르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머릿속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이나 판단력 같은 게 많이 자랐다.실리나 에드워드와 대화하며 쓸 수 있는 어휘도 많이 늘었고 자신의 가치관이 점점 선명하게 자리 잡는 게 느껴졌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할 수 있을 만큼.대화 사이에 답할 말을 찾느라 생각하는 시간은 여전히 길었고, 말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지만.‘그것도 금방 고쳐지겠어.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힐은 실리의 어깨에 다시금 고개를 푹 파묻었다. 힐은 실리가 자신을 칭찬해주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았다.“어디로 가는 거예요?”실리의 걸음이 힐의 방이 있는 쪽과는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힐이 아직도 바깥의 서늘한 바람 냄새가 나는 실리의 로브 자락에 고개를 묻고 웅얼거리듯 물었다.“집무실에요. 아가씨는 아직 가본 적 없죠?”“실리의 집무실인가요?”“음. 아뇨. 후작저에서 가장 큰 집무실에 가는 건데, 거긴 저랑 머크, 론이 같이 써요. 머크가 돌아왔으니까 얼굴을 보러 가는 거예요.”관대하고 상냥하신 우리 아가씨도 함께요. 실리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시선을 내려 자신을 보고 있는 힐의 동그란 눈을 바라봤다. 또 뭔가를 고민하는 듯, 회색 눈망울이 이리저리 굴러다녔다.“실리는 오늘 머크가 오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알아요’가 아니라 ‘알았어요’가 맞아요. ‘오늘 머크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가 더 좋죠.”실리는 힐의 말을 다듬어주며 다시 해보라는 듯 힐을 보며 살짝 눈웃음을 지었다.“실리는 오늘 머크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실리가 그녀의 등을 받쳐주던 손을 올려 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힐이 조심스러운 실리의 손길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 직접 고개를 뒤로 젖혀 그의 손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비볐다.“머리가 망가질 텐데요.”실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좀 더 손에 힘을 줘서 그녀를 쓰다듬었다. 힐이 만족할 때까지 몇 번이나 더.“머크에게 직접 들었어요. 저희끼리는 서로 연락할 방법이 있거든요.”“멀리 있어도요? 편지 안 쓰고도?”힐의 눈이 동그래졌다. 회색 눈망울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실리는 묘한 즐거움을 느꼈다.“네. 멀리 있어도요. 자주 쓰진 않지만 급한 일이 있으면 페일님께도 연락한답니다.”“저도 할 수 있어요?”힐은 신기함에 궁금증이 잠깐 일었을 뿐이었는데, 페일과 연락할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아 다급히 물었다.그녀가 고개를 휙 들어서 하마터면 실리의 턱과 장렬히 부딪힐 뻔했는데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실리가 어서 대답하길 바라며 그의 입에 시선을 고정했다.실리는 환영 마법으로 감춰둔 반지를 떠올렸다. 자신이 몇 년이나 연구해서 만든 회심의 역작, 통신구 시리즈를 반지와 귀걸이, 목걸이로 두 개씩 만들어뒀던 것도.자신이 반지 하나를 쓰고 있었고, 페일이 다른 반지 하나와 목걸이 하나, 머크가 다른 목걸이를, 론은 귀걸이를 쓰고 있다.‘남은 건 귀걸이뿐인데.’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힐의 동그란 귓바퀴를 바라봤다. 우리 아가씨는 귀도 동그랗네요. 그가 조그맣게 중얼거리며 한참 그녀의 귀를 관찰했다.소국에는 어린아이가 붉은 보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광증과 돌림병을 막아준다는 속설이 있다. 그 속설이 근래에는 일종의 장수를 기원하는 민간의식으로 발전해서, 아이가 오래 건강하게 지내라고 다섯 살 생일부터 여섯 살 생일까지 붉은 돌이나 보석으로 만든 장신구를 지니게 하곤 했다.귀족 가문에서는 질 좋은 루비로 귀걸이를 만들어 항상 끼고 있게 하므로 다섯 살이 되면 귀를 뚫곤 했다.힐은 태어날 때부터 종들의 성에서 살아온지라 장수를 기원하는 루비 귀걸이는커녕 장신구 하나 걸쳐본 적이 없었고 하얗고 동그란 귓불은 상처 하나 없이 매끈했다.“못할 건 없지만…, 귀를 뚫어야 해요.”“귀를요?”“네, 귀걸이를 착용해야 할 수 있는 거라.”힐의 콧잔등이 찡긋거렸다. 실리가 무언가 마음에 썩 들어차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 힐에게도 애매하게 배어들어서, 실리는 그녀의 콧잔등을 살짝 쥐었다 놓으며 크게 웃었다.“저는 못 하겠네요. 저는 페일님의 것이니까?”몸에 마음대로 상처를 내면 안 되잖아요. 힐이 시무룩하게 덧붙였다. 페일이 어디에 있건 연락할 수 있는 귀걸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자신은 페일의 것이고 아주 작은 상처라도 마음대로 내서는 안 된다. 힐의 눈썹이 아래로 축 처졌다.“...당장은 어렵겠지만 돌아오시면 여쭤보세요.”실리가 그 모습을 보며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마음 같아서는 귀 정도야 뚫게 해주고 싶었지만, 스스로가 페일의 것이라고 단정 짓는 그녀에게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기 어려워서.힐에게 애정을 주고 끊임없이 스스로가 페일의 것임을 의심하지 못하게 한 건 자신이었으니까.실리는 마음 한 켠에서 조금 위화감이 올라와 속이 거북해지는 것을 애써 무시했다.“여기랍니다.”실리가 집무실 문 앞에 서서 힐을 제품에서 내려주었다. 연노랑 색 털실 슬리퍼가 소리도 없이 바닥에 닿았다.힐은 약간 말려 올라간 원피스 자락을 탁탁 펴서 추스르고 집무실 문을 작은 주먹으로 콩콩 두드렸다.집무실 문에도 머크가 달아둔 도어 노커가 있었지만, 실리의 반대에 못 이겨 문 위쪽에 장식품처럼 달아둔 터라 힐의 손에 닿지 않아 그녀는 직접 주먹을 쥐고 문을 두드렸다.실리는 고작 문을 콩콩 두드렸을 뿐인데도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조그만 주먹을 보고 도어노커를 아래쪽으로 옮겨 달아야겠다고 다짐했다.머크의 강박증에 장단 맞춰주는 기분이 들어 도어 노커를 뜯어버릴 기회만 노려왔지만, 자신이 모시는 아가씨 손이 아프지 않을 수 있다면 그깟 강박증에 장단 맞춰주는 게 뭐 어떻다고.실리는 문 안쪽에서 머크가 대답하길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무실 문을 열었다.문을 직접 열어줄 생각이었는지, 머크가 문가로 다가오던 모습 그대로 실리와 힐을 맞이했다.“아가씨. 이런 곳까지 직접 오시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머크의 시선이 실리에게 닿았다가 금세 힐에게 닿았다. 그가 노련하게 놀란 기색을 감추고 힐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묻자 힐은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실리랑 같이 온 거예요.”“오랜만이군. 실리.”머크는 그제야 실리에게 인사했다. 근 두 달 만에 만나는 동료를 향한 인사라기엔 조금 무뚝뚝해 보여, 힐은 살짝 조마조마하게 머크와 실리를 번갈아 바라봤다.자신은 오늘 아침에 본 실리가 다시 저택에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가 맞이할 때도 달려 나가 끌어안곤 했으니, 아마 머크와 실리도 서로 끌어안고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무색할만큼 태연한 인사여서.‘내가 있어서 예의를 차리는 걸까?’힐은 머크가 저택에 돌아와 자신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도 그의 품 안으로 달려가다가 에드워드에게 한 소리 들었던 걸 떠올렸다. 마구 끌어안으면 안 된다고 자신에게 한참 이야기하다가, ‘너무 기뻐서 그랬어요.’라고 말하는 힐에게 에드워드는 한숨을 폭 내쉬고 정 기쁘면 둘이 있을 때 끌어안으라고 했었다.‘어쩌면 둘이 있을 때만 끌어안고 기뻐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제법 그럴듯한 가설에 힐은 고개를 주억거렸다.“저는 두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제 자러 갈게요. 좋은 밤 되세요, 두 분.”힐이 한 손을 가슴팍에 대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서 누가 붙잡을세라 재빨리 집무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흰 뺨에 발그레하게 기쁨이 피어올랐다.‘두 사람이 마음껏 기뻐할 거야.’달이 서서히 저물고 있다. 어서 잠들어야 내일 아침을 다 같이 먹을 수 있을 것이다.힐은 들뜬 걸음걸이로 자신의 방을 향해 걸었다.“아가씨가 뭔가 기쁜 것 같은데.”실리는 통통 튀는 발소리를 들으며 입꼬리를 쓱 당겨 웃었다.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 푸른 빛이 도는 술병과 투명한 진이 담긴 술잔 하나가 집무실 가운데 있는 큰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뭘로?”머크가 실리의 혼잣말을 무시한 채 집무실 한쪽에 놓여 있는 진열장에서 위스키 잔 하나를 꺼내며 실리에게 눈짓했다.“같은 거.”실리는 머크가 이리저리 살피던 서류 더미를 슬쩍 곁눈질로 살피며 입고 있던 로브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 자리에 앉았다. 머크는 실리 앞에 위스키 잔을 놓았다. 묵직한 크리스털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작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약혼식 이야기는 들었지?”실리가 눈을 감고 눈두덩이를 꾹꾹 누르며 물었다. 머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이 마시던 술병을 들어 실리의 잔에 따르자, 맑은 물소리가 들리고 이내 알싸한 허브향이 독하게 밀려들었다.실리는 제 눈앞에 놓인 잔을 들어 단숨에 반을 삼켰다. 도수가 높은 술이 입술부터 혀뿌리를 타고 뱃속까지 뜨겁게 달궜다.“그래. 딱 보름 남았던가. 그대는… 연회 이야기를 들었나?”머크는 몇 번이고 술을 들이켜는 실리를 바라보며 한참이나 동상처럼 서 있다가, 실리의 잔이 텅 비었을 때야 빈 잔을 다시금 채워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깊게 가라앉았다.“들었어. 연회를 열 필요 없으니 사람 스물을 달라고 했다며?”그 마물 놈들이 말이야. 인신 공양에 미친 것들. 후. 숨을 내뱉자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김이 역류하듯 입술을 비집고 쏟아졌다.실리는 손에 든 잔을 천천히 돌렸다. 가득 찬 액체가 찰랑대며 잔 속에서 끝없이 휘돌았다.‘와. 이딴 이야기에 이런 분위기까지. 정말 싫은데?’방금까지 귀여운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며 한순간이나마 좋았던 기분이 다시금 저 아래로 고꾸라져 진창으로 처박히는 느낌.“연회를 열어서 즐겁게 재롱부려주는 대신 죽는 목숨을 좀 줄이고 싶었는데.”한숨 같은 웃음이 흘렀다.“그래 뭐. 좋아. 어쩔 수 없지.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면 스물이 아니라 수백이 죽어 나가는데 어쩌겠어. 스물, 스물이라.”실리는 머크가 묵묵히 술을 마시며 침묵을 지키는 모습에 아량곳 하지 않고 혼잣말을 주절대다가 양손에 고개를 파묻고 제 얼굴을 몇 번이고 쓸었다.“...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데?”내가 언제 아이살레테를 마지막으로 만났더라? 새로 만든 세뇌 약은 아직 사람한테 써본 적이 없는데. 실리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었다.“모레까지 네 명을 먼저 보내야 해. 그다음 날짜는 따로 기별하겠다는군.”“무희들은 아직 준비가 덜 끝났어. 광대로 넷 먼저 보내는 건?”“그래. 내가 골라 보내지. 자넨 좀 쉬는 게 좋겠군.”제아무리 유능해도 실리는 한 명이라. 힐을 돌보고 페일과 다른 부관 몫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두시간도 자지 못하고 일만 해야 했다. 거기에 휴버트 상회 창고 일까지 더해서 근래엔 잠은커녕 발 뻗고 앉아 쉰 적도 없고.머크는 실리의 거뭇한 눈가나 평소보다 날 선 눈빛, 거친 단어 선택을 보며 그의 상태를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무거운 표정으로 자기 몫의 술을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쓰고, 맵고, 떫은맛. 마시자마자 머리끝까지 어지러워지는 술은 술보다 역한 현실을 입에 담을 때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려면 이 또한 필요한 거다.머크와 함께 밤새 술을 진탕 마신 실리는 조찬 시간이 돼서야 집무실 밖으로 걸어 나갔다.비틀비틀 걷는 실리와 똑바른 걸음걸이로 실리보다 조금 뒤에서 걸어오는 머크. 두 사람은 비록 걸음걸이는 달랐으나 곧 죽을 것 같이 새빨간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다는 점은 똑같았다.“아, 조찬이고 뭐고 잠이나 자고 싶은데.”우욱, 헛구역질이 올라와서 실리는 걸음을 멈추고 메슥거리는 속을 부여잡았다. 안주 하나 없이 술을 마셨어도 밤새 술을 마셨더니 배가 고프기는커녕 위에서 액체가 찰랑거리는 느낌이 들었다.‘아니… 배가 고팠어도 몰랐을 거야. 속이 쓰려서.’이렇게 속이 아프면 배가 고픈 게 느껴질 리 없으니까. 실리는 깨질 듯한 머리와 쓰라린 속을 부여잡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과 다시 이렇게 밤새 술을 마시면 자신은 사람도 아니라는 소리를 번갈아 했다.실리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대꾸한 번 없이 묵묵히 걷고 있는 머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 상태는 비슷했다. 머크는 속으로 집무실에 달고 가벼운 아이스 와인이나 샴페인 대신 진과 위스키 같은 독한 것들만 가득 채워둔 과거의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다.“간 밤은 평안하셨나요, 두 분?”조찬을 위해 식당으로 내려가던 에드워드가 실리와 머크를 먼저 발견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벌꿀 빛 머리카락이 약간 숙인 고개를 따라 부드럽게 흘렀다.“에디. 잘 잤나?”실리가 헤죽 웃으며 그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실리의 손은 빨갛고 뜨거워서 에드워드는 질색하며 실리에게서 한발 뒤로 물러나 그를 살폈다. 킬킬대는 웃음소리는 평소랑 다를 것 하나 없었지만, 평소보다 굳은 표정이나 발갛게 달아오른 피부는 멀쩡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에드워드는 인상을 찌푸렸다. 눈썹을 모아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어젯밤 아가씨 표정이랑 똑같은데.’실리는 어젯밤에 힐이 지어 보였던 표정과 꼭 같은 표정을 보고 에드워드에게 바짝 붙어 ‘후-’하고 입김을 불었다. 알싸한 허브 향이 알코올 향과 함께 훅 끼쳐오자, 에드워드는 질색하며 고개를 돌렸다.“술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요.”에드워드가 고개를 돌리고 재빨리 실리 옆을 지나쳐 식당으로 걸었다.“...아가씨를 뵈어야 하는 데 큰일이네.”실리는 자신을 앞질러 휙 걸어가는 에드워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손끝을 주물렀다. 빨갛게 달아오른 손끝은 빈말이라도 멀쩡하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이럴 땐 자네가 부러워. 낯빛은 하얗잖아.”“...말 시키지 말게. 입 열면 술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머크는 새하얗다 못해 퍼렇게 질려 있었다. 실리가 그 퍼런 얼굴을 보며 자지러지게 웃었다. 생각해보면 머크도 자신도 술을 잘하진 못하는데, 꼭 이렇게 진탕 마셔서 다음 날 죽도록 고생을 하곤 했다.“아무래도 우린 미련한 게 맞는 것 같아.”“...”실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천천히 식당으로 움직였다.실리와 머크를 앞질러 식당에 온 에드워드는 식당 문을 열고 기다란 식탁 오른쪽 끝에 앉은 힐의 옆자리에 재빨리 앉았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건 처음이라서 에드워드는 의자를 빼고 그 옆에 앉는 과정이 어쩐지 어색하게 느껴졌다.함께 식사할 때면 그녀의 옆자리는 보통 식사 시중을 들기 위해 실리나 머크가 앉고 에드워드는 그 맞은 편에 앉곤 했다. 에드워드는 힐의 예법 친구라, 그녀의 옆자리가 아니라 맞은 편에 앉는 게 예법상 맞았으므로.‘술 냄새 풍기는 그분들을 나오미 옆에 앉게 하느니 내가 앉는 게 낫겠지.’에드워드는 다시 생각해도 불쾌하다는 듯, 콧잔등을 한 번 찌푸리고는,“나오미, 간 밤은 평안하셨나요?”예쁘게 웃으며 힐이 뭐라고 입을 열기 전에 선수 치듯 인사를 건넸다.“아? 음. 네. 에드워드도 평안하셨나요?”“네. 제가 잠들 기 전 읽기 좋은 책을 몇 권 샀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어젯밤에 그중 한 권을 읽고 잤더니 드물게 좋은 꿈을 꿨죠.”에드워드는 실리와 머크가 식탁에 자리 잡고 앉는 동안 비틀거리는 모습을 힐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녀에게 말을 붙이며 주의를 끌었다.“와-, 이야기책인가요? 어떤 책이길래 좋은 꿈을 꾸게 해준 거예요?”“네. 다비드라는 남자가 주인공인 이야기책인데 아주 잔잔한 소설이에요.”“다비드. 처음 들어본 이름이네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다행히도 이야기를 좋아하는 힐이 눈을 반짝이며 대화에 응해주었다. 에드워드는 다비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책 내용을 차분한 목소리로 들려주면서 실리와 머크가 자리에 제대로 앉는지 살폈다.그들이 혹시라도 의자에서 비틀대다 자리에서 고꾸라지기라도 한다면, 에드워드는 재빨리 힐을 일으켜 그녀의 응접실로 가버릴 생각으로. 저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힐의 눈을 위해서도 그런 추한 꼴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을 테니까.“아가씨, 지난밤엔 평안하셨습니까?”머크가 퍼렇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 앉아서 힐을 향해 인사를 건네었다. 힐은 그제야 머크와 실리가 자리에 앉은 걸 눈치챈 듯, 당황으로 얼굴을 붉혔다가 금세 고개를 우아하게 까닥여 머크의 인사를 받아주었다.“네, 머크랑 실리도 평안하셨나요?”“평안했다고 하고 싶은데, 속이 아프네요. 보시다시피 둘 다 멀쩡하진 못하답니다.”실리는 새파란 머크의 낯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술을 잔뜩 마셔서요.’라고 덧붙였다. 힐의 시선이 불손하기 짝이 없는 실리의 손가락을 타고 머크의 낯에 닿자, 힐은 ‘엣, 어?’ 하는 소리만 한참을 내며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에드워드는 식전 차를 한 모금 삼키고,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찻잔을 내렸다. 그리고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머크와 실리를 번갈아 바라보는 힐을 잠자코 지켜보다가, 힐의 눈썹이 조금씩 아래로 쳐질 때서야 그녀의 앞으로 손을 뻗었다.우아한 손가락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가, 이내 눈을 살짝 덮었다. 에드워드의 손은 방금까지 찻잔을 잡고 있어서인지 따스했다.“나오미. 눈을 굴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먼 곳을 보세요.”그가 힐의 눈을 가렸던 손을 떼고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힐이 동그란 눈으로 에드워드가 우아하게 쭉 뻗은 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녹색 눈과 식당 창문 너머의 큰 나무를 번갈아 가리키는 것과 시범을 보이듯 그의 시선이 검지 손가락을 따라 창밖의 큰 나무까지 닿는 것을 지켜보았다.힐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심스레 에드워드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시선을 옮겼다.“이렇게요?”“네, 아주 잘했어요.”힐이 에드워드와 눈을 맞추고 살포시 웃었다. 흰 뺨에 볼우물이 생기고 분홍빛 도는 조그만 입술이 위로 휘어지고. 에드워드는 다시금 찻잔을 들어 히비스커스 티를 입에 머금었다. 붉은 히비스커스 티는 새콤하고, 떫으면서도 어딘가 달콤한 것 같기도 했다.힐은 실리와 머크의 상태를 살피면서도 에드워드가 알려준 대로 눈을 굴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창밖 나무를 빤히 바라봤다.‘오늘 머크한테 포크 질 검사하는 게 싫다고 하려고 했는데.’힐은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꼭 스스로 말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을 떠올리며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다. 실리에게도 스스로 말하겠다고 했으니 잊어버리기 전에 말을 하고 싶었는데 머크가 아파 보여서 차마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누가 아플 때는 말을 걸지 않는 게 좋아.’아프면 날카로워지니까. 종들의 성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바느질 방. 그곳에서 영감이 죽을 때도 피 기침을 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을 때렸었다.‘꼭 영감만 그런 건 아니야.’대부분의 종이 그랬다. 아플수록 사납게 날을 세운다.높은 피라면, 실리와 머크라면 다를까? 힐은 쉽게 답을 내지 못했다. 겪어본 것과 말로 배운 예법은 힐에게 와닿는 정도가 달라서, 남자인 그들이 여자인 자신을 때리거나 화낼 리 없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이는 건 어려웠다.힐이 머크에게 포크 질 검사는 싫다고 말한다는 당초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 실리와 머크는 아플 때 화를 낼까를 한참 고민하는 동안, 시중인들은 그들 앞에 따뜻한 클램차우더 스프와 버섯과 브로콜리를 넣은 스프, 토마토와 파프리카 가루를 넣어 끓인 묽은 스프와 갓 구워 말랑한 흰 빵 바구니를 차례로 놓았다.힐은 눈앞에 황홀한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버섯과 브로콜리를 잔뜩 넣은 걸쭉한 크림 베이스의 스프가 놓이자 모든 생각을 저 너머로 휙 밀어버렸다.힐이 쩝쩝 입맛을 다시지 않게 조심하며 스푼을 들어 스프를 떠 입에 넣었다. 입안에 온통 고소한 스프가 가득 찼다.“으음.”힐은 저도 모르게 눈을 꾸욱 감았다가 번쩍 뜨고 방싯 웃었다. 얼핏 봐도 티가 날 만큼 스푼을 쥔 손에 절로 힘이 가득 들어갔지만, 예전처럼 스푼을 흔들며 기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힐을 보며 실리가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다.“와. 좀 살 것 같네요. 우리 아가씨 고민이 싹 사라지신 것 같은데, 뭘 고민하셨나요?”토마토를 잔뜩 넣은 묽은 스프를 좀 먹으니 숙취가 좀 가시는지, 힐에게 말을 건네는 실리의 표정도 꽤 밝았다. 아직 새빨간 건 여전했지만.힐이 실리의 웃는 표정을 보고 반쯤 녹은 버터처럼 사르르 풀린 표정으로 대답하려 할 때, 에드워드가 동그란 모닝 빵을 반으로 갈라 무화과 잼과 염소젖으로 만든 치즈를 끼워 살짝 벌어진 힐의 입에 직접 넣어주었다.“에드워드?”불경하게 아가씨 입에 지금 뭘 한 거야? 머크가 에드워드를 부르고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어정쩡한 자세로 손을 뻗었다가 실리의 제지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머크님도 하나 드릴까요?”에드워드는 말을 하려다 입에 텁 들어온 빵을 오물오물 씹는 힐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힐에게 건넨 것과 같은 동그란 빵을 눈짓으로 가리켰다.“...나는 괜찮다. 속이 그리 좋지 않아서.”“속이 아파요? 밥을 먹어도 괜찮은가요?”배가 아프면 많이 자야 해요. 자고 일어나면 나아요. 힐은 입에 묻은 빵가루를 냅킨으로 툭툭 털어내고서 조곤조곤 자신의 빨리 낫기 비법을 알려주었다. 두 눈 가득 걱정을 잔뜩 머금고서.“아. 괜찮습니다. 아가씨께 어서 알려드려야 할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머크가 은제 스푼을 손안에서 몇 번 만지작거리다가 옆에 내려두고 무릎에 얹어두었던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별로 먹은 게 없어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제스쳐나 다름없어서 힐은 아쉬움 가득한 눈으로 고소한 스프를 잠깐 바라보다가 이내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다.실리가 머크를 곁눈질하고 ‘먹고 하지?’라고 중얼거리는 게 들렸지만, 머크도 힐도 모른 체 했다. 오직 에드워드만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실리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제가 알아야 할 게 뭔가요?”힐은 목소리에 힘을 주려고 배에 힘을 주고 가슴을 폈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이렇게 자세를 만들고 말을 하는 게 더 어려웠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습한 덕에 한 시간은 이 자세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페일님께서 오시면 자세히 말씀 주시겠지만-, 곧 페일님께서 약혼을 하십니다.”힐은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페일에게 예비 약혼녀가 있다는 것, 약혼하고 나면 그때 힐 자신과 페일의 약혼녀를 만나게 할 거라는 것, 그분과 만났을 때 조심할 점 같은 것은 이미 실리에게 잔뜩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네. 네 달 정도 남았나요?”“원래는 그랬습니다만, 앞당겨졌습니다. 보름, 아니 이제 딱 이주 뒤에 약혼하실 겁니다.”힐의 입이 놀람과 기쁨으로 적게 벌어졌다.실리가 페일이 토벌을 떠난 후 부쩍 많이 울었던 자신에게, ‘페일님께서 약혼을 하시면 아가씨도 밖에 나가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라고 자주 속삭여주던 게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서.힐의 회색 눈이 실리에게 닿았다.실리는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지독히 가라앉은 눈으로 입꼬리만 끌어당겨 웃고 있었다.“...해서 아가씨를 보살필 레이디스 메이드를 먼저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의 드레스를 맞출 전속 디자이너도 함께 저택에 들일 것 같습니다.”힐의 시선이 머크에게 다시 닿았다. 이렇게 빨리? 얼떨떨하면서도 맘이 부풀어 올랐다.“좋아요.”“어떤 점이 제일 좋으신가요, 아가씨?”실리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짙은 녹색 눈동자가 힐의 표정을 샅샅이 훑었다.“어, 음. 잘 모르겠는데-, 다정하고 상냥한 사람이 오면, 그러면 엄청 좋을 거예요. 또 바깥에 나가는 것도요!”힐의 희고 말랑말랑한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다정하고 상냥한 사람이라. 음, 레이디스 메이드 구할 때 참고해야겠네요.”실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페일이 토벌에 나가던 날 했던 생각을 떠올렸다.힐의 곁에 둘 사람은 적당히 할 일은 하되, 그녀가 종임을 아주 꺼림칙해 하고, 이 귀여운 아가씨에게 조금도 정을 주지 않을만한 사람. 아주 이기적이고 제 안위만을 챙겨 종국에는 그녀를 상처입힐만한 사람.아마 머크가 구해올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지. 실리는 제 생각을 주절주절 떠들었던 어젯밤 술자리를, 통신구로 온갖 소리를 다 전달했던 과거를 지우고 싶었다.자신에게 자꾸만 눈을 맞춰오는 아가씨의 발그레하게 달아오른 뺨, 기쁨으로 물든 회색 눈망울에 어린 하늘빛은 반짝였다.조찬을 마치고 실리와 머크, 에드워드는 각자 할 일을 하러 흩어졌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힐의 주변을 모여들었다.처음에는 머크가 힐의 드레스룸을 살핀다며 그녀를 따라 그녀에 방에 들렸고, 곧 힐의 일과를 줄줄 꿰고 있는 에드워드가 그녀의 글씨 연습을 도우러 찾아왔다.실리는 머크를 찾아왔다가 조금도 글씨에 집중하지 못하고 깃펜을 이리저리 돌리고만 있는 힐과 그녀 옆에 들러붙어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자지러지게 웃고는 힐의 손을 잡고 산책이나 하자며 미로 정원으로 모두를 이끌었다.지루한 글씨 연습에서 해방되어 기분이 좋은지, 힐이 경쾌하게 통통 뛰듯 걸을 때마다 진한 남색 벨벳으로 만든 일자 원피스 끝자락이 팔랑팔랑 나부끼고 코가 둥근 검은색 가죽 메리제인 구두는 바닥과 닿으며 탁탁 튀는 소리를 냈다.실리와 머크, 에드워드가 걷는 것처럼 우아한 걸음걸이는 아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녀의 걸음걸이를 교정할 생각은 없다는 듯 통통대며 걷는 힐을 제지하지 않았다.힐이 넘어질 것을 염려한 머크만 간혹 ‘천천히 걸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힐은 머크가 무뚝뚝하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는 것도, 에드워드가 자신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는 것도 좋아서 잔뜩 웃고 잔뜩 걸었다.“아가씨, 잠깐 앉으시죠.”한 시간쯤 걸었을까? 미로 정원 가운데 있는 분수대가 보이자, 실리가 힐의 어깨를 잡고 기차놀이를 하는 것처럼 걸어 그녀를 벤치에 앉혔다. 초겨울 서늘한 바람에도 약간 더울 만큼 잔뜩 걸어서 힐의 뺨은 발그레했다.분수대에서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며 벤치에 앉아 있는 힐의 손끝에 몇 방울 물이 튀기기도 했다. 힐은 찬 물방울이 손에 떨어지는 감각에 놀라 몸을 떨다가 이내 호기심을 가득 담은 표정으로 분수대에 손을 담갔다.“차가워.”볕을 받아 반짝이는 흰 대리석 분수대, 유리구슬처럼 반짝이는 물방울이 쏟아지는 소리. 코끝에 가득한 흙과 나무 냄새, 그리고 물 냄새. 물에 담근 손가락은 시린 데 손등에 닿는 볕이 따끈해서 손을 빼고 싶지 않았다.“물이 좋으신가요?”곁에서 에드워드가 물었다. 그는 힐의 손이 조금이라도 빨갛게 어는 기색이 보이면 바로 뺄 생각으로 벤치에서 일어나 그녀 곁에 바짝 붙어 섰다.“음, 분수대에 있는 건 좋아요. 반짝거리고, 예뻐요. 유리구슬이 쏟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네. 나오미가 그렇다면요. 유리구슬이 쏟아지는 것 같네요.”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실리가 웃으며 힐의 손목을 쥐고 그녀의 손을 분수대에서 빼냈다.“아. 차갑고 따뜻해서 좋았는데요.”아쉬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는 약간 칭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실리는 손수건으로 그녀의 손을 닦아주려다가 손수건을 다시 품에 챙겨 넣고 손끝으로 힐의 손을 톡톡 두드렸다.힐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 손목과 옷 소매까지 적시던 물방울이 하나씩 허공으로 떠오르고, 서로 뭉쳐졌다가 흩어지며 방울방울 허공을 장식했다.물방울이 둥실둥실 떠올라 힐의 주변을 메웠다. 바람을 따라 흐르다가 다른 물방울과 합쳐지고, 햇빛을 퍼트리고 때론 모으며.“와-.”힐의 입이 다물릴 줄 모르고 벌어졌다. 에드워드가 그녀의 칠칠치 못한 표정을 지적하는 대신 손을 뻗어 그녀의 입을 닫아주었다. 느끼는 모든 것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힐. 에드워드는 그녀에게서 도저히 시선을 뗄 수 없어서, 말랑한 뺨을 괜히 한 번 쓸고서야 힐의 곁에서 몇 걸음 물러섰다.조금 더 힐의 표정을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과 조금 떨어져서 지금을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요동을 쳤다.정갈하게 다듬은 관목과 아름다운 분수대, 높고 푸른 하늘 밑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허공을 메운 물방울, 그 속에 뺨을 붉히고 눈을 빛내며 연신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는 힐은 한 폭의 그림 같아서.‘또, 간질거려.’에드워드는 언젠가 느꼈던 간지러움을 다시금 느꼈다.‘뱃속에서, 아니 그것보단 바깥인데.’그러니까, 가죽 바로 밑에서부터 솜이 부풀어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에드워드가 자신의 명치에 손을 올렸다. 두꺼운 코트 밑에서 쿵쿵대는 맥박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한참 평온한 물놀이와 물놀이를 즐기는 힐을 지켜보고 있을 때, 불현듯 머크가 실리의 어깨를 툭 치고는 턱 끝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실리는 별다른 말없이 손을 휘저어 둥실둥실 떠오른 물방울에서 마력을 거뒀다.한순간 힘을 잃은 물방울들이 빗소리를 내며 땅으로 떨어졌다. 실리의 시선 끝에서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지쳐 보이는 집사가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집사는 분수대 앞까지 천천히 걸어와서 그들을 향해 허리를 깊게 숙였다. 머크는 그가 길고 긴 인사말을 한 명, 한 명에게 전하기 전에 선수 치듯 그에게 용건을 물었다.“무슨 일인가?”“손님이 오셨습니다.”“손님?”올 사람이 없을 텐데. 머크의 눈이 가늘어지자, 집사는 곤란한 표정을 숨기지 않은 채 방문 요청을 알리는 편지 하나를 내밀었다.“방금 방문하신 손님께서 방문 요청 편지를… 막 적어주셨습니다.”힐이 궁금함을 가득 담아 편지를 받아든 머크 옆을 기웃대자 에드워드는 그녀의 뒤에서 손을 뻗어 힐의 동그란 눈을 가리고 자신의 품으로 힐을 끌어당겼다.“편지를 기웃대는 건 안 됩니다.”에드워드가 힐의 귓가에 속삭이자 힐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 볼게요. 그러니까 놔주세요. 힐이 자신의 눈을 가린 에드워드의 손을 따끈하고 조그만 손으로 잡고 우물우물 말했지만, 에드워드는 그녀의 눈을 가린 손만 내렸을 뿐, 품에서 놔주지는 않았다.“아델라 왕녀님이네. 예의를 차릴 생각이라곤 조금도 없나 본데.”실리가 편지 봉투를 가늘게 뜬 눈으로 응시하는 머크의 손에서 편지를 낚아채고 대신 편지를 뜯어 대충 훑고는 한 손으로 편지를 와작 구겼다. 도톰한 종이가 왕녀가 주로 쓰는 두꺼운 편지지가 아니라 후작저에서 사용하는 편지라는 점이 실리의 기분을 더욱 망쳤다.“널 찾아왔어. 사이프러스 공작이 그새를 못 참고 왕녀에게 달려갔나 봐.”머크는 실리가 구겨서 자신에게 던진 편지를 한 손으로 받아들고 내용을 살폈다.직접 찾아와 마땅히 토벌에 대해 알려야 했을 엘로이 후작가의 가신이 오지 않아,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는 내용의 편지는, 언제나 열 페이지가 넘는 장문을 휘갈겨 보내는 아델라 왕녀답지 않게 짤막했다.‘기분이 상했나 본데.’머크가 실소를 머금고 이미 구깃구깃한 편지를 다시금 구겨 집사에게 건넸다.“내가 귀환한 게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이야.”토벌 중 토벌대장이랍시고 자꾸 이 마을, 저 마을을 기웃거리며 영웅 놀이를 하느라 바빴던 사이프러스 공자를 어르고 달래다가 목표했던 지점까지 토벌을 마치자마자 사이프러스 공자와 토벌대 전원을 두고 후작가의 연금술사 둘과 기사 다섯만 챙겨 자신이 귀환한 게 어제인데.이렇게 득달같이 달려온 걸 보면 왕녀가 어지간히도 심기가 불편했던 모양이라며 머크가 쓰게 웃었다.“그렇겠지. 사이프러스 공작은 늘 우리 셋 중 하나라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을 내는 미친 작자니까. 분명 무슨 성당이더라? 공자가 같이 가자고 했던 곳.”“필라투스.”“아 그래. 거기. 거기에 함정을 파놓고 자넬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을걸.”실리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사이프러스 공작이 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 왕녀를 찾아가 충동질해댔겠지. 직접 보지 않아도 일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뻔히 보였다.“아가씨 앞입니다.”실리가 공작을 미친 작자라고 평했을 때부터 힐의 귀를 막고 있던 에드워드가 그들의 대화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불만스레 말을 꺼냈다.에드워드가 그녀의 귀를 막았다곤 해도 힐이 아파할까 봐 그리 세게 누르지 못해서, 실리와 머크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에드워드가 불만을 토하는 것까지 전부 들어버린 힐은 고개를 들어 인상 쓴 에드워드의 표정을 살폈다.이미 다 들었는데 못 들은 체 해야 할까? 힐이 동그란 뒤통수를 에드워드의 가슴팍에 기대고 그와 눈을 빤히 바라보며 제 귀를 덮은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초겨울의 시린 바람에 에드워드의 손은 차갑게 식었는데, 힐의 손은 여전히 따끈하고 말랑했다.“어, 못들었, 아니 안 들었어요.”“...그것 참 다행이네요.”다 들었구나. 에드워드가 바람 빠진 소리를 내며 쓰게 웃었다. 그리고 그녀를 이끌고 실리와 머크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만한 곳으로 가려 할 때,“잠깐, 에디. 여기 있어. 머크 자네는 아가씨와 못다 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어. 아델라 왕녀님께는 내가 가지.”실리가 손짓으로 에드워드의 걸음을 막고 아직 에드워드와 손을 꼭 붙들고 있는 힐의 앞에 다가가 무릎을 굽혀 그녀와 시선을 맞췄다.목덜미에서 하늘색 레이스 끈으로 느슨하게 묶은 아마 빛 머리카락이 따스한 초겨울 햇빛에 반짝반짝 빛이 났다. 매일 밤 다른 귀족 영애처럼 진주 가루를 섞은 향유를 발라 관리해주면 더 고귀해지겠지. 실리는 금방이라도 풀릴 듯한 레이스 끈을 풀고 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겨주었다.손가락에 감기는 머리카락의 조금은 뻣뻣하고 서늘한 감촉. 짜증으로 얼룩진 실리의 눈이 그제야 조금 풀어졌다.“가기는 싫지만.”“산책을 조금 더 할까요?”힐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묶어주는 실리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물었다. 아델라 왕녀님이 누군지 몰라도 실리가 가기 싫어한다면 조금 더 이따가 가도 되는 게 아닐까. 천진한 눈망울에는 약간의 걱정과 기대가 서려서, 실리는 풋 웃었다.실리가 미적지근하게 식은 흰 뺨을 문질러주고 몸을 일으켰다.“이따가요. 이따가 저랑만 산책하죠. 머크, 나머진 말 안 해도 알지?”실리가 머크에게 눈짓하자 머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델라 왕녀나 그녀가 데려온 사람, 아델라 왕녀 앞에 설 모든 이들은 힐을 몰라야 한다. 아주 조그만 실마리라도 왕녀가 알아채지 못하게.머크는 어느새 벤치에 앉아 발을 동동대는 힐의 곁으로 가서 자신이 입고 있던 긴 코트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씌웠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푹 잠기도록. 그리고 힐을 안아 들었다.“머크?”“아가씨, 후작저 별저 정원에 겨울꽃 정원이 있습니다. 음, 지금쯤이면 얼음새꽃과 시클라멘이 피었을 것 같은데 보러 가시죠.”힐은 갑자기 코트에 잠긴 채 끌어안겨 조금 놀랐지만 이내 그의 어깨에 턱을 올리고 몸에 힘을 뺐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을 자주 안고 다닌 머크의 품은 실리보다 넓고 딱딱하고 그가 걸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 편안했다.“저 꽃 좋아해요.”“무슨 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해바라기가 좋아요. 노란색 예뻐요.”가운데 갈색도 예뻐요. 아, 꽃잎 밑에 있는 초록색은 꽃받침이라고 부른대요. 알고 있어요? 힐이 조그맣게 키득댔다.“꽃받침이라고 부르는군요.”머크는 이미 알고 있던 것도 처음 듣는 것마냥 대답해서 힐은 조금 신이 났다. 에드워드는 잠자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걷다가, 신나서 까딱이는 힐의 발을 머크의 큼직한 코트 자락을 들어 가렸다.“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델라 왕녀님.”“실리 피스토스. 내가 보자 한 건 그대가 아니라 머크 펠 드 라하프일텐데.”한쪽 벽면을 유리로 만든 응접실에서 청록색 천을 두른 커다란 소파에 앉아 있던 아델라가 노크 한번 없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 맞은 편에 앉는 실리를 노려보았다.실리는 품을 뒤적여 은테 안경을 꺼내 쓰며 그녀의 말을 못 들은 체 무시했다. 일부러 다른 행동을 하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예법으로 트집 잡을 수 없되, 노골적인 무시라 아델라의 고운 얼굴이 미미하게 일그러졌다.“여전히 버릇이 없군요.”“버릇이라. 저택에 방문하고 저택의 편지지로 방문 요청을 보내신 분께 듣기엔 과분한 말씀이군요.”실리는 아델라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도 놓치지 않고 재깍 대꾸하고는 한참 전부터 있었는지, 김이 나지 않는 찻주전자를 들고 한구석에 서 있는 시중인에게 손짓했다.시중인이 재빨리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찻주전자를 단풍나무 테이블 위에 올리고, 찻잔을 아델라와 실리 앞에 놓았다. 그리고 찻잎을 주전자에 넣으려고 할 때,“아. 찻잎은 되었네. 내가 가져온 걸 넣지. 가져오렴.”아델라가 시중인을 물리고 자신이 데려온 기사에게 손짓했다. 기사가 품을 뒤적여 찻잎이 든 조그만 상자를 꺼내 찻주전자에 한 스푼 쏟아 넣었다.후작저에서 주는 것을 믿고 마실 수 없다는 뚜렷한 의사표시에 실리는 헛웃음을 흘렸고, 집사는 아연한 표정으로 기사의 손에서 시선을 떼질 못했다. 집사는 이 상황이 질 나쁜 농담 같게만 느껴졌다.아델라가 직접 자신의 잔과 실리의 잔에 차를 따르고 고운 미소를 지으며 실리에게 차를 권했다.“아주 좋은 다즐링이에요. 제게 진상된 것 중 가장 좋은 걸 가져왔으니 마셔봐요.”내내 웃음 한 번 짓지 않던 아델라가 부드럽게 웃으며 찻잔을 가리켰다. 우아하게 휘는 눈꼬리며 손 모양을 보며 실리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듯 눈을 가늘게 뜨고 차를 마시는 그녀를 빤히 보다가 이내 시중인에게 손짓했다.“그걸 가져와.”시중인이 트롤리 한 켠을 뒤져 은으로 만든 쟁반을 들고 와 실리 앞에 놓아주었다. 실리는 찻잔을 우아하게 들고 아델라가 따라준 찻물을 쟁반 위로 절반쯤 쏟아부었다.쪼르륵.은 쟁반 위로 찻물이 쏟아지는 소리는 제법 영롱했으나, 아델라도, 아델라와 함께 온 수행원들도 삽시간에 표정이 굳었다.“실리 피스토스. 지금 대체 무슨 짓을...!”아델라의 표정이 사정없이 일그러졌다. 실리는 찻잔을 탁 소리 나게 테이블에 올려두고 다리를 꼬고, 한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한 손으로는 턱을 괴었다.“무슨 짓이라니요? 제가 미욱해서 왕녀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군요.”아델라가 후작저의 찻잎을 쓰지 않는 것은 엘로이 후작저를 믿지 못한다는 행동이었다면, 은쟁반 위로 찻물을 쏟아붓는 실리의 행동은 대놓고 독을 탄 것 같다 의심하는 행동이었다. 아델라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가는 것을 실리는 느긋하게 감상하며 입꼬리를 끌어당겨 웃었다.“이런. 꽃이… 아직 안 폈네요.”머크는 난감한 기색으로 겨울꽃 정원을 두리번거리며 낮게 침음을 흘렸다. 힐은 그때까지 얌전히 머크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꾸벅꾸벅 졸다가 퍼뜩 고개를 들었다.‘깜깜해.’꽃이 아직 안 폈다는 말에 힐도 주변을 둘러보고 싶었지만, 두꺼운 코트 속에 파묻혀 있던 터라 온통 깜깜하기만 했다.힐이 손을 꼬물꼬물 움직여 자신의 머리 위에 덮인 머크의 코트를 치우려고 낑낑대자 에드워드가 손을 움직여 그녀의 얼굴만 코트 바깥으로 나오도록 옷자락을 정돈해주었다.“고마워요.”“별말씀을요.”졸음이 내려앉은 눈에 갑자기 햇살이 쏟아지자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웠다. 힐은 눈을 똑바로 뜨기 어려워서 몇 번이나 깜박이다가 결국 눈을 꾹 감고서 에드워드가 있는 방향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찌푸린 콧잔등에 작게 진 주름과 숱이 많은 속눈썹이 뺨에 드리운 그늘이 사랑스러워서 에드워드는 다시금 그녀에게 손을 뻗어 뺨을 쓰다듬고 싶었다.아마 머크만 없었다면, 아니, 힐이 머크의 품에 안겨있지만 않았다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뺨을 쓸어주었을 텐데.“나오미, 꼭 나무 구멍 속에 있는 다람쥐 같아요.”에드워드는 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대신, 코트 속에 꼭꼭 숨어 얼굴만 빼꼼 내민 흰 낯을 찬찬히 관찰하다가 웃었다. 눈이 부신 지, 깜박이는 큰 눈이 꽃봉오리가 가득한 정원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게 사랑스러워서.“나무 구멍 속에 다람쥐가 있어요?”“네. 다람쥐는 나무나 땅에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살거든요.”머크의 넓은 등을 사이에 두고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동안 오갔다. 언젠가 산책하며 봤던 귀여운 다람쥐를 또 볼 수 있을까? 힐은 해바라기를 타고 올라가 볼 주머니가 불룩해지도록 해바라기 씨를 먹던 다람쥐를 기억 한쪽에서 꺼냈다.힐과 에드워드가 가까이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서 앞발에 꼭 쥐고 있던 해바라기 씨를 떨어트리고 포르르 도망가버렸던 것도.‘또 볼 수 있을까? 귀여웠는데.’나무에 구멍을 파고 산다고 했으니까 찾아보면 다시 볼 수 있을 것도 같아 힐은 의욕이 샘솟았다. 이번에는 가까이 가지 말고 멀찍이 서만 봐야지. 에드워드나 머크가 다가가는 것도 자신이 막아주리라 다짐하며 힐이 머크의 어깨를 머리로 콩콩 쳤다.“머크, 내려주세요.”“으음. 무슨 일로 내려가려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다람쥐를 찾아볼래요!”머크가 힐과 눈을 마주치며 물었다.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다람쥐를 볼 생각에 들뜬 힐은 그의 곤란함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이 해바라기 근처에서 본 다람쥐 이야기를 재잘댔다.“아. 그거라면 제가 아가씨를 안고 있는 편이 더 좋을 겁니다. 다람쥐는 나무 위쪽에 굴을 파니까요. ”머크는 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는 진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그녀를 꽁꽁 싸매고 있는 코트 자락을 추슬렀다. 힐도 머크의 말이 꽤 그럴듯한 것 같아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머크가 옷자락을 추스르고 자신의 자세를 고쳐주는 걸 얌전히 기다렸다.머크가 자세를 고쳐주자, 힐은 상체를 세워 주변을 조금 더 잘 둘러볼 수 있었다. 여전히 얼굴만 빼꼼 나온 건 똑같았지만.“나무 위쪽에 굴을 판다라…, 머크님께서 다람쥐에 대해 잘 아시는 줄은 몰랐네요.”“...동물의 습성은 잘 아는 편이지. 사냥을… 사냥을 좋아하니까.”머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대신 정리해주던 에드워드는 묘한 표정으로 머크를 바라보자, 민망해진 머크가 고개를 돌려 저 새하얀 꽃봉오리가 얼음새꽃의 봉오리라며 힐에게 말을 붙였다.‘얼음새꽃은 노란색인데.’에드워드는 머크가 말을 돌리려고 괜히 힐을 끌어들였음을 눈치채고 살포시 웃었다.‘하긴. 동물이나 식물엔 관심 없는 분이시지. 사냥도 즐기진 않으시고.’아마 머크보단 자신이 사냥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에드워드는 머크가 아무 꽃봉오리나 가리키며 잘못된 꽃 이름을 줄줄 늘어놓는 것을 잠시 지켜보다가, 다람쥐를 찾으러 가자며 나무가 있는 쪽으로 손짓했다.“좋아. 가지. 앞장서겠나?”“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무가 모여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었다. 머크는 에드워드의 뒤를 바싹 붙어 걸었다.머크는 그의 품에 꼭 안겨 꽃봉오리를 가리키며 ‘이건 무슨 꽃이에요?’하고 물어오는 힐에게 알고 있는 꽃 이름을 아무렇게나 대며 내심 진땀을 흘리던 차라,눈에 보이는 것마다 질문을 건네는 힐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꽃 이름을 알려주고 얽힌 이야기까지 줄줄 읊는 에드워드가 대단해 보이는 것을 넘어, 현자가 아닐까 의심이 일 지경이었다.힐과 에드워드는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다가 가끔은 맑은 웃음소리를 내곤 했다. 힐이 신나서 여기저기 손을 뻗어대는 통에, 에드워드가 몇 번이나 힐을 둘러싸 맨 옷자락을 고쳐주었다.둘의 잔잔한 분위기에 머크는 마치 말이라도 된 것처럼 힐을 안고 다람쥐를 찾아 이곳저곳을 걸어 다닐 뿐 따로 입을 열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다람쥐… 다른 곳에 사나 봐요.”해가 중앙에 걸릴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별저 근처에 있는 나무를 헤집고 다녔건만. 힐의 눈썹이 아래로 축 늘어졌다.“본저 근처에서 봤으니 그 근처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제 어깨에 턱을 걸치고 웅얼대는 자그마한 목소리에 머크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었다.“아가씨가 원하신다면, 후작저 어디에서나 다람쥐를 보실 수 있게 해둘 수 있습니다.”값이 얼마나 할진 모르겠지만 백 마리만 풀어놔도 금방 사방에 넘치지 않을까. 머크가 머릿속으로 정원에 할당된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셈했다. 후작저 예산으로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모자란다면 머크의 사재를 털 생각으로.“괜찮아요. 이따가 해바라기 근처 큰 나무를 찾아보고 없으면-.”“없으면요?”힐은 한참 고민하다가 눈을 질끈 감았다.“그러면 기억 속에 있는 다람쥐를 꺼내 보면 되니까, 괜찮아요.”해바라기 위에 올라가 해바라기꽃 반절쯤을 볼 주머니에 가득 담던 그 모습. 또 보면 좋겠지만 보지 못해도 기억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담담히 말하며 힐이 말간 웃음을 지어 보였다.언젠가 에드워드가 가르쳐준 것처럼 입꼬리만 끌어당겨서 우아하게.“그럼 일단 점심을 드시러 가시는 건 어떨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 다람쥐를 다시 찾으러 나와요.”에드워드가 하늘을 가리켰다. 이미 힐이 점심을 먹는 시간보다 늦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그들이 서둘러 별저로 들어가려는데 평온하던 공기가 요동을 쳤다.살을 찢을 것처럼 맹렬한 마력 파동. 전조 하나 없이 들이닥친 파동에 에드워드도, 머크도 딱딱히 표정을 굳혔다.머크는 몸을 휙 돌려, 굳어있는 에드워드를 제 뒤로 끌어당기고 재빠르게 손을 움직여 짧고 폭이 넓은 단검을 차고 있는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매섭게 사방을 살폈다.파동의 시작점을 찾으려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는데, 몸을 저미는 듯하던 파동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고의로 내는 느낌이 다분한 커다란 발걸음 소리가 머크의 등 뒤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뭐야. 그대가 딸이 있던가?”익숙하다면 익숙한 목소리. 늘 일정한 톤으로 말하기 위해 신중히 한음, 한음 말하는 여타 영애들과 달리 제멋대로 고저를 넘나들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오자 머크는 흠칫 놀란 표정을 가다듬고 몸을 돌려 자세를 바로 했다.머크가 몸을 돌리자 잔뜩 긴장한 에드워드의 옆에서 긴 오렌지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달리아가 매끄럽게 웃고 있었다. 머크의 시선이 달리아와 그 옆에 양산을 받쳐 든 토비 델에게 닿았다.“달리아님. 페일님의 부관 머크 펠 드 라하프 인사드립니다. 이쪽은, 론의 친척 아이인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머크는 재빨리 에드워드의 머리를 꾹 누르고 자신도 고개 숙여 달리아에게 인사를 건네었다.“에드워드 라반 드 알렛데이아입니다.”아, 론경의 친척? 달리아의 미소가 한층 더 진해졌다. 달리아는 손을 휘저어 인사를 받아주고는 약간은 우스꽝스럽게 머크의 품에 안겨 얼떨떨한 표정으로 눈을 끔벅이고 있던 힐과 시선을 맞췄다.힐은 자신도 인사를 해야 하는 건지 고민하고 있다가 달리아가 자신을 보고 웃자, 달리아에게 시선이 묶여버렸다.굽슬굽슬한 오렌지빛 머리카락이 햇볕을 받아 진한 호박빛으로 반짝였다. 바람을 따라 허공을 흐드러지게 수놓는 모습은, 시린 초겨울의 짙푸른 하늘과 선명히 대비되는 주홍빛으로 물들어 도무지 시선을 뗄 수 없었다.“내 머리카락이 마음에 들었니?”달리아가 제 머리카락을 따라 움직이는 회색 눈망울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물었다. 에드워드는 당장이라도 힐의 머리끝까지 숨길 것처럼 움찔대다가 머크의 눈짓에 얌전히 손을 모으고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네에. 반짝반짝하고 흔들리는 게 꼭 바람결을 보는 것 같아요.”그리고 만지면 사르르 녹을 것 같다. 아주 달콤한 캐러멜 같아. 힐은 마지막 말만은 속으로 꾹 삼켰다. 사람을 먹을 것에 비유하면 못쓴다는 것쯤, 예전에 론에게 머리카락이 식빵 같다고 했다가 잔뜩 잔소리를 들으며 배웠으니까.달리아는 자신이 움직이는 대로 자신을 쫓아오는 회색 눈망울을 아주 가까이 달라붙어 쳐다보았다.“귀여워라. 역시, 딸이 좋겠어. 이렇게 귀여운 아이라니.”그렇지, 토비? 달리아가 토비에게 살짝 시선을 돌려 의견을 묻고는 팔꿈치까지 오는 긴 흰 장갑을 벗고 손끝으로 힐의 뺨을 쓰다듬었다. 부드럽고 따끈할 것 같았던 뺨은 밖에 오래 있었는지 차갑게 식었지만, 감촉만은 부드러웠다.라하프에 이렇게 귀여운 인물이 날 수 있다니. 달리아가 킬킬대며 힐의 뺨을 살짝 꼬집었다. 마음 같아서는 품에 끌어안고 싶기도 했지만, 머크가 긴장한 시선이 자신을 꿰뚫을 듯 선명해서 달리아는 순순히 뒤로 물러섰다.“긴장하지 마. 말 붙여도 돼. 후작님께 이미 들었겠지만-, 난 관대해지기로 했거든.”달리아는 긴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고 앞머리에 입으로 훅 바람을 불어 날리고는 입꼬리를 끌어당겨 웃어 보였다. 머크는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은 채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붙였다.“예. 곧 있을 좋은 날을 위해 애쓰고 계신 줄로 압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혹 제가 도울 것이 있는지…”달리아는 눈을 가늘게 떴다. 곧 있을 좋은 날은 이제 이주 앞둔 약혼을 뜻하는 거겠지. 저자가 내 임신을 축하할 리 없을 테니까.‘왜 왔냐는 거네.’달리아는 장갑에 다시 손을 밀어 넣으며 피식 웃었다. 저 험상궂은 곰처럼 생긴 자가 페일과 그 부관 셋 중 가장 사교계 부인처럼 고상떨며 말하는 게 우스워서. 달리아는 잠시 사교 대화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저들은 먹었는지 아닌지 몰라도, 자신은 아직 점심도 못 먹었다. 달리아에겐 배 속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잘 먹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얼른 일을 마치고 마이엔펠트로 돌아가 달콤한 팬케이크를 산처럼 쌓아 먹을 생각으로.“아. 왕녀님을 찾으러 왔는데. 여기 있지?”‘’있지’가 아니라 ‘계시지’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힐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묻는 대신 눈만 도르륵 굴리며 입을 다물었다. 누군지 몰라도 저 아름다운 분에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왕녀보다 그녀의 신분이 높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어쩐 일이신지 먼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왕비 전하께서 왕녀님을 모셔오라고 급히 명을 주셔서. 토비!”달리아가 토비를 향해 손짓하자, 토비가 왕비의 인장이 찍힌 편지지를 머크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었다. 머크는 왕녀를 급히 왕성으로 데려와 주길 바란다는 왕비의 편지를 대충 훑고는 고개를 끄덕였다.“본저 응접실에 계십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머크가 힐을 품에서 내려주고 에드워드에게 손짓을 보냈다. 에드워드가 재빨리 힐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는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는 머크의 코트 벗기고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겨주었다.“라하프 영애는 몇 살이지? 열살?”별저에서만 지내나? 알렛데이아 영식은 예법 친구고? 달리아가 힐을 빤히 보며 질문을 몇 개나 쏟아냈다. 머크는 달리아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힐을 향하지 못하게 몸으로 쓱 막고는,“...제 아이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페일님께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어떤 궁금증도 해결할 수 없는 짤막한 설명만 남기고 본저 쪽으로 손바닥을 뻗어 가리키며 걸음을 옮겼다.달리아는 눈빛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머크를 잠시 흘겨보다가 힐을 바라봤다.달리아에게서 아직도 시선을 떼지 못한 어린 아이의 눈망울 가득 호기심이 흘러넘치는 모양새는 근래 들어 가장 보기 좋은 것이라. 달리아는 정말 제 이름처럼 꽃다운 미소를 짓고 힐을 향해 손을 살랑살랑 흔들어주었다.힐도 홀린 듯 자그마한 손을 팔랑팔랑 흔들었다. 달리아는 몸을 휙 돌려서 머크를 따라 걸으며 자신의 옆에 다가온 토비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토비, 귀 좀.”토비가 양산으로 그녀의 입 모양을 머크가 보지 못하게 살짝 가리며 자신의 귀를 달리아에게 가까이 가져다 댔다.“저 애, 귀엽지 않아?”“알아볼까요?”이름부터 가문과 가진 것, 밤에 끌어안고 자는 애착 인형을 어디서 샀는지까지 전부. 달리아가 원한다면 알아 올 수 있다는 토비의 대답이 마음에 들어 달리아는 키득키득 웃었다.“음. 아냐. 약혼식 후에 어차피 여기에 들어와서 살 테니, 그때를 위한 여흥으로 두자.”그 전에 페일을 만나면 한 번 떠보긴 하겠지만. 안 알려주면 그때부터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달리아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힐에 대한 생각을 저 멀리 밀어버렸다.“일단 일부터 해야지. 우리 왕녀님 덕에 내가 점심도 못 챙겨 먹고 바깥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아델라 왕녀. 그 멍청한 것이 왕비의 명을 어기고 사이프러스 공작의 꾐에 넘어가 단박에 엘로이 후작가로 달려와 버렸다. 그것도 하필 자신과 왕비가 티타임을 가지고 있는 때에.왕녀의 왕녀궁 탈출 소식은 금방 왕비에게 전해졌고, 왕비는 아연한 표정으로 달리아의 손을 붙들고 제발 왕녀를 데려와달라며 직접 편지를 써서 제 손에 쥐여주기까지 했다.“난 정말 멍청이가 싫어.”이를 드러내며 웃는 달리아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달리아는 높은 구두를 신고도 또각거리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걸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걸으면서 저런 편안한 표정이라니. 머크는 속으로 감탄을 삼켰다.“방금은… 제가 있는 곳으로 바로 찾아오신 겁니까?”“아니. 그대 얼굴이 고운 것도 아닌데 뭐하러. 토비랑 후작저에 올 땐 그리로 가라고 후작님께 좌표를 받았을 뿐이야.”달리아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머크는 거리낌이라곤 조금도 없는 달리아의 언행에 잠깐 질린 표정을 지었지만, 푸들푸들 떨리는 입꼬리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 진정시키고 본저 현관문을 직접 열어주었다.“...그렇습니까. 다음엔 부디 정문을 통해 와주십사 부탁드립니다.”“싫어.”달리아는 장난스레 웃으며 쩔쩔매는 기색이 다분한 머크를 앞질러 본저 현관으로 들어갔다. 약혼 계약을 위해 한때 하루가 멀다고 드나들던 엘로이 후작가 본저는 달리아에게 익숙한 곳이라 여기서부턴 머크의 안내 없이도 찾아갈 수 있었다.달리아는 이쯤에서 머크를 떼놓을까 하다가, 계단 앞에서 몸을 빙글 돌려 머크를 마주했다. 풍성한 드레스 자락이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달리아를 따라 넓게 퍼졌다.“아델라 왕녀는 그대를 찾아왔을 텐데. 누가 그녀와 함께 있지?”달리아는 지금부터 머크가 맘에 드는 대답을 한다면 데려가고 아니라면 놓고 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달리아가 양 팔꿈치를 잡고 검지 손가락으로 팔꿈치를 톡톡 두드렸다. 주홍빛 눈동자가 머크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극히 시험하는 듯한 말투와 표정.“실리 피스토스가 왕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아델라 왕녀가 왜 찾아온 것 같아?”머크는 잠시 달리아의 표정을 살폈다. 달리아와 페일이 긴밀한 협약을 맺고 있다는 것, 페일과 달리아 모두 서로의 질문에 가감 없이 대답을 해준다는 것은 그도 잘 알았지만, 페일이 말하는 것과 머크가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른 법이라 머크는 한참이나 말을 고르고 골랐다.“사이프러스 공자와 토벌대를 두고 귀환했습니다. 아마 그 때문이겠지요.”“그렇겠지. 공자는, 필라투스로 갔나?”달리아는 머크의 눈을 찬찬히 살피고 물었다. 머릿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시선과 은근한 목소리에 머크의 목울대가 움찔움찔 움직였다.“...토벌대의 전황은 극비입니다.”“흐응. 좋아. 이것도 페일님께 직접 들으란 거네.”대화상대로 불합격이야. 달리아는 마음속으로 머크의 이름 위에 크게 불합격 도장을 콱 찍고 몸을 돌려 계단을 올랐다.크게 소란이 벌어지거나 최소한 주먹이라도 한 번쯤 날아올 줄 알았던 머크는 달리아가 너무 순순히 몸을 돌리자 얼떨떨하게 그녀의 뒤를 걸었다.“아, 안내는 필요 없어. 아델라 왕녀가 그댈 보고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집에 안 갈래요’하고 엉엉 울면 귀찮아지잖아?”유리 응접실이지? 알아서 갈게. 달리아가 손을 둥글게 말아쥐고 눈을 가리며 우는 시늉을 했다. 왕녀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건 크게 경을 칠 일인데도 서슴지 않는 그 대담함에 기가 질린 머크는, ‘예. 유리 응접실에 계십니다.’라고 말하곤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다.유리 응접실 안에서 왕녀를 상대하고 있을 실리에게 달리아를 보낸다는 죄책감을 짧게 애도하면서.머크가 몸을 돌려 현관 밖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빤히 보던 토비가 고개를 숙여 달리아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사이프러스 공자가 필라투스의 사제를 찾으러 간 것은 이미 제가 보고 드렸을 텐데요.”굳이 저자와 말을 나누실 필요가 있었는지 묻는 토비의 표정에서 약간의 뾰로통함을 읽어낸 달리아가 토비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빙긋 웃었다.“알아. 그냥, 확인해본 거야. 왕녀가 여기 온 건 사이프러스 공작이 수작을 부렸단 건데, 공자가 보낸 전령이 공작에게 닿으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해.그건 어디선가 저들이 귀환한다는 정보가 샜단 소리잖아?”“라하프 경을 의심하셨군요.”“글쎄. 의심은 아니었어. 우리가 그랬듯 공작도 누군가 심어 뒀을지도 모르고.”그냥 누구도 안 믿는 것뿐이야. 가능성을 열어놓는 건 중요하다고. 달리아가 토비의 팔뚝 안쪽을 손으로 쓸었다. 셔츠 위를 흰 장갑을 낀 손이 매끄럽게 쓸어내렸다. 토비의 귀 끝이 붉게 달아올랐다. 두꺼운 셔츠 위로 느껴질 리 없는 달리아의 온기가 제 팔을 간지럽히는 것 같아서.“...짖궃으십니다.”“아하하, 미안해.”달리아는 토비가 붉은 귀를 손등으로 꾹 눌러 식히는 모습을 보며 경쾌하게 웃었다. 지긋지긋한 사이프러스 공작가며 왕가를 떠올리느라 조금씩 나빠지던 기분이 단박에 좋아졌다.“좋아. 결정했어. 왕녀를 좀 살살 골려줄까 했는데, 이대로 얼른 왕녀를 왕비 앞에 던져버리자.”얼른 마이엔펠트로 돌아가서 팬케이크랑 산딸기 푸딩을 산더미처럼 먹고 늘어져라 잘 거야. 달리아가 그렇게 말하며 걸음을 서둘렀다. 달리아에게 한쪽 팔을 붙들린 토비의 걸음도 함께 빨라졌다.‘라하프 경을 좀 캐보면 사이프러스 공작가가 찾고 있는 것이 뭔지, 윤곽이 더 뚜렷해질 것도 같은데.’문득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달리아는 고개를 흔들어 그 생각을 깨끗하게 비워냈다. 사이프러스 공작이 찾고 있는 것은 아마도 페일과 계약했던 ‘그 일’과 깊게 엮여 있을 것이다.그럼 페일은 자신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머크를 자신에게 던져줄 테고, 그때 저 라하프 경의 머릿속을 헤집어서 아는 것을 탈탈 털어줄 기회가 오겠지.그러니까 저 라하프 경을 탈탈 터는 것도 나중을 위한 즐거움으로 남겨둘 것이다. 아까 정원에서 본 회색 눈망울의 귀여운 아이처럼.“여긴 언제와도 괴상하네요. 길도 베베 꼬였고.”토비가 다음 층으로 가는 계단을 찾아 복도를 걸으며 불평했다. 한창 달리아와 페일의 계약이 오갈 때는 별 생각 없이 다녔던 길이건만, 배 속에 아이를 품은 달리아가 지낼 곳이라고 생각하니 저택 구조가 불편하고 괴상하기 짝이 없단 생각이 들어서.대체 무슨 놈의 저택이 계단을 하나 오르면 다음 층으로 가는 계단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참 복도를 걸어 계단을 찾아야 한단 말인가. 복도라도 좀 짧다면 좋았을 것을 복도도 무식하게 길고 넓었다.“그러게. 제 주인이랑 똑같네.”엘로이 후작님도 좀 꼬였잖아. 키득키득 웃으며 달리아는 계단을 돌아 바로 보이는 응접실의 문고리를 잡고 휙 열었다. 묵직한 문이 바람 소리를 내며 휙 열렸다.달리아가 문을 열자 바로 보인 것은 난장판이었다.엎어진 찻잔과 찻물로 흥건한 단풍나무 테이블. 딱딱하게 굳어 있는 아델라 왕녀와 검집 위로 손이 올라간 왕녀의 기사 둘, 입가를 비틀어 웃고 있는 실리.휘익. 달리아는 휙 휘파람을 불었다. 아델라 왕녀와 실리 피스토스는 붙여놓으면 엉망이 되기 좋은 조합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난장판을 만들어 뒀을 줄이야.‘아.’그녀의 눈이 아델라의 젖은 손과 테이블 아래에 떨어진 은쟁반에 닿았다. 달리아는 이 난장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대충 짐작이 가서 웃었다.오만방자하기로는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실리 피스토스가 아델라의 속을 한바탕 긁었고 눈이 뒤집힌 아델라가 고상떨며 말로 실리를 도발하려다가 역으로 도발 당해 찻잔을 엎어버렸겠지.‘또 저 은쟁반을 꺼낸 걸 보면 왕녀가 찻잎을 직접 가져왔나 보네.’실리 피스토스의 독극물 강박은 유명해서 누구도 실리에게 자신이 가져온 찻잎을 맛보라곤 하지 않는데도. 아델라는 설마 그런 것조차 몰랐던 걸까. 달리아의 주홍빛 눈이 침잠했다.“이런. 제가 타이밍을 잘 맞춰 찾아온 것 같군요.”있는 힘껏 응접실 문을 열고도 한동안 문 앞에 서 상황을 읽던 달리아가 발에 힘을 줘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단풍나무 테이블 앞에는 네 명은 너끈히 앉을 수 있는 큼직한 소파 두 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실리가, 다른 하나에는 아델라가 앉아 있었다.달리아는 큼직한 청록색 소파가 제법 푹신해 보여서 자신도 앉을까 했지만, 소파에 미리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고 그런 마음을 싹 접어 저 멀리 던져버렸다.실리와 아델라라니. 둘 다 싫었다.“마이엔펠트 영애가 왜 여기에?”까득. 달리아가 이 응접실에 들어온 후로도 고고한 자태만은 잃지 않으려 기를 쓰던 아델라가 입술을 세게 물었다.분명 달리아가 왕비 카이라와 티타임을 갖고 그 후에 점심까지 함께 먹는다는 걸 사이프러스 공작에게 듣고 몰래 나온 차였다. 그런데 달리아가 왜 여기에?아델라는 사이프러스 공작이 자신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카이라가 자신이 나갔다는 걸 눈치채고 달리아를 보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사이프러스 공작이 날을 잘못 알려주었다고 생각했다.비취를 박아둔 듯 영롱한 빛을 띠는 아델라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모습은 당장이라도 끌어안아 주고 싶을 만큼 가련해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응접실에 모인 이들 중에는 가련한 이를 보며 가슴 아파할만한 감수성을 지닌 자가 없었다.“제가 왜 여기 있기는요. 잘 알고 계시면서.”달리아가 토비를 향해 손을 뻗자 토비가 품 안에 고이 간직하던 왕비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달리아는 편지를 받아서 눈으로 훑고 아직도 손을 검집 위에서 떼질 않는 왕녀의 기사들을 훑어봤다.“왕비 전하께서 제게 이 편지를 주셨답니다. 왕녀님을 어서 모셔오라 이르시면서요."그러니 어서 가시죠? 여기서 이따위 난장판 더 보고 있기 싫으니까. 나지막한 뒷말에 실리는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다. 왕녀와 기사들의 표정은 달리아의 말과 실리의 웃음을 자양분 삼아 날로 험악해졌다. 아델라의 얼굴에는 처참함과 분노가 번갈아 떠올랐다.“무례해! 둘 다 무례하기 짝이 없어!”분노로 달아오른 얼굴을 가릴 생각도 못 하고 아델라가 큰 소리를 냈다. 왕비의 편지라는 말에도 기사들이 검집에서 손을 떼지 않는 것을 달리아가 흥미롭게 지켜봤다. 기사들 수준이 아델라 왕녀에게 과분할 만큼 좋아서.“어떻게 해야 무례하지 않은 걸까요? 왕녀님. 제가 직접 손을 잡고 일으켜 드려야 할까요?”그러면 무례하지 않나요? 실리가 안경을 벗어 품에 넣으며 물었다. 빨갛게 달아오른 아델라의 낯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실리 피스토스. 지금 뭐라고…,”“방문을 알리는 전령 하나 없이 무턱대고 찾아오셔서는 찻잎부터 내미시고, 제 앞에서 검집에 손을 대는 건방진 왕녀님의 기사는 목도 잘 붙어있고. 이것 참.”실리는 아델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아델라를 적당히 상대해 돌려보내기 위해 두 시간 정도는 낭비할 각오를 하던 찰나에, 왕비의 편지를 들고 마이엔펠트의 폭탄이 들어왔다. 그것도 둘이나.실리는 적당히 상대해 진을 빼놓고 아델라가 돌아가길 기다리는 대신 십 분 내로 짧게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달리아와는 최대한 말을 섞지 않고, 아델라만 자극해 몰아넣고 달리아의 손에 들려 왕궁으로 치워버릴 것이다. 휴버트 상회 창고처럼 이 저택이 부서지기 전에.“내 기사는 응당 해야 할 일은 했어요. 말을 가려 할 생각이 없다면, 내 기사가 아니라 그대의 목을 걱정해야 할 거예요.”아델라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실리의 말투를 지적하며 자신의 사람을 감쌌다. 실리가 먼저 죄를 지었으니 기사는 잘못한 게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아델라는 지금 왕족 방계인 실리를 앞에 두고 자신의 기사를 감싸는 게 얼마나 큰 모욕인 지 알지 못하는 듯 했다. 이 경우엔 실리가 말이 퍼져 왕가의 위신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며 여기 있는 모두의 목을 쳐도 아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터였다.그 말을 들으며 실리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고, 달리아의 미간은 찡그려졌다. 달리아는 힐끔 아델라 뒤에 서 있는 기사들의 표정을 살폈다. 잔뜩 힘이 들어간 표정. 방금 아델라의 말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한.“이런. 거칠기 짝이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 지 모르겠군요.”실리가 짙은 회색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아델라의 수행원 하나가 재빠르게 그녀의 귓가에 이만 돌아가셔야 한다 속삭이는 소리가 선명히 들렸다. 아델라가 더 허튼소리 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수행원의 모습은 짠할 지경이었다.달리아는 실리를 응시했다. 시선을 눈치챈 실리가 달리아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까지. 두 사람의 시선은 한참이나 맞닿았다. 아델라의 수행원이 아델라의 귓가에 속닥이며 이만 돌아가자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을 들으면서.“재미없는 대화는 이쯤 할까요? 왕녀님. 이만 가실 시간이랍니다.”달리아는 실리에게서 시선 한 자락 떼지 않고 아델라에게 말을 건넸다. 손에 든 왕비의 편지를 팔랑대면서.수행원이 곁에서 속닥이는 것을 못 들은 체 버티던 아델라는 사이프러스 공작이 제게 간곡히 부탁했던 대로 머크를 설득해 사이프러스 공자가 있는 토벌대로 돌려보내긴커녕 그의 그림자 한 자락 보지 못한 터라 속에서 울컥 치솟는 화를 그대로 터트렸다.“그대가 왜 내 시간을 정하는 거야?! 내 볼일이 끝나면 알아서 돌아갈 테니, 당장 머크 펠 드 라하프를 데려와!”자신은 왕녀인데, 왜 이들의 손에서 놀아나야만 한단 말인가. 아델라는 달리아가 왕비의 편지를 들고 왔으니 돌아가야 함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 전에 머크를 만나야 했다. 안 들켰다면 모를까 몰래 나온 걸 들켰으니 다음 기회는 없다고 봐야 하니까.“곤란하네요. 그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페일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실리는 앵무새처럼 이미 했던 말을 반복 했다. 아델라는 실리를 한껏 노려보며 무릎 위에 살포시 겹쳐져 있던 손으로 드레스 자락을 꾹 잡았다.“하! 언제부터 엘로이 후작이 내 위에 있었지? 좋아. 그를 이리 데려오지 못하겠다면 당장 토벌대로 돌아가라고 해. 내가 지금 명하지.”결국 그녀의 입에서 해서는 안될 말이 터져나왔다.“왕녀님…!”아델라의 수행원은 목이 졸린 것 같은 비명을 질렀다. 왕녀의 수행원은 사색이 된 표정으로 바들바들 떨며 왕녀의 곁에서 주춤주춤 물러나더니 곧 바닥에 무릎과 이마를 대고 머리를 숙였다.아델라의 뒤에 서서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던 기사들도 이번만큼은 무릎과 이마를 바닥에 붙였다.수행원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델라. 왕가의 마법을 상징하는 회색 머리카락을 가지지 못한 데다 한없이 옅은 피를 가져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자신들의 왕녀는 방금 선을 넘었다.토벌은 높은 피들의 숭고한 희생이다. 그 높은 피 중 정점인 왕가는, 특히 카이라 소생의 왕족들은 마물들을 상대하기는커녕 근처에만 가도 녹아버릴 만큼 피가 옅다. 원래라면 왕가가 주도해야 마땅할 토벌조차 엘로이 후작가를 필두로 한 귀족가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정도로.최소한의 국방을 위한 토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연약한 왕족이 목숨을 던져 마물을 막아내는 귀족가에게 토벌대에 돌아가라는 소릴 하다니. 귀족가의 희생이 없다면 이 나라도, 왕가도 모두 끝장인데도.달리아는 가뜩이나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난장판에 찬물을 끼얹은 아델라를 선뜩한 눈으로 바라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아델라의 앞까지 천천히 걸어갔다.“토벌대로 돌아 가라 명한다니요. 왕녀님께 그런 권한이 있었나요?”당신께 짙은 피의 목숨을 좌지우지할만한 권한이 있을리가 없는데. 달리아의 목소리는 은근했지만 숨기지 못한 분노가 비죽비죽 고개를 쳐들고 있어서 아델라는 맹수 앞에선 먹잇감이 된 듯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아델라의 시선이 제 주위를 훑었지만, 자신의 곁을 지켜줄 기사들도 수행원도 바닥에 엎드려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는 꼴만 눈에 들어왔다.달리아가 보내는 시선에 어린 살기는 점점 진득해져 갔다. 그 진득한 시선은 아델라의 열일곱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 그 시선을 받아내는 아델라의 속에서 두려움과 열일곱 해 동안 쌓아온 왕족으로서의 비대한 자존심이 부딪혔다.아델라는 애써 고개를 빳빳하게 새웠다. 돌아가는 상황으로 자신이 말실수를 했음을 깨달았지만, 그녀의 속에서 부딪히던 두려움과 자존심 중, 자존심이 두려움을 꺾었다.자신은 왕녀다. 실수했다고 해도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 자신이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리가.‘난 잘못한 거 없어.’게다가 자신이 못할 말을 한 건 아니지 않은가? 전장을 이탈한 토벌대원에게 토벌대로 돌아가라 명했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이라고. 아델라는 자신은 잘못 없다는 말과 제 피의 고귀함을 끝없이 속으로 되뇌며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다분히 애를 썼다.‘무능한 것들!’아델라는 자신을 질책하는 대신 바닥에 들러붙은 수행원과 기사들을 향해 무수한 질책을 쏟아냈다. 속으로만. 달리아가 자신에게 위압적으로 굴거나 위해를 가하려 들면 그들이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마땅한데도 바닥에 들러붙은 모양새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내 권한에 관해 묻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군요. 나는 왕족이니, 토벌대를 떠난 머크 펠 드 라하프에게 토벌대로 돌아가라 명할”돌아가겠습니다!”아델라가 달리아의 눈을 직시하며 왕족으로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 주절대기 시작하자, 줄곧 목이 졸리는 듯한 침음을 흘리던 아델라의 수행원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번쩍 치켜들고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왕녀의 말을 막았다.그리곤 곧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아델라의 팔을 휙 낚아채고 그녀를 일으켰다. 평소라면 아델라의 몸에 손을 대는 일은 상상도 못 했을 수행원의 행동에 당황한 아델라가 아무 말도 못 하고 절박한 표정 수행원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다.아델라의 말이 이어질수록 낮게 가라앉던 달리아의 주홍빛 눈이 수행원에게 닿았다. 비장한 표정을 한 수행원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달리아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훑어보았다.높게 쳐봐야 서른쯤 되었을 아델라의 수행원은 달리아와 실리를 번갈아 살피며 슬쩍 아델라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갈기갈기 찢겨 죽기 딱 좋은 짓을.’실리는 비죽 입꼬리를 끌어당겨 웃었다. 아델라는 이미 선을 넘었고, 달리아는 이미 불붙은 폭탄이다. 밟아야 터지는 지뢰밭은 아델라의 말에 폭탄으로 진화해버렸다.단정히 머리를 하나로 높게 올려 묶고 바지 정장을 입은 아델라의 수행원은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달리아의 손에 갈기갈기 찢겨 죽을 수 있었다.“곧장, 곧장 왕비님께 가겠습니다. 달리아님께서 조금도 신경 쓰실 필요 없게 하겠습니다.”수행원은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며 절박하게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볼품없이 덜덜 떨렸으나, 아델라의 앞을 가로막은 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흠.”화난 달리아를 상대로 대화를 시도하는 흥미로운 광경에 실리의 눈에 이채가 서렸다. 실리는 수행원을 살펴보다가 달리아를 살폈다.‘살기가 좀 누그러졌네.’실리는 달리아의 살기가 누그러진 게 왜인지 이유를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포기했다.수행원이 목숨을 걸고 아델라 앞을 막았기 때문인지, 그냥 덜덜 떠는 모양새가 달리아의 취향이었는지 알 길도 없었다만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으므로.그는 쓸데없는 고민을 계속하는 대신,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자 머리를 굴렸다.“달리아님, 식사는 하셨나요?”실리는 고민 끝에 달리아를 바라보며 태평한 목소리로 물었다.“갑자기 무슨 개소리지?”“아직 안 하셨다면 후작저에서 드시는 건 어떠신가요?”달리아의 표정이 한껏 일그러졌다.“필요 없어. 마이엔펠트로 가서 먹을 거니까.”후작저의 음식은 달콤한 게 없잖아. 맘에 안 든다고. 달리아는 후작저의 담백한 식사에 불만을 늘어놓으며 손을 부채처럼 팔랑팔랑 흔들었다.달리아는 퉁명스레 말하고 실리의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달리아의 드레스 자락이 둥그렇게 부풀었다가 서서히 바람이 빠지며 소파 위에 사르르 녹아내리듯 내려앉았다.“토비.”달리아가 토비를 향해 손을 뻗자, 토비가 붉은 깃털로 만든 깃털 부채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부채를 펴서 입가를 가리고 고개를 짧게 끄덕였다.실리가 이쯤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한다면, 자신도 그에 맞춰주겠다는 듯이. 실리는 자신의 의중에 맞춰주는 달리아에게 눈짓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달리아는 눈을 감고 잠시 짜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진정시키고서야 여전히 덜덜 떨며 아델라의 앞을 가로막고 선 수행원을 바라봤다.“마이엔펠트는… 왕비 전하를 존중해.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두지. 내 뜻을 그대가 잘 전해주리라 믿어.”수행원이 급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리고는 기사들과 함께 아직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듯 실리와 달리아를 노려보는 아델라를 이끌고 황급히 응접실을 떠났다.“...”달리아는 이마에 손을 대고 침묵을 지켰다. 실리는 말 없이 일어나 달리아의 건너편으로 가서 앉았다.“실리 피스토스.”한참이나 이어지던 침묵에 실리가 차를 내와야 하나 고민할 때쯤, 달리아가 실리를 불렀다.“네. 차를 내올까요?”실리의 물음에 달리아는 고개를 저어 보이곤, 그를 흘겨보았다.“화 안 나?”“제가 감히 화를 낼 일이 있나요?”“후. 말장난은 작작 해. 지금 기분 나쁘니까.”달리아가 앞머리에 입김을 후 불었다. 달리아의 이마 위에서 오렌지빛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흐트러졌다.“이런. 진심인데요. 왕녀의 멍청한 소리는 선을 넘긴 했지만, 화가 나진 않습니다. 왕녀의 수행원이 쓸만하단 걸 알게 되었으니, 뭐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왕녀 곁에 두는 자치곤 제법 수준이 괜찮긴 했지. 기사들도 나쁘지 않았는데.”제 주인을 위할 줄도 알고. 아델라의 수행원과 기사들을 떠올리며 달리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또다시 침묵이 그들 사이에 짙게 깔렸다.“왕녀는 감히 토벌을 입에 올렸지. 그건 귀족 가문이 흘리는 피를 왕가를 위한 당연한 희생으로 여긴단 거야.”“아델라 왕녀가 거기까지 생각할 만큼 머리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실리는 왕녀의 얼굴을 떠올리곤 짧게 코웃음을 쳤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과 달리아를 노려보던 아집에 가득 찬 표정은 당분간 그가 맘껏 코웃음 칠 수 있는 양분이 될 예정이다.“그건 더 문제인데. 우리가 흘리는 피에 대한 무시 아닌가?그대가 위탁하고 있는 엘로이도, 마이엔펠트도, 왕녀가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이프러스까지 전부.”“그렇겠죠. 그 무시가 왕녀의 것인지, 왕비의 것인 진 모르겠지만.”“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둘에 대한 건 아니니 넘기고…, 그대는 왕가의 사람이지. 그것도 회색 머리카락을 받은 자야.”“...네.”실리는 그제야 달리아의 표정에서, 눈빛에서 그녀가 뜻하는 바를 읽었다. 왕국을 위해 피를 흘리지 않는 왕가는 감히 토벌에 대해 입에 올려선 안 된다.애첩 루드밀라에 빠져 국정을 도외시하는 왕과 제 살길을 찾아 정치놀음이나 하며 점점 무너지는 왕국을 무시하는 왕비, 그리고 제 자식들이 다칠까 두려워 짙은 피를 지닌 자식들을 품에 싸고도는 후궁도.그리고 그들의 자식인 직계 왕자와 왕녀들 모두.하지만 실리는, 왕족의 방계로 재색 머리카락을 받은 데다 페일을 따라 토벌을 하고 마물이 퍼트리는 오염을 중화시킬 약을 만들었다.달리아는 지금 실리가 토벌에 대해 입을 놀릴 수 있는 유일한 왕족이란 소리를 하는거다. 방계인 그가 직계 왕족들보다 우위에 있다고.반역. 그 떠올려서는 안될 붉은 글귀가 섬뜩하게 머릿속을 파고들었다.실리는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오싹 솟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에 경종이 쉬지 않고 울리는 기분은 대체 얼마 만에 느껴보는 건지 가늠도 되지 않았다.“내 말을 이해했구나.”실리의 시선이 테이블 끝에 들러붙는 것을 보며 달리아가 키득키득 웃었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은 좋아하는 편이야. 달리아가 키득 이며 한 말에 실리는 좋아해야 하는지, 마이엔펠트의 마음에 든 것을 소름 끼쳐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지금 왕가는 껍데기일 뿐이야.”“.....”“그렇다고 지금 왕가를 다 죽이면 왕좌를 두고 내전이 벌어지겠지. 사이프러스도 로델리아도, 음…, 그래. 엘로이도 욕심이 많으니까.”“마이엔펠트는 욕심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달리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꼬리를 당겨 웃었을 뿐.“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면 안그래도 무너지던 왕국이 더 빨리 망하겠죠. 토벌에 쏟을 힘도 모자란 판국에.”“그래. 그래서 그대가 나를 말렸잖아. 나는 그대의 수작에 넘어가 줬고.”내가 왕녀를 죽이고 마이엔펠트가 왕비를 적대하지 않게. 마이엔펠트와 왕비가 적대하기 시작하면 왕비는 분명 사이프러스 공작과 손을 잡을 테고 그럼 머지않아 내전이 터질 테니까.달리아가 조그맣게 속삭이고는 깃털 부채를 접고 부채 끝에 달린 부드러운 깃털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지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뭐든 뜻대로 하시죠.”“그대는 음흉해. 속이 시커먼 자야. 아까도 왕녀를 일부러 자극해대기나 하고.”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 달리아는 청록색 소파에 등을 기댔다. 푹신한 소파에 몸이 묻히는 감각은 더없이 안락해서 달리아는 기분좋은 목울음 소리를 냈다.“실리 피스토스, 아니. 베레쉬트 왕가의 실리. 화 안 나?”선연한 주황색 눈은 유독 불타오르는 노을처럼 느껴졌다. 실리는 마른 입술을 혀로 쓸어 축이고 천천히 눈을 감고 뜨기를 반복했다.왕족 방계 가문인 피스토스의 실리가 아니라 베레쉬트 왕가의 실리라니.반역이라는 새빨간 글자와 황금빛 왕관이 뒤섞인 것만 같은 저 주황색 눈이 자신을 꿰뚫듯 응시하고 있다는 게 선명히 느껴졌다.실리는 여기서 자신이 화가 난다고 대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잠시 헤아리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다.소국은 넘쳐나는 마물로 혼란스럽고, 붉은 안개 때문에 외부의 도움조차 바랄 수 없다.‘오죽하면 무희와 광대를 키워 인신 공양까지 해가며 마물의 손을 빌려 마물을 토벌을 하겠어.’“화 안 납니다.”실리가 히죽 웃었다. 자신이 지금 왕녀에게 화내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게 떠오르자, 고민하던 게 무색할 만큼 다음 말을 내뱉기 쉬워져서.“거짓말.”달리아는 짧게 실리의 말을 일축하며 소파에서 일어섰다.“지금까지는 말이야, 난 내가 거짓말쟁이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음, 지금은 거짓말쟁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 못 견딜 만큼 화가 나면 날 찾아와.”달리아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토비를 향해 걸어가, 토비의 팔에 손을 올리고 고개만 뒤로 돌려 실리의 녹색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저는 페일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달리아님 마음에도 별로 들고 싶지 않아요. 실리는 토비의 팔을 붙잡고 키득키득 웃는 달리아를 향해 말했지만, 달리아는 크게 소리 내서 웃고는 대답도 없이 토비와 함께 사라졌다.진한 마력 파동만 남기고서.한바탕 소란처럼 아델라와 그녀의 수행원들, 달리아와 토비까지 몰려들었다 전부 사라지자 전신에 힘이 풀려 실리는 청록색 소파에 길게 널브러져서는 생각에 잠겼다.‘세상에. 달리아 아펜첼 드 마이엔펠트를 찾아오라니.’자신이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두 부류가 있다면 하나는 마이엔펠트고 하나는 멍청이다. 후자는 갱생의 여지라도 있다만 마이엔펠트는…실리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가 얼굴을 쓸어내렸다. 주근깨가 내려앉은 콧잔등이 빨개질 만큼 세게.“...페일님이 빨리 오시길 빈 건 처음인 것 같은데.”제발 빨리 돌아오세요. 마이엔펠트의 손아귀가 제 코 앞까지 왔단 말입니다. 저를 구원해주셔야 한다고요. 실리는 입속으로 웅얼대고 눈을 감았다. 찻잔이 널브러지고 쏟아진 찻물로 축축한 바닥에라도 누워 자고 싶을 만큼 지쳤다.페일은 약혼식이 시작되기 딱 여섯시간 전에 수도로 귀환했다. 달리아는 그가 나타나건 말건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하다가 그가 수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혀를 찼다.“쯧. 오늘까지 도착 못 할 줄 알았는데.”그가 오늘 수도에 오지 않았더라면 바로 후작저로 갈 수 있던 것을, 괜히 나타나 귀찮게 식을 치르게 생겼다고 잔뜩 투덜대며.“어머? 달리아님도 참. 약혼자님이 도착하신 건데 좀 더 즐거워하셔야죠!”달리아는 엘로이 후작저에 가 있는 동안 떨어져 지낼 로라의 낯을 뚱하게 보다가 손을 휘저어 투왈렛 밖으로 쫓아냈다. 어차피 약혼식 준비는 끝났고, 달리아는 굳이 공들여 꾸밀 생각 따윈 조금도 없었으니 로라는 지금 없는 편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달리아는 로라를 투왈렛에서 쫓아낸 후 기다란 소파에 누워 쉬었다. 배에 손을 올려 아직 들릴 턱이 없는 아이의 고동을 느끼려 애쓰면서. 페일이 마이엔펠트에 도착하고 약혼식이 시작될 때까지.막상 치러진 약혼식은 달리아가 투덜댄 게 의아할 만큼 간소했다. 마이엔펠트가의 유리 온실에 마이엔펠트와 엘로이의 사람만 모여 치른 약혼식은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아 끝났다.달리아가 페일의 소식을 들은 후, 그가 마이엔펠트에 들어서던 순간까지 네 시간을 투덜댄 것에 비하면 사랑을 암시하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은 건조한 약혼식은 정말 찰나처럼 짧았다.비앙카는 약혼식이 끝나기 무섭게 아직 일이 덜 끝났다며 엘로이 후작저로 떠나버린 페일의 행태가 못내 맘에 걸리는지, 연신 달리아의 오렌지빛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행복해야 한다’고 기원인지 협박인지 헷갈리는 말을 했다.달리아는 언뜻 보기에도 심드렁한 표정으로 ‘저는 이미 행복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는 말을 남기고 엘로이 후작저로 떠났다.페일이 먼저 마이엔펠트를 떠난 뒤라, 달리아는 같은 마차에 타서 지겨운 침묵을 겪을 필요 없다는 데에 아주 만족했다.달리아는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토비의 옆으로 몸을 옮겼다. 씩 이를 드러내며 미소지은 달리아가 토비와 바짝 붙어 앉아 몸을 옆으로 조금씩 밀었다. 개구쟁이 아이처럼 장난기가 뚝뚝 흐르는 표정으로.“달리아?”토비가 마차 창문이 있는 구석까지 순순히 물러나면서 의아한 듯 달리아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맑은 목소리에 달리아는 방긋 웃으며 그의 무릎 위에 자신의 머리를 뉘었다.“난 그대의 목소리가 정말 좋아. 내 토비가 말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음, 노래를 하는 것도 좋고.”달리아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토비의 얼굴에 손을 뻗어 옅은 갈색 머리카락을 쓸고, 그의 뺨을 쓸었다. 매끄럽지만 보드랍지는 않은 살결과 커다란 흉터를.토비의 눈이 예쁘게 접혔다. 반달처럼 접히는 눈과 짙은 쌍꺼풀, 흑요석을 닮은 검은 눈동자,깊게 패는 볼우물이 달리아를 향해 쏟아지는 애정어린 시선과 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달리아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토비는 달리아의 손길을 즐기다가 천천히 그녀의 뺨에 손을 뻗어 달리아가 자신의 뺨을 쓰다듬어주며 남긴 궤적을 달리아의 뺨에 덧그렸다. 거칠고 투박한 자신의 손에 달리아가 아파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그 조심스러운 손길을 느끼며 달리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토비.”“네.”“후작저에 들어가면 아마 늦어도 오늘 밤엔 계약을 갱신할 거야.”토비가 크고 따스한 손으로 달리아의 눈을 덮었다.“동행할까요?”토비는 달리아의 의중을 물었지만, 그 물음은 꼭 자신을 동행하게 해달라는 요청처럼 은근했다.“아냐. 계약은 당사자들만 있는 편이 좋겠지.”“...뭐든 달리아 그대 뜻대로 하세요. 다만 갱신 후 제게도 내용을 알려주시길.”“물론이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알려줄게.”그쯤이야. 조금도 어렵지 않다는 듯 바로 대답하는 달리아를 내려다보며 토비는 쓰게 웃었다.달리아와 페일의 계약,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왜 한발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하는 걸까.‘저는 왜 당사자가 아닌가요.’ 토비는 턱 끝까지 차오른 그 말을 삼키고 대신 다른 말을 뱉었다.“체리 초콜릿을 챙겨왔는데 드시겠어요?”“먹여주면 먹을래!”토비는 몸을 숙여 장난스럽게 웃는 달리아의 눈꼬리에 입을 맞췄다. 따뜻하고 말캉한 입술이 눈가에 닿자 그 온기가 간지럽게 눈가에 달라붙어 달리아는 눈을 감은 채로 키득댔다.늦은 밤, 페일의 프라이빗 룸. 페일은 한쪽에 마련된 흔들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꼬고 정면을 응시했다. 푸른 불꽃을 품은 그의 시선은 흔들의자에서 세 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 마련된 게임 테이블 앞 소파에 늘어지듯 앉아 발을 까닥대는 달리아에게 닿았다.“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저택에서 있었던 일은 이야기 들었습니다.”페일은 핑크빛 와인이 가득 담긴 와인잔을 손에 쥐고 가볍게 흔들었다.왕녀가 저택에서 헛소리하고 간 날 저녁, 실리는 페일에게 통신구로 연락해 아델라 왕녀가 한 말이며 달리아가 자신에게 반역을 시키려 한다는 하소연까지 아주 길게 늘어놓고도 그게 좀 모자라다 느꼈는지, 오늘 수도에 갓 귀환한 페일을 보자마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다.실리는 통신구로 보고할 때보다 훨씬 상세하게 달리아가 실리에게 수작을 부렸던 내용을 자신에게 일렀다. 시든 아스파라거스 같던 실리의 낯빛을 떠오르자 페일의 입가에는 바람 빠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맴돌았다.“제 부관을 꽤나 괴롭히셨더군요.”“글쎄요. 화가 나면 화를 내라고 일러줬을 뿐인데. 그걸 괴롭힘이라고 해야 할까요?”달리아는 웃고 있어도 서늘하기 짝이 없는 푸른 눈을 직시했다.“참아야 하는 자에게 분노를 종용한다면 충분히.”우스운 소리를 하시네요. 페일은 달리아가 낮게 중얼거리는 목소리를 못 들은 체하며 와인을 한 모금 삼켰다.“재미없는 사람. 못 들은 체 하지 마세요. 참아야 하는 자라니. 그건 저희가 가질만한 호칭은 아니죠.”“그럼 누가 가져야 합니까?”페일의 질문에 달리아는 기다렸다는 듯 양손 끝을 모아 턱 밑을 받쳤다.“약자들. 강자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는 자들요. 예를 들자면, 지금의 베레쉬트 왕가가 있겠네요.”페일이 입꼬리를 당겨 웃었다.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듯 그와 시선을 맞부딪히던 달리아도 그린 것처럼 우아하게 입꼬리를 위로 끌어올렸다.페일은 미소 짓는 달리아의 주홍빛 눈 너머에 넘실대는 왕가를 향한 증오를 읽었다.‘토비 델 때문이겠지.’토비 델의 불행은 왕가로부터 시작해 아직도 끝나질 않았으니까.“무슨 생각 하시는지는 몰라도, 계약 이야기를 먼저 해요. 난 오늘도 일찍 자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달리아의 손이 자신의 배를 감싸는 것을 보며 페일은 고개를 끄덕였다.“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하죠.”어차피 해야 할 이야기인 건 매한가지니. 페일은 예전에 달리아와 작성했던 계약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달리아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 놓인 게임 테이블 위에는 이미 달리아 몫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뭘 더 추가하고 싶으신지?”달리아가 눈으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훑으며 물었다.달리아가 몇 개 되지 않는 항목을 몇 번이나 훑는 동안, 페일은 추가할 조건을 미리 써 볼 요량으로 종이 몇 장을 더 게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신과 달리아 앞에 깃펜과 잉크병을 하나씩 놓았다.“일단… 아이에 대해선 태어난 후에 논의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죠. 그 전에 우리 계약이 끝날 수 있으니.”“좋아요. 대신 논의 전 아이는 마이엔펠트에 속한다고 명시해줘요.”페일은 고개를 끄덕이고 4번 밑에 5번 항목을 새로 적었다.달리아는 임신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과 관련한 조항을 만들어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다. 그런 건 조항으로 만들기보단 그냥 상황 따라 대처하는 편이 자신에게 유리할 테니까.“좋습니다. 다음은 그대가 저택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저택 내에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하죠.”“저택의 규칙이 있다면 최대한 수용할게요.”달리아는 심드렁하게 말하곤 깃펜 끝자락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첫째로 이 저택 내에서 그대가 하려는 일을 아는 자는 저와 실리뿐입니다. 그대의 일을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부디 정보가 새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길.”“최소한 당신 부관 셋에겐 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이유가 있습니까?”달리아는 눈을 찌푸렸다.“사이프러스 공작이 미스릴 검을 구했다고 제가 보고서를 보내드렸을 텐데요? 미스릴 검은 이 나라에서 더는 안 나와요. 게다가- 그 검. 검신에 사파이어 세공이 들어갔어요.아시겠지만 이 나라에 그런 검은 여태껏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었죠.”미스릴은 애초에 소국에서 나는 광물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소국에 미스릴을 다룰 줄 아는 이도 몇 없었고, 그나마 있는 다룰 줄 아는 대장장이들도 미스릴을 간신히 녹이는 수준이다.검신을 깎고 사파이어를 채워 넣을 줄 아는 이가 있을 리가.“타국에서 들어 왔겠군요.”붉은 안개를 뚫고 들어올 경로를 사이프러스 공작이 이미 찾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가라앉은 페일을 보며 달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그러니 당신의 부관들을 제가 쓸 수 있게 해주세요.”“머크가 아니라 제 부관들입니까?”페일은 잠시 고민했다. 머크와 론에게 붉은 안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찾고 있다고 알리는 건 상관없었다. 어차피 그들에게도 곧 알릴 생각이었으니.‘내 부관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특히 실리가. 페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의자에 앉았다. 그는 습관처럼 서랍을 뒤져 시가 케이스를 꺼내 열다가, 달리아를 힐끔 보고는 달칵 소리를 내며 시가 케이스를 닫았다.그는 시가를 꺼내 입에 무는 대신 피곤한 눈가를 문지르고 케이스 위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다.“좋아요. 허락합니다. 하지만 달리아, 명심하실 것이 있습니다.”철제 케이스를 손끝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제법 크게 프라이빗 룸을 울렸다. 페일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고갯짓을 따라 짙은 갈색 머리카락이 함께 흔들렸다.“뭔가요?”“제 것에 손을 뻗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겁니다. 내 부관들에게 수작 부릴 생각은 마시길. 제가 토비 델을 건드리지 않듯이.”그대도 제 것을 건드리지 마세요. 페일은 달리아의 굳은 표정을 마주 봤다. 아마 자신의 표정도 달리아 못지않게 굳었으리라 짐작하며.“거절한다면?”페일이 손끝을 모아 제 턱 끝에 대고 입꼬리를 끌어당겨 웃었다. 달리아는 그의 표정을 찬찬히 살피다가 인상을 썼다. 거절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는 듯한 표정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다.달리아는 고개를 돌렸다. 자신이 마이엔펠트의 주인으로 자라 제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듯 페일도 엘로이의 주인으로 자라고 살아왔으니 제 것을 쉬이 놓으려 들진 않겠지.달리아는 자신이 페일의 말을 거절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쳇. 뻔뻔하셔라. 좋아요, 당신의 것에 손을 뻗진 않을게요. 음, 적어도 제가 먼저 수작을 부려 취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명시하죠. 다만 귀여워하는 건 제 맘이니 부디 신경 꺼 주세요.”페일은 잠시 달리아의 귀여워하는 방식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제 부관들은… 당신이 귀여워하는 걸 싫어할 텐데요.”특히 실리가. 마이엔펠트라면 치를 떠는 실리의 표정을 떠올라서 페일은 제 부관들을 위해 이걸 거절해야 하나 고민했다.페일이 고민하는 기색이 보이자, 달리아는 ‘어머나-.’하고 작게 웃음을 터트렸다.“정보에 관해선 당신의 부관들 외엔 말이 새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하지만 저도 눈이 있는데요. 귀여운 것만을 귀여워할 거랍니다.”당신의 부관들 말고, 다른 귀여운 게 이 저택에 있잖아요? 달리아가 가벼운 농담을 던지듯 말하는데도 페일은 영 표정을 펴지 못했다.“당신이 말하는 다른 귀여운 게 뭔진 모르겠다만, 제 부관들은 거기에서 빠지는 게 확실합니까?”“장담은 안 해요.”못해요가 아니라, 안 해요. 달리아가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페일은 조금 더 고민하는 듯하다가, 이내 다시 게임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에 조항을 추가로 적었다.조항을 추가하며 몇 마디 더 의견을 나눈 후에야, 두 사람은 ‘달리아의 귀여워하기’는 귀여움 받을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을 때만 하는 거로 합의할 수 있었다.그들은 마지막 단서 조항까지 꼼꼼히 적고, 추가된 항목 옆에 각자의 인장을 찍는 것으로 계약을 마무리했다.“그럼 편한 밤이 되시길.”페일은 인사도 없이 질린 표정으로 자신의 프라이빗 룸을 박차고 나가는 달리아의 뒤통수에 밤 인사를 건넸다.그는 달리아가 완전히 방을 나가서 문을 쾅 닫은 후에야 시가를 꺼내 입에 물었다.페일과 달리아의 계약이 끝난 다음 날. 페일은 페일대로, 달리아는 달리아대로 계약 내용을 가지고 제 부관들과 이야기하기 바빠 후작저는 조용 하다못해 고요했다.몇몇이 예상했던 것, 특히 마이엔펠트가 후작저에 발을 디디면 그 순간부터 매일 파괴가 반복될 거라고 울부짖던 실리의 말과는 다르게 제법 평화로운 첫날이었다.흔히 생각하는 약혼자들 간의 평화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뭐 어쨌든.동이 틀 무렵부터 페일의 응접실에 모여 그를 기다리던 부관들은 피곤이 역력한 낯을 감추지 못했다.“자네는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건가?”머크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계속 응접실 소파 근처를 서성이며 돌아다니는 실리를 향해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걸었다. 무시하고 제 할 일을 하기엔 실리의 서성거림이 너무 거슬려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가시가 비죽 돋았다.“몰라서 묻는 건가요, 머크경?”실리의 왼쪽 입꼬리가 삐뚜름하게 올라갔다. 실리의 손이 어김없이 관자놀이를 꾹 누르는 것을 보며 머크는 한숨을 내쉬었다.“달리아님이 어제 후작저에 도착한 후 누군가를 괴롭히지도 않고, 저택을 파괴하지도 않았어. 심지어 머크, 네가 준비한 별저에 얌전히 들어가서 누굴 자르지도 않았지.”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조각내지도 않았고 해고하지도 않았어. 몸을 자르건 밥줄을 자르건 뭔가는 자를 줄 알았는데!실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만큼 흥분해서 말을 쏟아냈다. 정말 쏟아붓는다고밖엔 표현할 길이 없는 매서운 공세에 머크는 체념한 듯 고개를 저었고, 론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잘된 거 아닌가?”론이 생각하기엔 그저 머크가 준비한 별저를 마음에 들어 한 것 같은데 그게 왜 실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아 제발. 론경.”머크경도 론경도 다 똑같아요. 다 멍청이야. 달리아님은 자잘하게 터지는 대신, 크게 터지려는 거란 말입니다. 실리는 두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었다.“이제 머크와 론은 자네에게 동등한 대우를 받나?”실리가 목이 졸린 것 같은 소리를 내며 한참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웅얼대고 있을 때, 페일이 응접실로 들어왔다. 실리가 머크경이라고 한 걸 언제 들었는지 페일의 입가에는 미소가 매달려 있었다.“페일님을 뵙습니다.”“그래. 모두 앉지.”머크와 실리, 론은 페일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페일은 그들에게 자리에 앉도록 권하고 문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집사에게 손짓했다.집사는 트롤리를 밀고 들어왔다. 그가 트롤리 위에 있던 음식을 하나씩 테이블로 옮기는 것을 보며 페일은 가장 상석에 앉으며 가벼운 어조로 입을 뗐다.“그리고 보니 예법 개론서 필사는? 갈수록 말투가 귀여워지는 걸 보면 아직 책은 펴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그럴리가요. 이미 한참 전에 머크에게 제출했습니다.”1700 페이지를 다섯 번씩이 나요. 실리는 바쁘게 머리를 굴리고 몸을 놀리는 와중에도 틈틈이 힐이 글씨 연습할 때 찾아가 함께 글씨를 썼던 지난날을 떠올렸다.귀여운 아가씨는 자신이 쉼 없이 손을 놀리는 걸 보며 자신도 열심히 글씨 공부를 할 거라면서 낮잠도 참고 ‘마을을 구한 요정님’이 나오는 동화책을 다섯 장씩 베껴 썼다. 그것도 실리가 필사하던 열흘 중 네 번이나.‘우리 아가씨는 성실하시지.’실리는 밤새 달리아를 생각하며 불안에 떨다가, 글씨를 쓴다고 입을 앙다물고 집중하던 힐의 동그란 얼굴을 떠올리자 기분이 좀 나아지는 걸 느꼈다.페일은 상념에 잠긴 실리를 의외란 듯 바라보았다. 이쯤이면 실리가 끔찍한 경험이었다면서 잔뜩 투덜거려야 하는 데 인상을 쓰긴 커녕 표정이 살짝 밝아지기까지 하다니.“표정이 점점 피는 걸 보니 필사가 나쁘진 않았던 모양이야.”실리는 힐과 함께 글씨를 쓰던 기억에서 힐이 다섯 장을 쓸 동안 자신이 몇백 장씩 필사했다는 건 지워버리기로 했다. 손 아픈 열흘간의 필사. 그 기억은 그냥 힐의 앙다문 입매를 볼 수 있어 즐거웠다고 남겨두는 편이 좋을 테니까.“그리 나쁘진 않았지만 두 번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실리는 손을 포개 무릎 위에 두고 허리를 곧게 세웠다.“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페일과 실리가 잡담을 나누는 동안, 테이블 위에 온갖 음식을 펼쳐둔 집사가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다른 건 필요 없으니 세 시간 후에 오도록.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당분간 근처에 다른 시중인은 얼씬도 못 하게 해.”“예, 알겠습니다.”집사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집사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쯤에야, 페일이 피곤이 고스란히 녹아든 론과 실리, 머크의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다.“다 같이 식사하는 건 오랜만이군. 즐겁게 들지.”그들은 페일의 짧은 말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오늘도 디저트를 뺀 모든 메뉴가 테이블에 올라왔다.겉을 바싹하게 구운 크루아상과 양파를 오래 볶아 풍미가 좋은 크림 수프, 간단히 집어 먹기 좋은 핑거 푸드 몇 가지, 색색깔 파프리카를 곁들어 볶아낸 소고기 요리와 세 종류의 차까지.가벼운 것부터 조찬으로 들기엔 묵직한 것까지 다양한 메뉴가 즐비했다.론은 얇게 저민 햄에 두껍게 썬 연어를 둘둘 말아 만든 롤을 케이퍼를 으깨 만든 노란색 소스에 푹 찍어 입으로 가져갔다. 꿀을 많이 넣었는지, 시큼하고 달달한 케이퍼 소스의 맛이 입에 가장 먼저 확 퍼졌다. 그 뒤로 짭조름한 햄과 연어의 기름진 고소함이 이어졌다.‘크기가 더 커도 좋았을 텐데.’“페일님 어젯밤 계약은 잘 마치셨나요?”실리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연어와 햄으로 만든 롤이 잔뜩 쌓인 접시를 론 앞으로 밀며 페일에게 물었다.“물론.”페일이 입꼬리를 당겨 웃었다. 아주 짓궂게.“그대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뭐부터?”“...와. 저는 안 듣고 싶은데, 방에 돌아가도 됩니까?”실리는 나쁜 소식이라는 단어 하나에 어젯밤부터 자신을 불안에 몰아넣던 달리아의 낯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은 아연함을 느꼈다. 사색이 된 표정으로 들고 있던 빵을 내려놓고 미간을 좁히는 실리의 옆구리를 머크가 쿡 찔렀다.실리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실리가 또 필사하면 그걸 검사하는 건 틀림없이 자신이 될 테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머크는 8,500페이지짜리 필사본을 또 떠맡기 싫어서 재빨리 입을 열었다.“좋은 것부터 부탁드립니다.”페일은 신중하기 짝이 없는 머크의 낯과 사색이 된 실리의 낯을 번갈아 보다가 이전에 맺었던 계약과 새로 갱신한 조항을 간추려 이야기했다. 머크와 론은 그제야 실리가 뭔가 연구한다고 며칠씩 사라지던 이유를 깨달았다는 듯 새삼스러운 표정으로 실리를 봤다.“붉은 안개라니. 자네가 내 뼛조각을 달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보태줄 것 그랬군.”론은 과거 토벌 중 팔이 으스러졌을 때, 연구재료로 쓰고 싶다며 자신의 뼛조각을 탐내다가 몰래 빼돌린 실리를 걷어차 주었던 것을 조금 후회했다. 실리는 그때 론에게 걷어차여서 정강이에 금이 갔었다.실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러니 앞으로는 제발 자신의 말에 토나 달지 말아 달라고 일축했다.“그럼 이제 나쁜 걸 이야기할 차례인가.”달리아가 이 저택에 머무르는 동안 누군가를 귀여워하려 한다는 이야기. 페일은 아직도 그녀가 말한 ‘저택 내에 있다는 귀여운 것’이 뭔지는 몰랐지만, 제 부관들은 아닐 거란 건 알았다. 그가 굳이 이 이야기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건 그냥 질 나쁜 농담이다.‘본인이 거부하면 하지 않겠다는 확답도 받아뒀으니.’페일은 즐겁게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부관들에게 나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물론 거부권에 대한 것도 알려줄 생각이긴 했다.‘이 자리가 파하기 전에만 알려주면 되겠지.’페일과 부관들이 조찬을 마치고도 한참을 더 응접실에서 회의를 이어가고 있을 무렵, 힐은 언제나처럼 일과대로 글씨 연습을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점이라면, 오늘은 에드워드만 힐과 함께 있다는 점일까.힐은 바르게 앉기는커녕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깃펜을 휘적댔다. 손에 쥔 깃펜을 휘적이고 있지만, 시선은 동화책이나 글씨 연습용 종이가 아닌 창가에 닿아있었다.에드워드는 손에 쥐고 있던 책을 탁 소리가 나게 덮었다. 그의 시선이 글씨 연습에 조금도 집중하지 못하는 힐의 시선을 쫓아 시리도록 파란 하늘에 닿았다.‘산책하고 싶으신가?’힐이 점점 엎드리다시피 책상에 들러붙는 모습을 지켜보다 못 한 에드워드가 결국 소파에서 일어나 힐의 뒤로 갔다. 긴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뽀얀 목 뒷덜미는 예전처럼 뼈가 울퉁불퉁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나오미 자세를 바로 해야죠.”“으-?!”에드워드가 힐의 어깨를 잡아 그녀의 상체를 들어 올리며 자세를 고쳐주었다. 마치 실리가 하는 것처럼.실리가 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깊이 생각에 빠져있었는지 힐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에 든 깃펜을 바닥으로 던지듯 떨어뜨린 것뿐이었다.실리가 자세를 잡아주었어도 이렇게 놀랐을까? 에드워드는 문득 드는 생각에 조금 굳은 표정을 고개를 숙여 숨겼다.“아 이런. 제가 줍겠습니다. 부디 허리를 굽히지 마세요.”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힐이 손에서 놓친 깃펜을 주워 책상 위에 올려두고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잉크가 묻은 힐의 손을 닦아주었다.“...놀라게 해드려 미안합니다.”힐은 대답하는 것도 잊고 가만히 제 손에 튄 잉크가 에드워드의 손수건에 고동색 얼룩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 멍한 표정으로.‘진한 갈색.’페일님 머리카락도 진한 갈색인데. 힐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어제 페일님께서 저택에 도착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었어. 그냥, 그냥 계속 페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새파란 하늘도, 진한 갈색 잉크도 온통 페일을 떠올리게 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걸까. 힐은 새삼스럽게 제 손을 들여다봤다. 고동색 잉크 얼룩이 약간 남은 손을.“나오미?”힐은 의아함을 숨기지 않는 에드워드를 바라봤다. 정확히는 손수건을 쥐고 있는 그의 하얀 손을.우아함마저 느껴지는 예쁜 손과 흉이 가득한 자신의 손을 번갈아 보다가 힐은 충동적으로 입을 뗐다.“왜 실리도 머크도 오지 않을까요?”“두 분 모두 페일님과 할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네요.”에드워드는 어제 귀환하자마자 약혼을 한다며 다급히 마이엔펠트로 떠나던 페일과 그 뒤를 따르던 론, 실리, 머크를 차례대로 떠올렸다.“...어제 제가 무례했을까요?”‘누구에게?’라고 묻지 않아도 에드워드는 힐이 말한 무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페일님이겠지. 실리나 머크를 생각한 거라면 굳이 무례라는 단어를 끼워 넣지 않을 테니까.에드워드는 쓰게 웃고 꼬물꼬물 움직이는 힐의 손가락을 꼭 감싸 쥐었다가 놓아주었다.“음.”에드워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제 페일이 저택에 도착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페일이 온다는 소식에 잔뜩 상기된 뺨을 손등으로 연신 눌러 식히며 저택 현관을 떠날 줄 모르던 힐의 생기 넘치던 모습도 함께.“인사는 훌륭하셨어요. 아주 우아하셨습니다.”에드워드는 그렇게만 말했다. 페일이 저택 현관을 박차고 들어오기 무섭게 포르르 달려가던 모습과 인사한 후 페일의 옷 소매를 잡고 달라붙던 모습은 입에 올리지 않고.“그런데 왜, 안 오실까요?”안 계실 때 실리 말도 잘 듣고, 머크 말도 잘 들었는데. 떠나기 전에 많이 자랐다고 칭찬해주셔서 한 달 동안 밥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힐의 눈썹이 아래로 축 쳐졌다. 종일 멍했던 회색 눈망울에 평소 같은 총기가 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눈물이 방울방울 차올랐다.뱃속을 따끔따끔 찌르는 가시 같은 것들이 서서히 타고 올라와 가슴도 따끔따끔, 목도 따끔따끔.‘이건 ‘보고 싶다’야.’그리고 ‘속상하다’일까. 그냥 그리운 느낌과는 조금 다른, 코끝이 찡해지는 어떤 게 ‘보고 싶다’에 섞여들었다. 힐은 그게 뭔지 에드워드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목이 따끔거려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나오미 부디-,”눈물을 거두세요. 에드워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다가, 간신히 손을 들어 힐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주었다. 에드워드가 입고 있던 하얀 실크 셔츠가 힐의 눈가를 스쳤다.부들부들한 느낌.힐은 에드워드의 손을 잡고 그의 소매에 얼굴을 비벼 눈물을 닦아냈다. 힐이 눈물을 다 닦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소맷자락을 붙들고 있었는데도 에드워드는 얌전히 붙잡혀 주었다.힐이 고개를 떼고 방싯 웃었다.“에드워드가 얼른 얼굴을 떼라고 할 줄 알았어요.”“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에드워드는 콧잔등을 찡그리며 흐트러진 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겨주었다. 이 동그란 머릿속에서 대체 자신은 어떤 의미길래 그런 생각을 한 걸까.“예의가 아니니까?”“눈물을 보이는 숙녀분께 소매도 못 내줄 만큼 제가 못나 보였나요?”에드워드가 힐의 콧잔등을 살짝 쥐었다 놓아주며 웃었다.“음- 그러면….”힐은 눈을 내리깔고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우아하고 예쁜 에드워드의 고운 손과는 다른, 투박하기 짝이 없는 손을.여전히 투박한 손이지만 늘 깨져서 볼품없던 손톱이 많이 자랐다. 아직 흉이 가득했고 군데군데 길이가 반 토막 난 손톱이 있지만, 뭐 어쨌든. 자란 건 자란 거니까. 힐은 제 손에서 투박함이 조금은 가신 것 같아 기뻤다.“에드워드는 고우니까?”“네? 곱다니요?”에드워드는 귓가를 빨갛게 물들이고서도 애써 퉁명스레 물었다.“나는 낮은 피고 에드워드는 높은 피니까요.”눈도 꽃받침같이 예쁘고 손도 예뻐요. 힐이 덧붙인 말은 꽤 기꺼운 것이었으나, 에드워드에게 제대로 들리진 않았다. 딱딱하게 굳은 그의 표정은, 화가 난 것 같다가도 서러운 것 같았고, 또 다르게는 안타까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그의 손이 힐의 뺨을 쓰다듬었다.“나오미, 당신은 나오미예요. 페일님께서 고귀함으로 주신 이름을 가졌잖아요.”에드워드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간 입에 올린 적 없던,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을 하기 위해서.“...당신은 숭고한 운명을 받았어요.”담담하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뿌리쳐지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모습을 볼 바에야, 죽도록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말을 건네는 편이 나으니까.“그걸 자부심으로 살아가요. 높은 피니 낮은 피니 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힐을 위로하기 위해 그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다. 그게 설령, 그녀가 페일의 것이라고 다시금 깨우쳐 주는 일일지라도.“아.”말간 회색 눈동자가 에드워드의 녹색 눈과 시선을 부딪쳐왔다. 갓 비가 그친 뒤 하늘 같은 말간 눈망울, 자그마한 코, 살짝 벌어진 분홍빛 입술. 에드워드는 찬찬히 힐의 얼굴에 서리는 기쁨을 엿보았다.“맞아요. 나는 페일님이 주신 운명을 가졌어요.”힐이 뺨을 발그레 물들이며 웃었다. 언젠가 에드워드가 지적한 적 있었던, 우아함과 거리가 있는 웃음이었다. 이가 다 드러나 보일 만큼 크게 짓는 미소.어떤 깨달음을 찾은 듯 점차 환희가 어리는 힐을 지켜보다가 에드워드는 눈을 감았다. 자신을 마주 보는 그녀가 불안해할까 봐 입꼬리를 당겨 웃음을 그리면서.그녀의 표정이 밝아질수록 속이 꺼멓게 타들어 간다. 아, 이건 언젠가 느꼈던 것이다. 힐이 페일이 없다고 우울해하던 그 날 느꼈던 것과 같은, 혹은 더 깊은 불쾌감.“고마워요, 에드워드.”“...별 말씀을요.”힐은 연신 기쁘게 웃었다. 자신은 페일님의 것, 페일님의 곁은 자신이 있을 곳.자신은 왜 그분이 오기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아마도 고귀한 그분의 눈앞에 낮은 종인 자신은 먼저 찾아가선 안 된다고 은연중에 계속 떠올리고 있었나 보다. 에드워드가 말해준 대로, 자신은 이제 나오미인데.머리로는 알고 있던 것들을 에드워드, 명화 속 천사같이 예쁘고 기품있는 그의 입을 통해 듣자, 이제야 힐은 스스로가 페일을 보러 갈 자격이 있음이 살갗에 닿을 듯 선명해짐을 느꼈다.보러 갈 자격이라니. 힐에게 지금 그것보다 달콤한 말이 있을까? 어제 먹었던 체리파이도 이보다 달콤하지는 않았는데. 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에드워드 덕분에 중요한 게 생각났어요. 저 미안하지만 먼저 나가볼게요!”부디 편히 쉬다 가시길 바란다는 말까지 제법 정중하게 늘어놓은 후 힐은 에드워드의 대답도 듣지 않고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다.‘보고 싶은 사람이 보러 가는 거야.’보고 싶으면 보러 가면 된다는 울보의 말이, 잊고 있던 그것이 다시금 떠올라 연신 몸놀림이 빨라졌다.페일님의 방에 가자. 그리고 거기에 안 계시면 집무실에 가보는 거야. 그래도 못 찾거든 저택을 돌아다니자. 그분을 만날 때까지.힐은 방문 밖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방안을 들여다봤다. 힐의 키에 맞춰 조그만 가구들 사이에 홀로 커다란 에드워드가 감았던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게 보였다. 힐은 에드워드를 향해 환한 웃음을 건네고, 방문을 닫았다.새하얀 방문은 아주 부드럽게 닫혔다.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대는 소음에 귀가 따가웠던 검은 나무문과는 다르게.힐은 문을 닫고 몸을 돌렸다. 살구색 원피스 자락이 차르르 힐의 몸짓을 따라 동그란 궤적을 그리며 발목이며 정강이에 부드럽게 감겼다.“이제 가자.”혼자 나와본 적 없던 바깥은 힐의 방과 다르게 크고 넓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힐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 걸음을 뗐다. 푹신한 카펫 위를 반짝이는 플랫슈즈가 내달렸다.얼마나 달린 걸까? 한참을 달리던 힐은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느낌에 자리에 멈춰 섰다.“으아아.”힘들다. 가운 하나 걸치지 않았는데도 몸이 덥고, 종아리는 묵직했다. 푹신한 카펫이 깔린 복도를 골라 달렸는데도 발바닥이 불에 달군 돌멩이처럼 뜨거워서 힐은 조심스럽게 치맛자락을 잡아 한 손에 모으고 쭈그려 앉았다.기세 좋게 달린 건 좋았는데, 저택이 너무 넓어서 페일의 집무실까진 아직 반도 가질 못했다. 힐은 턱 끝까지 찬 숨을 헉헉 몰아쉬며 울상을 지었다.“왜 이렇게 멀리 있지.”작은 한숨의 입가를 비집고 흘렀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페일을 보고 싶어 기세 좋게 달려 나온 건 좋았는데 체력이 발목을 잡을 줄이야.“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라고 그랬나 봐….”많이 먹고 많이 크면 한 번에 달려갈 수 있을 테니까. 힐은 쪼그린 자세 그대로 고개를 숙여 짧동한 제 몸을 훑어보았다. 자신의 다리도 페일만큼, 아니 머크나 론만큼 크고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았다.자그마한 손이 제 종아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쪼그린 상태로 돌처럼 단단히 굳은 종아리를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묵직한 종아리가 약간은 느슨히 풀리는 기분이 들어 한참을 두드린 후에야 다시 벌떡 일어났다.힐의 작은 몸은 마치 위로 쏘아 올린 투포환처럼 한 번에 위로 쏘아 올려졌으나, 힐이 기대했던 것처럼 가볍게 바닥에 닿진 못했다. 그녀의 허리께를 낚아채는 흉이 가득한 남자의 손 때문에.“안녕? 귀여운 아가씨.”힐은 몸이 낚아채진 것보다 웃음기 가득한 하이톤의 목소리에 놀라 파드득 떨었다. 어린애 손에 들린 인형처럼 등만 위로 솟은 채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고개만 살그머니 뒤를 보니, 다람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만났던 여자가 작게 웃음 띤 낯이 보였다.그날처럼 허리까지 굽이쳐 흐르는 예쁜 오렌지빛 머리카락과 선명한 주홍빛 눈이 빛났다.“아, 아, 안녕하세요!”힐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도 한 손을 가슴께에 두고 한 손으로 치맛자락을 잡은 채 허리를 더욱 옹송그려 인사했다.‘으아아, 목소리 이상했어.’힉힉거리는 숨소리에 맞춰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여간 볼품없는 게 아니었지만, 일단 인사는 했으니까 괜찮겠지? 자신을 다독이면서도 제 뺨이 붉어졌을까 봐 손등으로 뺨을 꾹 누르며 꼬물꼬물 움직이는 힐을 보며 달리아는 유쾌한 웃음을 터트렸다.“아하하, 토비! 귀여운 아가씨는 그만 내려줘.”토비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힐을 바닥에 내렸다. 힐이 바닥에 철푸덕 엎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내려주는 손길은 힐이 받아본 손길 중에서도 손에 꼽히게 사려 깊었다.“감사합니다.”힐은 그제야 바닥에 발을 붙이고 자신을 붙잡았던 토비를 올려다봤다. 연한 갈색 머리카락과 새카만 눈을 담은 날카로운 눈매, 하얀 얼굴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흉터.평범한 어린애라면 보기만 해도 울음부터 터트릴 만큼 손속이 잔인해 보이는 외모에도 힐은 태연히 토비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했다.“예의가 바른 꼬마 아가씨잖아?”달리아가 팔꿈치까지 오는 긴 레이스 장갑을 벗고 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토비를 보고 안 울었으니까 합격점이야. 그런 말을 중얼거리면서.“좋아. 꼬마 아가씨. 이름이 뭐야?”“엇, 아, 음….”힐의 회색 눈망울이 도르륵 굴러다녔다. 달리아를 처음 만났던 날, 머크가 자신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게 기억나서.‘그때 분명, 페일님께 들어야 한다고 그랬는데.’머크가 그랬으니 알려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힐은 제 이름을 스스로 소개할 기회와 그날 들었던 말 사이에서 혼자 갈팡질팡했다. 힐의 동그란 눈이 도르륵 굴러다니는 모습을 달리아와 토비가 관찰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 지 몰라 쉽사리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곤란한가 봅니다.”힐의 침묵이 길어지자, 토비가 지루함이 역력한 표정으로 여전히 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뺨을 콕 찔러보길 반복하는 달리아의 우아한 손끝을 잡았다. 토비는 힐이 곤란하니 그만두잔 듯 말했지만 달리아에게는 얼른 볼일 보고 별저로 돌아가자는 속뜻이 너무도 뚜렷하게 들렸다.“그래. 우리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이 아가씨가 궁금한데 말이야.”이렇게 볼이 말랑하고 눈이 동그랗다고. 귀엽잖아? 달리아는 힐을 처음 보던 날, 저 회색 눈망울 가득 고였던 악의 없는 호기심도, 지금 보이는 곤란함도 아주 마음에 들었다.어쩔까? 달리아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토비의 눈이 가늘어졌다.“마음에 드십니까?”“아주. 그러니까- 데려가자. 궁금한 건 물어보면 알게 될 거 아냐?”아 결국. 토비가 장난기 가득한 달리아의 표정을 보며 픽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를 냈다.토비와 달리아 사이에 의미심장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그들의 대화 사이에서 데려가자는 메시지만, 알아 들은 힐이 ‘엣’하고 우아함과 거리가 먼 소리를 냈다.저 예쁜 분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한다는 것만 대충 알아들은 힐이 토비가 손을 뻗어오기 전에 도망치려고 페일의 방이 있는 쪽으로 몇 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다시 몸이 대롱대롱 들렸다.“엣, 저, 저기! 내려주세요……!”“싫어. 귀여운 아가씨는 내 질문에 대답 안 해줄 거잖아?”달리아가 앞장서 걸음을 떼며 말하자, 힐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긴 했으니까. 다시 토비에게 허리께를 잡혀 달랑 들린 힐은 토비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사방으로 흔들렸다. 내려줄 땐 그렇게나 조심스러웠는데 들고 걸을 땐 이렇게 엉망이라니.페일의 부관들과 에드워드처럼 조심스레 안아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대롱대롱 흔들리며 어디론가 잡혀가길 바란 건 더더욱 아니었는데.“나- 나중에요! 제가 페일님께 여쭤보고 알려드릴게요!”머리로 피가 몰리는 기분에 힐은 눈을 꾹 감고 힘껏 외쳤다. 달리아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뒤따라 걷던 토비의 발걸음도 멈추자, 힐은 슬금슬금 눈을 뜨고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지, 물어보고 나면 말해주러 갈 테니 어디 사는지 알려달라는 말을 횡설수설 늘어놓았다.달리아는 몸을 숙여 힐과 시선을 맞추고 정신없이 늘어놓는 이야기를 ‘응응.’하는 추임새까지 넣어가며 전부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몸을 펴고,“마침 잘 됐네. 나도 후작님을 뵈러 가니까.”라고 말하고는 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토비의 손에 달랑달랑 들린 힐을 넘겨받아 한쪽 팔로 안아 들었다. 힐의 눈 앞 풍경이 순식간에 휙휙 돌아갔다.“네? 페일님을… 으앗!”머크와 론은커녕 실리와 비교해도 팔 두께가 반절도 되지 않는 얇은 달리아의 팔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게 된 힐이 불안한 비명을 입속으로 내질렀다.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실리조차 자신을 안아 들 때는 두 팔을 다 쓰니까.그런 힐의 불안을 읽었는지 달리아는 다른 팔로 강아지처럼 불안함에 낑낑대는 힐의 등을 몇 번 토닥여주고 걸음을 옮겼다.달리아가 걸음을 옮길수록 불안에 바짝 얼었던 힐의 몸에서 긴장이 차츰 풀렸다. 달리아는 팔은 부들부들 거리면서 힐을 놓치기는커녕 솜인형 하나 집어 든 것처럼 평온히 움직여서, 힐은 자신이 안겨 있는 게 맞는 지 몇 번이나 발밑을 확인했다.‘와. 실리보다 힘이 훨씬 훨씬 센가 봐.’밥을 많이 먹은 걸까. 힐은 가슴께에 꼭 모은 손을 풀고 달리아의 양어깨를 끌어안았다. 아주 조심스럽게.끌어안는 동안에도 계속 달리아의 표정을 보며 슬금슬금 눈치를 살폈지만, 불쾌해 보이는 기색이 없자 힐은 달리아의 뺨 근처로 고개를 돌려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녀의 눈망울을 슬그머니 바라보았다.반짝이는 유리구슬처럼 예쁜 눈. 기다란 오렌지빛 속눈썹은 캐러멜처럼 달콤한 빛이 났다.달리아는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곤 힐끗 제 뒤에서 못마땅하단 표정을 숨기지 않는 토비를 쳐다봤다.굳이 자신이 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다는 게 영 마뜩잖다는 듯한 표정이 못 견디게 사랑스러웠지만, 그녀는 힐을 다시 토비에게 건네줄 생각이 없었다. 달리아는 토비에게 살짝 눈을 찡긋해 보이고 다시 앞을 보고 걸었다.페일의 방은 하필 이 미련하게 큰 저택 깊숙한 곳에 있어서 찾아가는 내내 지루했는데 마침 이 아이를 다시 만날 줄이야.“내가 신기하니?”달리아가 바삐 움직이는 힐의 눈에 짧게 시선을 주며 물었다. 닿는 순간 더 선명히 빛나는 그녀의 눈이 너무 근사해서 힐은 달리아의 시선이 금방 다시 앞으로 고정되자 아쉬움마저 느낄 지경이었다.“조금요.”“하하, 솔직한 건 정말 좋아해. 내 어디가 신기한지 알려줄래?”힐이 달리아의 목덜미에 고개를 기댔다. 맞닿은 부분부터 달리아가 웃음소리가 잔 진동처럼 퍼졌다.“실리는 저를 안으면 두 손으로 안아줘요. 가까운 데는 한 손으로 안아주는데 멀면 두 손으로 안아줘야 안떨어트린댔어요.”“응, 그래?”“네에. 그런데, 음. 저기, 귀하신 분께서는-”“달리아. 달리아님이라고 불러.”달리아는 제 목 뒤에 두른 손을 열심히 꼼지락대며 말하는 힐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주다가, 힐이 달리아를 지칭할 말을 고르느라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귀하신 분이라고 표현하자마자 말을 끊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다.힐이 생긋 웃으며 달리아의 목덜미에 가볍게 뺨을 부볐다. 작은 동물이 애정표현을 하는 듯한 몸짓에 달리아는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이렇게 귀여운 게 이 후작저에 있다고? 정말 믿기지 않네.’달리아는 속으로 페일이 이 귀여운 아이를 어디서 몰래 납치해온 건 아닌가? 잠시 고민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페일과 관련된 자 중엔 힐같은 아이가 나올 구석이 없었으니까.“달리아님은 한 손으로도 팔이 안 부들부들 떨어서 그래서 신기해요. 부들부들도 안 하고 휘청휘청도 안 하시잖아요.”힐이 말을 마치자 달리아가 부드럽게 웃으며 걸음을 멈췄다. 아주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벌써 페일의 방 앞이었다.달리아는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신 잠시 힐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당연하지. 나는 말이야, 이 나라에서 제일 힘이 세거든.”힐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랗게 뜨였다. 달리아의 미소가 짙어졌다.“보여줄게. 자, 저 문을 잘 봐.”힐이 상체를 뒤로 돌려 페일의 방문을 확인하고 표정이 확 밝아졌다. 방문에 새겨진 익숙한 무늬가 오늘따라 몹시 반가워서.달리아는 주먹을 차분히 말아쥐며 제 품에 안긴 힐의 표정 변화를 가만히 관찰했다. 눈이 동그랬다가 가늘어졌다가. 눈썹도 축 처졌다가, 위로 번쩍 들리고. 토끼처럼 찡긋대는 코끝마저 시무룩함이 묻어나는 듯하다 금세 다시 기뻐 보인다.이토록 다양한 표정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본 적이 있었을까? 달리아는 힐의 표정을 관찰하며 즐거움과 유쾌함을 느꼈다. 분명 오늘 아침 본저 현관 앞에서 자신을 막아서는 집사를 뚫고 들어올 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도.‘놀란 표정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달리아는 잘 보라는 듯 주먹을 말아쥔 손으로 문을 겨냥했다. 이 어린애가 놀란 표정을 보고 싶다.“이런 힘 자랑,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생각보다 난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달리아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한 손을 뻗어 그대로 커다란 문을 쳤다.쾅!굉음이 울렸다. 두꺼운 돌로 만든 문이 터져나가고 그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토비가 재빨리 양산을 펼쳐, 달리아에게 받쳐 준 덕분에 달리아와 힐의 몸 위에 돌 조각이 스치는 일은 없었다.달리아는 놀란 기색이 역력한 힐의 표정을 흡족하게 내려다보며 말아 쥔 손을 살랑살랑 털었다. 매끄러운 흰 손에는 생채기는커녕 붉어진 기색 하나 없었다.“그래도, 어때? 이제 내 말 믿을 수 있겠니?”“네. 믿어요.”달리아가 힐의 회색 눈망울을 빤히 응시하며 묻자 힐이 얼떨결에 긍정했다. 힘이 이 나라에서 가장 세다는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았다. 힐이 몸을 던져 부딪혀도 저 문이 저렇게 부서지진 않았을 테니까.힐은 자신을 직시하는 달리아와 얼굴을 맞대고 있으려니 뭔가 더 많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를테면, 정말 대단하다거나 뭐 그런 칭찬의 말을. 하지만 생각과 달리 말이 쉽사리 나오질 않아서 힐은 고개만 연거푸 끄덕였다.“어머나. 다들 여기 계셨네요.”달리아는 힐의 대답과 열렬한 고갯짓이 만족스럽다는 듯 생긋 웃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반쯤 날아간 페일의 응접실 문짝을 넘어 응접실로 들어왔다. 달리아의 뒤로 토비가 양산을 접어 한쪽 팔뚝에 비스듬히 걸치며 응접실 안을 훑어봤다.꽤 오랜 시간 문 앞에 서성거린 탓인지, 응접실 테이블에 널린 서류 대부분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뒷면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혀 있었다.“쯧.”토비가 작게 혀를 찼다. 재빠르기도 하지. 건지고 싶은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뭐라도 건졌으면 여기까지 온 보람이 조금은 있었을 텐데. 작은 아쉬움이 남았다. 아직 뒤집혀 있지 않은 서류 두 장을 페일의 부관, 머크가 휙휙 뒤집고 누름돌로 대충 눌러두는 것을 잠깐 지켜보다가 토비는 시선을 돌렸다.태연자약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론과 머크. 질린 표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달리아와 달리아 품에 안긴 어린아이, 그리고 자신을 번갈아 응시하는 실리.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 서늘한 시선으로 달리아에게 안긴 어린아이를 보는 페일.토비는 슬쩍 몸을 움직여 달리아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사각에 자리 잡았다. 대각선 약간 뒤쪽, 응접실 모퉁이 쪽으로.토비가 습관처럼 달리아의 빈틈을 막아주려고 몸을 움직일 때, 실리는 아연한 표정으로 자신이 만나길 극도로 꺼리는 마이엔펠트의 두 사람과, 오늘 새벽부터 에드워드를 닦달해 맡겨두고 온 아가씨를 보았다.“...페일님? 이것도 말씀하신 귀여워하기의 일환인가요?”귀여워한다면 대체 누가 대상인 걸까요? 지금 속이 뒤집힐 것 같은 저인가요, 아니면, 아니면 납치당한 우리 아가씨인가요.실리는 아주 푹신한 카펫 위로도 선명하게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달리아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페일에게 은근히 물었다. 은근하다기에는 목소리가 조금 컸지만.“글쎄. 이왕이면 실리 그대이길 바라고 있긴 해.”차갑게 가라앉은 페일의 시선이 향한 곳은 조그만 뒤통수. 부스스하기 짝이 없는 아마 빛 머리카락. 이 저택에서 저렇게 조그만 건 하나뿐이라.페일은 왼손으로 입가를 쓸어내렸다. 페일이라고 해서 달리아가 힐을 안고 문을 부수며 들어오는 이 상황이 이해되는 건 아니었으므로.대체 왜 달리아에게 안겨서 들어온단 말인가. 페일은 골이 지끈거리는 느낌에 관자놀이를 꾹 누르고 작은 한숨을 쉬었다. 어제 달리아와 계약 내용을 고칠 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에 저 아이를 넣었어야 했다. 뒤늦은 후회가 잠깐 밀려왔지만, 이내 페일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푹신한 카펫 위로도 선명하게 또각대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달리아와 페일의 아주 작은 기척 하나 내지 않는 발걸음은 비슷하게 멈췄다. 페일은 세 걸음 바깥에 떨어져 서 있는 달리아를 보며 손에 끼고 있던 가죽 장갑을 천천히 벗었다.달리아는 검은색으로 보일 만큼 짙은 밤색 가죽 장갑을 잠깐 보다가 시선을 올려 삐뚠 미소를 띤 페일의 입가를 잠시 바라봤다.페일과 달리아는 마주 보고 서 있었지만, 시선을 맞닿는 일은 없었다. 달리아의 시선은 페일의 입가에, 페일의 시선은 달리아가 끌어안고 있는 힐의 뒤통수에 닿아 있었으니까.달리아는 페일이 보라는 듯 아주 천천히 손을 올려 제 품에 안겨있는 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손끝에 걸리는 머리카락은 달리아가 생각한 만큼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손에 서늘하게 감기는 감촉은 마음에 들었다.“나, 아니 저, 내려주세요.”힐이 조그맣게 달리아의 귓가에 소곤댔다. 제 딴에는 작게 이야기한다고 한 것이나, 그 자리에서 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안돼. 내려주기 싫거든. 그러니 가만히 있어, 귀여운 아가씨.”달리아는 힐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힐의 귓가에 소곤대며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하나같이 경계심 가득한 표정이었다.힐의 고개가 훅 들렸다. 당장이라도 서럽다 울음을 토해낼 것 같은 올망올망한 표정. 페일이 코앞에 있으니, 이제 달리아의 품을 벗어나서 페일에게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보러왔다고 말해야 하는데.힐은 달리아를 설득할만한 말이 뭐가 있을지 찬찬히 머릿속을 뒤졌다.“달리아.”힐이 복잡한 머릿속을 뒤져 달리아의 품에서 내려갈 방법을 찾을 때, 페일은 한 발자국 더 달리아가 있는 쪽을 향해 다가왔다. 머릿속이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페일의 목소리는 힐의 귓가에 선명히 들렸다. 약간의 흥미와, 묘한 불쾌감이 서린 페일의 목소리가.“지난밤은 평안하셨습니까? 그 아이는 이리 주고 부디 앉으시길.”페일은 달리아의 뒤로 토비가 바짝 붙어서건 말건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달리아와 한 뼘이면 닿을 거리까지 다가갔다. 그 말은 곧 힐의 앞에 섰단 것이기도 해서.페일의 손이 힐의 어깨와 목 사이에 닿았다. 달리아를 향해 있던 힐의 고개가 돌아가고, 작은 어린아이의 눈에 페일이 담긴다. 투명한 물속에 잉크가 퍼지듯, 말간 낯 위로 번지는 웃음을 마주하며 페일은 힐을 달리아의 품에서 빼내는 것도 잊고 고장 난 것처럼 멈춰버렸다.자신을 향해 웃는 낯. 맹목적인 친근함에.페일은 힐과 닿은 손바닥이, 그녀의 온기가 닿은 곳부터 서서히 근질거리는 것 같아 손을 거둬들이는데, 힐이 달리아의 목에 감고 있던 손을 잽싸게 풀고 페일을 향해 손을 뻗었다.“페일님, 많이 뵙고 싶어서 왔어요.”페일은 제 눈앞에 엉망진창으로 널브러진 상황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힐을 넣었다.지금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이 아이가 어제 자신을 향해 안겨들던 그 아이가 맞는 걸까. 아니, 저번 달까지 눈에 익혀둔 그 아이는 맞나?‘잘 드시면 부쩍부쩍 크긴 할겁니다만, 그래도 인간이 한 달에 10cm씩 크고 그러진 않습니다. 무슨 나무도 아니고요.’문득 자신이 토벌에 떠나기 전, 실리를 따로 불러 잘먹이라 당부할 때 실리가 투덜대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달에 2cm만 커도 잘 큰 거라고 했던가? 아니 1cm였나? 워낙 흘려들어서 기억이 나질 않았다.페일은 아직도 짧동한 힐의 손을 마주 잡고 제품으로 끌어당겼다. 못 볼 것을 본다는 듯 표정을 잔뜩 찌푸린 달리아는 힐을 순순히 놓아주었다. 별로 놔주고 싶진 않았지만, 페일과 계속 마주 보고 서 있는 것도 질색이라서. 달리아는 입으로 바람을 훅 불어 앞머리를 날리고는 페일이 앉아 있던 자리로 걸어가 휙 앉았다.페일은 여전히 달리아와 마주 섰던 자리에 멈춰서 힐을 품에 안고 있었다. 페일이 힐을 안아 들었던 게 언제였을까?‘아. 이름을 준 직후였던가?’안아 들었다기보단 어깨에 들쳐멨었지만. 페일은 힐을 안아 든 채로 위아래로 몇 번 들어 올렸다 내리길 반복하며 무게를 가늠했다.지푸라기 인형처럼 볼품없었으나 묘하게 시선을 잡아끌었던 백치 종. 딱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은 제법 윤기가 돌았고, 창백하던 살갗은 핏기가 돌았다.“나오미, 좀 컸나?”페일의 품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의 어깨를 꾹 잡고 있던 힐의 눈망울 위로 하늘색 빛이 어렸다. 먹구름 가득 낀 하늘에 빛이 들 듯, 여리고 선명한 빛이.“네!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잔뜩 먹었어요.”실리 말도 잘 듣고, 머크 말도 잘 들었어요. 힐은 페일의 품으로 건너가면서부터 줄곧 하고 싶었던 말을 바쁘게 재잘댔다. 조금 살이 붙은 볼이 힐이 입을 놀릴 때마다 부풀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길 반복하는 모습을 잠시 내려보던 페일은 몸을 돌려 실리의 옆자리로 돌아가 앉았다.실리는 눈치껏 달리아와 가까운 자리를 페일에게 양보하며 소파 저 구석까지 기꺼운 마음으로 밀려났다.어쩌다 보니, 가장 상석에 달리아가, 그 아래로 페일과 실리, 그 반대편에 머크와 론이 앉았다. 달리아는 여전히 페일의 품에서 떨어지기 싫다는 듯 꼭 붙어 있는 힐을 잠깐 보다가, 입을 열었다.“꼬마 아가씨. 내가 여기까지 안아다 줬는데, 이제 이름 알려줄 거지?”“페일님 허락을 맡으면요.”“그럼 얼른 물어봐.”고작 물어본단 말을 저렇게 비장하게 할 일인가? 귀엽게. 달리아는 조그만 흰 주먹에 힘이 불끈 들어가는 것을 보며 키득댔다. 달리아가 손을 허공에 팔랑팔랑 저으며 얼마든지 기다리겠다는 듯, 턱을 괴고 다리를 꼰 채 힐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페일님, 달리아님께 제 이름을 알려드려도 되나요?”페일은 잠깐 달리아를 응시했다. 밖에서 만났을 때처럼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 아니라, 가벼운 실내용 드레스에 숄을 걸치고, 화려한 레이스 장갑을 한쪽 팔에만 끼고 있는 달리아를. 그녀가 발을 까딱일 때마다 긴 벨벳 치마 속에서 반짝이는 남색 하이힐 앞코가 슬쩍 드러났다 숨겨지길 반복했다.편한 복장에 곁가지만 화려한, 이질적인 차림새.“그래. 이름을 알려드리고 네 방으로 돌아가 있도록.”페일의 무정한 목소리에 힐의 비장한 표정이 산산이 부서지고 진득한 아쉬움이 서렸다. ‘아직 제대로 된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는데.’ 작게 웅얼대는 힐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뚝뚝 흘렀다.힐의 시선이 아래로 내리깔리는 걸 제법 가까이서 지켜보는 실리도 함께 표정을 찌푸렸다. 비록 둘 다 스스로 눈치채진 못했지만.힐은 잠시 페일을 올려다보다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착실히 몸을 일으켜 페일의 품을 빠져나왔다. 원피스 자락을 탁탁 두드려 구겨진 옷자락을 펴고 힐은 치맛자락을 들고 사뿐히 무릎을 굽혔다.“안녕하세요, 달리아님. 나오미 리즈웨이입니다.”달리아는 달콤한 미소로 인사를 받아주었다.“나오미, 나오미라. 짓궂은 이름이지만 귀여운 네게는 어울리는 이름이구나.”‘리즈웨이라면 후작가의 방계. 아이가 없는 방계일 텐데?’달리아는 페일을 꿰뚫듯 응시했다. 의미심장한 이름도, 제 혈족이 아닌데도 저택에 들여둔 까닭도 모두 읽어내려는 듯이. 달리아가 인사를 받아주자, 힐은 조심스럽게 뒤로 총총 물러났다. 페일이 돌아가라고 한다면 돌아가야 하니까.하지만 갖은 용기를 짜내 페일을 만나러 온 힐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꾸물꾸물 몸을 움직이다가, 힐은 다시금 주먹을 꾹 쥐고 용기를 내 페일이 앉은 소파로 종종걸음으로 다가갔다.“저어, 페일님. 괜찮으시면 같이 산책 가실래요? 이따가 가도 괜찮아요.”“산책보단, 저녁을 같이 들지.”페일은 힐의 꼼지락거리는 손가락을 잠깐 보다가 저녁을 제안했다. 힐은 뺨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며 함빡 웃었다.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모양새로.“네! 저녁에 만나요!”힐은 페일이 번복이라도 할까 두렵다는 듯, 재빨리 인사를 건네고 콩콩 뛰어 바깥으로 사라졌다. 푹신한 카펫을 밟는 소리가 사라질 때쯤에야, 달리아가 크게 웃음소리를 터트렸다.“저도 저녁 식사에 초대해주시나요?”“그대는 점심에 초대하죠. 알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달리아의 웃음기 가득한 말을 단박에 거절하며 페일은 어제 해야 했을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아주 예전처럼 느껴지던, 그 연회에서 저 작은 아이를 찾은 이야기부터, 저 아이를 통해서 하려는 일까지.“즐거운 점심이 되겠어요.”달리아가 열 손가락을 한데 모아 쥐며 살포시 웃었다. 한쪽 손에만 화려한 레이스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우습긴커녕 자신을 치장한 커다란 맹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미소였다.페일도 그 미소에 화답하듯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방계 아이가 왜 달리아, 그대 품에 안겨 왔는 지도 궁금하고.”하나씩, 전부 이야기해볼까요? 아주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이면서.페일과 부관들의 조찬으로 시작한 그 날의 식사는 중간에 끼어든 달리아, 토비, 힐 덕분에 아주 길게 이어졌다. 종일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한참을 앉아 먹고 입만 움직였는데도 머크와 실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페일은 연회에서 자신이 힐을 찾아낸 것과 마물들이 찾고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마물의 수장 격인 라휄에게 첩자로 심어놓을 생각이라는 것까지 아주 간결하게 털어놓았다.‘종이었다니.’ 그럴 일 없다는 듯 불쾌한 기색 가득한 토비 델과 흥미로운 기색 가득한 달리아를 살피다 어떻게 달리아가 힐과 함께 왔는지를 물었다.달리아는 그 물음에 대답하기보단, 왜 조그만 아이를 첩자로 심으려 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다.실리는 한숨처럼 짧은 푸념을 늘어놓았다.“지옥은 가까운 데에 있었어....”대답할 생각이 없는 페일, 캐묻는 달리아. 그들은 대답할 생각이 없는 서로를 앞에 두고 하고 싶은 말만 했다. 저녁 식사 자리로 옮겨가기 전, 정리할 내용을 추려 적는 실리의 옆에 앉은 머크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머크의 머릿속에서 지난했던 하루가 주마등처럼 흘렀다.점심을 먹는 내내 대답다운 대답이라곤 없이 질문만 잔뜩 이어지던 장면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역이어서 머크는 인상을 찌푸렸다.그 자리에서 달리아는 디저트가 나올 무렵부턴 페일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의 표정에서 대답을 유추하길 포기했다. 그리고 머크와 실리를 공략하려 들었다. 그들은 페일의 약혼녀로 이 저택에 머무는 달리아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으니까.실리는 유들유들하게 온갖 무례한 제스쳐로 빠져나가느라 고생을 했고, 실리만큼 무례하지 못했던 머크는 은근슬쩍 대답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다가 은근히 달리아의 편을 들며 맞장구치는 저 토비 델 때문에 갖은 고초를 겪었다.머크의 원망 서린 시선이 페일에게 닿았다. 좀 도와주시지 않고. 곤란해하는 자신을 두고 산뜻하게 차를 마시던 페일이 그토록 원망스러운 적이 없었다.페일은 디저트와 식후 차까지 모두 마시고 난 후에야, 계약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자는 달리아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관들과 토비까지 있는 자리에서 ‘힐에 대해 함구할 것’과 달리아의 별저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했다.달리아는 머크가 심혈을 기울여 선정하고 별저 가득 채워 넣었던 사랑스러운 파스텔 톤 토끼 인형을 전부 치울 것과 한 번 더 가져다 놓으면 그녀가 별저를 통째로 날려버려도 용납하겠다는 대목을 특히 만족스러워했다.배부른 맹수처럼 웃던 달리아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실리가 농담처럼 던진 ‘서로의 정보 조직 일부를 공유한다.’는 조항까지 단번에 승낙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었다.머크는 조금 기가 죽었지만, 페일은 기죽은 머크보다 기분 좋은 달리아에게 집중했다. 얻어낼 수 있을 때 잔뜩 얻어내야 한다는 듯한 페일의 태도는 기회주의자의 그것과 닮아있었지만 오만한 표정과 자세가 그의 태도를 기회주의자보단 모든 것을 제 것으로 여기는 권력자처럼 비춰주었다.머크는 고생해서 공수한 토끼 인형이 전부 찢겨나가게 생겼다는 서러움과 제 주인의 당당한 모습에서 오는 만족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게 떠오르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서로의 정보 조직까지 일부 공유한다는 일견 파격적인 내용의 세부 조항까지 합의한 후에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달리아는 다시 한번 저녁 식사에 초대해달라 요청했고, 페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저녁이고 뭐고 돌아가 잠이나 푹 자고 싶었던 머크와 실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표정으로 점심 식사가 끝나고도 한 참 이어졌던 이야기를 정리해 추려두는 중이었다.“마지막으로 확인해보시죠.”실리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리해 둔 내용을 훑어보고 페일과 달리아에게 각각 하나씩 정리 본을 건넸다. 페일과 달리아가 정리 본을 읽는 동안 머크는 묵묵히 토비와 자신이 적은 회의록을 교환해, 서로가 적은 내용에 오해할 소지가 있는지 확인했다.“좋아요. 만족스럽네요.”“저 역시. 그럼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시죠. 후작저의 저녁은 나쁘지 않습니다.”페일은 서류를 실리에게 다시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나 달리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에스코트하려는 신사라기엔 무례했으나 흠을 잡기엔 예의 바른 태도로. 달리아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대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다.달리아와 페일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실리와 머크도 반쯤 포기한 낯으로 일어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아. 아이들도 지금 부르지.”페일은 식당 앞에 도착해서야 생각났다는 듯, 엘로이 후작저의 두 어린아이 이름을 입에 올렸다.해가 저물었다만, 아직 저녁 식사를 들기엔 이른 시간이라 아까 저녁을 함께 들기로 했다곤 해도 미리 내려와 있지 않을 테니까.“제가 다녀오죠.”“실리 자네는 할 일이 많으니 여기 있게. 내가 다녀오지.”“론이 다녀오도록.”실리는 이 지긋지긋한 구성원들에게서 잠시라도 벗어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회는 론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론이 눈인사를 남기고 뒤돌아 걸어가는 모습을 잠깐 보던 달리아가 페일에게 말을 붙였다.“아이들이요? 나오미 말고도 저택에 아이가 있나요?”맙소사, 그럼 그 애처럼 귀여운 게 더 있단 말이야? 달리아의 예쁜 얼굴 가득 호기심이 서렸다.“후작저엔 아이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오전에 보셨던 나오미고, 다른 하나는 에드워드 라반 드 알렛데이아 영식입니다. 나오미의 예법 친구죠.”“알렛데이아 영식도 아이인가요?”그 영식 열 여덟 살인데. 달리아가 떨떠름하게 되물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 토비가 빼주는 의자에 앉았다. 페일도 가장 상석에 앉으며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이 후작저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이미 성인식을 치르긴 했지만 엘로이 안에서 가장 어리니 소년이죠.”“가장 어린 소녀는 나오미고요?”“그렇습니다.”달리아가 그 금빛 병아리 같은 어린아이를 떠올리며 겉보기엔 즐거움 가득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을 때, 론이 힐과 어쩐지 뾰로통한 표정의 에드워드를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왔다.홀로 머리 두 개는 너끈히 불쏙 솟은 론과, 그를 가운데 두고 오밀조밀 붙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서야, 달리아는 ‘아이들이 맞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자신과 고작 네 살 차이 나는 에드워드가 자신보다 조그맣다 못해 높은 식탁 의자에는 못 올라갈 것처럼 앙증맞게 보여서.‘저런 걸 보고 살았으면, 둘 다 아이 같다 느꼈을 법해.’달리아는 그 정도로 제 생각을 정리하며 제법 똑 부러지게 인사하는 힐을 응시했다. 원피스 자락을 잡은 손끝이 야무졌다.뒤늦게 식당에 도착한 이들이 자리에 앉기 무섭게, 뒤쪽에 시립해 있던 시중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식탁을 채웠다.어느 정도 식탁이 차고 페일이 식기를 들자 조용한 식사가 시작되었다. 페일에게 시선을 꼭 붙이고 이리저리 눈을 굴리던 어린 힐도 얌전히 제 몫의 스테이크를 썰어 아구아구 입에 넣고 씹었다.페일이 손짓하자, 뒤에서 얌전히 대기하던 시중인들이 모두 빠져나갔다. 은근히 등 뒤에 엉겨 붙던 시선이 자취를 감추었다.“이제 좀 홀가분하네요. 엘로이엔 거추장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달리아가 포크로 차게 무친 샐러드를 쿡쿡 찌르는 모습을 보며 페일이 낮게 웃었다.“불편하시다면 물리십시오. 저도 자주 물려두는 편입니다. 그보다…, 식사는 입에 맞으십니까?”달리아의 입맛엔 심심할 정도로 담백한 음식을 심드렁하게 내려다보았다.“아뇨. 맛을 보긴 한 건가 의심스러워요.”달리아가 샐러드를 결국 포기하고 뒤로 살짝 물리는 모습을 보고, 힐도 제 몫의 샐러드를 그릇에 덜어 입안에 한가득 와앙 넣어 씹었다. 아삭아삭한 채소가 입안에서 기분 좋은 쓴맛을 냈다. 새콤한 와인 소스에서 달달한 베리 조각이 간간히 씹히면 눈이 절로 감기고 ‘으음’ 소리가 날 만큼 맛있었다.힐은 여태껏 달리아처럼 음식을 뒤로 물리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종으로 살 때는 뭐라도 먹으려고 안달 내는 사람들뿐이었고, 함께 식사해온 페일과 부관들, 그리고 에드워드는 음식을 가려먹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힐은 달리아를 빤히 응시하면서 고개를 갸웃댔다. 달리아 옆에 앉은 토비가 전전긍긍하며 이런저런 음식을 조금씩 잘라 달리아의 앞접시에 올려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토비가 달리아에게 음식을 잘라주면 달리아는 인상을 찌푸리고 ‘싫은데’로 시작하는 매번 다른 말을 하면서도 먹었다.“아가씨? 벌써 다 드신 거예요?”옆자리에서 실리가 힐의 멈춘 손을 보고 은근히 물어왔다. 페일을 슬쩍 곁눈질하는 실리를 보고 힐은 잠깐 자신의 뱃속 상태를 점검했다.벌써 제 얼굴만큼 커다란 스테이크 하나를 싹 먹고, 스프도 흰 빵을 찍어 잔뜩 먹었고, 껍질을 바삭하게 구은 생선 살도 한 덩이 먹었다. 샐러드도 잔뜩 먹었고. 이만하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은 셈이라, 힐은 고개를 끄덕였다.“네에. 그만 먹을래요.”“아이고, 잔뜩 드셨네요. 잘하셨습니다.”“네! 잔뜩 먹었어요. 배불러요.”자랑하듯 배를 통통 두드리는 힐의 몸짓을 보고 실리는 웃음 띤 낯으로 조그만 손을 낚아채 얌전히 무릎 위로 올려주었다. 힐이 얌전히 실리에게 잡혀 바른 자세로 교정 당하는 동안, 페일은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그러고 보니까,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는 걸 잊었습니다.”페일이 분홍색 와인이 반쯤 든 와인잔을 들어 올리면서 식탁 앞에 둘러앉은 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었다.“먼저-, 이쪽은 나오미 리즈웨이입니다.”“나오미 리즈웨이입니다. 잘 부탁드려요.”힐이 공손하게 눈을 살짝 내리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나로 느슨하게 땋은 머리카락이 함께 배꼽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달리아는 고개 숙여 인사하는 힐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를 받아주었다.“그리고 이미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이쪽은 에드워드 라반 드 알렛데이아입니다.”“에드워드 라반 드 알렛데이아입니다.”에드워드도 얌전히 손을 식탁 아래로 모아 내리고 고개를 숙였다. 힐은 좀처럼 보기 힘든 에드워드의 격식 차린 인사를 연신 곁눈질하며 에드워드처럼 손 모양을 만들려고 식탁 아래에서 손을 꼼지락거렸다.“그 알렛데이아 영식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반가워요.”힐의 눈이 반짝였다. 그 알렛데이아 영식이라니. 다들 에드워드가 유명한 영식이라고 말했으면서 정작 왜 유명한지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아마 달리아는 그가 왜 유명한지 아는 모양이다.“이분은 달리아 아펜첼 드 마이엔펠트. 내 약혼녀로 별저에 머물고 계시니 잘 보필하도록.”“네.”힐은 달리아에게 에드워드의 소문을 물어보면 자신에게 알려줄까 싶어 반짝이는 회색 눈망울 가득 색채가 선명한 달리아를 눈에 담았다. 기대감 가득 찬 눈동자. 페일은 상석에 앉아 그 모습을 빤히 보았다.처음 만나는 이를 소개하는 말이 무색할 만큼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는 식탁 위에서 강렬한 주홍빛 색채를 지닌 자와 그자를 반짝임 가득 담은 눈으로 바라보는, 탈색된 아이.그 선명한 대비라니. 페일은 손에 쥔 분홍빛 와인을 한 모금 삼켰다. 그의 시선이 힐의 앞접시까지 닿았을 때, 그의 눈살이 조금 찌푸려졌다.“나오미, 이리로.”달리아에게 온통 시선이 뺏겨있던 힐이 주춤주춤 의자에서 일어나서 페일에게 걸어갔다. 힐의 걸음걸이는 어린아이가 갓 배워 쓴 글씨처럼 단정하려고 애쓴 티가 나는, 거칠고 서툰 것이었다.“아이고. 아가씨 긴장하셨나.”머크는 제 옆자리에서 중얼거리는 실리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힐의 걸음걸이를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시선을 내려 토마토소스를 바르고 짧게 구워내 식감이 좋은 가지 요리를 잘랐다.“아가씨는 원래 저렇게 걸으셨던 것 같은데.”“헛소리를. 아가씨는 아기 물새처럼 걸어.”“지금도 그렇지. 아기 물새 같으시니까.”조금, 음. 뭐랄까.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된 아기 물새 같은데.“그건 머크, 자네 얼굴이 절로 긴장될 만큼 무섭게 생겨서 그래. 이참에 가면이나 하나 장만하지 그래?”실리는 페일의 앞에 다다른 힐에게서 눈 하나 떼지 않고 머크를 모함했지만, 머크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말을 몰래 훔쳐 들은 느낌에 홀로 조마조마한 힐만 ‘다 들려요, 실리….’하고 울음소리처럼 작게 중얼거렸다.모른 척하고 싶지만,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큰 목소리라서.힐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과 눈높이가 비슷한 것 같은 페일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조마조마해 보이는 표정으로도 인사만큼은 똑 부러지게 잘하는 모습이 어딘가 기특해서, 페일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가 충동적으로 힐의 허리께를 낚아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으앗…!”“페일님?”놀란 힐과 실리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훅 식당 안을 울렸다. 페일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술 더 떠 힐의 몸을 위아래로 몇 번이고 들었다 놓길 반복했다.혼란스러운 표정으로도 힐은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가만있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조금 더 편히 자신을 들었다 놓을 수 있도록 얌전히 몸의 자세를 바꾸기까지 했다.그리고 힐긋 페일을 돌아보는, 하늘빛 가득 도는 회색 눈망울.페일은 그 안에 뒤섞인 맹목적인 어떤 것을 봤다. 선한 눈망울에 담긴 그건 애정이라고 부르기에는 열망하지 않는 것이었고, 동경이라고 부르기엔 무구했다.페일은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 애 안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이 뭔지 궁금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서.그는 대신 다른 것에 의문을 품기로 했다.“잘 먹고 있는 게 맞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닌가?”아까 안아 들었을 때 제법 사람 같은 무게라고 생각했음에도, 막상 다시 들어보니 지나치게 가벼워서.“네, 네에. 잘 먹고 있어요. 오늘도 잔뜩 먹었어요.”페일의 시선이 힐의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앞접시에 닿았다. 깨끗하게 비운 앞접시에는 음식이 담겼던 흔적만 조금 남아 있었다.“한참 모자라. 더 먹는 게 좋겠군.”페일은 제 앞에 놓인 앞접시를 슬쩍 옆으로 밀고, 근처에 놓인 앞접시를 하나 가져왔다. 그리고 그 위에 음식을 쌓았다.“빵을 좋아한다지?”겉을 바싹하게 구워낸 납작한 바게트 빵 위에 절인 올리브와 몽글몽글한 치즈를 올린 카나페를 하나.“하지만 고기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키가 자라질 않아.”소고기를 잘 구워 시트러스 향이 나는 소스에 가볍게 볶아낸 꼬치 하나.“어머나, 그렇게만 먹으면 편식인데요. 채소도 중요해요. 골고루 먹어야 튼튼하게 크겠죠.”페일이 앞접시에 음식을 조금씩 덜어주는 모습을 보며 달리아가 한 마디를 보탰다. 페일은 달리아의 머리끝을, 정확히는 달리아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듯 보다가,“그대의 말이 맞겠죠.”라고 말하며 양파와 파프리카 구운 것에 바질 페스토를 넣고 버무린 것을 잔뜩 접시 위에 올렸다.참견하는 사람이 생기자 둥근 접시는 금세 음식이 가득 찼다. 페일은 이 접시가 생각보다 작음에 속으로 혀를 차면서도 힐의 따끈따끈한 손에 포크를 쥐여주었다.“이 정도는 더 먹도록.”힐은 두근두근함을 넘어 조마조마하게 접시를 바라봤다.“제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아가씨, 무리해서 드시진 마세요. 페일님, 아가씨께서 탈이 나십니다.”“맞습니다. 이미 평소보다 많이 드셨습니다.”실리는 힐을 살짝 만류했다. 페일의 배에 등을 딱 붙이고 한 손에 포크를 결연하게 쥐고 있는 힐이 저 많은 걸 다 먹고 배탈이 나서 고생하는 모습이 선명히 그려져서.에드워드도 실리와 함께 힐을 만류했지만, 페일이 무슨 말을 하기에 앞서 나오미가 먼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등허리에서 느껴지는 뜨끈뜨끈한 온기. 페일이 주는 온기가 더해갈수록 이유 모를 자신감이 솟아났다.“해볼게요.”“오. 좋은 태도야. 해보기 전에 입을 여는 건 소인배나 하는 거라고.”결연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포크를 꾹 쥐는 힐을 보며 달리아는 픽 웃었다. 졸지에 소인배가 된 실리와 에드워드의 표정을 찬찬히 관람하며 그녀가 손짓하자, 토비가 달리아 앞에 놓인 찻잔에 히비스커스 차를 따라주었다. 달리아는 만면에 점점 가득히 피는 웃음을 도무지 참을 수 없었다.꼭 바보 같은 연극을 보고 있는 기분.우습지 않은가. 서슬 퍼런 무심한 눈으로, 지독히 무감한 표정으로 달리아보다 고작 네 살 어린 남자를 어린 애라고 부르고, 제물로 바치려 데리고 있다는 소녀는 애지중지 키워내고 있다는 게.달리아는 이 상황이 우스운 소꿉장난처럼 보였다.“전 소꿉장난을 좋아하죠.”달리아의 손끝이 찻잔 가장자리를 빙글빙글 맴돌았다. 손끝에 닿는 따스한 찻잔의 온기. 달리아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간질거리는 느낌.그녀는 이런 느낌을 자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지긋지긋한 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머리를 쓰고, 때론 힘을 쓰고 사는 건 진절머리가 나. 달리아가 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토비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토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달리아의 찻잔에 각설탕을 두 개 넣어줄 뿐.달리아는 힘겹게 음식을 씹어 넘기는 힐을 보며 킥킥 소리 내며 웃었다. 결심으로 가득 찬 눈망울이, 힘껏 움직이는 듯하면서도 작디작은 손놀림이 사랑스럽다.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벌이는 우습기 짝이 없는 희극과 그 희극 속 유일한 어린 애. 아, 에드워드도 있었는데.달리아는 잠깐 에드워드가 떠올라 멈칫하다가, 이내 그의 우아한 얼굴을 머릿속 저 멀리 치워버렸다. 달리아는 에드워드가 지워진 자리 위로 힐의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를 새겼다.그리고 보면 저 어린애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달리아의 웃음 섞인 말에 힐은 머리를 붕붕 흔들었다. 작은 입은 쉴 새 없이 음식을 씹느라 대답을 따로 하기 힘든 모양이었다.페일은 아래로 시선을 내려, 잔뜩 부푼 흰 뺨을 응시하다가, 힐의 등에 닿지 않도록 손을 조심히 놀려 제품 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푸른 사슴이 수 놓인 손수건이 힐의 입술에 닿았다.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분홍색 입술과 입가를 문질러, 입 주변에 묻은 것들을 닦아냈다.“감사합니다아.”힐의 말꼬리가 조금 늘어졌다. 힐의 안색과 배를 번갈아 살피는 실리만 전전긍긍할 때, 페일이 다시금 힐을 번쩍 들었다.“아까보다는 조금 묵직해진 것 같기도 하고.”낮은 목소리가 귀 바로 아래에서 웅웅 울리는 기분에 힐은 제 귀를 감싸 쥐었다. 간질간질한 느낌에 입을 크게 벌려 웃을 뻔했다만, 열심히 씹어 삼켰던 것들이 울렁울렁 목 끝까지 차오른 기분에 입을 벌리기 무섭게 다시 합 다물었다.너무 많이 먹으면 목 끝까지 음식이 차오르는 기분이 든다는 걸, 처음 깨달아서 조금 무서웠다. 처음 느끼는 감각이 불쾌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기분이 금세 무서움 뒤를 졸졸 쫓아왔다.“이제 그만 드세요, 아가씨. 배탈 나면 몸에 나쁩니다.”“실리 피스토스, 그대는 배탈 같은 건 못 고치나?”달리아가 흥미진진함을 담아 물었다. 실리는 단박에 표정이 구겨졌다. 달리아의 말은 꼭 고장 난 장난감은 고쳐 쓰면 된다고 말하는 어떤 자린고비가 하는 말 같아서.‘아가씨가 아프고 난 다음에 고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자신도 믿기 어려울 만큼 충성스러운 생각이 자꾸 차올랐다. 배탈 같은 거, 물론 고칠 수 있겠지만, 고통을 느낀 후에 고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 안 아프게 할 수 있다면 안 아프게 하는 게 최선 아닌가?‘그냥 억지로 먹이지 않으면 되는 건데.’실리는 그 말을 그대로 불평처럼 쏟아내려다가 입을 꾹 다물었다.‘아, 젠장.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멍청하게도. 실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자신이 왜 페일을 만류하고 있단 말인가? 이래서야 제 주인이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꼴이다.실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던 손으로 제 눈가를 꾸욱 누르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자신의 주인은 저 서늘한 푸른 눈의 고귀한 분뿐이라고. 그 품 아래 어린아이가 아니라.“...고칠 수 있습니다.”실리는 얌전히 대답했다. 늦은 대답에도 아랑곳 하는 이가 없었다. 고장이 나면 고치면 그 뿐인 걸까. 여기에 앉은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이해할 수 없게 하는데도 실리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좋아. 그만. 이만하면 나쁘지 않으니 그만 먹지.”거진 비워가는 접시를 보다가 페일이 다시금 포크를 들어 올리는 힐의 손을 잡았다. 단단한 손에 말랑말랑한 것이 잡혔다.낯선 촉감이다. 말캉거리는, 뜨끈한 손. 놓고 싶었고, 조금 더 세게 쥐어보고 싶었다. 불쾌하지 않은데 이질적인 감각이 자꾸 손을 뿌리치고 싶게 해서 인상이 찌푸려진다.힐은 멀뚱히 포크를 쥔 제 손과 제 손을 잡은 크고 단단한 손을 보다가 슬금슬금 머리를 뒤로 기댔다. 부드러운 실크 셔츠에 머리가 닿을 때까지. 고개를 살짝 돌려 페일을 올려다보려다가 그의 실크 셔츠에 뺨이 닿았다. 부드럽고 매끈한 촉감이, 약간 서늘한 천의 감촉이 뜨끈한 뺨에 닿는 게 기분 좋아서.힐은 뺨을 슬쩍 셔츠에 비볐다. 전에 어쩌다 껴안았던, 정원의 동상이 생각나는 냄새가 났다. 돌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하고 쇠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한, 서늘한 향이다. 힐이 코를 묻고 킁킁대려 하기 직전에 이미 숨넘어갈 듯 웃던 달리아가 어느새 다가와 힐을 페일의 품에서 쑥 빼냈다.페일이 의아한 기색을 띠기 전 달리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제가 데려온 이들의 명단은 이미 확인하셨겠죠?”“확인했습니다. 총 다섯이었죠. 당신과 토비 델, 그리고 당신의 부관 둘에 시녀 하나.”페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수긍했다. 제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빼내도, 그 무례함에 찌푸리기보단 담담하게 구는 모습이라니. 달리아는 재미라곤 조금도 없는 남자라는 생각을 하며 말을 이었다.“하나는 틀렸어요. 레이니는 대외적으론 시녀지만-, 제 정보 조직과 제 소통 창구를 맡아주는 친구랍니다.”“레이니요.”“네. 레이니 헌트. 제 곁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많은, 바쁘고 충성스러운 제 친구.”달리아는 꼭 오페라 배우가 대사를 읊듯, 고저가 명확한 어조로 레이니 헌트의 이름을 말했다. 페일은 갑작스레 제품에서 힐을 빼내 가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달리아를 보면서도 머릿속에 ‘레이니 헌트’라는 이름을 박아두었다.자신이 달리아의 정보조직을 써먹을 날이 언제 올진 몰라도, 미리 그 이름을 알아두는 건 유용할 테니까.“그럼 그 이름을 왜 지금 알려주시는지, 그것도 함께 알려주시겠습니까?”페일은 그녀와 힐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품에 폭 끌어안긴 힐은 어느새 익숙하게 달리아의 한쪽 팔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그녀의 목덜미에 살금살금 제 머리를 기대려다가 페일과 눈이 마주쳐서 재빨리 어깨를 펴고 허리를 똑바로 세웠다.“이런. 무시무시한 눈으로 보지 마시죠. 나오미가 놀랐잖아요.”달리아는 힐의 등을 한참 쓸어주다가 이내 웃음을 거두고 입을 열었다. 눈은 힐에게 향해있었지만, 말은 페일을 향했다.“시녀가 필요해서요.”“시녀라. 그렇겠군요. 어떤 이를 원하십니까. 이 저택엔 하녀밖에 없어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그대가 원하는 이를 시녀로 들이겠습니다.”마이엔펠트의 시녀가 될 자는 많으니까. 달리아의 시녀를 구하는 건 어렵지도 않겠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페일은 세간에 떠도는 마이엔펠트의 소문이 어떻든 달리아가 시녀로 삼겠다 하면 기쁨에 눈물을 보일 수많은 자를 알고 있었다. 그들이 오래도록 달리아의 곁에 머물지 못할 거라는 것도.페일의 시선이 식탁 앞에 모인 이들을 훑었다. 이 자리에는 비록 왕가를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없다고 하나 왕가는 왕가. 실상은 다를지라도 겉모습만은 왕가의 비호를 받는 마이엔펠트의 시녀가 되는 영광을 감히 거부할 이가 어디 있을까.오래 달리아의 곁에 남진 못할지언정, 제안을 넣으면 당장 달려올 사람은 차고 넘칠 것이다.“그 말에 후회 없길 빌죠. 이 아이를 제게 시녀로 주세요.”페일의 생각은 짙은 비웃음 섞인 달리아의 말에 잘게 흩어졌다. 그의 시선이 또륵 아래로 굴러떨어져 어느덧 달리아의 목덜미에 고개를 푹 박고 눈을 끔벅이는 힐에게 닿았다. 대체 왜 저렇게 평온히 안겨 있는 걸까. 그냥 뿌리치고 떨어져 나와도 될 것을.페일은 묘한 불쾌감이 일어 표정을 굳히지 않으려, 여유 가득한 사람처럼 웃음 짓길 택했다.“곤란합니다.”“왜요? 저는 레이니의 이름도 알려드렸는데.”달리아가 작게 입술을 삐죽이다가, 힐의 귓가에 훅 바람을 불어 힐을 깜짝 놀라게 하고는, ‘너도 나랑 지내고 싶지 않아?’ 작게 속살댔다.힐은 간질간질한 귓가에 손을 올려 귀가 빨개질 만큼 세게 비볐다. 힐의 눈썹이 아래로 축 처졌다.‘이거, 귀에 바람이 닿는 거 기분이 안 좋아.’흰 얼굴 가득 불만 가득한 우는 표정이 떠올랐다. 달리아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페일은 일그러진 힐의 표정이 맘에 들어 당장 달리아의 품에서 힐을 빼내 오려던 생각을 고쳤다. 조금 더 관대한 쪽, 그러니까 힐이 직접 달리아의 품 안에서 빠져나오길 기다리는 쪽으로.“내 방에 가면… 음 그래. 토끼 인형 많은데. 토끼 좋아하니?”토끼 좋아하면 구경하러 갈래? 새까만 속이 훤히 보이는 말에 페일의 표정이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 토끼 인형들, 다 버린다고 하지 않았나? 찢어발길 듯 굴었던 게 몇 시간 전인데. 그걸 미끼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어린아이를 낚으려 드는 모습은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 지.페일은 한참이나 자신의 방에 가면 뭐가 있는지, 뭘 가지고 놀면 네가 즐거워할 거라는 온갖 달콤한 말을 묵묵히 들으며 힐이 스스로 달리아에게서 빠져나오길 기다린다는 몇 분 전 생각을 버렸다. 깨끗하게.“달리아. 저는 제 것에 손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것이라니. 못된 분이시기도 해라.”“달리아.”달리아는 페일의 가라앉은 눈을 똑바로 직시했다. 달리아는 페일과 마주 보고도 겁먹지 않을 몇 안 되는 사람이라. 기 싸움은 달리아의 포기로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났다.“좋아요. 시녀는 포기할게요. 대신 주에 몇 번은 함께 있게 해주세요.”“....”페일이 대답 없이 손끝으로 식탁 위를 톡톡 두드리자, 달리아는 몇 마디를 덧붙였다.“어차피 연회에 나가려면 사교계에 몇 번은 얼굴을 비춰야 하잖아요. 이 저택으로 오는 초대장 중에 나오미를 동행해도 괜찮은 초대는 없을 테고.이 저택엔 레이디스 메이드도 없는 것 같고.하지만 전 다 있거든요. 나오미를 데려갈 만한 파티의 초대장도 끝없이 밀려오고, 레이디스 메이드도 여럿 데리고 있죠.”뭐, 마이엔펠트에 두고 오긴 했지만, 금방 데려온다고요. 달리아는 대답 없는 페일에게 혼잣말하듯 말을 쏟아냈다.“...주에 두 번입니다. 제가 동행할 때 만나는 거라면, 허락하겠습니다.”페일은 제 턱을 쓰다듬으며 고민하다가 이내 주에 두 번, 자신을 동행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달리아의 표정이 살풋 일그러졌다.“죄송하지만,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데 페일님을 함께 뵙긴 어렵단 것도 이해해주시기를.”빠지라는 뉘앙스가 역력한 말에도 페일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그럼 한 번은 따로, 한 번은 저와 함께 만나시는 거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제안에 가까운 말이나, 그의 표정은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듯 단호해서 달리아는 여전히 불쾌함이 남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달리아의 턱이 힐의 머리를 살짝 스쳤다. 힐은 잔뜩 부른 배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가 화들짝 놀라서 잠깐 파득파득 대다가, 이내 민망한 듯 달리아의 목덜미에 코를 비볐다.달리아의 표정에 기묘한 충족감이 넘실댔다. 페일과 마주 본 표정은 더없이 의기양양해서, 페일은 그만 일그러진 표정을 숨길 생각도 없이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으음, 그러면 정원으로 저만 가는 건가요?”힐의 머리카락을 커다란 빗으로 빗겨주던 실리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게 거울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였다.“실리?”힐이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빗겨주던 실리의 손을 붙잡았다.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커다란 손을 쥔 모습은 조금 우스웠으나 실리는 그 모양새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하는 대신 다른 손을 들어 제 손을 붙든 조막만 한 손을 덮고 토닥여주었다.“아가씨, 역시 저도 같이 갈까요?”실리의 녹음 가득한 눈은 어딘지 깊게 가라앉아 보여서. 힐은 거울로 그를 살피는 대신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보길 택했다.“실리도 같이 가고 싶어요?”“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건 너무하세요.”실리가 낮게 웃음 지었다.“...자네,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아가씨는 전장에 나가시는 게 아냐. 티타임을 즐기러 가시는 거지.”힐의 응접실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드는 창가. 머크는 자신이 얼마 전 심혈을 기울여 주문 제작한 하늘색 천을 덧댄 폭신한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힐이 열심히 써 내린 글씨 연습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혀를 찼다.조심스럽게 향유를 바르며 ‘더 먹으라고 하신대도 절대 많이 먹지 마세요. 못 드시겠으면 그만 드셔도 됩니다.’ 같은 소리를 늘어놓는 저 실리는 뭐란 말인가. 그는 실리의 머릿속에 든 어떤 못된 장난꾸러기가 사춘기를 맞이했거나 갱년기를 맞이했을 거라고 짐작했다.그렇지 않고서야, 페일과 달리아가 함께 하는 티타임에 초대받은 힐을 사지에 보내는 것처럼 굴 리 없으니까.“즐기러? 하! 즐긴다는 게 무슨 뜻인 줄 모르나 봐? 경은 이제 갓 옹알이하는 핏덩이들하고 언어 수준이 비슷하신 모양인데, 사전이라도 하나 사다 드릴까요?”실리는 머크를 향해 고개를 휙 돌려 짜증 섞인 말을 내뱉었다. 침착하려 해도, 눈썹이 위로 빼쭉 솟는 것까지 어쩔 수 없었다.힐과 양손을 마주 잡고 있지만 않았어도 손에 쥔 빗을 머크에게 당장 던져버렸을 텐데. 실리는 입속으로만 불평을 늘어놨다.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 그 자리에서 달리아가 지핀 불씨는 금방 꺼질 거라는 실리의 헛된 기대와는 달리 활활 타올라, 결국 첫 티타임 날이 밝아버렸다.이 어리고 순진한 아가씨는 그저 페일을 본다는 기쁨에 젖어 온종일 바깥을 힐끔대면서 해가 어디까지 왔나 살폈고, 그 기쁨에 젖어 드는 표정을 볼 때마다 실리는 불안이라는 질척한 늪 속에 빠져들었다.“실리 피스토스. 제발 말 좀 곱게 쓰게.”실리는 머크가 인상을 찌푸리건 제게 무슨 말을 하건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온통 힐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으니까.힐의 눈꼬리가 살포시 접혔다. 커다란 나무에 매달린 나뭇잎처럼, 짙은 녹색 눈동자에 서린 것이 뭔지 힐도 안다. 자꾸 표정을 살펴보고, 몇 번씩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어깨를 끌어안았다가 다시 손을 잡아주는 것. 걱정이다.실리가 왜 힐을 걱정하는지 까지는 몰라도 실리가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만은 그의 표정으로, 행동으로 알았다.“나는 페일님 뵈러 가는 거 좋아요.”“...페일님만 계셨으면 저도 걱정 안 해요. 달리아님이 계시니까.”힐이 킥킥대며 웃었다. 맑은 목소리는 새가 지저귀는 것 같기도 했고, 대리석 위로 떨어져 고이는 작은 물웅덩이 같기도 했다.“달리아님도 좋아요. 꼭, 꼭-. 캬라멜처럼 달콤한 분이신 것 같아요.”“캬라멜요?”실리는 못 들을 걸 들은 사람처럼 굴었다. 힐의 손을 뿌리친다거나 인상을 쓴 건 아니지만 힐이 한 말 한 자락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기색으로 몸을 굳혔다. 꼭 고장 난 것처럼.실리가 고장 난 것처럼 구는 모습은 신선해서, 힐은 즐거운 마음으로 ‘네! 캬라멜이요!’라고 몇 번이나 되짚어 말해주었고, 그때마다 실리가 한층 더 고장 난 것처럼 삐걱댔다.- 똑똑“들어오세요!”힐이 낭랑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자, 하얀 문을 열고 토비가 들어왔다. 그는 서늘한 표정으로 힐의 코앞까지 다가와 고개 숙여 인사했다.“나오미님 이제 티타임에 가실 시간입니다.”흔한 인사치레 하나 없이 용건만 전달하는 불만 서린 목소리. 무례하지 않았으나 저택의 아가씨를 대하는 것치곤 방만한 자세에, 머크와 실리의 표정은 대번 찌푸려졌다.“설마 에스코트하러 오신 겁니까?”실리가 찌푸린 표정으로 토비의 앞을 살짝 가로막았다. 힐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에서 힐을 보호하려는 듯이. 잔뜩 티 나는 경계에 토비는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그럴 리가. 달리아님은 페일님과 달리아님, 그리고 나오미님 외엔 정원에 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출발하실 시간을 알려드리러 왔을 뿐이니, 그렇게 경계하실 필요 없습니다.”“네! 바로 갈게요. 실리, 머크! 저 다녀올게요!”힐이 실리의 등 뒤에서 얼굴을 빼꼼 내밀었다. 풀어둔 머리카락이 힐의 움직임을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다.“저-,”당장이라도 달려 나갈 듯 실리의 앞으로 휙 튀어나온 힐의 발걸음이 토비의 앞에서 멈췄다.토비는 자신 앞에 머뭇대는 힐을 내려보다가, 당장이라도 밖으로 달려 나가고 싶다는 듯 꼬물거리는 발에 시선이 닿았을 때야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다.“토비 델입니다. 토비라고 부르시면 됩니다.”“토비. 출발하라고 알려주러 와준 거, 고마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힐은 환한 웃음으로 토비에게 인사를 남기고 재빠르게 방을 나갔다. 실리가 만져준 덕에 반지르르한 윤기가 나는 머리카락이 힐이 달리는 궤적을 따라 금빛 잔상을 남겼다.무구한 시선. 해사한 표정. 토비는 말만 전하고 바로 몸을 돌려 별저로 돌아가려던 생각을 조금 고쳐먹었다. 그는 바로 돌아가는 대신, 머크가 앉아 있는 하늘색 소파 맞은편에 자리 잡고 앉았다.머크는 토비가 제 근처로 다가오자, 서류를 숨기던 습관 때문에 힐이 삐뚤빼뚤 글씨 연습을 한 종이를 뒤집다가 자신이 뭘 뒤집고 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토비는 무안함 가득 담긴 어색한 손짓을 못 본 척해주는 대신 그가 돌려놓은 종이 뭉치를 손끝으로 집어 뒤집고 미소를 지었다.“토끼가 커다란 당근을 물어왔어요. 여우와 토끼는 냠냠 당근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흥미로운 기밀이군요. 저는 여태껏, 여우는 육식동물인 줄 알았는데, 당근도 먹고.”“...미안합니다. 무례를 저질렀습니다.”토비의 청량감 가득한 목소리가 천천히 삐뚤빼뚤한 글씨를 읽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더 짙어지는 모습을 보던 머크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상관없습니다. 그보다 묻고 싶은 게 있는데-,”“저희는 대답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요.”실리가 머크의 옆자리에 앉으며 토비의 말을 끊었다. 그의 경계 가득한 눈빛을 받으면서도 토비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아는 만큼만 대답해주시면 충분합니다만, 아는 게 많으셔야 할 텐데요. 그래야 훗날 제게서 얻어갈 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거래인가요-. 그렇다면야, 좋습니다. 뭐가 궁금하신지?”“저 아가씨. 정말 종이었던 게 맞습니까?”토비는 제 앞에서 발을 꼼지락대며 말을 고르던 힐을 떠올렸다. 힐이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부터, 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느낀 위화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의도가 살아있는 눈. 생각하고 움직이는 버릇. 토비는 자신이 종으로 살았던 유년 시절을 떠올렸다. 종이라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진 종이라니.“...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만, 네. 맞습니다. 지금은 나오미 리즈웨이, 엘로이 후작가의 방계 아가씨죠.”“어디 종이죠? 안쪽? 아님 바깥쪽?”“안쪽이요. 아니, 잠깐만 그건 대체 왜 궁금하신 겁니까?”“아. 역시.”실리의 주근깨 가득한 콧잔등이 찡그려지는 모습을 보며 토비는 한숨처럼 은근한 긴장을 털어내고 푸스스 웃었다.‘하기야. 그 성안에서 직접 데려왔다고 했던가? 그걸 잊고 있었군. 태생부터 낮은 피일 리 없었는데.’토비는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여린 갈색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흐트러졌다. 그가 한결 편안함을 되찾고 머리를 쓸며 입을 열었다.“별것 아닙니다. 그저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죠. 나오미님의 행동은- 종들의 것이라기엔 위화감이 강해서. 어느 반역자의 따님이신가 보죠?”저처럼요. 그 가문도 알려주면 좋고, 안 알려줘도 상관없다는 듯 산뜻한 목소리였다.머크는 그제야 제 눈앞에 앉은 토비 델이 정말 종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 종들의 성에서 힐을 데려올 때 봤던 론스달라이트와 천장화가 다시금 떠올랐다.‘저자는 그 성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머크는 당장이라도 토비를 캐내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신중하게 입을 다물었다. 토비가 알고 있는지 아닌지 아직 확신할 수 없으니까. 알고 있다면야 정보를 캐내는 게 되겠지만, 그가 모르고 있다면 자신이 다른 부관들과 페일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토비 델에게 먼저 털어놓는 꼴이 돼버린다.“위화감을 느끼셨다는 게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종들의 눈을 보신 적 없군요. 보셨으면 바로 아셨을 텐데.”토비의 눈이 한껏 심각함으로 물든 실리에게 닿았다. 그는 한껏 여유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그들의 시선엔 의도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죠. 그건 글씨 쓰는 것과 달라요. 몇 달 배운다고 익혀지는 게 아니니. 하지만 나오미님은-,”토비는 힐이 빼곡히 글씨를 적어둔 종이를 팔랑팔랑 흔들었다.“생각할 줄 아시죠.”실리는 토비의 손에서 종이를 빼내고 삐뚜름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힐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져대던, 그녀가 이름을 받기 전 일을 떠올렸다.‘아가씨는 그때부터 생각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실리는 힐에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을 한 적 있지만, 한 번도 생각하는 방법 자체를 가르친 적 없었다. 그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었으니까.“생각할 줄 아시는 건 맞다 만 나오미님은 반역자의 딸이 아닙니다. 그 성에서 태어나셨는걸요. 이미, 명부도 확인했죠.”실리는 토비의 표정이 여유로움에서 당황으로, 당황에서 경악으로 번지는 과정을 조금도 놓치지 않았다.“잠깐. 그 성에서 나고 자랐다는 겁니까? 그 나이까지?”“...명부에 4926년 출생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이제부턴 제가 묻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토비는 딱딱하게 굳은 입매를 손으로 꾹꾹 눌러 표정을 정돈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린 종을 마음에 든다고 말하던 달리아의 웃는 낯이 자꾸 떠올랐다. 달리아가 위험할 리는 없지만, 위화감이 느껴지는 자와 함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초조함이 몰려왔다.실리는 토비가 표정을 정돈하는 모습을 보며 질문을 시작했다.“안쪽 종과 반역자의 딸이 무슨 상관입니까?”“반역자의 자식들이 종이 되면 남자아이는 바깥으로, 여자아이는 성안으로 보냅니다. 곱게 자란 여아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리 없으니, 그냥 가둬두는 거죠. 성안 어딘가에.그러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안쪽 종이었다면 반역자의 딸이겠거니 하는 거고.”“성안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면요?”“태어날 순 있겠지만, 자랄 순 없습니다.”토비는 단언했다. 태어날 순 있지만 자랄 순 없다고.‘아가씨의 출신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만-.’페일에게 이름을 받은 순간부터 더는 낮은 피가 아니다. 운명을 손에 쥐었으니까. 그걸 알면서도 실리는 토비를 붙들고 힐의 출신을 캐내듯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나갔다.“이유는요?”“성안은 손재주가 좋은 이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바깥 종보다 수가 적지만 할 일이 많아요. 제 할 일을 못 하면 맞아 죽기 좋고. 그런데, 출산하고 아이를 보살필 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안쪽 종 중에는 어린 애도 꽤 있던 것 같은데요.”토비의 표정에서 쓰디쓴 웃음이 피었다.“차출한 겁니다. 바깥에서. 손이 작은 어린 애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아주 틈이 좁은 유리 세공품을 닦아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차출된 어린 애는 보통 겨울을 몇 번 못 넘기고 죽어 나간다.포근한 파스텔 톤 가구들이 가득한 힐의 응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방 주인도 없는 자리에서 방 주인의 출신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꼴이라니.‘실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벌써 시간이 제법 흘러 곧 힐이 돌아올 시간이다.. 아마도 그 회색 눈 가득 맑은 하늘빛을 띄우고 기쁘게 웃으며 돌아올 테지. 실리는 그 전에 이 상황을 끝내려고 마음을 다잡았다.“토비 델, 그대가 위화감을 느낀다고는 해도 머크가 안쪽 성에서 아가씨를 모셔온 건 변하지 않습니다. 명부가 잘못 되었을 리도 없고.”토비는 여전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 긍정했다. 위화감이 드는 건 여전했고 달리아의 곁에 그 아이를 두는 게 달갑지 않은 것도 여전했지만.“게다가 아가씨는 이제 엘로이 후작가의 사람입니다. 과거에 생각할 줄 알았건, 몰랐건. 종이건 아니건.”그러니까, 더는 아가씨의 출신을 입에 담지 마. 입꼬리를 끌어당겨 웃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담긴 서릿발 같은 경고는 선명히 토비에게 닿았다.“주의하죠.”토비는 그 말을 끝으로 힐의 응접실을 박차고 나갔다. 토비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질 때쯤에야 머크는 소파에 늘어져 비속어를 웅얼대는 실리를 힐끗 보고, 토비가 앉아 있던 맞은 편 자리로 건너가 앉았다.머크가 테이블을 퉁퉁 두드렸다.“뭐야.”“저녁에 페일님과 다 함께 이야기 좀 하지.”실리가 제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올렸다.“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그래 좋아. 그런데 저 헛소리에 놀아나서 아가씨 뒷조사를 다시 하겠단 개소리를 하는 거라면, 명심해. 난 자네한테 꺼지라고 할 거니까.”“왜 화가 났는진 모르겠지만, 그건 페일님이 정하실 일이지.”머크는 자신이 힐을 데려올 때 본 것을 지금 실리에게 먼저 말하는 건 포기하기로 했다. 어차피 곧 다 함께 듣게 될 이야기를 굳이 지금 말할 필요도 없을 테니.머크는 분노로 빨갛게 달아오른 실리의 표정을 보다가, 혀를 차고 그를 끌고 힐의 응접실을 나가기로 했다. 실리는 나가지 않겠다는 듯 양쪽 팔꿈치를 손바닥으로 감싸 안고 버텼지만,“...아가씨에게 지금 자네는 해로울 것 같은데. 차라리 에드워드를 불러다 두지.”머크는 가볍게 실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를 끌고 나갔다. 물론 집무실로 실리를 끌고 가는 길에 에드워드를 힐의 방에 가 있도록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탁탁, 바닥을 딛는 플랫슈즈의 경쾌한 소리가 한껏 부푼 힐의 마음을 둥실둥실 위로 띄웠다. 오솔길이라고 부르는 게 괴상하다 여겨질 만큼 넓은 오솔길을 달리는 발걸음은 점점 빨라져서, 크고 작은 나무들이 시야 끝에 걸렸다가 사라졌다.오늘이 오길 얼마나 기다렸더라? 힐은 세기 어려울 만큼 많은 기다림이 발걸음 뒤에 남아 있을 거라고 믿었다.벅찬 마음만큼 숨이 벅차오르기 전에 힐은 걸음을 멈췄다. 햇살이 하얗게 부서지는 정오. 겨울바람을 버티고 꿋꿋하게 피어난 하얗고, 노란 겨울꽃이 힐의 시야를 가득 메웠다.“와아!”힐의 입에서 절로 감탄이 나왔다. 이미 몇 번이나 왔던 별저 근처의 겨울꽃 정원이 이렇게 예뻤던가? 힐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참 꽃잎에 이마가 닿을 듯 기웃대며 연신 감탄했다. 하얀 것도, 노란 것도 정말 예뻤다.“나오미?”힐이 꽃을 바라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쪼그려 앉아 꽃잎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고 살금살금 쓰다듬어 보는데, 그녀의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앗!”꽃잎 근처를 서성대던 손가락에 훅 힘이 들어가 수술 근처를 푹 찔렀다. 작은 손에 노란 꽃가루가 묻은 줄도 모르고 힐은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잽싸게 고개를 숙였다.“페일님! 평안하셨나요!”몸을 반쯤 접을 듯 숙인 힐 위로 페일의 긴 그림자가 드리웠다. 온통 새하얗게 부서지는 햇살 속에서 오직 캄캄한 그림자 하나. 그 그림자가 차근히 제 몸 위까지 닿을 동안 힐은 심장이 벌렁대다 못해 입으로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만약 자신이 그날 페일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달리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없었을 오늘 이 만남이 기뻐서.‘하고 싶은 거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 봐!’힐은 제 속에서 환희의 비명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다가 문득 고민에 빠졌다. 아니, 비명이라고 해도 될까?‘비명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라고 그랬는데.’한 번도 큰 소리를 내 본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로 기쁠 때 어느 정도로 크게 소리를 내야 환희의 비명인지 알 수 없었다. 소리를 질러보고 누구에게든 물어봐야 할까. 이 정도면 비명이 맞냐고 물으면 될까?아니 그전에 자신은 환희의 비명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었을까? 분명 어느 동화에서 봤을 것이다. 아, 아니면 실리의 이야기 속에서 들었을지도 모르고.페일은 자신을 앞에 두고 반쯤 접혀 있는 힐을 보았다. 좀 떨어져서 봤을 땐 바닥에 붙을 듯 쪼그려 앉아 뭔가 꼼지락대고 있더니, 이름을 부르자마자 놀란 참새처럼 날아오르듯 펄쩍 뛰었다가 다시 고개를 땅에 박을 듯 몸을 숙이고 있는 힐을.‘작아.’새하얀 겨울 햇살을 머금어 은근하게 빛을 뿜는 긴 머리카락이 금빛 폭포처럼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그 사이로 한 줌도 채 되지 않을 것같이 가느다란 흰 목덜미가 드러났다. 힐의 몸을 이룬 것 중 어느 것도 작지 않은 게 없다.페일의 시선이 조그만 뒤통수를 지나 뭔가 고심하고 있는지 꼬물대는 발끝으로 향했다.“그래. 너는 평안했나?”페일은 ‘고개를 들도록.’이라고 말하는 대신 직접 손을 뻗어 힐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일으켰다.깊게 생각에 사로잡혔다가 정신을 차린 듯 어딘가 얼떨떨한 기색 가득한 맹한 시선이 제 눈과 맞닿아 왔다.“네…, 네! 음, 어쩌면 아닌 것 같아요.”아마 색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 보고 페일은 손에 낀 가죽 장갑을 벗고 온기가 남은 손가락으로 힐의 미간을 슬쩍 눌러 펴주었다. 타인에게 손을 대는 것도, 제 살에 타인이 닿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 그로서는 꽤나 충동적인 손짓이었다.“왜?”“오늘을 엄청나게 기다렸거든요. 매일 매일 기다렸어요. 기다린 거를 모으면 열 명이 세도 다 못 셀 만큼요.”음, 그러니까 아마도요. ‘아마도’를 덧붙이는 목소리는 확신할 수 없다는 듯 작게 기어들어 갔다. 페일은 어리숙한 아이 앞에서 결국 웃음을 터트렸다.‘페일님이 웃으셨어.’힐에게 기쁨과 호기심이 깃들었다. 기쁨은 그녀의 입가에 함지박 만하게 걸렸고 호기심은 말간 눈망울에 선명한 총기로 아로새겨졌다. 페일은 언젠가 제 부관 중 누군가가 했던, ‘아가씨는 눈을 떼기 어려운, 아니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분입니다.’라는 말이 떠올랐다.‘과연. 그럴 만도 해.’아주 잠깐 사이에도 변하는 표정과 눈빛. 자꾸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어설픈 몸짓이 자꾸만 시선을 잡는다.고운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여 키워도, 페일이 본 다른 귀족 아이처럼 온실 속 화초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온실 속에 몰래 핀 들꽃 같은 아이.“뭘 하고 있었지?”페일은 힐의 미간에 닿은 손을 자연스럽게 마주 잡는 말랑말랑한 손끝에 가득 묻은 꽃가루를 보고 물었다. 쪼그려 앉아 대체 뭘 했기에 손이 이렇게 꽃가루투성인지를.“꽃을 봤어요. 음, 만지기도 했어요.”힐은 다른 부관들이나 에드워드에게 그랬듯, 마주 잡은 페일의 손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마를 비비고 뺨을 기댔다. 페일은 손을 빼지도 않았고, 싫은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다. 묘한 눈길로 제 손등에 닿은 뺨을 내려볼 뿐.“있잖아요, 꽃잎은 동그랗고 따뜻한 색이라도 만져보면 차가워요. 그리고 폭신하게 생겼어도 말랑말랑하지 않아요.”제가 알아요. 만져봤어요. 힐은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듯 작게 소곤댔다. 페일은 손등 위로 작은 숨이 느껴지는 게 간지러웠지만 뿌리치는 일 없이 가만히 그 말을 들어주었다.이런 말랑한 대화는 이어나갈 줄 모르는 페일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응은 가만히 듣기인지라, 그는 힐이 조잘대는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힐은 슬금슬금 페일의 눈치를 보다가 조개처럼 입을 합 다물었다.슬금슬금 페일의 푸른 눈을 곁눈질하며 눈치를 보기도 했다.“...하고 싶은 이야기가 끝났나?”페일은 더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기색을 담아 말했지만, 힐은 그 기색을 읽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벼운 침묵이 페일과 힐 사이에 머물렀다.‘따뜻하다.’힐은 침묵 속에서 뺨과 맞댄 페일의 손등으로 그의 온기를 즐겼다. 그 온기에 집중할수록 두근대는 그의 맥박이 들려오는 게 좋았다. 편안한 기분이 들어서.그 안락함을 만끽하던 힐이 슬금슬금 페일의 몸쪽으로 등을 붙었다. 등을 기대려고.‘이러다가 닿겠는데.’페일은 힐의 몸이 점점 제 쪽으로 기울자 따라서 몸을 조금씩 뒤로 물렸다. 자신이 이름을 주고 방계로 받아들였다고는 하나, 귀족 영애가 된 몸인데. 저 무방비한 등에 자신이 닿으면 안 될 것 같아서.이미 어깨를 잡아 올린 전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 등에 자신이 닿는 건 좋지 않단 생각이 머릿속 어디에서 자꾸만 고개를 번쩍 드니까.힐은 몸을 주춤주춤 뒤로 물리고, 페일은 매끄럽게 조금씩 뒤로 물러섰다. 넓은 오솔길 한쪽 끝에 서 있던 그들이 반대쪽 끝까지 물러섰다. 페일의 발치에 들꽃이 밟히는 소리가 사박댔다.“와! 분홍색이에요!”힐은 고개를 내려 소리가 난 쪽을 살피다가, 페일이 밟은 곳 옆에 활짝 핀 담홍색 수선화를 발견하고 그 꽃으로 손을 뻗었다.페일은 순식간에 온기가 빠져나가 텅 빈 제 손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바닥에 들러붙을 듯 쪼그려 앉아 또 꽃을 향해 손을 뻗는 힐의 어깨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다.“바닥에 그렇게 주저앉는 건 좋지 않아.”힐이 조막만 한 손을 앞으로 모아 꼬물대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풀이 죽은 걸까. 페일은 그녀의 기색을 지켜보다가, 다시금 입을 열었다.“꽃을 좋아하나?”“네! 좋아해요. 냄새가, 아니 향기가 좋고 비슷한 거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 다른걸요.”페일은 잠시 주변에 온통 만개한 꽃 무리를 보다가 자세히 보면 다 다르다는 말을 부정했다. 속으로만.“페일님은 꽃을 좋아하시나요?”꽃 무리를 살피던 페일의 시선이 힐에게 닿았다. 서늘한 겨울바람이 불었다. 꽃들이 흔들리고, 힐의 원피스 자락도 둥글게 피어올랐다. 사람을 대할 때면 눈을 보라고, 제 부관 중 누군가가 가르쳤을까? 페일은 자신과 눈을 똑바로 마주하는 힐을 보며 문득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아닐 테니까. 저 아이는 이름을 내리기 전에도 자신을 저렇게 똑바로 보던 것 같아서. 아, 이름. 페일은 문득 이름을 내리던 날을 떠올렸다.몸이 버거울 만큼 제 속에서 팽창하던 힘이 전부 빠져나간 후의 탈력감이 먼저 떠오르고 나면 고통에 덜덜 떨며, 식은땀에 절어가면서도 제 손을 뿌리친 적 없던, 깡마른 힐도 함께 떠오른다. 그리고 그날 자신이 느낀 소름 끼치도록 만족스러웠던 충족감도.“...그다지 좋아하지 않아.”페일은 나부끼는 아마 색 머리카락을 그러모아 동그란 귀 뒤로 넘겨주며 쓰게 웃었다. 정오의 햇살 겨울바람 속에서 힐이 말간 눈을 하고 나눠준 온기가 자꾸만 손에 눌어붙은 것 같아 그는 다시 가죽장갑을 끼고 등을 돌렸다.“좋아하지 않으신다기엔 정원에 꽃이 많은데요?”페일이 등을 돌린 곳에는 달리아가 웃고 있었다. 선명한 주홍빛 눈을 빛내며. 페일이 입꼬리를 끌어당기며 짧게 눈짓으로 인사를 건넸다. 달리아는 우아하게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숙여 페일의 인사에 답했다.하나로 느슨하게 땋아 내린 오렌지색 머리카락과 선명한 바다 빛 드레스. 그 위로 두른 진줏빛 모피까지. 달리아는 어느 한구석도 선명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페일은 달리아에게서 제 뒤로 시선을 옮겼다.힐이 원피스 자락을 손에 쥐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 다시금 묘한 표정이 서렸다.“어머나, 예의 바르기도 하지. 고개 들렴, 나오미.”달리아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페일을 지나쳐, 힐의 손을 붙잡았다.“칭찬 감사합니다.”힐이 다시금 고개를 꾸벅 숙이려 들자, 달리아는 재빨리 힐의 턱을 잡고 조그만 얼굴을 이리저리 훑어보다가 만족스레 웃었다.“귀여워라. 여기서 당장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겨울바람이 생각보다 차서 말이야. 예정하곤 좀 달라도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달리아가 자신의 배를 살짝 쓰다듬었다. 힐은 눈을 돌려 잠깐 페일을 살폈다. 이거 자신이 그러자고 대답해도 되는 걸까? 페일님이 계시는데도? 힐의 시선이 페일과 닿자, 페일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마치 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힐은 그제야 함박웃음과 대답을 달리아에게 들려줄 수 있었다.“네! 좋아요!”달리아도 힐의 시선에 어린 기색을 몰랐던 건 아니라서, 그녀는 기뻐하는 힐의 뺨을 쓰다듬으면서 페일을 향해 살짝 눈을 흘기다가 ‘흥’하고 고개를 돌렸다.달리아가 힐을 다시금 끌어안고 자신이 머무는 별저 응접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페일은 따로 입을 여는 대신 묵묵히 그녀의 뒤를 느긋하게 따라 걸었다.“제법, 깔끔해졌군요.”페일은 힐과 달리아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자신의 별저에서 가장 큰 응접실을 훑어보았다. 달리아가 자신에게 별저를 뜯어고치게 해달라 할 때까지만 해도 별저는 머크가 고심해서 선정한 파스텔 톤 카펫과 커튼, 몽실몽실해 보이는 귀여운 가구로 가득했었다.이 응접실은 특히 더했고. 페일은 잠시 머크가 어디선가 구해온 토끼 모양 소파를 떠올리며 픽 웃었다.“몇 군데는 제대로 치워뒀죠. 페일님께선 제가 당신의 부관을 살려둔 걸 감사하셔야 해요.”“기꺼이. 몇 번이라도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달리아는 다시 생각해도 짜증이 치솟아 팔짱을 끼고 깃털 부채 끝으로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페일은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짐짓 정중하게 주먹 쥔 손을 가슴에 대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정-말-, 진심 없는 인사는 필요 없어요.”비록 그게 달리아를 더 짜증 나게 했을지라도. 페일은 ‘그렇습니까.’라고 말하곤 입을 닫고 제 앞의 찻잔을 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찻물은 은근한 꽃향기가 났다.힐은 달리아와 페일의 대화를 두근두근한 맘으로 듣다가 페일이 찻잔을 들자 얼른 제 앞에 놓인 코코아를 들어 한 모금 꿀꺽 삼켰다.‘달다!’입술 끝에 남은 코코아를 혀로 훑자, 다시금 진한 단맛이 느껴졌다. 따끈하고 달고. 힐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입에 맞니?”“네! 엄청 맛있어요!”“아하하. 귀엽기도 해라. 그래. 이 후작저엔 이런 게 그다지 없지.”정갈한 것들을 주로 먹는 엘로이 후작가에 코코아는 있어도, 지금 힐이 마시고 있는 것처럼 혀가 녹아버릴 듯 진한 코코아는 없다. 달리아는 자신이 잔뜩 공수해온 달콤한 것들을 상기하며 뿌듯하게 웃었다.달리아는 자신이 아끼는 달콤한 것들을 몇 가지 꺼내 손수 힐의 입에 직접 물려주었다. 그때마다 힐의 눈이 반짝임을 더해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아, 참.”한참 힐에게 단 것을 먹이고, 이따금 페일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긋함을 만끽하던 달리아가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부딪쳤다. 힐와 페일의 시선이 달리아에게 모였다.“선물을 잊었네요. 오늘 뵙자마자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참.”달리아는 연극을 하듯 손을 맞잡고 산뜻한 웃음을 지었다. 진한 주홍빛 눈망울이 예쁘게 휘었다.“윈터.”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피부가 검은, 무뚝뚝한 표정의 여자가 응접실 안으로 걸어들어왔다. 윈터는 달리아의 옆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검고 긴 망토 위로 윈터의 새하얀 머리카락이 어지러이 늘어졌다.“자아- 나오미. 내가 주는 선물이야. 네 레이디스 메이드란다.”힐의 시선은 언뜻 보이는 윈터의 피부에 닿았다. 저만큼 검은 피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힐이 검은 피부를 본 곳을 떠올렸을 때, 윈터가 고개를 들었다. 힐과 윈터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다.‘아.’흰 코. 흰 코와 같은 피부다.‘아니, 흰 코 언니보다 더 까만색인가?’힐은 윈터와 눈을 마주치기 전까진 흰 코와 비슷한 검은 피부에 시선을 쏟았다. 밤처럼 캄캄한 피부는 손을 대보고 싶을 만큼 윤기가 났다. 손도, 옷 깃 새로 드러난 목덜미도.힐의 시선은 바닥에 닿아 있는 무릎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 무릎 위에 댄 손을 지나고 목덜미를 지나 잡티 하나 보이지 않는 얼굴을 훑고 윈터의 눈에 닿았다.이를 드러낸 들짐승처럼 사나운 눈.유리알처럼 매끄러운 눈동자 속에는 사나운 기색이 가득했다. 당장이라도 목덜미가 물어뜯길 것처럼 오싹한 긴장감에 힐이 코코아 잔을 움켜쥐었을 때, 윈터가 눈을 내리깔고 단정한 미소를 지었다.“윈터입니다. 모쪼록 편하신대로 불러주시길.”잔뜩 낮고 갈라진 목소리일 것 같단 힐의 기대를 박살 내는 높은 목소리. 힐은 그 목소리에 놀라 잠깐 눈을 둥글게 떴다가 높은 목소리는 높은 목소리대로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 다시금 석상처럼 몸을 굳혔다.“인사를 받아주렴.”미동도 없이 굳은 힐을 달리아가 재촉했다. 힐은 제게 꽂히는 달리아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손을 배 앞에 모았다.“...나오미 리즈웨이...예요. 잘 부탁해요, 윈터.”달리아는 깃털 부채를 펴 웃음기 가득한 얼굴을 살짝 가렸다.“당신의 정보원 중 하나입니까?”어물대는 힐의 목소리와 달리아의 기쁜 표정이 묘하게 페일의 신경을 긁었다. 페일은 팔꿈치를 제 무릎에 대고 손을 깍지 껴 입술을 지그시 누른 채, 아직 바닥에 무릎을 대고 있는 윈터를 턱 끝으로 가리켰다.“그럴 리가. 윈터는 제가 아끼는 아이 중 하나일 뿐이에요.”“아끼는 아이라. 그대가 아끼는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데려왔습니까?”달리아는 부채를 접고 윈터에게 손짓했다. 윈터는 달리아의 손짓에 착실히 몸을 일으켜 힐의 뒤편에 섰다. 뒤에 누군가 서는 게 익숙하지 않은지 자꾸 돌아가려는 고개를 애써 앞으로 빳빳이 고정하는 모습에 달리아가 다시금 웃음을 터트렸다.페일은 테이블 위를 손끝으로 소리 나게 툭툭 쳤다. 자신의 말에 대답이나 하라는 듯이. 대답을 강요하는 손짓에 달리아의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다.달리아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옅은 한숨을 뱉었다. 페일이 윈터에 대해 관심을 가질 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윈터를 힐에게 붙이자마자 이렇게 파고들 줄이야.‘적어도 보고서 한 장 쓸 시간은 줄 거로 생각했는데.’윈터가 힐의 등 뒤에 서도록 그냥 두는 것을 보면 레이디스 메이드로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셈일까? 달리아는 자신을 재촉하는 페일을 보며 그가 한발 물러섰음을 느꼈다. 윈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내면서도 직접 그녀를 캐려 들지 않으니까.상대방이 한발 뒤로 물러났다면 자신도 물러나야 한다. 짐승 앞에서 물러날 때를 모르고 다가가다간 목덜미를 뜯기기에 십상이니까. 저 물러남이 경계의 의미라면 더더욱.“따로 보고서를 올릴게요. 부디 지금은 티타임을 즐겨주시길. 저희의 티타임은 그리 길지 않을 테니까요.”달리아는 페일의 빈 찻잔을 채워주었다. 흰 손이 우아하게 움직여 찻잔을 채우고 금빛 찻물에 각설탕을 퐁당퐁당 떨어트렸다.“기다리겠습니다만, 그동안 당신이 아끼는 아이를 본저에 들이진 않을 겁니다.”페일은 설탕을 잔뜩 찻잔에 떨어트리며 웃는 달리아에게서 찻잔을 가로챘다. 그리고 찻물에 다 녹지 못할 만큼 설탕이 잔뜩 든 찻잔에 입술을 대고 단숨에 들이켰다. 혀가 아려올 만큼 다디단 맛.그가 테이블에 팽개치듯 내려놓은 찻잔에는 다 녹지 않은 설탕이 바닥에 잔뜩 남아 있었다. 페일은 아린 혀끝을 살짝 깨물었다가 놓고,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뜨겁고 단 것이 식도를 타고 뱃속까지 데우는 느낌이 소름 돋게 선명했다.“그럼 오늘의 즐거움은 이만하지.”페일은 힐의 손목을 잡아 일으켰다. ‘앗’하는 작은 음성이 새어 나올 틈도 없이 빠르게.“...급하신 분. 네, 그럼 아쉬움은 다음의 즐거움을 위해 남기죠. 부디 조심히 돌아가시길.”응접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페일과 그의 뒤로 팔랑팔랑 쫓아가는 힐의 뒤로 달리아의 인사가 은근하게 따라붙었다.쿵.열린 응접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이치지 않도록 윈터가 문을 닫았다.“나오미한테 말하는 척하면서 나한테 반말하는 거, 너무 티 난다고요. 속이 아주 바늘구멍만 한 남자 같으니.”달리아가 제 팔에 얼굴을 묻고 소파에 눕듯 길게 늘어지며 조용히 웅얼댔다. 엘로이의 주인은 제 맘에 차지 않는 것과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을 곁에 두지 않는다.“그리고 타협하지 않지.”자신도 제 성에 차지 않는 것과 타협하지 않으니, 그를 욕할 순 없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과 한배를 탄 인물 아닌가? 그렇다면 조금 더 여지를 열어두면 좋겠는데. 달리아는 눈을 꾹 감았다가 떴다.“후. 윈터. 계획은 실패야. 바꿔야겠어.”“달리아님 뜻대로 하십시오.”“그거 고맙네. 그래도 네가 저 아이의 레이디스 메이드가 되는 건 변하지 않을 테니, 일단은 기다려.”달리아가 손을 뻗어 윈터의 뺨을 쓰다듬었다. 윤기가 도는 살갗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네 핏줄엔 이렇게 피부가 부드러운 애들이 많았어?”“글쎄요. 타인의 피부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습니다.”“흐응, 그래?”윈터는 눈을 내리깔았다. 하얀 속눈썹이 아래로 내려앉는 모습은 하얀 눈이 잎사귀를 잃은 고목에 내려앉는 것처럼 경건한 풍경을 자아냈다.핏줄끼리 정이 깊진 않은가 보네. 조용히 읊조리며 달리아가 매끄럽게 웃었다. 자신과 일시적으로나마 한배를 탄 페일은 경계를 늦추는 법이 없고, 여지를 주는 법이 없다. 달리아는 자신의 앞에 있는 윈터를 지긋이 바라봤다.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던 자신의 귀한 패, 붉은 안개가 창궐할 때 안개 속으로 도망친 낮은 피 일족의 몇 안 되는 생존자 윈터.“그럼, 정리할까. 머크, 실리. 너흰 토비 델의 이야기를 내게 전하러 왔고, 론은 회의한단 말을 듣고 왔을 테고, 에드워드는?”페일은 힐을 데리고 자신의 응접실로 돌아오자마자, 방 안 가득 옹기종기 모여있는 제 부관들과 에드워드를 보고 설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평소라면 차분히 정리된 대답을 건넬 이들이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했다.“저는... 붙잡혀 왔습니다.”에드워드는 곤란한 기색 가득한 얼굴 위로 우아한 미소를 그렸다. 힐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선별하느라 잔뜩 주문한 책을 정리하던 차에 에드워드의 서재를 박차고 들어온 실리와 머크가 다시 떠올랐다.영문도 모르고 힐의 방에 가 있으라는 말에 얌전히 책 세 권을 들고 그녀의 응접실에 자리 잡고 앉아 책을 읽고 있으려니,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론과 함께 나타난 머크가 자신을 끌고 이곳으로 데려왔다.페일은 붙잡혀 왔단 에드워드의 말에 무슨 말이냐는 듯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였지만, 자신이 여기 왜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에드워드는 그에게 무슨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다.“흐음-. 그럼 일단 토비 델이 했다는 그 이야기부터 듣지.”머크와 실리가 번갈아 늘어놓는 이야기를 전부 듣고, 페일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자신의 응접실 테이블 앞에 둘러앉아 있던 제 부관들과 에드워드를 훑어봤다. 어딘지 불만과 불안 가득한 낯을 하나씩 훑어보던 페일의 시선이 에드워드 옆에 찰싹 붙어 앉은 힐에게 닿았다.토비 델이 머크와 실리에게 떠들어댔다는 말을 모두의 앞에서 함께 전해 듣고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얌전히 쿠키를 오독오독 앞니로 물어대는 모습이라니. 페일은 그 의연함이 맘에 들어 피식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그런 건 당사자에게 묻는 게 가장 좋겠지. 나오-,”페일이 힐에게 묻겠다는 듯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하자, 가뜩이나 좋지 못했던 실리의 표정이 단박에 일그러졌다. 실리는 잔뜩 구겨진 표정으로 페일의 말을 끊었다.“페일님! 아가씨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직접 물으신다니요. 적어도 그런 건 사람이 없을 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내가 아는 건 그대들도 금방 알게 될 텐데 뭐하러. 번거롭게.”아. 저 엉망인 낯짝은 토비 델이 했다는 말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 앞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해서 그랬나? 페일은 턱 끝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상체를 앞으로 내밀고 실리의 얼굴을 응시했다.이야기를 시작하기 전보다 표정이 나쁜 것 같기도 하고.저 실험에 미친 자가 제법 사람 같은 소리를 하는 게 흥미로웠다. 타인의 감정이 어쨌건 조금도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힐에게 토비 델의 말을 전하면 그녀의 기분이 상할까 걱정하다니.실리는 페일이 자신을 관찰 중임을 깨닫자 입을 꾹 다물고 잿빛 머리카락을 연거푸 뒤로 쓸어넘겼다. 머리카락이 전부 뽑혀 나갈 듯 우악스러운 손길로.“그런 건 뒤에서 이야기 도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게 제일 좋아. 나오미.”“녜에.”페일이 자신을 부르자, 힐은 크랜베리가 잔뜩 박힌 오트밀 쿠키를 얼른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힐의 주먹 두 개만큼 커다란 쿠키를 잔뜩 밀어 넣은 뺨이 통통하게 부풀고 발음이 엉망으로 샜다.“머크. 나오미에게 우유를.”머크는 재빨리 응접실 한쪽에 놓인 장식장에서 크리스털 잔 하나를 꺼내 유리병에 담긴 우유를 반쯤 부어 힐에게 내밀었다.힐은 너무 크게 삼키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우유를 마셨다. 고소한 우유가 입안에 가득한 크랜베리의 단맛을 부드럽게 씻어냈다.“감사합니다!”힐은 살짝 입가를 더듬었다. 다행히 입가에 동그랗게 우유 자국이 남진 않았다. 입가에 동그란 우유 자국도 남기지 않고 아주 훌륭하게 우유를 마신 게 기뻐서 입가에 절로 미소가 피었다.“그래. 질문을 계속할까. 나오미 종들의 성에서 지낼 땐 어땠지?”페일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쩐지 기뻐 보이는 힐을 가만히 보다가 실리가 질색하는 질문을 꺼냈다. 페일과 론, 힐을 제외한 모두의 표정이 굳었다.“어, 음. 어떤 걸 말씀드려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페일은 잠깐 침묵을 지켰다. 종들의 성에서 지낼 때 어땠는지 묻는 건, 토비 델이 힐에게 느낀 위화감의 정체를 아느냔 소리였지만 아마도 이해하지 못한 듯해서.‘종이냐고 물어봐야, 종이라고 대답할 테고.’페일은 고민 끝에 하나씩 묻기로 했다. 그는 힐이 낮은 피로 태어나서 종이 건, 높은 피로 태어나 종이 되었건 상관없었다. 자신이 이름을 내리기 전에 그녀가 뭐였건 알 게 뭐란 말인가?‘어차피 이 아인 나오미인데.’페일의 입가에 배부른 맹수 같은 미소가 걸렸다. 나오미는 나오미. 나의 것이다. 이름을 내린 후 신경 끝에 항상 이 아이가 걸려있다. 조금도 거슬리지 않는 이 아이의 존재감이 항상 페일의 곁에 있다.“천천히, 하나씩 하지. 어릴 땐 뭘 했나?”고민하던 페일은 제 부관들의 불안을 풀어주기보단 자신의 궁금증이나 풀기로 했다. 종들이 하는 일이야 얼추 알지만, 힐이 어떻게 자랐는지 듣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으음, 아주 어릴 때는, 그러니까 아직 걸을 줄 모를 때엔 아무것도 안 하고 바깥만 봤어요.”“...아가씨 너무 어릴 때인 거 같은데요. 그때도 종들의 성안에 계셨어요?”실리가 불쑥 끼어들었다. 힐은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네. 저는 방이 바뀐 적 없어요. 항상 꼭대기 방에 있었어요.”힐은 천천히 자신이 살았던 방과 가끔 자신을 돌아주던 어느 종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늘 이야기를 듣는 쪽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다니. 힐의 흰 뺨이 조금 상기되었다.“그럼 나오미, 더 자라고서는 뭘 했지?”힐은 한동안 말을 골랐다. 종들의 성에서 한 일, 한 일이라.‘일, 일을 했는데.’힐은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 내려갔다. 바느질 종이 되었던 날을 지나고 허드렛일을 맡았던 날을 지나 더 먼 곳으로. 가장 처음 맡았던 일은 아마도,“으음……. 아직 와인 잔에 손이 들어갔을 때는 와인 잔을 닦았어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해서 아궁이에 불을 땔 때까지만요.”와인 잔을 닦는 일이었던 것 같다. 여린 유리로 섬세하게 만들어진 와인 잔. 그 잔 속에 손이 들어가는 어린애들만 모여 마른 천을 손에 감아쥐고 조심스럽게 잔을 닦았었다.“...아궁이에 불을 땔 때요?”“네. 부엌일 하는 종들이 처음 스튜를 끓이기 전에 불을 때요. 음. 시간으로 치면 아침 6시쯤일 거예요.”아마도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단 말을 덧붙이며 힐은 어색하게 웃었다. 지금도 모르는 게 많지만, 그땐 모르는 게 더 많았고, 시간은 특히 어려운 것이라. 힐은 열 살이 넘어갈 때까지 시간 개념이 없었다.어색한 미소를 짓는 힐을 보며 에드워드는 이를 악물었다. 시선을 살짝 아래로 내리는 것, 꼬물거리는 손가락. 또 무언가 몰랐다는 걸 머쓱해 하는 거겠지.‘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적어도 에드워드에게는 힐이 과거에 뭘 몰랐건 그런 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되려, 힐이 견뎌야 했던 것들에 있었다.‘와인잔에 손이 들어갈 만큼 작았을 때부터 고된 노동을 했다고.’그는 힐의 말을 속으로 찬찬히 되뇌고 속을 끓이면서도 그 어떤 말도 꺼내질 못했다.낮은 피는 높은 피를 위해 존재하는 것. 황폐한 곳에서 인간을 위해 마물을 물리치고 평화를 안겨줄 높은 피를 위해서만 산다.에드워드는 목이 타는 기분에 목에 꼭 동여맨 크라바트를 살짝 끌러내렷다. 한 번도 몰랐던 적 없는 그 이야기가 이제 와 현실의 탈을 뒤집어쓴다. 에드워드는 힐을 위로할 말을 찾고 싶었지만 어떤 단어도 찾을 수 없어 침묵을 택했다.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낮은 피라서 힘들었겠다고? 혹은 이제는 높은 피이니 그런 노동은 없을 거라고? 그는 아직도 꿈지럭대는 힐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욕망을 간신히 속으로 누르며 힐의 표정을 살폈다.천진한 눈동자에는 머쓱함이 서렸을지언정 조금의 괴로움이나 슬픔도 없다.원하지 않는 위로는 기만이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힐을 위로하고 싶은 건지, 자신이 힐이 받았을 고통에 속을 끓인다고 알려주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에드워드의 얼굴이 홧홧하게 붉어졌다. 후자인 것 같아서.에드워드는 손등으로 제 눈을 꾹 눌렀다. 기만이다. 희생을 살아온 자에게 건네는 얄팍한 위로의 탈을 쓴 기만. 그 탈을 벗기면 자신이 얼마나 힐을 생각하는지 알아주길 바란다는 치졸한 욕망이 도사린다.에드워드의 낯이 혼자 붉었다 하얗게 변하고 다시 붉어지길 반복하는 와중에도 침묵은 이어졌다.“우리 아가씨는 성실하시니 그때도 쉼 없이 일하셨겠죠. 힘드셨겠네, 우리 아가씨.”침묵을 깨준 건 실리였다. 힐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손을 꼼지락대다가, 실리의 목소리에 고개를 빼꼼히 세웠다. 해변의 모래알같이 은근히 반짝이는 하얀 미소가 힐의 만면에 피어올랐다.“힘은 들었는데, 어-. 그때는 힘들다는 말을 몰랐으니까 그냥 컵을 닦았어요.”“그때는 말을 배우기 전이었나요?”“아 아니요! 말을 할 줄은 알았는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말을 배우려면 말을 들어야 한다. 힐은 아주 오래전 기억을 뒤져 어두컴컴한 부엌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입을 열어 말을 할 줄 알았던 아이는 몇 없었고, 가끔 작달막한 아이들을 살피러 오던 다 자란 종들은 다 자란 종들은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 해’ 같은 말은 했지만 ‘힘들다' 같은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지금보다 더 작았던 자신과 아직은 살아있던 자신 또래의 종들.겨울이 올 때마다 하나씩 죽어 사라지던 아이들. 차가운 손을 붙들고 서로 뺨을, 등을 맞대 나누던 미적지근한 온기. 힘들다는 말은 몰랐어도 서로의 고됨은 알았던 그 시절은 힐의 안에서 미적지근한 온기로 남아 있다.모두가 회상에 잠긴 힐을 보며 침묵을 지켰다. 힐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간 많이 배워서, 이제는 안다. 자신은 그곳에서 무수한 것을 느껴왔으나 그걸 묶어둘 말을 몰랐다.“그땐 몰랐지만, 더 크고 나서는 힘들다는 말도 알았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생각하면 손이 느려지잖아요? 손이 느려지면 혼이 나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안되는 거래요.”“안된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나?”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파란 눈이 힐에게 닿았다. 힐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여 긍정했다.“네. 저를 보살펴 준 친구가 있어요. 코가 하얀색이라서 흰 코라고 불렀어요. 흰 코가 종은 생각하면 손이 느려지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자주 알려줬어요.”다정한 흰 코. 내 가장 오랜 친구. 힐은 흰 코를 자주 보지 못했지만 보면 한결같이 좋았다. ‘노랑아'라고 불러주거나 먹을 것을 나눠주는 다정함. 힐이 받아본 다정은 대부분 흰 코가 준 것이다.“흰 코? 재미있는 호칭이네요. 종들은 서로 특징을 따서 부른다더니. 아가씨는 뭐라고 불렀나요?”페일이 ‘흰 코’라는 이름을 되뇌는 모양새를 보다가 실리는 손뼉을 치고 시선을 자신에게로 모았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은 미소로 가볍게 질문을 던졌다.“절 부르는 말은 많았어요. 아주 작을 땐 세 번째로 작은 애였고, 조금 더 크고는 굼벵이나 느림보였어요. 생각 안 하기를 잘 못 해서 손이 느렸거든요.”힐의 입매가 부드럽게 휘었다. 과거를 회상하는 눈. 회색빛 눈동자에 담긴 건 괴로움이나 고통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것이라 바로 옆에서 힐을 보던 에드워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꼭 미간을 펴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굴었다.그딴소리를 들은 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는 걸까. 에드워드가 시커멓게 탄 속을 그대로 꺼내 들어 물음을 던지기 전에 힐이 말을 이었다.“가끔은 저를 노랑이라고 불러주기도 했어요. 저는 노랑이라고 불러주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에드워드는 ‘노랑이'라는 단어를 신음처럼 읊조렸다. 아마 빛 머리카락에서 따와 정말 아무렇게나 부른 듯한 그 단어가 제일 좋았다니. 그것도 정말 별로인데.“노랑이와 나오미, 어느 쪽이 좋지?”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힐이 조금씩 풀어놓는 이야기를 듣던 페일이 물었다. 시리도록 파랗고 깊은 눈이 거울처럼 빛나는 회색 눈망울 속에 담겼다. 힐의 눈망울을 통해서 보이는 푸른 눈은 까마득히 깊은 바다처럼 짙푸른 빛을 냈다.“나오미가 좋아요.”페일은 힐의 상기된 뺨이 한층 더 붉어지고 야트막한 미소는 이를 드러내 보이는 커다란 웃음으로 변하는 과정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응시했다.흰 뺨에 깊게 팬 볼우물.‘나오미가 좋아요.’ 그 말이 어쩐지 몇 번이고 다시 들리는 것 같아 페일은 그녀를 따라 웃었다.그렇군. 나오미인 게 좋다면, 그거면 충분하지. 페일은 포만감처럼 차오르는 어떤 만족감에 푹 잠겼다. 그녀를 이용해서 하려는 모든 것을 이제서야 허락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힐이 노랑이를 골랐어도 그녀를 다시 노랑이로 만들어 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으면서.“자, 그럼 티 타임은 여기서 끝낼까. 나오미, 에드워드. 너희는 저녁 식사 때 보지.”“네!”“초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힐은 저녁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기쁘게 웃었다. 에드워드는 힐의 어깨를 조심스레 쿡 찌르고는 고개 숙여 페일에게 예의 바른 인사를 남겼다. 힐도 어설프게나마 그를 따라 인사를 남기고 응접실 밖으로 떠났다.“아이들의 간식 시간은 끝났고. 이제 어른들의 시간을 가져볼까.”페일이 제 앞에 앉은 자신의 부관들을, 아직도 할 말이 가득 남은 듯한 표정들을 훑어보고 낮게 웃었다.“일단, 머크. 할 말이 있다고 했나. 말해봐.”“감사합니다.”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머크는 허튼소리를 했다간 재미없을 거라고 협박하는 듯 쏘아보는 실리의 시선을 무시했다.“종들의 성에 대해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종들의 성이라. 들어보지.”“아가씨를 쫓아간 종들의 성에서 론스달라이트와 이 종족 천장화를 발견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종들의 성에 대해 조사를 미처 마치지 못해 늦어졌습니다.”페일의 눈썹이 위로 쓱 치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페일은 손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다가, 곧 더 자세히 말해보라는 듯 머크에게 손짓했다. 머크는 자신이 힐을 쫓아 종들의 성으로 갔던 것과 그 성의 비밀 통로를 걸었던 것, 그리고 힐이 머무는 방 바로 앞에서 발견한 천장화를 상세히 설명했다.“알맹이는 빠져있군.”페일은 설명을 다 들었을 때쯤, 그렇게 평가했다. 머크는 별다른 말을 덧붙이는 대신 고개를 숙였다. 중요도를 낮게 잡고 성을 조사하는 걸 한참이나 미뤄온 건 그였으니, 별달리 할 말도 없었다.“그래도 론스달라이트라니. 먼저 확보할 수 있다면 적지 않은 수확입니다.순도가 낮아도 다른 광물에 섞어 쓸 수 있다면야 부식되지 않는 검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양도 엄청난 것 같고. 실리는 턱을 쓰다듬었다. 성의 비밀 통로 자체를 론스달라이트로 깔아놓다니. 이 나라에 그만한 매장량이 있을 리는 없고. 어디서 가져온 걸까? 아니, 그 전에 론스달라이트를 성에 깔아 둘 이유가 있나? 몇몇 질문이 머릿속을 빠르게 헤집고 돌아다녔다.“조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머크, 그대가 당장 할 일이 뭐가 남아있지?”“마물들이 요구한 자들을 추려 보내야 합니다. 붉은 안개 북쪽 끝까지 직접 인솔할 생각입니다.”페일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손짓에 점점 힘이 실렸다. 종래에는 저 테이블을 뚫고 싶은 건가 싶을 만큼 세게.“붉은 안개 북쪽 끝이면 국경지대로군.”국경지대 비타. 다른 왕국과 통하는 가장 큰 육로가 있던 곳. 그곳에서 제물을 받겠다니.마물들이 국경지대에서 제물을 받겠다는 건 그 근방의 괴물들을 모조리 처리해두겠단 소리나 다름없으니 환영할만한 일이었지만 페일은 굳은 표정을 펼 수 없었다. 그들의 의도를 도통 알 수 없어서.“그대는 종들의 성을 조사하도록. 비타로는 내가 간다. 일정은?”“3주 후까지 도착해야 하니 다음 주에는 출발해야 합니다.”“좋아. 론, 후작가에서 열, 왕국 군은 오십 차출한다. 세부 사항은 알아서 준비해.”페일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모로 기울였다. 목 끝까지 단추를 채운 커프스 셔츠와 한 자락도 흐트러지지 않은 옷차림은 느슨한 자세와 맞물려 묘한 위압감을 주었다.“나흘 후까지 준비 마치겠습니다.”“실리.”“나흘 후까지 연금술사 열과 마법을 쓸 줄 아는 자 셋을 준비하겠습니다. 제물들은... 출정하시기 전까진 세뇌를 마치도록 힘쓰겠습니다.”실리는 페일이 따로 언질 주지 않아도 자신이 할 일을 줄줄 읊었다. 페일은 그게 퍽 마음에 드는 듯 턱을 괴고 고개를 까닥였다.‘그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면 캐내면 그만이지.’라휄, 그자가 무슨 생각으로 국경지대에서 제물을 받고자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순순히 비타로 제물을 바치러 갈 생각은 없다. 자신이 마물들 앞으로 나선다면 그건 출정이어야 마땅하다. 그래, 출정. 우글대는 괴물을 잡는 것도 라휄의 멱을 딸 포석을 까는 것도 모두 출정일 테니.이미 마물 중 하나가, 그것도 라휄과 항상 함께 붙어 지내는 파라가 무희를 취했다.‘블레어였던가?’파라가 그 무희에게 내린 이름이. 그때도 세뇌해두긴 했지만 이름을 내릴 거라곤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무언가 캐낼 시도를 하기도 전에 무희에게 건 세뇌가 깨져버렸다.“이번엔 세뇌가 오래가길 빌어.”“...최선을 다하겠습니다.”실리는 주먹을 쥐고 가슴 앞에 댄 채로 고개를 숙였다. 페일은 푸른 빛 로브를 걸치고 있는 실리를 응시했다. 최선을 다한 다라. 페일은 입꼬리를 끌어당겼다. 실리의 최선은 페일을 배신한 적 없었음을 상기하며.실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페일에겐 이번엔 이름을 내린다고 바로 세뇌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처럼 들렸다. 지독히도 오만한 낯 위로 만족이 짙게 깔렸다.“마물이 제물 중 하나만 취해도 라휄, 그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캐내긴 쉬워질 테지.”여럿을 취한다면 더 좋고. 페일이 낮게 읊조린 말에 실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가 간신히 들어 올렸다. 제 주인의 말은 한마디, 한 마디가 지나치게 무겁다. 늘 그랬지만.페일은 응접실 테이블로 길게 드리운 노을을 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주었다. 그리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벌써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다.“자, 나머지는 식사 후에 이어서 하지.”페일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품속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살폈다. 본저의 식사 시간이 코 앞이다. 평소라면 응접실로 식사를 준비하게 하거나, 이야기를 마친 뒤에야 식당에 내려갔을 테지만 오늘은 저택의 꼬마들과 선약이 있으니까.실리는 후작저 지하에 자리 잡은 제 연구실로 돌아오자마자 입고 있던 푸른 로브의 끈을 쥐어뜯듯 풀고 거칠게 벗어 던졌다. 차가운 돌바닥으로 풀썩 고꾸라지는 두꺼운 로브. 실리는 그 위로 무너지듯 주저앉아 깊게 숨을 들이켜고 내쉬었다.두꺼운 로브를 깔고 앉아도 바닥의 한기는 여전한데 왜 속이 부글부글 끓는 느낌은 가시질 않는 건지.실리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제 속을 달랠 약을 찾아 서랍장 앞으로 비척비척 걸어갔다. 그가 조그만 서랍을 열어 희뿌연 액체가 가득 찬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들었다. 실리는 병을 두어 번 크게 흔든 후에야 코르크 마개를 뽑고 안에 든 내용물을 그대로 삼켰다.원액을 그대로 삼킨 까닭인지, 혀끝부터 위장까지 얼리듯 퍼지는 싸한 허브향에 실리는 눈을 꾹 감았다. 짙은 녹안이 눈꺼풀 안으로 숨어들었다.“아, 젠장.”가죽 속에 든 것들이 꽁꽁 얼어붙는 기분은 썩 나쁘지 않았다. 끓어오르던 속이 덩달아 조금 편해지기 무섭게 생각하고 싶지 않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단숨에 붕 떠올라 그는 작게 욕지기를 내뱉었다.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평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출정을 알리던 제 주인 페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차마 그를 마주 보지도 못한 채 바닥을 향해 ‘다시 떠나시나요?’라며 울음섞인 질문을 내뱉던 어린 아가씨가 뒤따라 떠오른다.그 어린 아가씨의 자그만 손이 희게 질릴 만큼 나이프를 꾹 쥐던 모양, 슬픔을 억누르던 먹먹한 목소리와 물기 어리다 못해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던 회색 눈망울 같은 것들과 함께.“머리가 좋은 건 정말 피곤하다고.”무언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잇달아 연관된 모든 게 줄줄이 끌려 나오고 마니까. 실리는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다분히 진심 섞인 말을 중얼댔다. 꼭 농담처럼.그가 양손을 모아 쥐고 미간을 꾹 눌렀다. 힐의 올망대는 모습의 꼬리를 물고 벼락처럼 저녁 식사 후 회의에서 자신을 응시하던 페일의 서늘한 푸른 눈이 떠올랐다.실리는 몸을 부르르 떨다가 고개를 완전히 아래로 떨궜다.집사가 올린 저택 예산안을 팔랑팔랑 넘겨보던 페일이 고개도 들지 않고 묻던 말이 다시 귓가에 생생히 들려오는 것 같아서.- 실리, 나오미는 언제쯤 준비가 끝날 것 같나?“...나오미는 언제쯤 준비가 끝날 것 같...나.”실리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페일의 말을 제 입으로 다시금 끄집어내 읊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등 뒤를 타고 흐르던 그 긴장감이란. 그 물음에 제가 뭐라고 답했더라?실리는 자신이 뭐라고 답 했는지 떠올렸다. ‘아가씨는 아직 너무 작으셔서요. 적어도 2년에서 3년은 더 자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던 것 같다.“멍청하기 짝이 없는 소릴 했어. 실리 피스토스.”실리는 자신을 훑던 페일의 묘한 시선을 떠올리고는 피식 조소했다. 애초에 그 조그만 아이를 왜 키우기로 했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던 멍청한 자신을 향해.어린 종을 ‘나오미 리즈웨이'로, 엘로이 후작가의 방계 아가씨로 키우는 건 오직 연회에 데려가 라휄에게 제물로 던져주기 위함이다. 무턱대고 종을 연회에 들여보낼 수 없으니 페일의 방계 아이로 들이자 자신이 직접 주장하지 않았던가.“그 역겨운 새끼들이 사람만 달라고 했으니 그냥 줘도 그만인데.”그 역겨운 마물들이 사람을 바치길 원하는 건 끔찍한 일이지만 그들로서는 힐을 연회에 데려갈 필요 없이 바로 바칠 기회였음을, 실리는 페일이 자신을 응시할 때에야 깨달았다. 그것도 한참 그 시선을 받아낸 후에 겨우.‘제물들 사이에 아가씨만 함께 끼워 보낼 생각을 못 했다니.’실리는 저의 멍청함을 탓하고 탓하다가 뒤통수로 돌벽을 쿵 내리쳤다. 뒤통수에서 얼얼한 통증이 퍼지고서야, 그는 자신이 그 생각을 못 한 게 아니라 애써 떠올리지 않아 왔음을 인정했다.“전부 아가씨 때문이에요….”실리는 몇 번이고 연거푸 얼굴을 쓸어내리다가 결국 차가운 돌바닥 위에 주저앉아 양손에 얼굴을 묻었다. 실리는 이제야 자신에게 자꾸 뻗어오는 그 작고 말랑한 손에 홀려버렸음을 인정했다.자꾸 안아주는 게 아니었다. 자꾸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었다. 뒤늦은 후회가 하나, 둘 머릿속에 떠올랐다.그 작은 아가씨가 섞여들고 나서 모든 풍경이 엉망진창으로 일그러졌다. 살가운 것이라곤 조금도 없던, 차갑고 무거운 경직된 분위기의 후작저 속에 따끈하고 말랑한 작은 아가씨가 들어온 이후로 죄다 엉망이다.힐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은 몽땅 푹신한 카펫이 깔렸다. 그뿐인가? 디저트는 점점 달콤해지고 식전 차는 새콤한 히비스커스 티에서 깔끔한 캐모마일 티로 바뀌었다.“...그걸 지시한 건 나고.”머릿속에 뒤죽박죽 엉켜있던 것들 위로 ‘믿지.’라고 짧게 말하던 페일의 묘한 낯이 한 커풀 덮어 씌웠다. 실리는 양손에 파묻은 고개를 들고 한참을 웃다가 뚝 입매를 굳혔다.다시금 정신을 붙잡아야 할 때다.마물 몽 아벨라는 질척대는 검은 땅 위에서 한참이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파라를 기다렸다. 혼혈종이 뿌려댄 시커먼 오염은 코가 아릴 만큼 역겨운 냄새를 풍겨대서 몽 아벨라는 몇 번이고 파라가 오건 말건 라휄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맘을 애써 가라앉혀야만 했다.몽 아벨라가 ‘이젠 더 못 참겠다.’고 중얼거린 횟수가 세 자릿수가 넘어갈 무렵, 그는 코를 찡긋댔다.‘단내가 나.’몽 아벨라는 잡아 취하고 싶고, 씹어 삼키고 싶은 아찔한 단 내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의 땅을 발로 툭툭 쳤다. 그의 발길이 닿은 질척한 땅이 서서히 얼어붙으며 단단해졌다.몽 아벨라가 주변 땅을 단단히 얼리는 일이 끝나갈 즈음에 그의 귓가에 긴 파공음이 꽂혔다. 그가 얼린 땅 위로 파라가 사뿐히 발끝을 딛고 섰다.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져 내렸음에도 품에 안은 것에는 충격 한 톨 가지 않도록 조심스레.몽 아벨라와 파라의 시선이 맞닿았다. 몽 아벨라가 파라에게로 걸음을 떼며 인사를 하려는 듯 입을 열려는 찰나,“몽 아벨라님!”파라의 품을 비집고 반짝이는 보랏빛 눈동자를 품은 여자가 통통 튀듯 걸어 나와 몽 아벨라의 품에 덥석 안겨들었다. 몽 아벨라는 품에 안겨든 사람을 마주 안으며 키득키득 웃었다. 하얗게 쭉 뻗은 발끝이 경쾌하게 땅을 박차는 모양은 꼭 사슴이 초원을 콩콩 뛰노는 것과 닮았단 생각이 들어서.몽 아벨라는 코끝에 훅 끼치는 아찔한 단내와 슬쩍 퍼지는 아릿한 기운에 입맛을 다셨다. 몽 아벨라를 빤히 응시하는 파라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이 다디단 무희를, 파라에게 이름을 받은 여자를 핥아 맛을 봤을지도 몰랐다.“오랜만이야, 블레어. 오느라 고생하진 않았고?”몽 아벨라는 살짝 코를 찡긋대다가 블레어의 긴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주었다. 블레어는 그 손길이 싫지 않은 듯 보랏빛 눈동자를 부드럽게 휘었다.“저는 괜찮았는데, 파라님은 힘드셨을 거예요.”“내가? 고작 너 하나 데려오는데 내가 힘들리가.”파라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블레어를 향해 손을 뻗었다. 몽 아벨라의 품에 안겨있던 그녀의 뺨을 가볍게 쓸고 팔을 끌어당겨 제 품에 가두려고. 블레어는 맑은 웃음소리를 내며 순순히 파라의 품에 안겼다.블레어는 고개를 들어 잔잔한 미소가 서린 파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몽 아벨라를 인상 쓰게 하고 블레어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미소가 보랏빛 눈에 한가득 담겼다.몽 아벨라는 시선을 얽는 파라와 블레어를 쫓아내듯 손을 휘휘 저었다.“어휴. 얼른 라휄님께나 가버려요. 한참 기다리셨어요.”“건방진 몽 아벨라같으니. 그렇지?”불만 서린 몽 아벨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파라는 비밀 이야기를 나누듯 블레어의 귓가에 작게 속삭이고 동그란 귓바퀴에 작게 입을 맞췄다.블레어는 따스한 입술이 내려앉는 촉감이 간지러워 키득대다가, 제 손을 잡아 이끄는 파라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보랏빛 눈망울 가득 반짝이는 행복감이 차올랐다.“라휄님께 가나요?”“그래. 너를 보고 싶어 하셔서.”파라는 얼어붙은 땅을 골라 디디는 블레어와 보폭을 맞추다가 이내 그녀를 번쩍 안아 들었다. 보드라운 머리카락이 파라의 보라색 머리카락 위로 겹쳐지듯 흐드러졌다.“앗! 파라님! 직접 걸을 수 있는데…!”“이 땅은 전부 오염된 곳이니, 네가 밟아 좋을 게 없어.”파라는 블레어의 허벅지 뒤쪽을 한쪽 팔로 받쳐 들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블레어는 약간 뾰로통한 표정으로 입술을 비죽 내밀다가 이내 파라의 어깨를 짚고 주위를 둘러보았다.“여기가 검은 땅인가요….”검은 땅. 곳곳에 매캐한 안개가 떠돌고 검게 물든 흙으로 가득한 곳. 혼혈종의 사체가 널브러진 곳. 블레어는 파라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실었다. 이곳을 향해 출발할 때 이미 파라에게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던 이곳 풍경은 블레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스산하고 어두웠다.“블레어? 왜 그러지?”파라는 블레어의 말끝이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블레어에게로 눈을 돌렸다. 주홍빛 눈 가득한 의아한 기색. 블레어는 찬찬히 파라의 목덜미를 끌어안았다.“땅이 검고 스산해요. 꼭, 발이라도 디뎠다간 저도 까맣게 변할 것 같아서 겁이 나요.”블레어가 파라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파라는 블레어의 숨결에 짙게 배어든 달콤한 향에 입을 꾹 닫고 한참 숨을 참았다.‘먹으면 사라진다. 먹으면 사라진다고.’파라는 당장이라도 블레어를 한입에 넣고 삼켜버리고 싶은 충동을 물리치려고 끝없이 자신을 가다듬은 후에야 입을 뗐다.“밟는 건 괜찮아. 혼혈종에게 닿아도 괜찮고. 너는 내 것이니 쉽게 다치지 않지. 다치게 두지도 않을 것이고.”블레어는 파라가 이름을 내린, 파라의 것. 블레어는 파라의 목덜미에 고개를 박고 킥킥 소리죽여 웃었다. 파라가 자신에게 이름을 내리던 순간부터 맘속에서 퐁퐁 솟는 파라를 향한 애정과 갈구는 이런 순간에도 멈출 줄을 모른다.블레어는 파라의 목덜미를 입술로 콱콱 물었다. 조그만 선홍빛 입술이 구릿빛 목덜미를 꾹 물고 몇 번 우물대고 슬금슬금 놓을 듯 굴다가 다시 합 물고.파라는 블레어가 만족할 만큼 몇 번이나 자신의 목덜미를 물어도 이따금 잇새로 앓는 소리를 낼지언정 그녀를 타박하거나 가로막지 않았다.“저를 혼내지 않으세요?”“...아무도 널 혼내지 않아.”블레어는 잔뜩 만족한 표정으로 파라의 목덜미에서 고개를 들었다. 블레어는 붉게 달아오른 파라의 옆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그의 보랏빛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어 한쪽으로 모았다.“하하. 다들 제겐 관대하시죠.”블레어가 맑게 웃었다.“그래. 우리는 네게 제법 관대한 편이야.”그녀의 희고 매끄러운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에 정신이 팔린 파라 대신, 파라의 등 뒤에서 어느새 다가온 라휄이 그녀의 말에 무심하게 대꾸했다.“아. 라휄님.”파라는 블레어를 제 발등 위에 올리고 그녀가 중심을 잡고 설 수 있도록 가느다란 허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라휄에게 인사를 건넸다.“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블레어, 그리고 파라.”“별말씀을요.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블레어는 자신의 허리를 꼭 잡아주는 파라의 팔뚝 위로 하얀 손을 올리고 라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굳이 고개 숙일 필요 없어. 그보다 이제 보니 너흰 사이가 좋군.”“나쁘진 않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블레어를 찾으신 이유를 이제는 알려주시죠.”파라가 블레어의 눈 위로 커다란 손을 덮어 가렸다. 라휄은 저를 블레어를 빼앗으려는 불한당 보듯 긴장한 기색으로 바라보는 파라를 약간은 한심함을 담아 내려보다가 쯧쯧 혀를 찼다. 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린 인간 아이도 파라만큼 대놓고 행동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며.“파라. 머리통을 달고 태어났다면 머리를 좀 쓰도록.”도리스와 만나고 난 직후에 블레어를 데려오라 언질 줬지 않나. 라휄은 머리를 굴려 제 뜻을 어림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파라의 머리통을 내려치는 대신 블레어의 눈을 가린 파라의 손등을 끌어 내리고 그의 발등에 올라선 블레어를 향해 손을 뻗었다.“블레어, 잠시 나와 가지.”“어디로 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블레어는 당장이라도 라휄의 손을 잡을 듯 살짝 손을 들어 올리며 나긋한 목소리로 물었다. 라휄은 제 말을 들을 듯 사근사근하게 굴면서도 바로 따르지는 않는 블레어를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다.“이 세상이 시작된 곳에. 그곳에 네가 만나줬으면 하는 자가 있다.”“라휄님! 블레어와 도리스에게 간다뇨?”라휄은 다시금 혀를 찼다. 마물의 인내심이란 늘 그렇듯 보잘것없는 것이라. 딱 살아온 만큼만 쌓인 티끌 같은 인내심이 뚝 끊겼다. 그가 감히 제 말을 끊고 끼어든 거로도 모자라 목소리를 높인 파라의 뒤통수를 향해 손을 뻗으려던 찰나, 블레어가 라휄의 손을 잡았다. 라휄의 노을빛 눈동자가 블레어에게 닿았다.“기쁘게 따를게요.”블레어는 라휄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자신의 손등 위에 입을 살짝 맞췄다. 고개를 드는 블레어의 낯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불만 따위는 없다는 듯한 은은한 미소가 가득 차올라 있었다.‘눈치도 빠르고 사근사근하고. 다른 이의 기분을 맞출 줄 알고.’파라가 자신에게 한 대 얻어맞을까 봐 먼저 나섰을 블레어. 그녀의 보랏빛 눈동자를 빤히 응시하는 라휄의 입가에 드물게 흡족한 미소가 어렸다.“잘 생각했다. 자 그럼 이리로.”라휄은 미소를 띤 채 블레어를 파라에게서 받아들었다. 그는 불안하게 흔들리던 도리스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저 멍청한 파라와 함께 갈 순 없지만, 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시 그의 곁에 돌려보내겠다고 맹세하지.”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 황량한 안개 섬. 블레어는 섬 위에 발을 디딘 후로 한동안은 도무지 입을 열 수 없었다. 짙게 깔린 안개와 그보다 밀도 높은 침묵이 가득한 곳. 바람 한 점 허락하지 않는 곳은 발소리마저 숨을 죽이는 곳이라.“라휄님, 이곳이 세상이 시작된 곳인가요?”블레어는 한참을 주위를 두리번대다 몇 발자국 앞에서 그녀가 자신을 따라오길 기다리던 라휄에게 속삭이는 듯한 작은 물음을 던졌다. 라휄이 고개를 끄덕였다.“그래. 여기서 세상이 시작되었지.”라휄의 시선이 빛 한 점 들지 않는 곳을 훑었다. 한때는 더없이 아름다웠으나 이제는 모든 영광을 잃고 쓰러지는 중인 세상의 시작점을.“서두를까. 머무르며 구경하기엔 좋은 볼거리가 있는 곳도 아니니.”블레어의 시선이 라휄에게 닿았다. 누런 흙먼지와 어슴푸레한 회색 안개 가득한 곳에서 홀로 빛나는 고고한 자, 자신이 이제껏 마물님이라고 불렀던 종족 ‘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남자에게.밤하늘을 꼭 빼닮은 남색 머리카락과 매끈한 피부는 세월을 모두 비껴간 듯했으나 단정한 눈매에 담긴 화려한 노을빛 눈동자는 비껴간 모든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단단한 바위조차 한 줌 먼지로 스러질 긴 세월을 담은 눈빛을 지닌 아름다운 남자는 어쩐 지 익숙한 이곳의 색채와 지독하게 잘 어울렸다.“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도 어쩐지 익숙한 곳이에요.”걸음마다 뿌옇게 피어오르는 누런 흙먼지의 색감도, 시야를 메우는 새벽빛보다 어둡고 두터운 회색빛 안개도. 조용한 침묵 사이로 호기심을 담은 무구한 눈빛이 말을 재촉할 것 같은 곳.자신이 바지런히도 드나들던 종들의 성, 가장 높은 첨탑. 그곳에 항상 붙박여 침묵을 살던 어린 종을 떠올리게 만드는 색채에 블레어는 작게 미소지었다. 자신이 찾아낸 그 어린아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던 순간에 자신을 찾아와 준 유일한 친구, 느림보.이곳은 그 아이의 아마 빛 머리칼이나 회색 눈과 꼭 닮은 색이 가득 찬 곳이다. 블레어는 이 폐허에 서린 침묵이 그 아이의 침묵처럼 느껴서 발끝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모든 긴장이 단박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가요, 라휄님.”라휄은 단번에 모든 긴장이 날아간 듯 미소짓는 블레어의 표정과 한결 가뿐해진 말투가 의아한 듯 그녀를 빤히 응시했으나 블레어는 말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라휄의 곁에 섰다. 라휄은 그녀를 캐묻는 대신 블레어를 이끌고 묵묵히 도리스가 있을 동굴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라휄과 블레어는 한참을 묵묵히 걸었다. 블레어의 숨이 살짝 가빠졌을 때, 라휄은 걸음을 늦추고 블레어에게 질문을 던졌다.“파라가 너를 홀대하진 않던가?”“그럴 리가요! 파라님은 제게 언제나 상냥하세요.”블레어는 느려진 라휄의 걸음에 맞춰 아주 천천히 걸으며 몇 번 숨을 고르고 방긋 웃었다.파라를 주제로 하는 대화는 블레어가 최근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 블레어는 머릿속으로 파라를 떠올렸다. 선이 짙은 눈썹과 구릿빛 피부, 잔뜩 다부진 몸을, 그리고 자신의 눈보다 훨씬 짙고 선명한 보라색 머리카락을.파라는 거친 외양에서 오는 위압감 따위야 어찌 되었건 블레어의 앞에서는 늘 순한 양처럼 굴었다. 쩔쩔매듯 말을 붙이고, 블레어가 웃으면 얼굴을 잔뜩 일그러트리며 마주 웃어준다.블레어는 파라와 지낸 시간을 머릿속으로 곱씹으며 파라와 자신이 최근에 즐기는 놀이나 이야기, 함께 춤을 추던 어느 달밤 같은 것을 하나씩 이야기했다.“그 아이는 네가 맘에 드나 본데.”라휄은 블레어의 이야기 속에서 잔뜩 다정한 자로 미화된 파라가 마뜩잖다는 듯 눈썹을 치켜올렸다가 픽 웃었다. 파라가 라휄의 눈앞에 선 이 달콤한 향을 풍겨대는 인간 아이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게, 블레어의 이야기 곳곳에서 티가 났다.“으으-, 그런 거라면 정말 기쁠 거예요.”블레어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앓는 소리를 냈다. 얼굴을 반쯤 가린 손 틈으로도 붉어진 뺨과 빛나는 보랏빛 눈동자에 서린 기쁨이 보였다.“블레어. 너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드나?”“그런 질문은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네. 저는 파라님이 아주 좋아요.”블레어는 얼굴을 가린 손 위로 눈을 빼꼼히 들어 라휄과 눈을 맞췄다. 이름을 받던 순간 제 속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던 애정은 날로 부피를 더해 블레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채우고 잔잔히 흘렀다.“그런가. 그 아이가 네 맘에 들어 다행이야.”“파라님을 아이라고 부르시는 분은 라휄님 뿐일 거예요.”“내겐 어린아이니까. ”블레어는 커다란 파라가 어린아이로 칭해지는 게 못내 귀여워, 참지 못하고 맑은 웃음소리를 터트렸다. 작은 새의 지저귐 같은 웃음소리가 텅 빈 곳 위로 잔잔히 흘렀다.“저는 열 여덟 번의 여름과 열 여덟 번의 겨울을 살았는데, 라휄님은 몇 번을 사셨어요?”“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라휄은 블레어가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는 가파른 절벽 앞에 멈춰 서서 블레어를 향해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블레어가 그의 손을 마주 잡자, 라휄은 그대로 블레어를 안아 들고 훌쩍 절벽 위를 날아오르듯 뛰어 절벽 반대편에 발을 디뎠다.“확실한 건 네가 말하는 겨울과 여름이 생기기 전부터 살았지.”라휄은 용케 비틀거리지 않고 바로 서서 땅을 딛는 블레어를 잠시 내려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가 시선을 돌린 곳에는 커다란 동굴 입구가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와! 예쁜 게 많이 있네요.”블레어는 라휄의 시선을 따라 동굴 입구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입구 바로 옆, 조금만 시선을 주어도 눈이 멀어버릴 듯 광채를 뿜는 금은보화가 켜켜이 쌓인 곳에 시선을 뺏겼다. 블레어의 주먹만 한 붉은 루비로 만든 조각상부터 순금을 녹여 별러낸 칼 따위가 엉망진창으로 섞여 널브러져 있는 곳에.‘인간은 저런 게 좋은가?’라휄은 하던 이야기도 잊고 감탄을 내지르는 블레어를 힐끔 보다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진귀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훑었다. 자신도 도리스도 이따위 것들엔 관심이 없었지만, 이곳을 드나드는 인간이나 이 종족들은 이곳에 올 때마다 그들이 귀히 여기는 저런 보화를 품고 와 바치곤 했다.“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네가 가져도 좋아. 이곳에 머무는 이는 이런 것엔 관심이 없으니.”가진다는 것에 뜻을 둬본 적 없는 그로서는 고작 반짝대는 돌덩이에 심히 기뻐하는 인간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아뇨. 가지고 싶지는 않은걸요. 그보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음, 이곳에 머무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블레어는 진주와 투명도가 높은 노란 토파즈를 알알이 엮어 만든 목걸이에 손을 뻗어 매끄러운 진주알을 더듬으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목걸이도, 이곳에 쌓인 다른 것들도 진귀한 것투성이에 하나같이 아름다웠으나 자신이 갖기에는 지나치게 과분한 것들뿐이라.블레어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말하는 대신 말을 돌려 이곳에 머무는 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이름은 도리스. 성정이 고운 자는 아니니 말을 주의하는 게 좋아. 자세한 건 만나보면 알겠지만-, 아.”라휄은 이만 들어가자는 듯 턱 끝으로 동굴 안쪽을 가리키며 도리스 이야기를 늘어놓으려다가 짤막한 감탄사와 함께 입을 다물었다. 블레어가 자신의 등 뒤로 고정된 라휄의 시선에 의아함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앗-!”등 뒤에서 뻗어온 손이 블레어의 손목을 잡아챘다.“성정이 곱지 않다니. 누구 덕에 이 땅이 깨지지 않았는지 은혜도 모르는 소릴.”블레어의 등 뒤에서 비웃음 가득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블레어는 모든 것을 내리누를 것 같은 서릿발 같은 음성에 고개를 뒤로 돌리려던 것도 잊고 몸을 굳혔다.“밤의 냄새가 나. 네가 데리고 다니는 그 꼬맹이 냄새. 이건 밤인가?”그렇다고 밤 냄새는 아닌데. 도리스는 작게 속삭이며 블레어의 손목 안쪽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맥박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맥박에 맞춰 닿는 차가운 손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힉.’도리스가 블레어의 목덜미에 코를 묻었다. 블레어의 몸이 움찔 떨렸다. 도리스의 내리깐 눈이 라휄에게 닿았다.“파라와 함께하는 아이니까 파라의 냄새가 나겠지.”라휄은 짜증 서린 도리스의 눈빛을 담담히 받아냈다. 도리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얼굴이 희게 질려가는 블레어와 다르게.“네게 위안을 좀 줄까해서 이곳까지 데려왔으니, 좀 더 잘 맡아봐 도리스. 다른 냄새가 더 날 텐데?”도리스는 미간을 모으고는 블레어의 목덜미에서 살짝 고개를 들었다가, 부드러운 은빛 머리칼의 감촉 틈으로 느껴지는 다디단 체향에 다시금 고개를 숙였다.“...!”다디단 살 내음. 그 틈에서 옅게 느껴지는 새벽 숲 내음. 여린 잎사귀에 내려앉은 이슬이 내는, 혹은 이끼 틈에 서려 있을 듯한 향. 도리스가 아주 길고 긴 시간을 그리워해 왔던 향이 블레어의 목덜미에서 어렴풋하게나마 느껴졌다.“아주 흐릿하지만, 정령의 냄새가 나. 너 가호를 받았다던 인간이구나.”도리스가 입술을 꾹 물고 고개를 들었다. 어둑한 심해를 담은 눈이 블레어의 보랏빛 눈망울 바로 앞까지 바짝 붙어왔다.블레어는 바로 눈앞까지 다가온 눈동자 속에서 거친 풍랑을 읽었다. 지독한 그리움과 서러운 애정이, 그리고 실낱같은 증오가 엉망으로 엉켜 휘몰아친다. 블레어는 눈이 마주친 것만으로도 그 괴로운 감정에 함몰돼버릴 것 같았다.그 풍랑은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 홀로 정령을 잃고 그리워하며 생을 견디는 도리스, 홀로 무너지는 법도 스러지는 법도 잊어버린 초월자의 것이라. 블레어는 견디기는 커녕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블레어의 보랏빛 눈망울에 눈물이 고였다.“도리스 그만.”도리스는 라휄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눈 안을 떠돌던 풍랑이 삽시간에 가라앉았다. 도리스는 그제야 자신의 감정에 동화해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떠는 블레어를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았다.“뭐야, 이 애는? 지금 내게 동화한 건가?”동화한다는 건 그 개체의 감정을 나누는 것. 도리스가 열어주지 않은 감정을 멋대로 비집고 들어와 동화한 자는 여태껏 없었다. 단 한 번도.도리스는 일방적 동화에 당황했다. 마음 같아서야 블레어를 붙들고 대체 어떻게 했느냐 캐내고 싶었지만, 자신이 손을 대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몸을 떠는 블레어가 죽어버릴까 봐 주춤주춤 뒤로 몇 발자국 떨어졌다.블레어가 서서히 바닥으로 무너져갈 때, 어느새 다가온 라휄이 블레어의 팔을 낚아채고 그녀의 눈을 가려주었다. 도리스의 풍랑에 붙박였던 시선이 검게 막혔을 때야 블레어는 거친 숨을 뱉으며 눈물을 뚝뚝 떨궜다.“대답해 라휄. 이건 뭐야?”“내가 묻고 싶군. 도리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네 기운을 어린것에게 멋대로 흘려 넣지 마.”도리스가 블레어에게 기운을 쏟아 넣은 줄로만 아는 라휄은 표정을 찌푸리고 자신의 기운을 블레어에게 조금씩 흘려 넣었다. 밤의 기운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블레어의 몸을 조금씩 녹진하게 진정시켰다.“내가 기운을 흘려 넣었다고? 그럴 리가. 저 어린 게 멋대로 내 감정에 동화했어.”도리스는 짜증을 억지로 꾹 누르고 으르렁대듯 말을 뱉었다. 한자씩 뚝뚝 끊기는 음성만이 도리스의 분노를 대변했다.“그거, 인간이 아니지?”라휄은 비틀비틀 몸을 가누는 블레어의 등을 받쳐주며 도리스를 바라봤다.“인간이었지. 지금은 파라에게 이름을 받았으니, 밤이다.”“설마. 인간일 리 없지. 인간이 내게 동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리스는 가라앉은 눈으로 한참이나 라휄을 응시했다. 라휄은 입을 다물고 도리스를 살폈다. 다른 개체의 감정에 멋대로 동화해 읽는 건 멋 옛날 창조나 써먹던 능력이다. 고작 열여덟 해를 산 인간이 할 수 있을 리가.‘블레어를 도리스에게 잠깐 보여주려고 했을 뿐인데.’정령의 향을 조금이나마 머금고 있는 블레어를 보여주면 당장 바스러질 듯 굴던 도리스의 정신이 조금은 더 버틸 것 같아서. 라휄은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혀를 찼다.라휄과 도리스는 한참이나 입을 다물고 서로를 살폈다.침묵을 깬 건 블레어였다. 한동안 라휄이 건네주는 기운에 의지해 몸을 추스른 블레어는 제 눈을 가린 라휄의 손을 떼어내고 후들대는 다리를 움직여 도리스의 앞에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인사했다.“저는 블레어예요. 아름다우신 분, 이름을 여쭈어봐도 될까요?”“...도리스.”블레어는 입을 가리고 밭은기침을 토해내면서도 생긋 웃음 지었다. 도리스는 또다시 블레어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 볼까 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땅을 응시했다. 한참이나.도리스는 제 속에서 치켜든 블레어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단번에 날아가는 것을 느끼고 속으로 신음을 삼켰다. 눈을 마주보긴커녕 의심조차 쉽사리 이어갈 수 없는 것은 한번 인식하고 나니 계속 코끝을 맴도는 정령의 냄새 때문일까.블레어에게서는 처음 향을 인식했을 때보다 묘하게 더 짙은 향이 느껴졌다. 이건 자신의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 향이 짙어진 걸까.“아픈가?”도리스는 연신 기침을 하는 블레어의 발끝을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블레어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꾸 기침이 올라와 도리질만 쳤다. 그 조그만 몸짓을 지켜보던 라휄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무사히 파라의 곁에 데려다준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하구나. 이만 돌아갈까.”도리스가 관심을 보이는 건 나쁘지 않았으나, 그게 블레어가 고통을 무릅쓸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 블레어는 이제 밤. 라휄은 고작 세상의 수명을 조금 더 늘려보자고 밤에 속한 어린 것을 희생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으니까.“잠깐, 데리고 가려고?”이렇게 궁금증만 잔뜩 안겨두고 이대로 떠난다니. 도리스는 굽슬굽슬 굽이치는 긴 청록빛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올리며 블레어를 곁눈질 했다. 묻는 와중에도 블레어의 거친 숨소리가 신경 쓰여서.도리스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꾹 눌러 감았다가 떴다.그리곤 온갖 진귀한 것들이 쌓인 곳에서 블레어가 만지작거리던 목걸이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여주었다. 탁한 곳 하나 없이 뽀얀 진주와 말간 광채를 내는 토파즈는 조심성이라곤 없는 투박한 손짓에도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도리스님 이걸 왜 제게…?”“인간은 이런 걸 좋아하지? 가져가. 그리고 몸을 치료하고서 다시 와.”